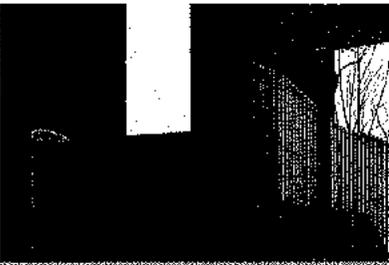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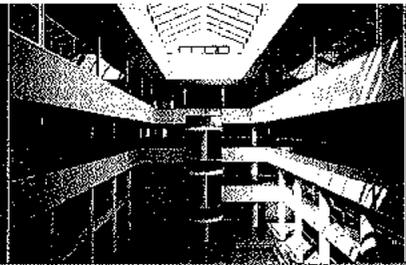


K  
U  
P  
E  
R  
I  
O  
D  
I  
C  
A  
L  
P  
U  
B  
L  
I  
C  
A  
T  
I  
O  
N



#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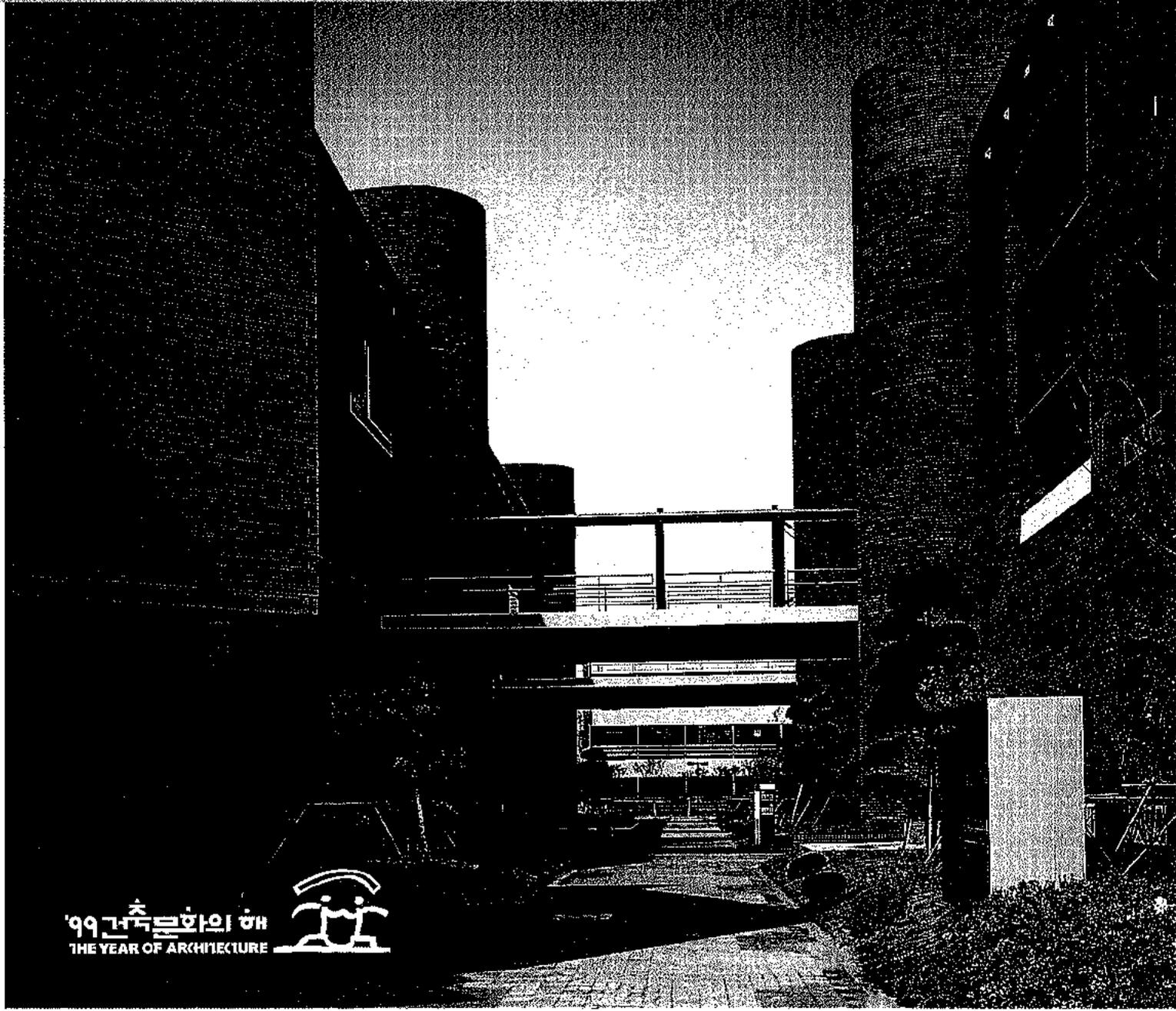
1999 6 vol. 362

석출리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상토론 비평: 우리건축의 진정한 합의를 위하여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2) - 진주, 마산, 창원

기획진단 새로운 시대정신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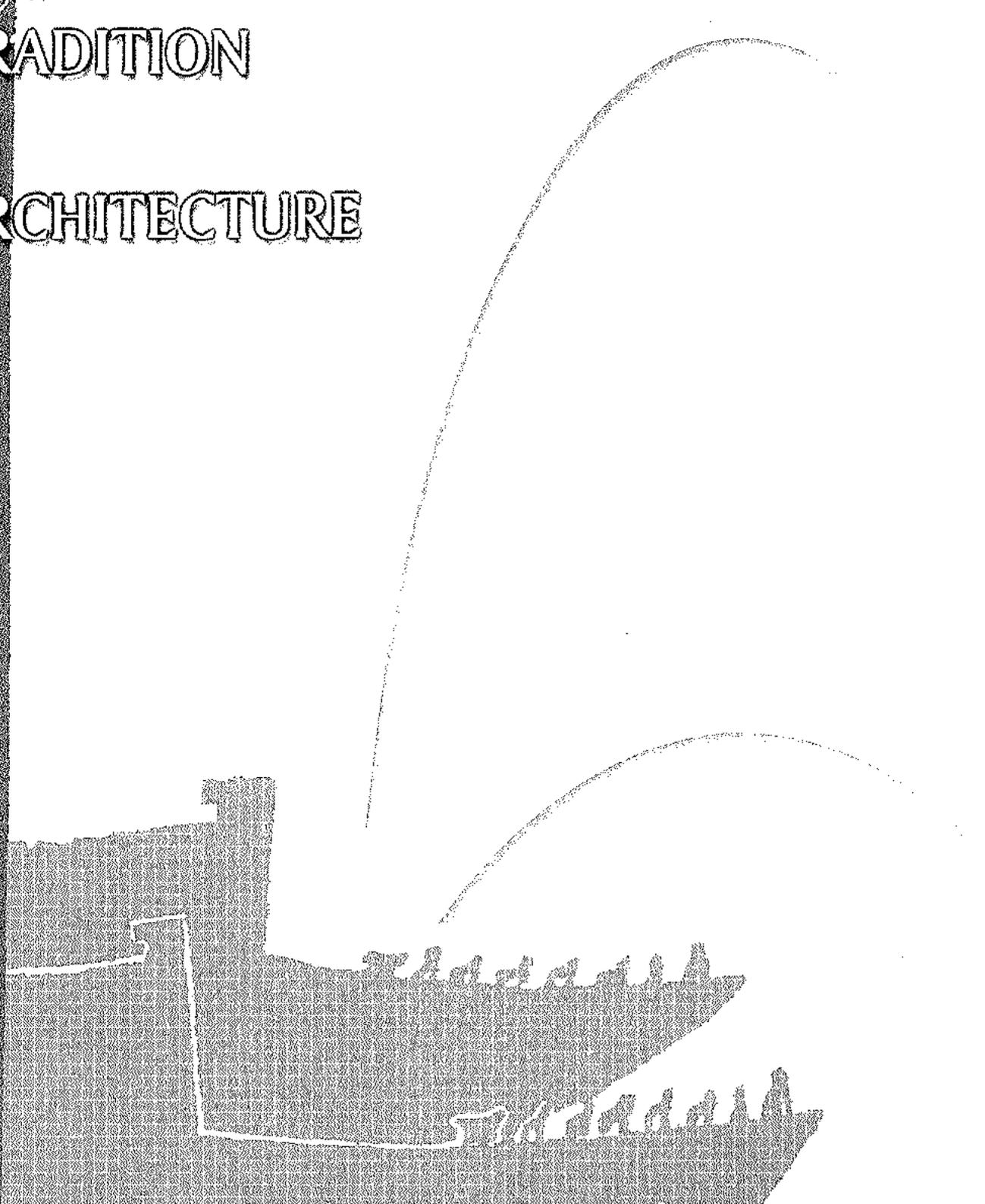
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



제 10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0

13~17 SEPTEMBER 1999 / SEOUL KOREA



# AutoCAD 2000



▶ **Heads-up-Design** · 다중 설계 환경에서는 단일 세션에서 다중 도면을 열고 객체 및 연관 데이터를 다중 도면간으로 복사 이동하고 속성 복제 가능 · AutoCAD DesignCenter를 사용하여 열린 도면이든 닫힌 도면이든 또는 지역 도면이든 원거리 도면이든 상관없이 어떤 도면에서도 구성요소를 현재 AutoCAD 도면으로 끌어놓을 수 있음 · 신속 수치기입(QDIM)을 사용하여 간단히 형상을 선택하여 원하는 수 만큼 자동으로 치수를 작성할 수 있음 · 획득점 임시 구성선 및 언징과 평행 객체스냅 모드가 포함되어 있는 AutoSnap과 PolarSnap의 객체 스냅 추적을 하나의 지능적 도구로 결합시킨 AutoTrack을 사용하여 객체를 가시적으로 작성하고 위치시킬 수 있음 · 부분적 열기를 사용하여 도면과 외부참조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열고 편집 가능 · 부분적 열기를 사용하여 도면과 외부참조에서 필요한 구간만을 통적으로 열릴 수 있음 · 내부 편집을 사용하여 마스터 도면 파일에서 블록이나 외부참조 파일 직접 편집 가능 · 3D Orbit을 사용하여 렌더된 모형과 와이어프레임 모형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회전하고 Zoom할 수 있음 · 가려진 와이어프레임과 Gouraud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영처리 모드에서 항상 편집 가능 · 각 뷰포트마다 사용자 좌표계(UCS) 정의 가능 · 새로운 뷰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정의 뷰를 복원하고 저장 가능 · 항상된 접근성과 유용성 · 객체 특성 윈도우 대화상자에서 모든 객체 특성을 수정하거나 볼 수 있음 ·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선 가중치, 플롯 유형 및 도면층 플롯/플롯 인함 특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화면 표시 영역을 2배 이상 확보하여 도면층 이름 표시 가능 · 어디서나 오른쪽 클릭을 하여, 문맥 감지 단축 메뉴 표시 가능 · 신속 선택 대화상자에서 지정된 특성을 가진 모든 객체를 검색하고 선택 가능 · 도면층을 사용하여 도면 파일에 설명적 정보를 포함시키고 검색 가능 · dbConnect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리 가능 · 분수 편집, 대문자화 및 행 간격을 포함하는 개선된 문자 지원을 통한 명료한 도면 작성 · 최대 255문자까지 기호 이름 사용 가능 · 새 설계된 치수 유형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치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화면에는 변경된 설정값이 자동으로 반영 · 새로운 경계 해지 대화상자에서 해지를 미리 볼 수 있음

▶ **확장된 도달 범위** · 열기, 저장 및 Appload 대화상자에 들어있는 간편한 탐색기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음 · 새로운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AutoCAD 객체에 하이퍼링크 부착 가능 · 플롯할 수 있는 상태이며 안전한 DWF(drawing web format)도면을 인터넷으로 전송 가능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출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DXF 파일 형식이 통합되었으며, AutoCAD 파일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교환이 지원됨으로서 DXF 파일을 읽을 경우, 올리는 시간이 빨라져 효율적으로 작업 가능

▶ **효율적인 출력** · 인의의 닫힌 객체로부터 사각형이 아닌 뷰포트를 정의하거나 잘라낼 수 있음 · 여러 대화상자를 통해 객체나 도면층에 선 가중치 지정 가능 · 단일 도면 내에 다중 도면공간 배치 가능 · WYSIWYG인쇄 미리보기와 새로운 플롯팅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음 · 미법사와 템플릿을 사용하여 쉽게 플로팅/배치 시작 가능 · AutoCAD 단위로 폭과 높이를 입력하여 OLE 객체의 축척 설정 가능 · 사용자화와 확장성 증대 · ObjectDBX API를 사용하여 AutoCAD 형상과 모델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능적 설계 객체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작성 가능 · ObjectARX API를 사용하여 모든 AutoCAD 2000 객체에 대해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작성 가능 · Visual LISP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가능 · AutoCAD도면에서 다중 VBA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올리고 포함 가능 · AutoCAD ActiveX Automation API의 완전하고 강력한 확장성을 통해 COM을 사용 사용자화 가능

▶ **강력한 기술 구조** · 혁신 배르테 파일 열기와 저장, 블록 작성 및 객체 편집 작업 가능 · ACIS 4.0 모델링 엔진으로 우수한 성능, 안정성, 정확성, 모작기와 MDT 소프트웨어와의 개선된 상호운용성 획득 · AutoCAD 2000은 윈도우 98/95 및 윈도우 NT 4.0 로고와 호환되므로 상호운용성을 증가시키고 배우는 시간을 줄여줌 · 실시간 초점이동과 줌을 포함하여 인텔리마우스 좌표 입력 장치 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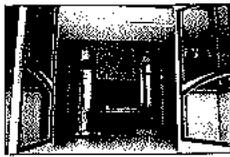




**에이디프로가  
건축사 여러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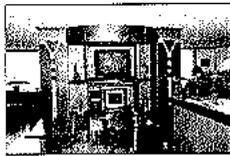
서울지사 02-3462-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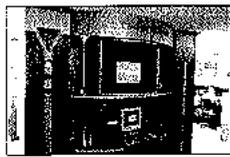
부산지사 051-743-2637



인천지사 032-471-2638



광주지사 062-234-2637



울산지사 052-232-2638



경기지사 032-698-2638



충부지사 0337-881-2638

ADpro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설계용역회사입니다.

- 계획설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규모 업체입니다.
- 독자적인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첨단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사의 컴퓨터시스템을 직접 컨트롤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설계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싸고, 빠르며, 도면품질이 뛰어납니다.
- 특별히 아파트설계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ADpro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좋습니다.

- 가입비가 무료입니다.
- 앞으로 1년 동안 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99만원인 건축캐드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립니다.

서울, 대구, 대전, 창원, 제주에서 ADpro를 운영할  
능력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림캐드네트워크**

본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4-3 부림빌딩 2층  
전화 02-571-2638 팩스 02-573-7424  
연구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87 남동빌딩 6층  
전화 032-464-2638 팩스 032-464-2637

**건  
축  
설  
계  
용  
역**

**Architects2000 ROAD SHOW**  
(건축사사무소의 새로운 2000년 준비...)

6월 8일부터 24일까지 오전 10시 40분

인천	8일(화)	뉴스타호텔 2층 은하수홀
수원	9일(수)	캐슬호텔(동수원호텔) 6층
원주	10일(목)	원주웨딩타운 3층 무궁화
대전	11일(금)	라베라 호텔 14층 피어니홀
부산	15일(화)	롯데호텔 42층 샤롯데홀
창원	16일(수)	창원호텔 3층 목련홀
울산	17일(목)	코리아나호텔 2층 글로리아
대구	18일(금)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
서울	22일(화)	교육문화회관 1층 가야금
광주	23일(수)	신양파크호텔 1층 신양홀
제주	24일(목)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

이 행사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건축사  
사무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건축사사무소를 그대로 옮겨와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보여주며 차세대 건  
축캐드프로그램 '피라미드2000'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참석자에게는 점심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오토  
플랜 및 오토피라미드도 제공합니다.

**부림에이디프로 소식**

새로 에이디프로 서초지사가 오픈합니다.  
전화는 02-582-2638이며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존 서울지사는 강남지사로 개명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지사수를 늘려 모든 건축사사무소  
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림소프트텍 소식**

부림캐드네트워크의 건축캐드소프트웨어 피라  
미드2000과 하드웨어 판매에 주력할 부림소프트  
텍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제주에 지사를 개설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할부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건축사계 신용도에  
따라 2000만원까지 무보증할부판매를 시행하  
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유  
지보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사오며 특히 랜  
(LAN)구축에 특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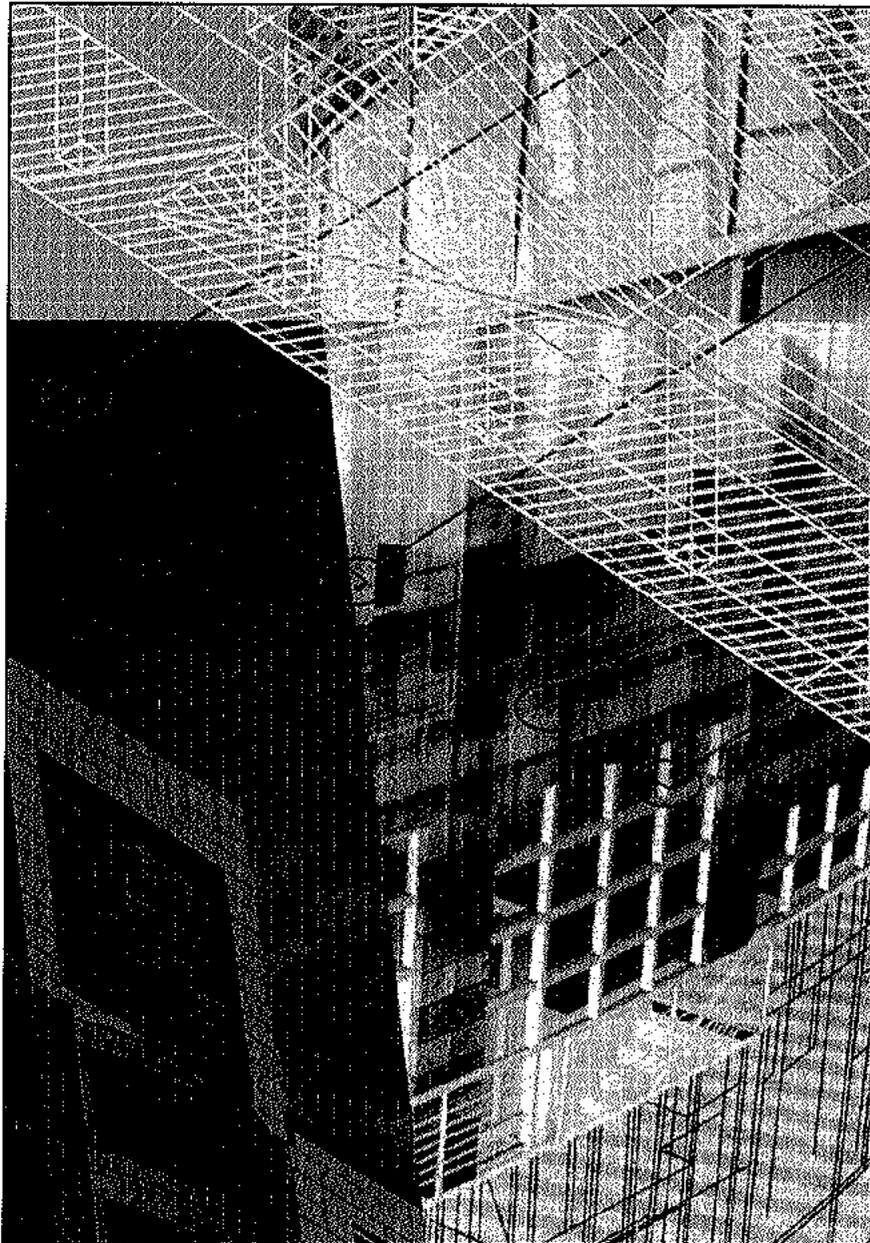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www.autodesk.co.kr

DESIGN YOU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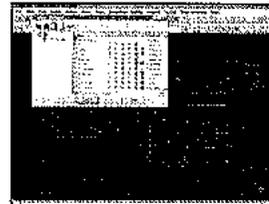
# 三位一體!

개념설계에서 기본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제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번에 끝납니다.



###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AEC 산업을 위한 ObjectARX™ 기술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에 따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과 모델의 비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유통성 있는 뷰 시스템
- 뷰 중속적인 객체 표현
- 열람표 및 보고서 작성

설계 도면편집 S/W-

### Autodesk CAD Overlay

중이도면의 수정에서 CAD 도면과의 병합까지 하나로 해결

비주얼라이제이션 S/W-

### 3D Studio VIZ R2

AutoCAD 도면과의 동적 연결 및 실시간 3D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도구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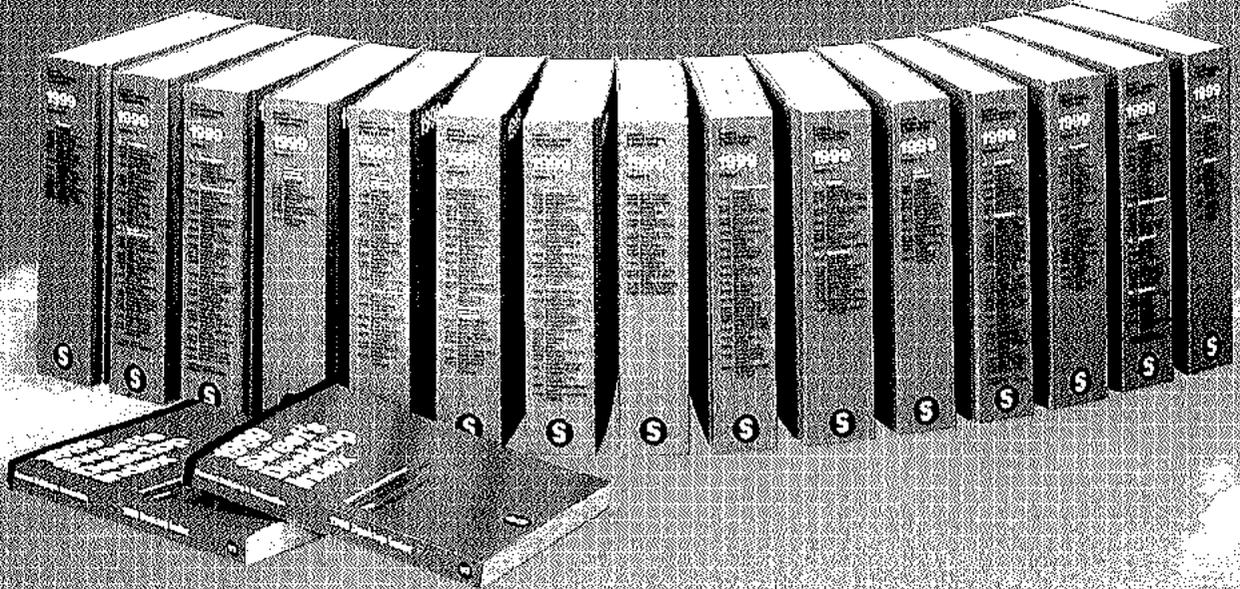
건축/엔지니어링/측량 협력업체

(주)간캐드 584-6480, (주)라인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텍 2271-1781, 한국씨.아이.엠(주) 515-3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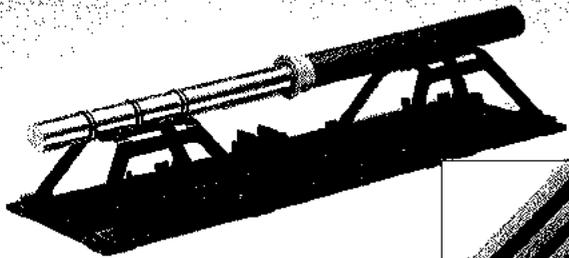
Architectural Desktop

# A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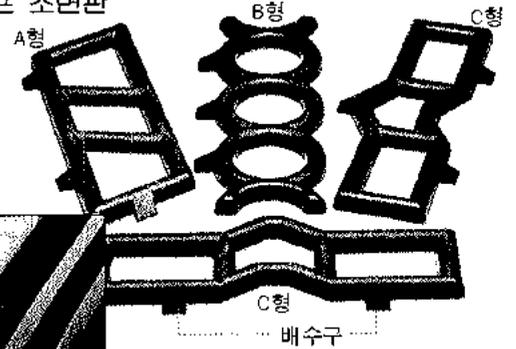
# Sweet's General Building & Renovation Catalog File(G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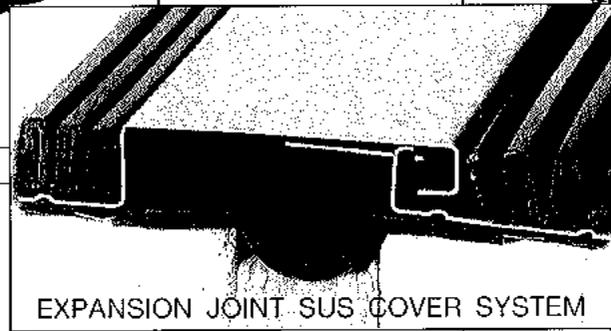
DOWEL BAR  
CAP · CHAIR



램프 조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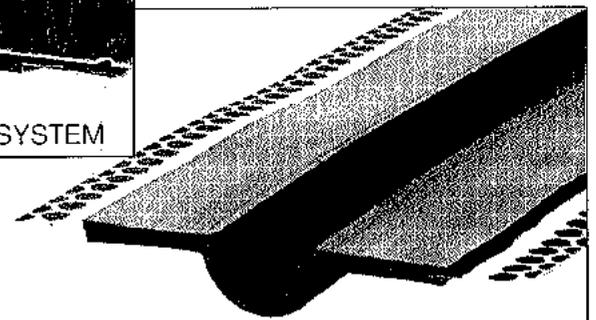
EXPANSION JOINT SUS COVER SYSTEM



신축줄눈



EPDM 지수판



**Sweet's Catalog File 한국대리점**

타우상사 02-3272-2318, 232

신축줄눈, EPDM지수판, DOWEL BAR · CAP · CHAIR, 램프 조면판, EXPANSION JOINT.

**(주)타우 · 대일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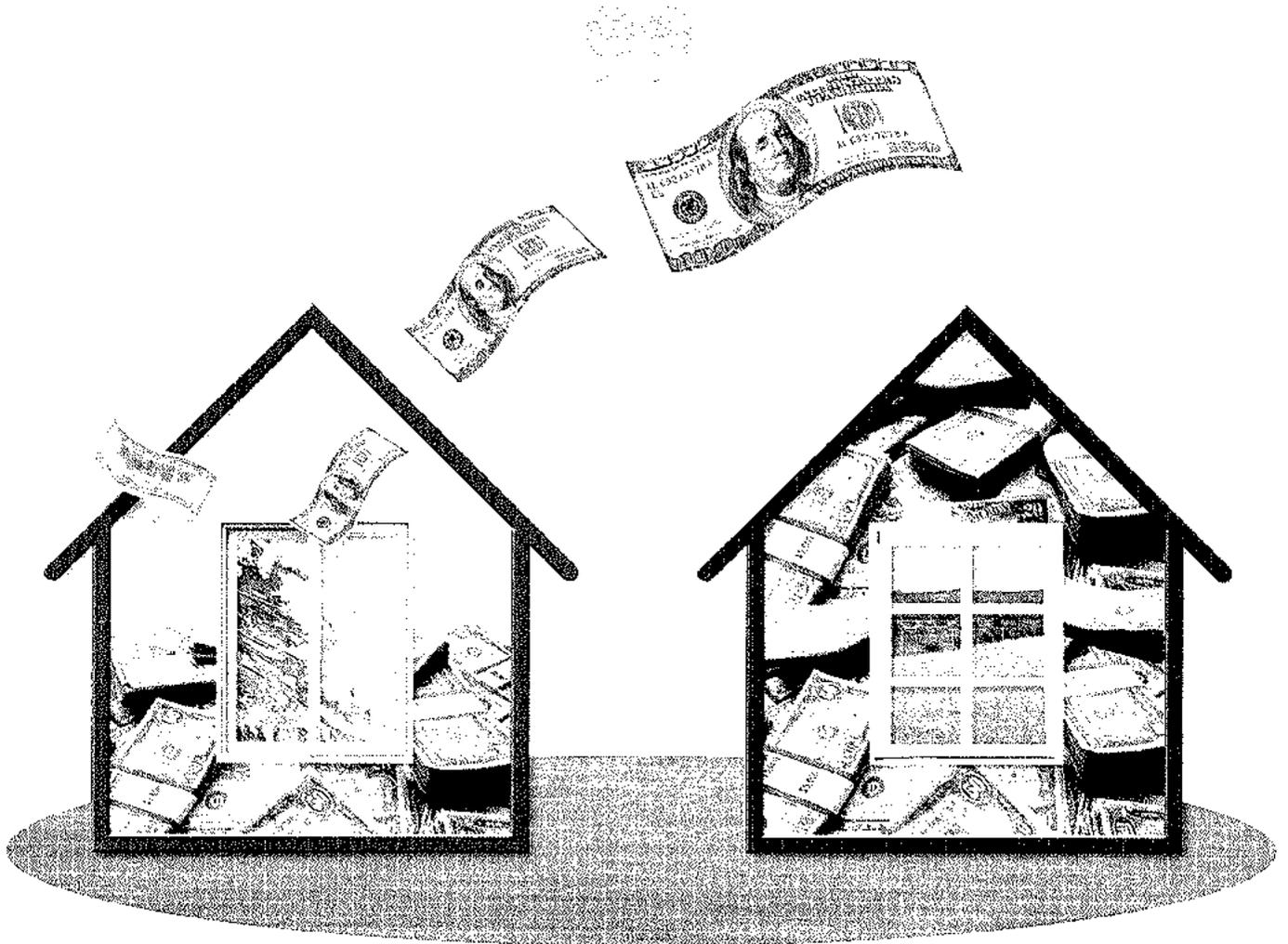
TEL:02-3272-2311(代) ~ 3

DETAIL 디스켓 무료 제공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격실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윗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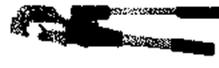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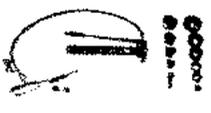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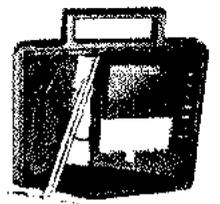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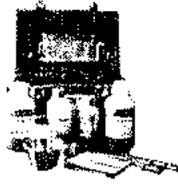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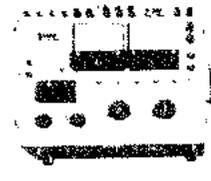
##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 (02)548-4041(代) · FAX: (02)543-3647
- 본 사: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236번지 TEL: (0417)557-9687 · FAX: (0417)557-9689
- 부산: (051)501-9006    ■ 강남: (02)3442-0657    ■ 강북: (02)2264-5506    ■ 대구: (053)551-1770    ■ 송파: (02)544-7104
- 인천: (032)431-6732    ■ 의정부: (0351)877-3808    ■ 인성: (0333)656-7504    ■ 천안: (0417)875-8196    ■ 대전2: (042)633-5591
- 대전1: (042)485-2071    ■ 강동: (02)474-1661    ■ 라인: (02)552-3530    ■ 마산: (0551)51-0011    ■ 제주: (064)748-4811
- 서부: (02)322-6812    ■ 울산: (052)248-0900    ■ 안양: (0343)471-7084    ■ 서초: (02)575-3845

# 계측기 및 전설공구

MULTI 누설전류계로 절연저항 비교측정, 누전사고예방, 10,000V 절연저항계 **KYORITSU**

전기감리 · 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p>누설전류계 MULTI φ40 m/m 0.01mA~10mA 누전사고예방</p>	 <p>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150")</p>	 <p>전선압착기(유압식) EP 43G(Y-35)</p>	 <p>유압식 절관용공기 SH-10(2"3"4")</p>	 <p>특고압 COS조작봉 3단4M 5단6M</p>	 <p>접지 저항계 디지털 41050~200G Ω</p>	
 <p>누설전류계 MULTI φ80 m/m 1.000A 누전사고예방</p>	 <p>유압 압착기 12호 A (14"~325")</p>	 <p>유압 수동 펌프 HP 700A</p>	 <p>특고저압검전기</p>		 <p>접지저항계 41020-1.000 Ω</p>	
 <p>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 xP 702SA</p>	 <p>DIGITAL 소음계(1350) 35-130db</p>	 <p>DIGITAL 온도계(1330) 0.1~20.000</p>	 <p>비접촉식 온도계 ST-2P-18-400°C ST-6L-20-500°C</p>		 <p>비접촉식 온도계 PM 30L-18-870°C R31L RL 3U-30"-1200°C</p>	 <p>메타 2007 600A 750V 2002 1000A 750V</p>
 <p>절연저항계 3213A 500V 1.000M 1.000V 2.000</p>	 <p>DIGITAL 크론 메터 234301 650V 1.000A</p>	 <p>접지저항계 3235</p>	 <p>다기능계측기 MET500</p>		 <p>절연저항계 3165 500V 1.000M 3166 1.000V~2.000M</p>	
 <p>005 Alms 레온 가스 측정기 R134a R22 R12</p>	 <p>절연장갑 장화</p>	 <p>50.000V 내전압시험기</p>	 <p>후크온식 접지저항계</p>		 <p>절연저항계(3123) 10.000V</p>	
 <p>DC Hydot tester 80kv 5ml</p>	 <p>절연유산가 측정기(HD 101)</p>	 <p>절연유 시험기(HDSS)</p>	 <p>계전기 시험기(8510)</p>		 <p>접지공구</p>	 <p>온도기록계 SR 1.000 UR 1.000 UR 1.800</p>

## 취급 회사 제품



KYORITSU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LTI 누설전류계 MUSASH O.T 테스트  
IZUMI 압착기 HIOKI 계측기

국산 메가 후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 YOKOGAWA 기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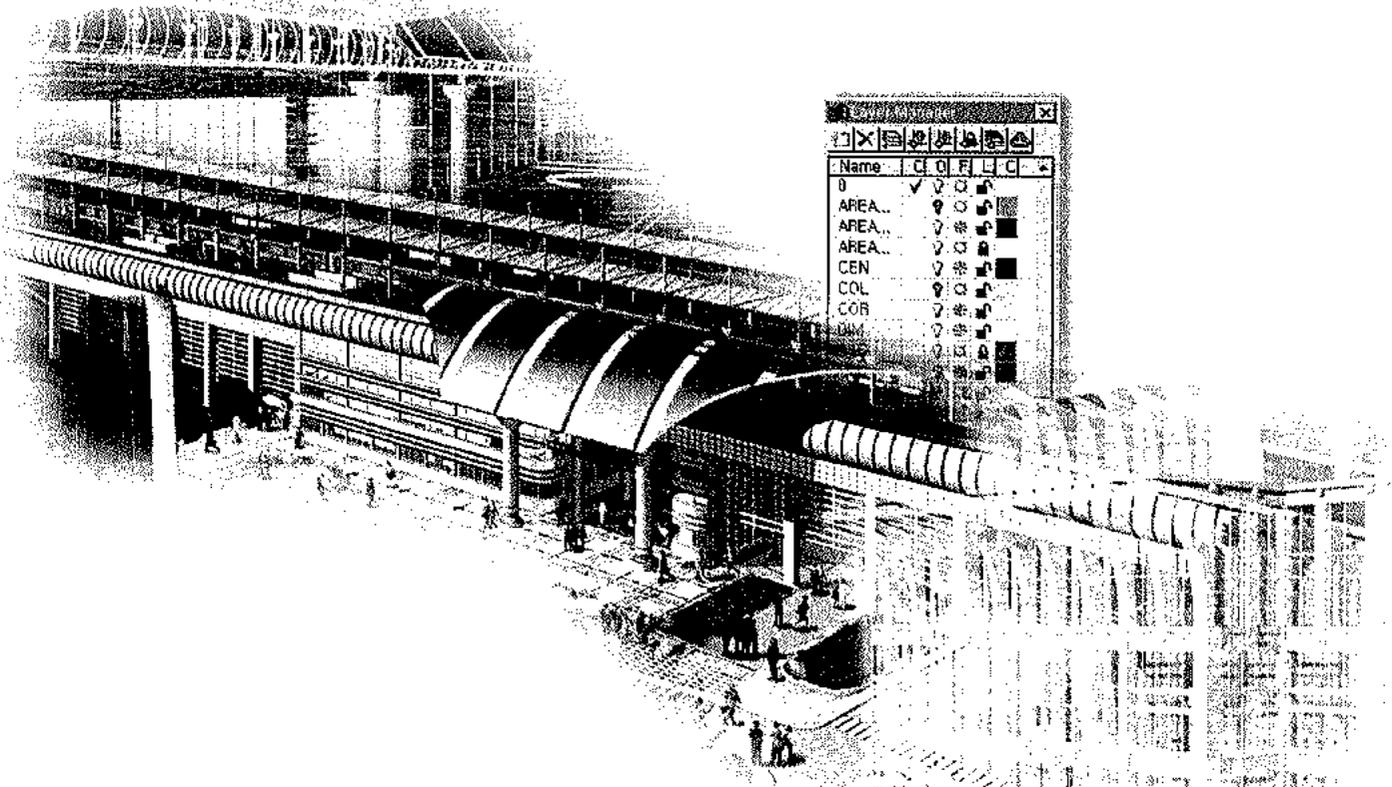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 현대 전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2279-0427, 2278-3944  
FAX : (02)2273-8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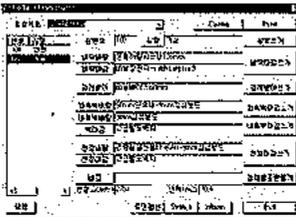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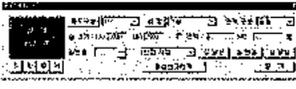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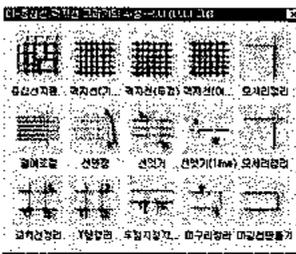
# CADPOWER 21

RELEASE 9.0



21세기의 건축설계 "CADPOWER"가 책임집니다.

건축인의 관심과  
사용자의 요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년동안 개발한  
CADPOWER는  
건축인 모두의 것입니다.



CADPOWER 21은 오랜 경력의 건축설계전문가 집단과 최고의 프로그래머 그룹이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개발환경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으로 설계업무에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 CADPOWER 21의 특징

- 건축 실무자 중심 개발
- 작업의 효율성
- 명령어의 통합
- 단순화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배려
- 새로운 모습(새기능)

### CADPOWER 21의 새로운 기능

- 계획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추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제 작성  
마감제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공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작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 폰트로 변경)  
Layer Control  
Onekey(타프로그램과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기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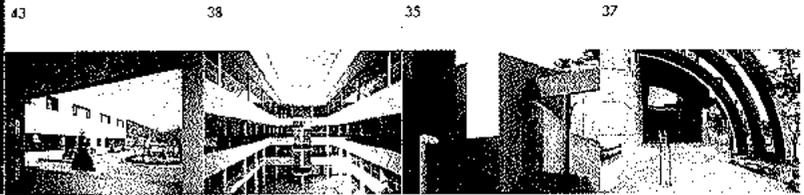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7-6 감목빌딩 4F  
Tel:584-6480 Fax:587-1803  
http://www.ait.co.kr e-mail:info@gauncad.ait.co.kr

이름은 신  
올취신문  
관리 및 참가 열거  
(주) 건캐드  
부내주식권 CADPOWER 21  
에 대한 더노CD를 사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상림 作)



<b>칼럼</b>	IMF와 건축사사무소의 소생대책	오웅석	14
<b>작품리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b>	대담: 대지의 나른한 평면성을 깨우는 학교건축 비평: 아담한 소도시	이상림 진진삼 양우현	16 25 30
<b>회원작품</b>	김포 공중화장실 세심관(洗心館) 포항공대 LG전자 연구동 효창동주택 경북도립 치매 요양병원 신도리코 경기지사 한국중공업(주) 사옥	김희근 서종달 이충언·김광섭 김석환 김지훈·김원갑 손두호 (주)범건축+K.P.F	34 36 38 40 42 44 46
<b>지상토론</b>	비평: 우리건축의 생산적인 담론을 위하여		48
<b>아카시아 4</b>	ARCASIA의 구성 및 관련행사	조인숙	59
<b>기획진단</b>	새로운 시대정신	이정수	64
<b>작품노트</b>	성북구 종합문화센터	이정근	72
<b>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12</b>	진주·마산·창원	편집대태/고성룡	77
	진주·마산·창원의 도시발전과 전개	안재락	78
	행정도시 창원의 지역성과 도시건축	서유석	85
	마산 - 도시건축의 지역성 탐구	김태중	91
	역사도시 진주의 도시건축	고성룡	95
	좌담: 경남남부 지역건축의 현황과 정체성		102
<b>건축마당</b>	건축만평		110
	협회소식		111
	건축계소식		112
	현상설계		117
	해외잡지동향		122
	통계(설계도시신고현황 1999년 4월분)		128
	게시판		130

발행인: 이의구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인숙, 조현균, 최몽규  
 편집·취재: 경호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syoung@kira.or.kr  
 hkjo@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b>Column</b>		
The Recovery from the Crisis	Oh Woong-Suk	14
<b>Review / Korea Polytechnic University</b>	Lee Sang-Leem	16
Interview A Work of School Architecture Awakens the Monotonous Flatness of the Site	Jeon Jin-Sam	25
Critique An Elegant Small Town	Yang Woo-Hyun	30
<b>Works</b>		
Paradigm of Coexistence	Kim Hee-Kon	34
Se-Shim-Kwan	Seo Jong-Dal	36
POSTECH LG Cooperative Electronics Engineering	Lee Chung-Eon & Kim Kwang-Sub	38
Hyochang-dong Residence	Kim Seok-Hwan	40
Kyungbuk Provincial Day Care Hospital of Senile Dementia	Kim Ji-Hoon & Kim Won-Kab	42
SINDORICOH Kyunggi Office	Sohn Doo-Ho	44
Headquarter of Hankook Heavy Industry Co.	Beom Architects & K.P.F	46
<b>Discussion</b>		
For a Productive Discourse on Our Architecture		48
<b>ARCASIA 4</b>		
Meetings, Awards, Prizes and Social Events of ARCASIA	Cho In-Souk	59
<b>Focus</b>		
New 'Zeitgeist'	Lee Jeong-Soo	64
<b>Design Note</b>		
Sung-Buk Arts Center	Lee Jeong-Keun	72
<b>Theme Study /</b>		
<b>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12: Chinju · Masan · Changwon</b>		77
The Potential of South Kyongnam Architecture	Ahn Jae-Rak	78
A Look of Urban Aspects & Modern Architecture in Changwon	Seo You-Seok	85
Signs of Regionality in Urban Architecture	Kim Tae-Jung	91
City and Architecture of Chinju as Historical City	Koh Seong-Lyong	95
Conversati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South Kyongnam Architecture		102
<b>Architects' Plaza</b>		
Cartoon		110
KIRA News		111
Archi-net		112
Competition		117
Overseas Journal		122
Statistics		128
Bulletin Board		13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61-5716~8
- 강남구건축사회/(517-5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8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3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8-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9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9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5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864-3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8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중랑구건축사회/737-5030 · 중구건축사회/231-5746 · 중앙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9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2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39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636
- 경기도건축사회/(03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8602 · 광명건축사회/(02)684-3845 · 구리시 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분당지역건축사회/(032-867-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2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898 · 오정부지역건축사회/(0351)657-5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86)3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8)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8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34)53-8703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3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2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85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방주지역건축사회/(0416)83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9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53)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6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8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63)352-373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6-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862-73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남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9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3-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61)553-1412 · 송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6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834-86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5)6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북도건축사회/(0551)246-4530~1
- 거창지역건축사회/(0558)635-8875 · 거침지역건축사회/(0598)940-8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천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03)833-9770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284-3050 · 신수지역건축사회/(059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3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54-762-7233

## IMF와 건축사사무소의 소생대책

### The Recovery from the Crisis

오웅석 / (주)신조중합건축사사무소

by Oh Woong-Suk

IMF는 건축문화와 그 관련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모두는 하나가 되어 어렵게나마 고비를 넘겼고 국제적인 신임도도 상황조정되었다.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와 경제인 그리고 모든 고통을 분담하였던 모두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나라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다. 많은 업체가 부도로 쓰러졌고 그 피해는 결국 그 경영주뿐만 아니라 그 거래인 그리고 각 개개인에게 안겨졌다. 서로가 받을 돈이 있으면서도 줄 돈을 못줘 빚쟁이가 되었고 장기간 생활비 공급이 안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돈 걱정이 없는 부유층 사람들이나 매달 생활비가 공급되고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일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고통을 느낄 기회가 적었다.

IMF의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부도 등과 같은 그 처절한 고통의 상황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큰일부터 먼저 해나가야하며 모든 국민은 그 기대하였던 성과가 개개인에게 되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그 쓰라림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벼랑끝에서 마지막 선택까지 생각해야 할 시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나는 작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평생을 외길로 살며 오직 일에만 전념하며 큰 욕심도 없이 살다보니 남에게 욕은 먹지않고 지내왔으나, IMF경제 위기를 이겨낼만한 저력은 쌓아놓지 못하였다. 나의 경우에는 많은 일거리를 안고도 일이 중단이 되거나 뒤로 밀려나가게 되고 해놓은 일은 수금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알아놓은 일이 없었다면 폐업을 하고 들어앉아 혼자 살거나 하겠으나 맡은 일의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부끄러운 일이나 직원 봉급도, 사무실운영비도 결국은 몇

달 못가서 바닥이 나고 들어올 일의 대가는 계속뒤로 밀려나가게 되니 결국은 은행거래마저 문제가 생기고 세금 등 공과금도 못낸 부실경영자가 돼버려 집에서도 큰소리를 칠 수 없는 가장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계약되어 있는 업무도 상당히 있으며, 수금이 확정된 상태의 채권화된 청구금액도 모든 빚을 갚고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할 만큼 있다. 다만, 필요한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이며 마치 기름에 뒷자리 연못에 물이 고인다음 넘치는 물을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1999년 올해는 정부에서 지정한 건축문화의 해이다.

건축물은 사람들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고, 도시는 건축물의 집단화로 이루어지며 사회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기능적이고 편리하고 아름다워야하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룩되어야 한다. 현대문명은 건축문화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손꼽히는 역사적인 유물도 건축물이 모체가 되어 가장 큰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의 건축문화는 긴 역사속에서 먼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큰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기에 어느 한순간도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소홀이 취급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현실속에서도 그 역할의 그 자리와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건축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이나 정부에서까지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일은 IMF가 아무리 어려워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한다.

건축문화의 주역은 건축사이며, 그 일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건축문화의 꽃이 피게 하고 건설관련산업 활성화를 이룩하려면 대대적인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금융지원 등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만든다 하여도 금융관리차원에서 실효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 금융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겠으나, 담보나 보증제도 등을 앞세운다면 머리를 쓰며 시간을 보내는 건축문화 창작업무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금융지원은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대출된 돈을 딴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만 이행된다면 건축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변에 깔려 쌓여 나가는 성과에도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할 것이며, 금방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성과는 머리속에 쌓여나가 언젠가는 더 큰 성과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기간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십조원 단위의 무담보대출로 인한 손실은 감수하면서도, 창의력을 기르거나 새로운 연구에 투자하는 일에서 물건담보나 따지고 있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영원히 후진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처럼 계약서 한 장으로 용자를 가름하는 간편한 지원대책으로 대담한 용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도 먼저 자구책을 내세워 새로운 면을 보이며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성을 다하여 일하는 자세를 먼저 보이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 약방문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협회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작품리뷰 review

이상림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Leem

##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업단지 3가 101번지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제4종미관지구
대지면적	56,127.45㎡
연면적	32,950.58㎡
건축면적	12,911.16㎡
건폐율	23.00%
용적률	58.71%
조경면적	14,297.5㎡
구조	R.C조, 철골조(체육관)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 알루미늄시트(체육 관), 12mm복층유리

**Location** Jungwang-dong Industrial Complex 3ga 101bunji,  
Siheung, Kyunggi Province

**Area Classification** Regular Industrial District, Type4 Aesthetic  
Area

**Site Area** 56,127.45㎡

**Total Floor Area** 32,950.58㎡

**Building Area** 12,9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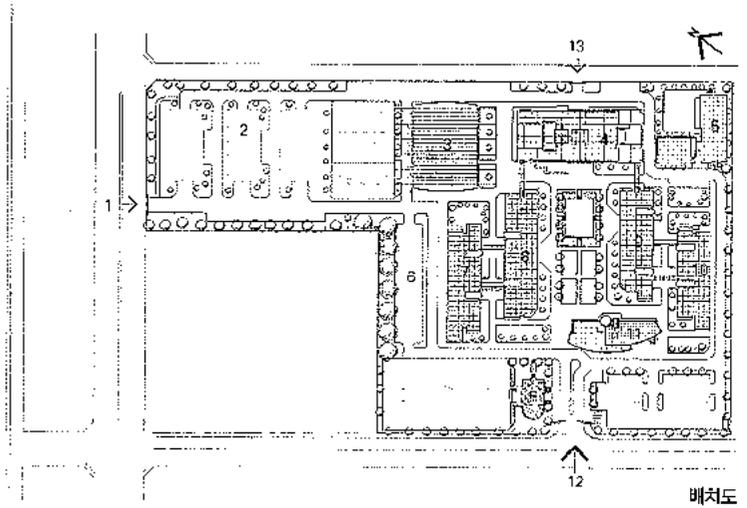
**Building Coverage Ratio** 23.00%

**Gross Floor Ratio** 5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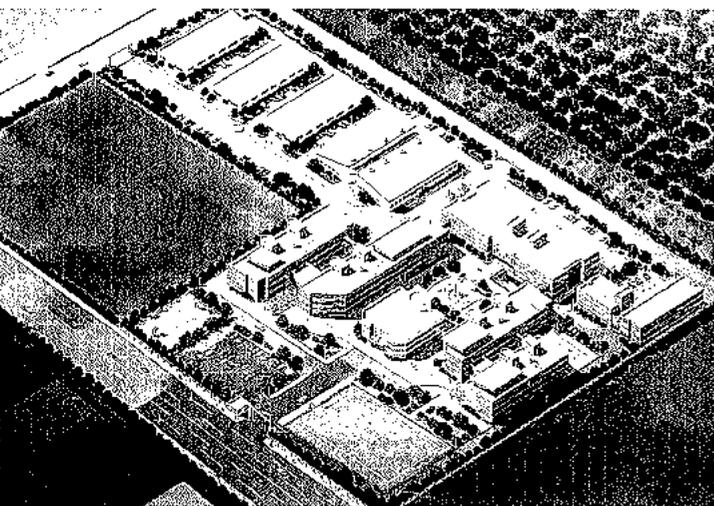
**Landscape Area** 14,297.5㎡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eel Structure(Gymna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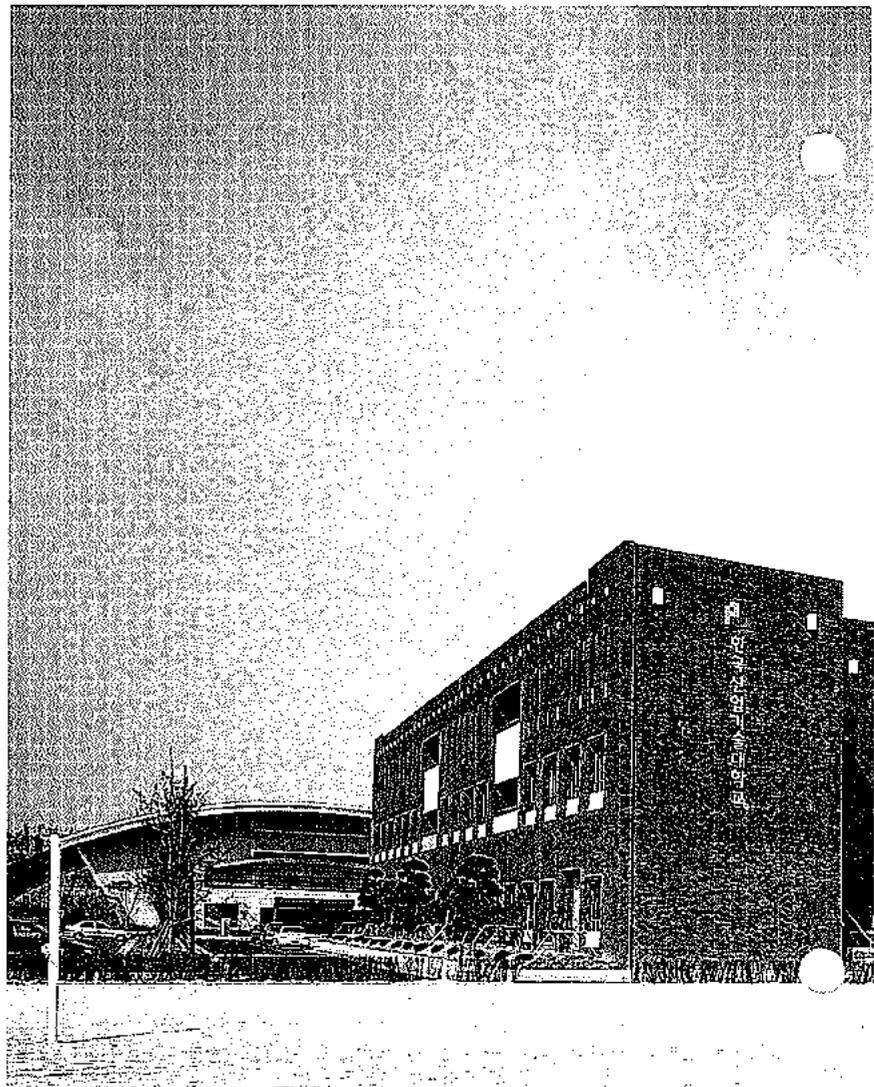
**Exterior Finishing** Red Brick, Aluminum Sheet(Gymnasium),  
12mm Double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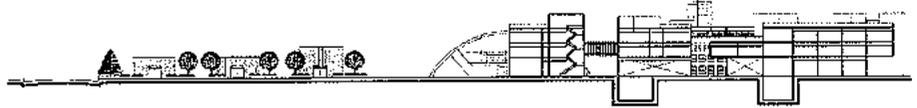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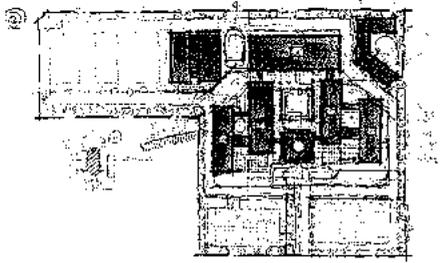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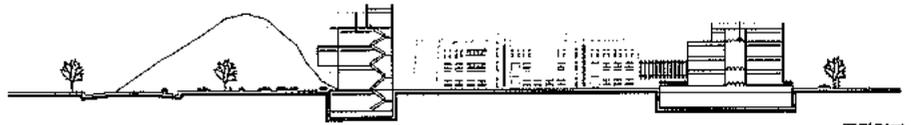
- 1. 부속입구
- 2. 기존사설
- 3. 채목안
- 4. 학생회관
- 5. 기숙사
- 6. 주차장
- 7. 강의동 A
- 8. 강의동 B
- 9. 강의동 C
- 10. 강의동 D
- 11. 행정동
- 12. 주출입구
- 13. 서비스출입구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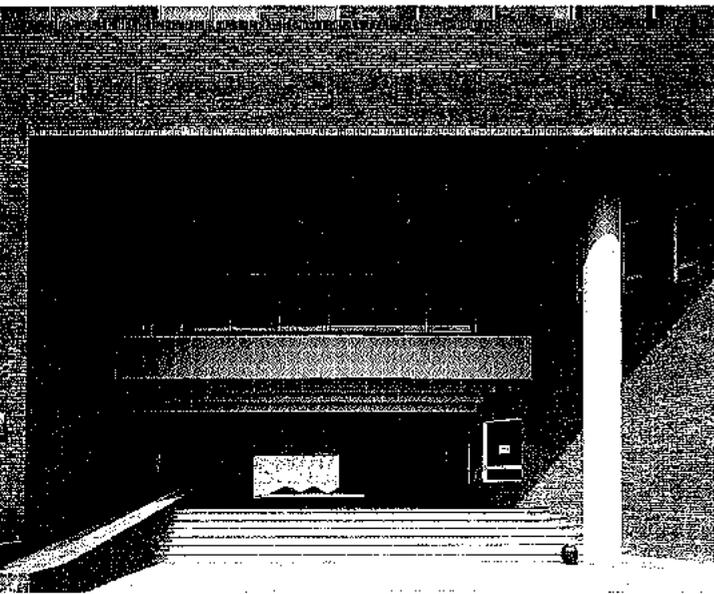
배치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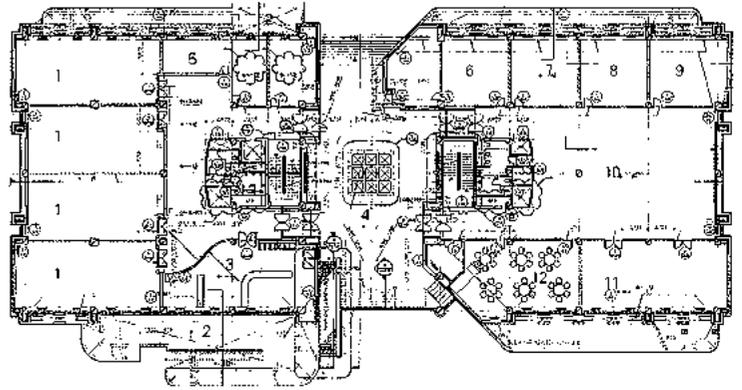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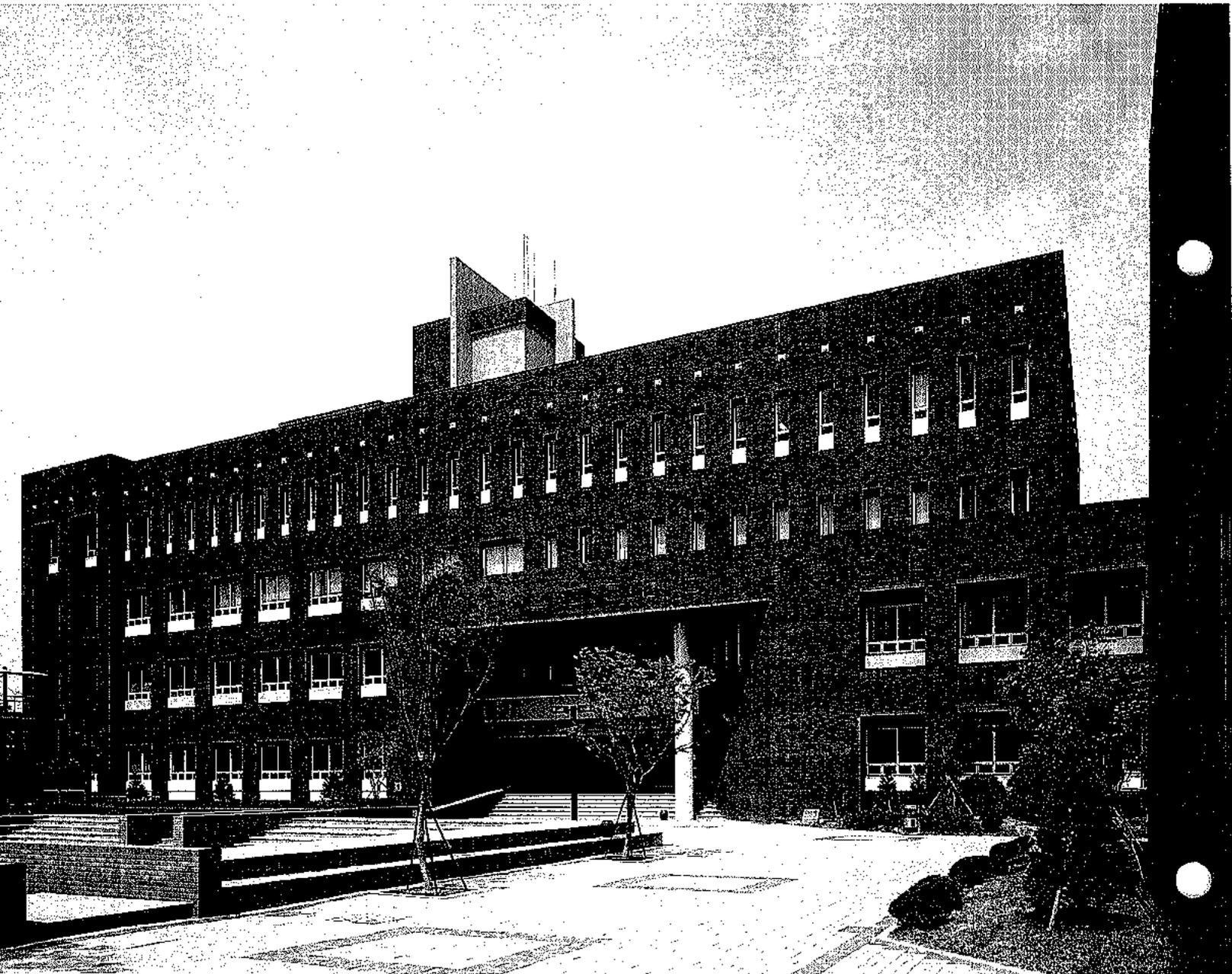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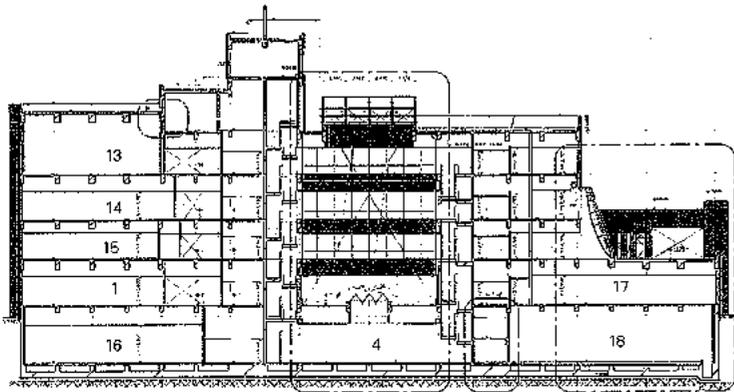
학생회관 정면 파사드



학생회관 1층 평면도



학생회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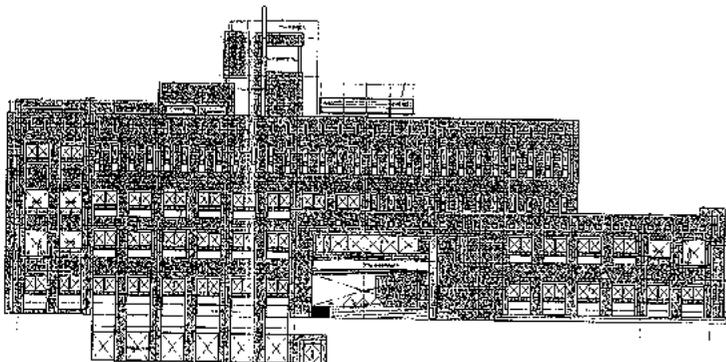


학생회관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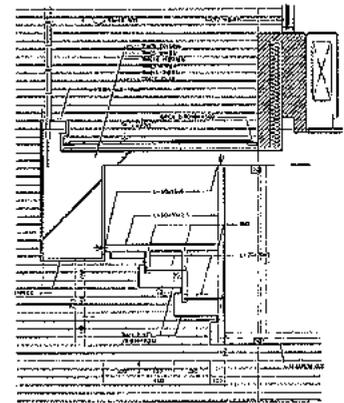


강의동과 학생회관 연결동로 아래에서 본 학생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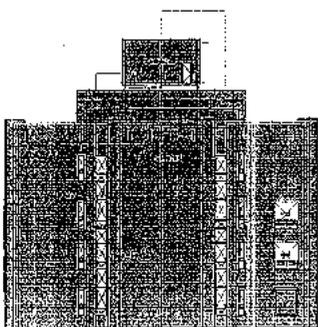
- |           |             |
|-----------|-------------|
| 1. 세미나실   | 10. 매점/다용도홀 |
| 2. 심판기부   | 11. 서점      |
| 3. 운동/우체국 | 12. 교수 휴게실  |
| 4. 홀      | 13. 스튜디오    |
| 5. 보건치료실  | 14. 광고발람실   |
| 6. 학생회사후실 | 15. 컴퓨터실습실  |
| 7. 신문사    | 16. 학생식당    |
| 8. 방송국    | 17. 매점      |
| 9. 출판사    | 18. 기계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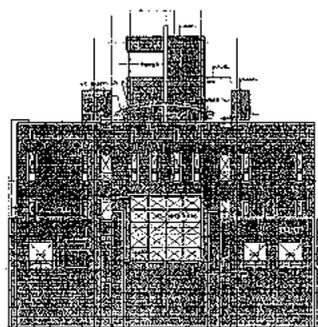
학생회관 남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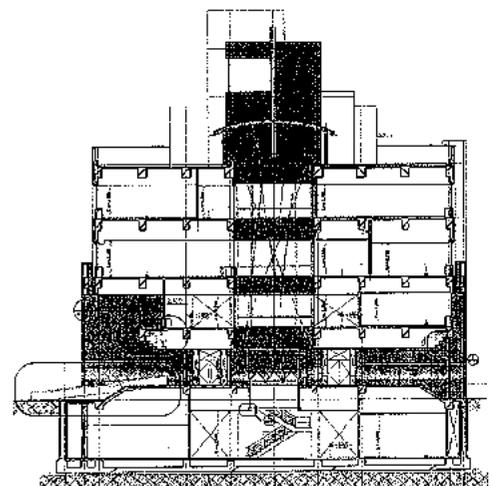
부분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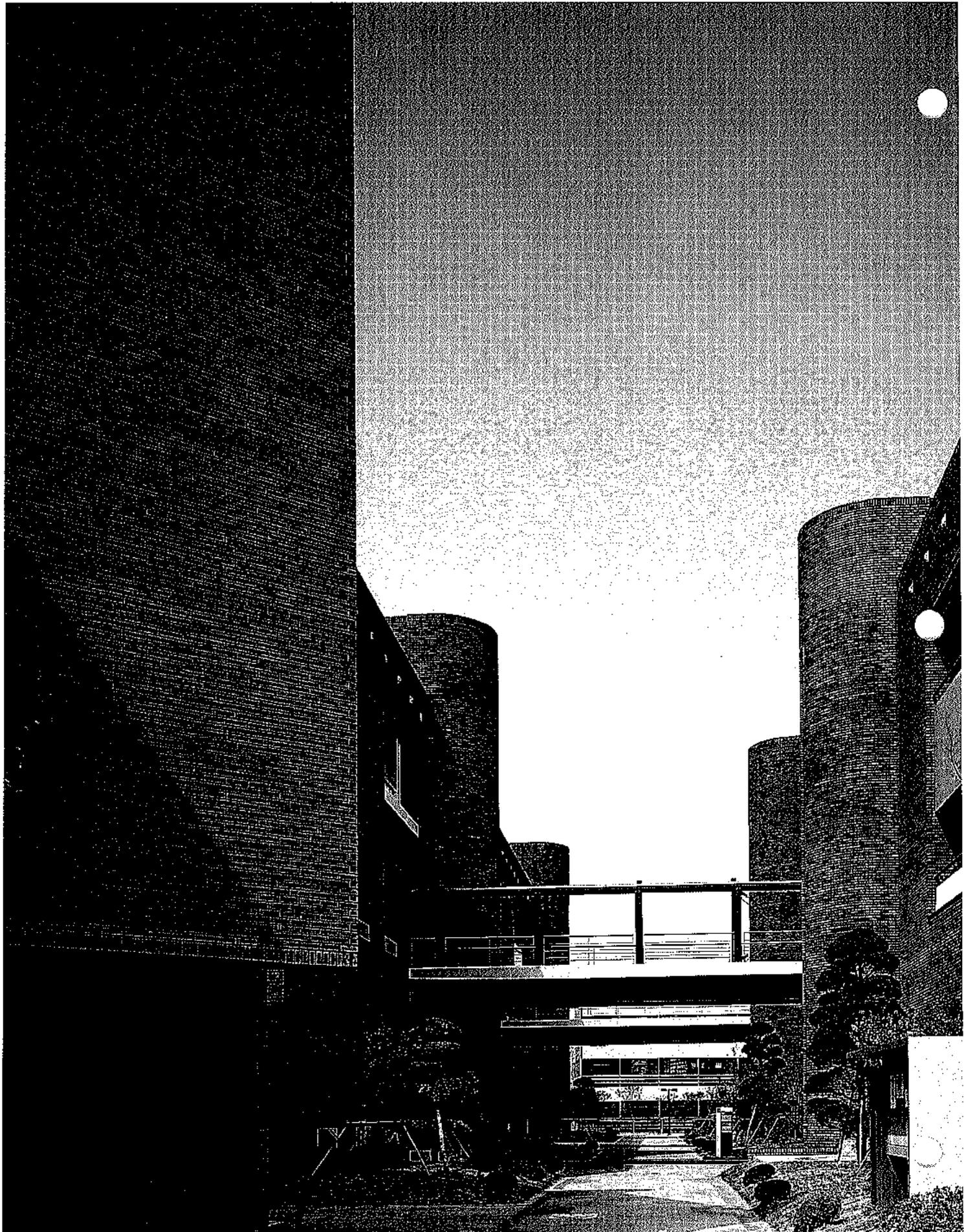
학생회관 북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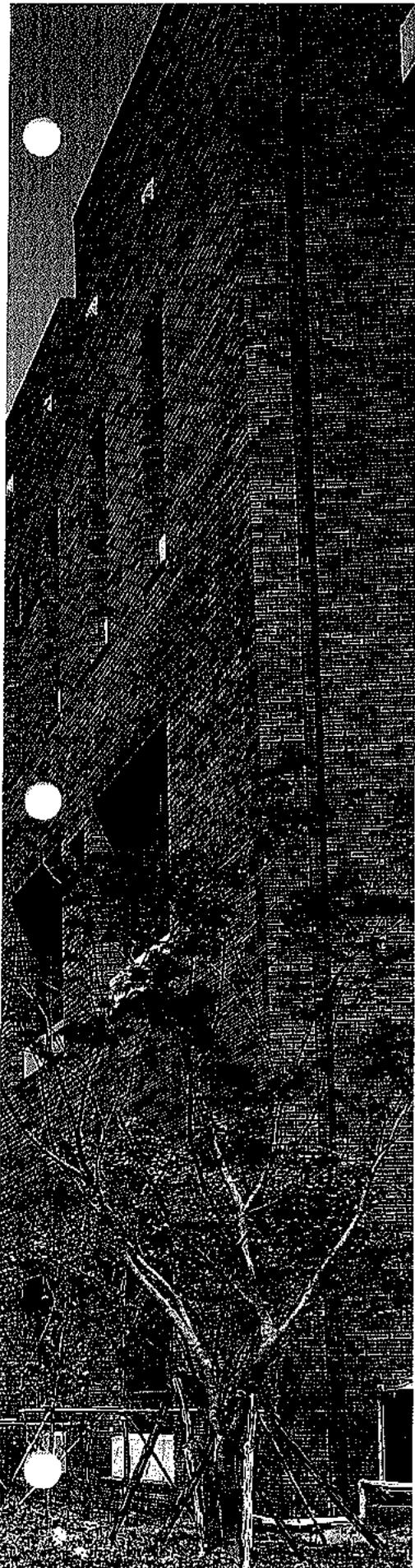


학생회관 남동측 입면도



학생회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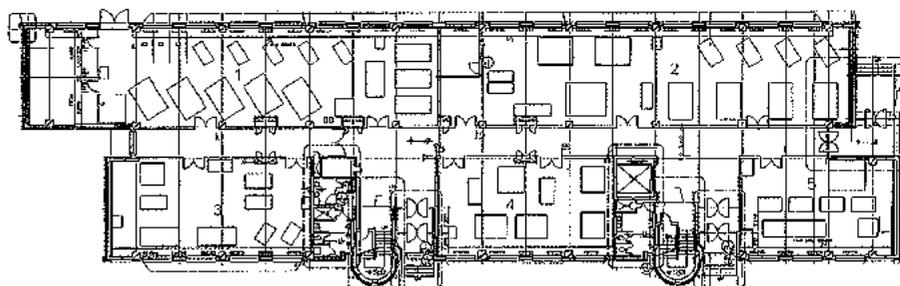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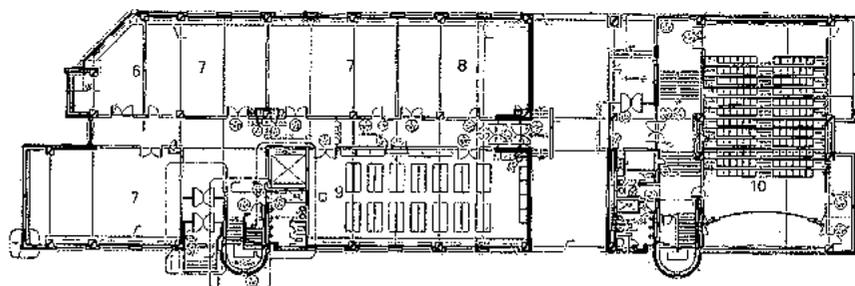
강의동과 강의동 연결 보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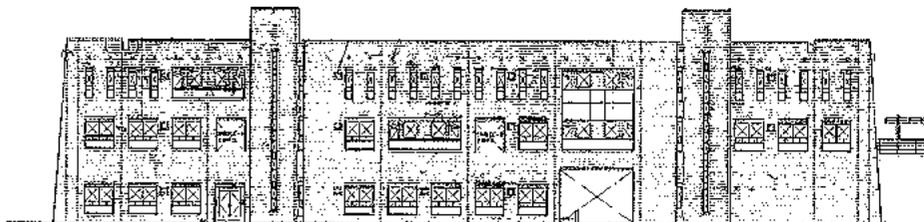
계단식 강의실



강의동 A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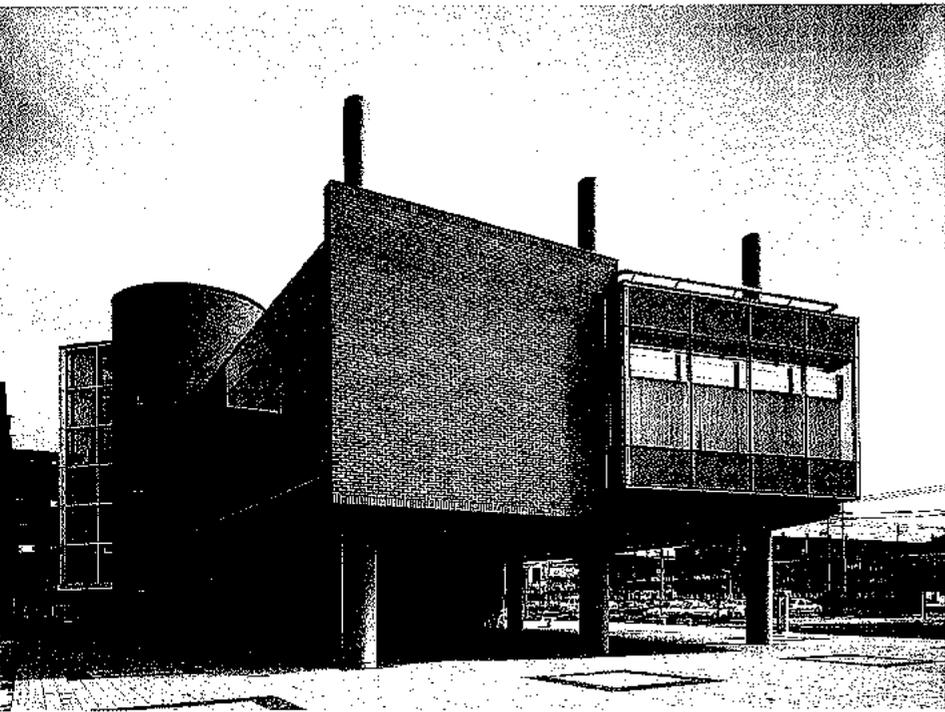


강의동 C 1층 평면도



강의동 C 남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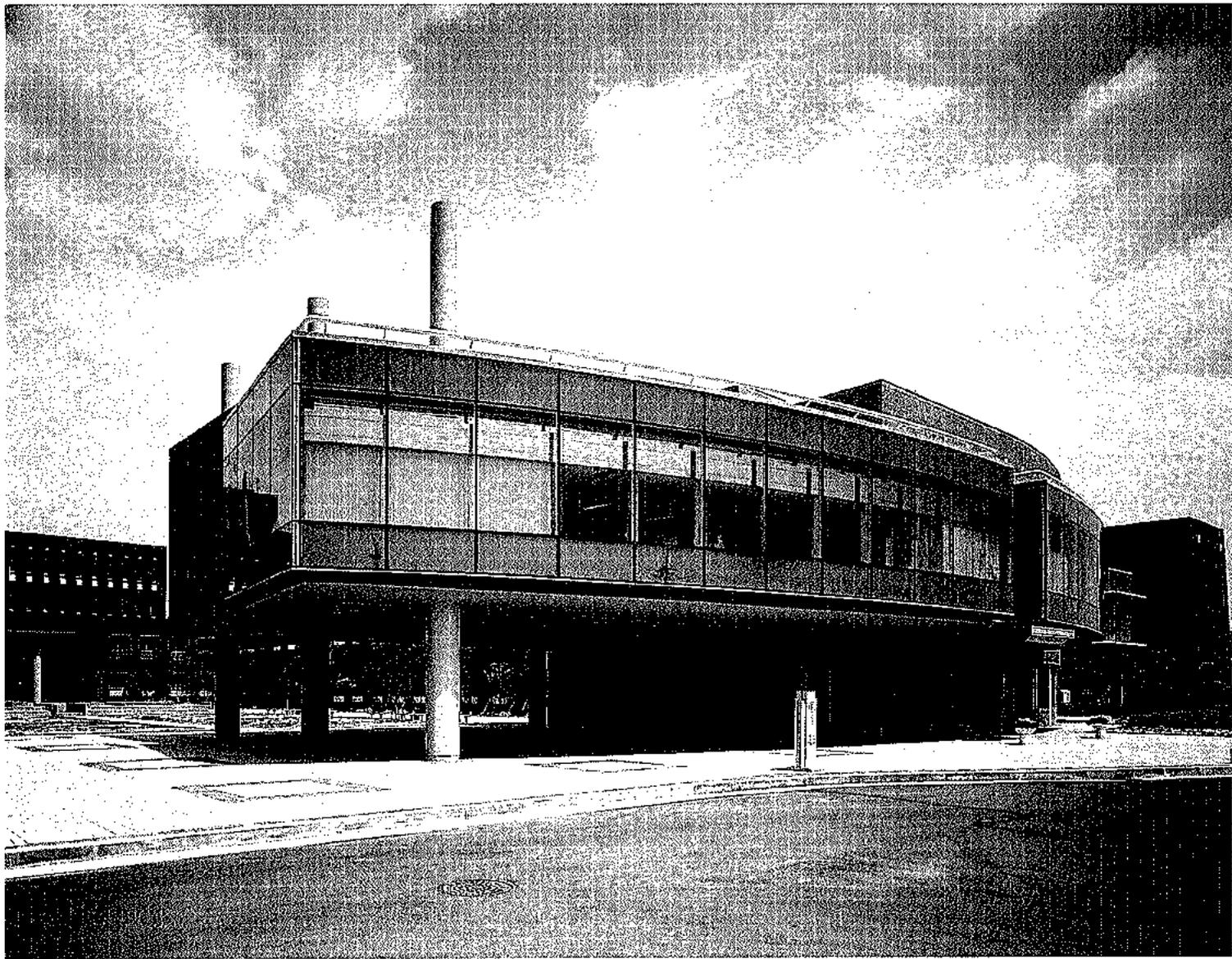
- |            |              |
|------------|--------------|
| 1. 기계공작실습실 | 6. 휴게실       |
| 2. CNC 실습실 | 7. 칼판강의실     |
| 3. 연식 가공실  | 8. 강의실       |
| 4. 방전 가공실  | 9. 전기전자최초실습실 |
| 5. 소성 가공실  | 10. 대강의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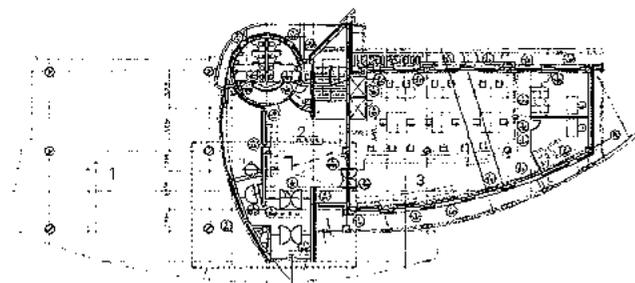
행정동 피로티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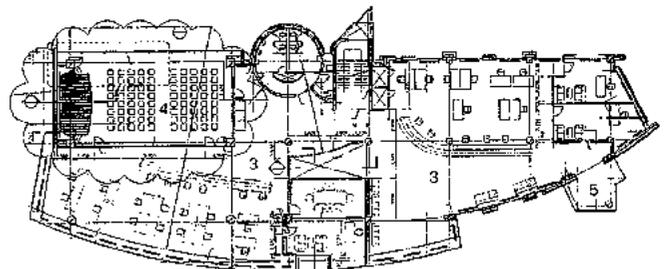
행정동 남측전경



행정동 서측전경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 피로티
2. 중
3. 대기실
4. 대회의실
5.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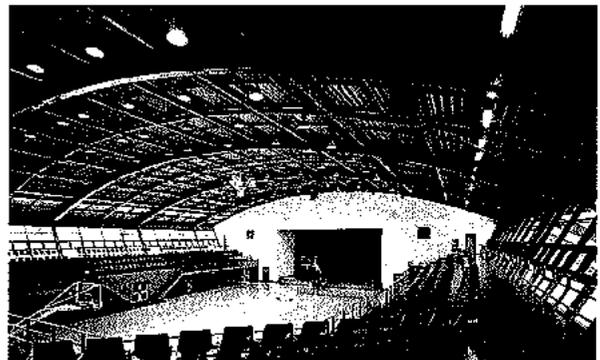
중정



기숙사 전경



체육관 전경



체육관 내부

### 대지의 나른한 평면성을 깨우는 학교건축

A Work of School Architecture Awakens the Monotonous Flatness of the Site

건축사 / 이상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전진삼(건축비평가, 건축발전연구소장)

Lee Sang-Leem & Jeon Jin-Sam

일시 / 99. 5. 26. (수) 10:00~

장소 / 공간사 회의실



대담광경(왼쪽: 이상림, 오른쪽: 전진삼)

이 글은 한국산업기술대학에 관련한 건축가와 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대담방법은 이메일 전송과 현장투어를 통한 형식으로 약 10여일만에 걸쳐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송수신의 결과와 현장경험 그리고 동행중 차안에서 계속된 대화를 토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대담에 나선 이상림씨는 현재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소장이자, 공간지의 발행인으로서 김수근, 장세양을 잇는 3대째 공간 수장(首長)의 자리에 있는 40대 중반의 젊은 건축가이다. 야미 여러 지면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알려진 상태이지만 생각외로 그의 세계관이 적절하게 소개되어있지 못하다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 지면의 일정 부분은 그의 생각을 떠내는 데에 쓰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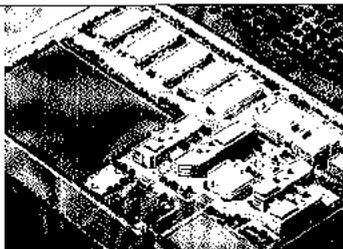
전진삼 \_\_\_\_\_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산업기술대학이 특별한 사고없이 건축가의 원안에 근접하여 완공된 점에 관하여 축하드립니다. 전해들기로는 설계는 '공간'에서, 감리는 '무영건축'에서 맡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가의 최초의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질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보가 없는 독자들을 위하여 저간의 진행과정을 소개해 주시지요.

이상림 \_\_\_\_\_ 처음 이 프로젝트에 개입된 설계사무소는 '공간'을 포함해서 다섯군데였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제안하는 것이었지요. '공간'은 덕성여대 캠퍼스를 좋은 캠퍼스로 생각하는 발주처의 선택으로 참가할 수 있었고, 캠퍼스

플래닝 실적과 간단한 도면을 제출한 뒤, 이사장과 학장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학교의 발전 모형과 마스터플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의 시간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공간'은 그 결과 여타 설계사무소와의 차별화된 설계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전진삼 \_\_\_\_\_ 그때의 기억을 하나쯤 상기해 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를테면 당시 학교 관계자와 나누어진 대화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말이지요. 아니면 그당시 생각하고 있으셨던 대학의 이상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상림 \_\_\_\_\_ 아주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이상적인 마스터플랜이 대학의 장래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된다는 믿음으로 동분서주 뛰어다니던 모(某) 젊은 교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런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냐고 설계자의 결심을 응원하신 고(故) 장세양 선생의 건축에 대한 열정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설계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가라면 누구나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타 설계사무소 혹은 주위 건축가들이 행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 새롭고, 이전에 경험되지 못했던 학교를 만들어보겠다는 자기확신에 차 있었지요. 학교의 이상적인 마스터플랜은 건축적으로는 기능의 연결이나 조형의 완성도가 높아야 하겠지만 우선 학교의 주인격인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감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행정동

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인격도야와 그의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교수들도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플랜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전진삼 \_\_\_\_\_ 현장에 처음 와보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이상림 \_\_\_\_\_ 그 때만해도 이곳이 매립을 마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벌판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고, 그 위로 소금기가 짙은 바닷바람이 무척 세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물론 바다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불어오는 소금바람을 통해 내가 지금 서해안의 먼어근 어느 한 자락에 서있구나 하는 확인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전진삼 \_\_\_\_\_ 시화지구는 대표적인 서해안 매립지인데 설계시 곤란을 느낀 점도 많으셨겠습니까.

이상림 \_\_\_\_\_ 매립지라는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기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되었으며, 특히 1.5미터만 땅을 파내려가면 약 30미터 정도의 뿔이 나오므로 파일을 적용하게 되었고, 또한 중저층은 토양과 바람의 영향으로 수목이 자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조경부분은 토질을 개선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전진삼 \_\_\_\_\_ 자료를 뒤적이다보니 이 학교는 1995년 건립기본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후 약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비로소 그 계획서의 결과가 세상밖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 시대적 변화기에 노출되었던 이 프로젝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상림 \_\_\_\_\_ 건립기본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1995년의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지나치리만큼 모든 것이 자신에 차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무척 좋았

을 때입니다. 이 학교는 일반대학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아니고,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복선형 교육체계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90년대 중반은 산업현장에 유입되고 있는 기능 인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이며, 현장에서는 경쟁력있는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에서 고급한 기술인력의 양성이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인데 근년에 들어서서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실업률이 급상승하며 산업현장의 수송인력이 감소되면서 자연히 산업기술대학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진삼 \_\_\_\_\_ 그제나 이제나 산업기술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물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캠퍼스 플래닝에 주목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상 대학의 마스터플랜을 진행할 때, 플래닝에 적용되는 일반 사례와 이 캠퍼스에 적용되어있는 플래닝 수법에 대하여 한 말씀 주시지요.

이상림 \_\_\_\_\_ 캠퍼스 플래닝은 광대한 대지면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흔히 캠퍼스 코어라든지 캠퍼스 스트리트 또는 캠퍼스 몰 등을 구성요소로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캠퍼스는 20~30만 평을 넘는게 일반적이인데 이 산업기술대학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2,000평에 불과하므로 종합대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규모의 협소함이 일반적인 플래닝 수법을 적용시키는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캠퍼스 스트리트나 몰보다 중정을 곳곳에 만들고자 했습니다. 넓고 큰 공간보다는 서로의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으면서도 감성이 풍부한 공간을 기대하였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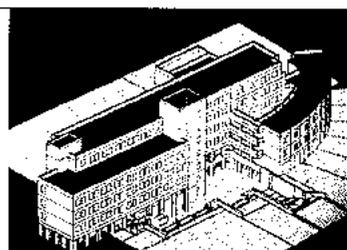
전진삼 \_\_\_\_\_ 앞서 잠시 언급하시고 지나가셨지만 덕성여대 캠퍼스가 외국 건축가와의 협력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외국 건축가와의 디자인 협력의 관계 이후 독자적으로 캠퍼스 플래닝을 하고자 할 때 얼마만큼 이전의 경험된 가치에서 독립적일 수 있는 지가 궁금해집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중정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건국대학교 종합강의동

이상림 \_\_\_\_\_ 덕성여대 쌍문동 캠퍼스는 1970년대말 서울대 관악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주도하였던 제임스 패독(James, A. Paddock)이라는 분이 김수근 선생과 같이 작업을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캠퍼스도 각동과 동 사이에 중정을 가지고 있었고 각 개실은 외기에 직접 면할 수 있는 환경적 인자를 중시하였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그리고 개실들은 대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스케일로 처리되어 인간중심의 사고가 풍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를 통한 원경의 자연이 교정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공간의 장치가 많았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공간'은 가정·약학관을 필두로 미술학관, 도서관 그리고 끝으로 학생회관, 행정동 등 5개동을 디자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서관동부터 합류하여 학생회관, 행정동까지 설계에 참여하였는데 그 때의 관계가 지속되어 지금까지도 패독씨와는 교류를 할만큼 플래너와 건축가의 사이가 돈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건축가와 국내건축가의 관계라는 입장의 차이를 떠나 선배건축가로서 그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삼 \_\_\_\_\_ 이 학교는 주된 구성원인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여타 일반 대학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학제에 관련해서도 연 3학기 1년 내내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설계에도 반영되었을텐데요.

이상림 \_\_\_\_\_ 학교의 프로그램에서 교과 강의가 연중 발생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냉난방설비의 적용이라는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의 대학 가운데서 강의동에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곳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곳에는 기계 설비의 설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좁은 캠퍼스내에 위치시킨 건물 각 동에 의해서 차단될 수 있는 시선의 간섭을 최대한 방지하여 어느 곳에서나 외부로 열려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특정 계절의 기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공간 사용자들의 몸움직임을 활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강의동과 강의동 그리고 학생회관으로 종합되게끔 연결된 브릿지 계획이 그 사례입니다. 이는 공간활용의 성능을 일층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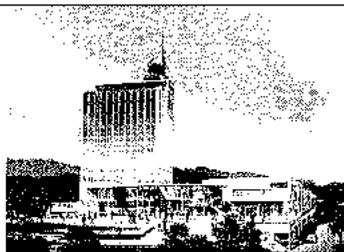
전진삼 \_\_\_\_\_ 도면위에서 체크되는 시선의 크기와 현장에서 발견되는 시선의 크기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동과 강의동 사이(A동과 B동, 그리고 C동과 D동)의 100여 미터에 달하는 긴 벽면의 끝까지는 크지 않은 평면한 대지에 공간의 인장력을 부여하는 활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튀어나온 반 원의 계단실의 외벽면에 의해서 장변의 벽면이 주는 극적인 감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공대지로서의 협곡이 붙어넣는 지배적인 힘이 실패되고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림 \_\_\_\_\_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공의 협곡'이라는 표현은 낯설지만 듣기에는 좋군요. 평면한 대지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로 중앙의 대형 오픈 스페이스와 함께 강의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긴 터널과도 같은 세장한 오픈 스페이스가 계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세장한 터널형 공간이 조금 방만한 스케일감으로 완결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강의동 중간의 계단실 실린더가 눈에 거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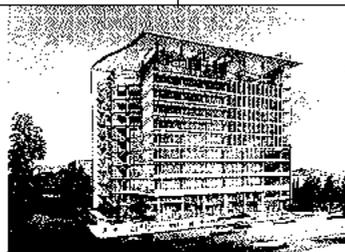
전진삼 \_\_\_\_\_ 그러나 강의동과 학생회관, 그리고 행정동으로 둘러싸인 중앙의 대형 오픈 스페이스와 함께 이 캠퍼스는 두 개의 협곡으로 지칭되는 총 3개의 중심을 지니는 공간의 조직을 통해 공간이라는 판에 박힌 대지의 나쁜함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축적 장치로서의 공간나누기에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여도 좋을듯 싶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들 공간이 어떠한 양태로 발전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상림 \_\_\_\_\_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외부공간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의 주문은 가능할 겁니다. 강의동 A와 B의 성격은 육중한 기계장비의 실습이 따르는 하드웨어적 특징이 강하다면 강의동 C와 D는 정보네트워킹 등의 관련학과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건물 각 동의 생김새는 거의 같은 스타일에 유사한 평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터널형 오픈 스페이스에서 규정되어질 수



KBS 대구방송중국



한국통신 목포전화국



성신여대 2부관

는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통합적이며, 다양한 액티비티가 중앙의 오픈 스페이스에서 벌어진다면 개별적 행동이 두 개로 나뉘어진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전진삼 \_\_\_\_\_ 행정동이 대지 전체의 중심축에서 이탈해있는 것은 심의를 통해서 조정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대지 초입의 정 중앙에 위치하여 하부 필로티를 통해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접어드는 실질적 관문의 역할을 기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건물의 중심축을 고집하지 않고 약간 빗겨서 앉은 점이 유연하다고 봅니다만 설계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림 \_\_\_\_\_ 심의에서 주로 거론된 주제가 학교의 중심은 학생회관이 되어야지, 행정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로티를 두었다지만 행정동이 정 중앙에 위치하여서는 학생 중심적 사고를 펼 수 없다는 완곡한 지적이었지요. 그것은 시점(視點)의 차이가 될 겁니다. 행정동 하부의 필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이 뒤돌린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학교의 중심이 학생들에게 모아져야 한다는 인식에는 애초부터 서로의 차이가 있던 부분이 아니었지요. 심의위원들은 어쨌거나 한 눈에 학생회관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였고, 나는 그 상징성이 공간을 경유하게 하는 은밀한 접근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보았던 거지요. 한 눈에 무언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간점유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삼 \_\_\_\_\_ 이 캠퍼스 내에서의 각 건물들은 어찌되었거나 하부공간을 비워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랄 수 있습니다. 캠퍼스 단지내에서 행정동과 체육관을 제외하고는 전체 건물이 동일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서 관찰자는 하나의 캠퍼스가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이상림 \_\_\_\_\_ 막상 한꺼번에 완성된 캠퍼스를 거닐고 보니 딱은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서두에도 밝힌 바 있지만 워낙 작은 규모의 대지에 수용해야 할 공간 프로그램을 껴맞추자니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

다. 결과적으로 캠퍼스내 건물이 각각의 시간대를 지날 수 없을 거라면 역으로 각각의 건물이 시간을 먹는 재료의 텍스처(texture)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개의 중심 건물이 벽돌이라는 재료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전진삼 \_\_\_\_\_ 그러나 산업기술대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벽돌의 이미지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담고 있는 내용물은 최첨단의 기계공학적이며, 정보기술적인데 반해 그것을 감싸고 있는 표피는 재래의 벽돌이라는 점, 말입니다.

이상림 \_\_\_\_\_ 그런 지적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애당초 건축주가 되는 학교 관계자들이 선호했던 재료가 벽돌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조적의 성장을 살려야 하는 벽돌이 스킨(skin)으로서 퇴락하고 있는 현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텍스처로서의 벽돌이 전달하는 느낌은 그 어떠한 재료로도 찾을 수 없는 매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맛에 벽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기계라고 하는 딱딱하고 거친 이미지를 감쌀 수 있는 벽돌은 이 학교에서는 보다 잘 어울리는 재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캠퍼스를 구성하는 주재료로서 벽돌은 그 미적 강도가 그 어느 재료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전진삼 \_\_\_\_\_ 이 캠퍼스 주변의 공장군에서 발견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건물과 시멘트 몰탈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공장지대라고 하는 멋으로 가려져있을 뿐 도시의 미적 감대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교의 벽돌로 토해내는 컬러는 무척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쉽게 느껴지지 않는 재료의 안정감이 특히 이곳의 장소성을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제는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강의동의 평면 구성에 오늘 대화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릇 대학의 강의동 평면 구성은 어디나 할 것없이 병영막사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이 획일적입니다. 사인보드 하나에 의지하여 찾아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고, 막상 강의동 건물내로 진입하면 미로로



성신여대 2부관



고양시 농수산물 물류센터



양천구민회관

둔갑해버리는 어둡고 푹푹한 복도라는 내부의 길로 아연 질색하게 만듭니다. 이 학교는 도면상에서 각 강의동 평면의 날개 가장자리 부분에 휴게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관심있게 그 공간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강의동 평면의 형식이 가져가야 할 개선의 여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으신 점은 무엇입니까?

이상림 \_\_\_\_\_ 그나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는군요. 물론 학교측에서 일정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는 요구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각 강의동의 개선은 강의실과 실습실, 그리고 교수연구실이라는 기본적인 공간조직을 하나의 플로어에 풀어놓는 순간, 강의를 마친 학생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는 점은 계획 당시부터 공간배분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놓여지는가와 맞물려 신경을 써야하는 대목으로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전진삼 \_\_\_\_\_ 그러나 이 학교의 강의동에서조차도 소극적인 공간운용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각 강의동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휴게실을 강의동의 중심, 그러니까 병원건축에서 병동의 중심에 간호사실이 위치하고 있듯이, 개방형의 휴게 공간을 강의동의 중심에 올려놓고 그곳을 통한 관련학과의 지시성과 학생들의 중심성이 공간 구조로부터 발견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지요.

이상림 \_\_\_\_\_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부분은 이 학교내의 브릿지 상에서 다소 해결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그곳이 머무는 장소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강의동의 중심이 학생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지적임에 분명합니다.

전진삼 \_\_\_\_\_ 그런데 이런 산업기술대학과 같이 특화된 장르의 실습실 계획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결정됩니까?

이상림 \_\_\_\_\_ 각각의 실습실은 그곳에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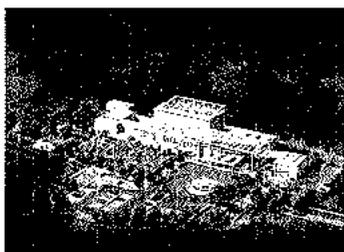
오는 기계장비의 하중, 전압, 기타 설비조건 등의 실 스펙(spec.)을 학교측으로 받아서 적절한 공간의 크기 설정과 구조의 계산을 합니다. 또한 실 스펙이 여의치 못한 학교의 실습실은 직접 현장의 방문을 통해 기지재의 스펙을 검토하는 실증 자료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어지간한 종합병원 규모의 설비계획이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림씨는 함께 동행한 한국산업기술대학 현장에서 여러 차례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크고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진 내외부 공간을 들락이며, 세세한 디테일의 공간을 점검하고 있는 눈치가 역력했다. 원설계와 극명하게 달라진 행정동 전면 파사드 계획의 수정에 질겁하기도 하였다. 다소 과잉 표현된 벽돌조형의 실함의사를 현장에서 즉각 수정하고 있었다. 학생회관 전면의 대형 오픈 스페이스로부터 학생회관 지하 공간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접속공간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독백처럼 아쉬움의 말을 흘리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은 이주 오랜만에 현장에 찾아온 건축가로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힘겨투기를 해야 할 시점에 감리의 역할을 '공간'이 수행하지 못 한데서 오는 회한과도 같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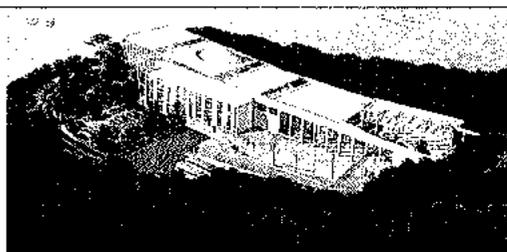
그는 1989년 1년간의 계약으로 호주로 건너가 CM 과정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공간이 수행해오고 있는 디자인 사무실로서의 내부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건축은 디자인과 그것을 충족시키는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의 통합적 의사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간의 전통적인 맥락과 연결시키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김수근, 장세양의 뒤를 잇는 건축가로서의 존재인식의 필요성 만큼 집단의 매니저(manager)로서의 자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바뀐 세상에서는 바뀐 잣대로 바뀐 기준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핵심언어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앞서 나가는 일보다 견고한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모으는 문제작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건축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시간을 담아내는 깊은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은 이 같은 건축가의 의지가 적절하게 표현된 하나의 사례로 꼽아줄 만하다.



인천시립화장장



통영수산과학관

## 이담한 소도시 An Elegant Small Town

양우현/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Yang Woo-Hyun

라틴어로 'field' 의 뜻을 가지고 있는 대학 캠퍼스는 흔히 작은 도시에 비유된다. 즉,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캠퍼스는 다양한 기능적 요구사항과 이와 연관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한편 대학 캠퍼스 계획은 복잡한 기능적 상호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 특유의 낭만적이고 활동적인 분위기와 면학의 장소다운 침착함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속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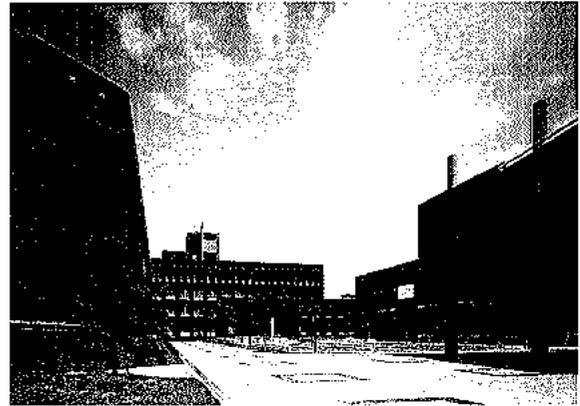
한국산업기술대학 캠퍼스를 방문하여 받은 강한 느낌은 황량한 사막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포용력있는 포근함이었다. 주변의 규격화된 블록에 들어선 많은 공장 건물들과 뒤편의 많은 아파트 속에 2,400명 정원을 수용하는 작은 캠퍼스가 정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형적으로 조화

A college 'campus' which has the meaning 'field' in Latin, is often compared to a small city. That is because, in order to accommodate the diverse functional requirements, the institution and space of the campus-availed by a number of people- must be organically organized and maintained. Also in planning a college campus, not only the complex multi-functional relationships must be rationally considered, but the calm atmosphere appropriate for study but yet the romantic and energetic feel should be satisfied.

The impression the campus gave, when first visited, was a benevolent warmth, something like what you feel when you meet an oasis in a dreary dessert. As the small campus accommodating 2,400 students lies in midst of the standardized blocks-packed with factory buildings- and the high-rise apartments located behind, it presents affection and tenderness. The harmonically formed and orderly arranged clusters of building, the symbolic and at the same time practical open space surrounded by architecture which has an expression of its own, and the lively and sincere activity of collegians. All of these take part in the making of this impressive miniaturized city.

### The order of the campus

When classified in property of its social meaning, The physical form of the campus of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되고 질서있게 배치된 건축물군, 표정을 가지는 건축물들이 감싸고 있는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외부공간, 대학인의 진지하고 생동감있는 활동, 이 모든 것이 인상적인 작은 도시를 만들고 있었다.

### 캠퍼스의 질서

한국산업기술대학 캠퍼스의 물리적인 형태를 사회적인 의미의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반개방적인 연결건물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커다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동과 종합교육관(학생회관)을 연결하여 배치하고 저층부의 일부가 시원하게 개방된 행정동을 전면에 두어 기능적으로 자체완결적인 캠퍼스를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작은 대학 규모와 사회공단의 전형적인 직사각형의 블록안에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계획조건을 고려하면 매우 타당한 배치방

defined as a semi-open conjunctural building. The lecture halls and the Multi-education Hall are connected surrounding a large open-space as a center point, and the Administration Office which is partly open in its lower floors is placed in the front. These characteristics show the architects intention to compose a functionally self-complete campus. Considering the small size of the college, and the situation where you have to effectively organize in a typical rectangular block in Shi-hwa Complex, this is a very adequate arrangement plan. In a site where there is not much association with the outer situation nor contexts-in terms of form- to refer to, the functional integrity or the internal order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One might think that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around a central space would be too general. But the central plaza of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has its own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pedestrian space totally free of cars. When compared with most campuses, which establish a main axis and organize the college institutions and space, and place a boulevard type entrance road along the main axis, one can see that this is a totally different concept. We could think that the small site area easily allowed the placing of the entrance road and the parking lot along the outer part, but the fact that no other campuses with similar size have this kind of disposition surely makes the central space of this campus unique. The apparent fact that the inner circulations of the campus are by foot shows the architect's wise judgement to maintain order throughout the campus.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와의 관계 설정이나 참조할 형태적인 컨텍스트가 별로 없는 이 부지에서는 캠퍼스의 기능적인 완결성이나 내부적인 질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심공간을 두고 주변에 대학시설들을 감싸 배치하는 방식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캠퍼스의 보편적인 배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중심 공간은 차에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보행전용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즉, 많은 캠퍼스가 중심축을 설정하고 대학시설과 공간을 배치하되 볼르바드(boulevard) 형식의 진입도로를 함께 이 축의 방향으로 두는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개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캠퍼스의 규모가 작고 그래서 접근도로와 주차장을 외곽에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손쉬운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비슷한 규모의 캠퍼스에서도 쉽게 반례를 찾을 수 있기에 이 캠퍼스의 중심공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대학 캠퍼스 내부동선의 대부분은 보행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캠퍼스에 질서를 주기 위해 작가가 현명하게 선택한 명확한 배치개념이다.

커다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외곽에 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을 배치한 내부지향적이고 자체완결적인 개념은 적절한 위요감과 사용상의 편의성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치 방법이지만 대학 캠퍼스의 중요한 특성인 성장과 변화의 관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대학의 규모가 확장되어 새로운 시설이 부가된다면 기존의 완결적인 캠퍼스 질서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만약 한국산업기술대학 캠퍼

The arrangement of a large open space in the middle and locating the supporting buildings-the field, gymnasium, dormitory, etc.- along its outer sides is an internally oriented, self complete concept. This kind of arrangement is effective in achieving appropriate enclosure and convenient availability, but at the same time has some limitations. The possibilities of growth and change, which surely is an important factor in a college campus becomes neglected. If the college enlarges its size and creates new institutions, the formerly complete order could become obscure. When the campus spreads its territory to the factories and the Production Technique Research Center in the same block, the original concept of a single centered, symmetrical siting concept is apt to weaken.

#### The functional composition and the masses

The campus's overall functional composition and mass division seems agreeable. The lecture hall which is the main center for education and research, the Administration Office, and the Multi-education Hall composed of a library, special-educations facility, and the student center, form the main area. The track field, gymnasium, and dormitory located on the outer edge of the site becomes the subsidiary area. This division of the main and subsidiary in the site plan allows convenience and clarity. To accord with the flat geography and the surrounding factories and warehouses, most of the buildings were planned to be around 3

stories high. So when approached from the front of the 20m wide road, only the vertically rising chimneys visible over the administration office and the Multi-education Hall-reminding industrialism and technology- appear prominent, and the campus overall allows comfortable cognition of nice buildings and the center court.

#### 기능구성과 매스

한국산업기술대학 캠퍼스의 전반적인 기능구성과 매스의 배분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의 중심인 강의동, 도서관과 특별교육시설 그리고 학생회관의 기능을 갖춘 종합교육관, 행정동으로 중심영역을 구성하고 기능적으로 외곽배치가 가능한 운동장, 체육관, 기숙사를 보조영역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고 편리한 캠퍼스가 되도록 하였다. 또 평탄한 지형에 적합하고 나지막한 주변 창고, 공장 건물들과 어울리게 건물들 대부분이 3층 내외의 높이로 계획되었다. 그래서 20m 도로 쪽 정면에서 캠퍼스로 접근할 경우, 행정동과 종합교육관의 위로 치솟은 산업과 기술을 암시하는 듯한 굴뚝 모양의 조형물들만이 두드러질 뿐 전반적으로 아담한 건물들과 확연한 중심광장을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다.

연약지반이라는 부지 조건과 시설 프로그램, 경제성 등을 고려한다면 건축물들의 매스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기능의 혼합에 의한 파격적인 기능구성이나 조형적으로 강조된 독특한 매스가 시도되었다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매스의 조정에 의한 전체 이미지의 결정은 전적으로 작가의 창조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이 캠퍼스의 경우 권위적이지 않도록 평면과 입면에서 세심하게 배려된 행정동을 중심광장의 전면에 비대칭으로 배치하여 개

stories high. So when approached from the front of the 20m wide road, only the vertically rising chimneys visible over the administration office and the Multi-education Hall-reminding industrialism and technology- appear prominent, and the campus overall allows comfortable cognition of nice buildings and the center court.

The mass of the buildings seem rational considering the site's weak ground, program, and economical efficiency, but a radical organization of functions by mixing, or a unique sculpture like form could have been attempted. Of course, this kind of determining of the overall image by masses, lie totally upon the architect's creative taste. By placing the administration office-the plans and elevations of this building were carefully designed not to give an authoritative impression- asymmetrically in front of the center court, it was successful in achieving openness and enclosure simultaneously. But dividing the comparatively small Administration Office from the other buildings doesn't seem so necessary. The Administration Office plugged in for practicality, actually seems to defy the original concept of symmetry starting from the central plaza. It forced the lecture halls to change its position and form, thus weakening the orderliness of the overall site plan. Also the central plaza could neither maintain a completely surrounded court nor a square court opened to one side, but could only form an irregular shape. When the idea of a definite order of form in a campus, where different facilities and space need arrangement, became a premise of this project, the architect could have

방감과 위요감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자 한 것은 성공적인 배치 기법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행정기능을 건물단위로 따로 구분하여야만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앙광장 중심의 대칭적 배치개념을 유지하면서 실용성을 강조하여 행정동을 전면에 끼워넣음으로써 강의동 건물들의 위치와 형태가 조금씩 변경되어 전체 배치의 질서 정연함이 상실되었고, 중앙광장도 완벽하게 둘러싸인 중정 또는 한면이 개방된 C자형 외부공간 그 어느 것이 아닌 불완전한 형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명확한 형태적인 질서가 캠퍼스처럼 다양한 시설과 공간이 배치되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계획 이슈라고 전제한다면 행정기능을 다른 기능과의 적절히 혼합하여 다른 곳에 배치하여 전체에 명확한 질서를 주는 대안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배치개념과 외부공간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위쪽에 실질적인 학생활동의 중심인 종합교육관을 배치하고 교육연구시설인 네 개의 강의동을 겹으로 좌우에 배치한 것은 시설 프로그램을 충족하면서 중심광장의 실용적 기능과 상징성을 달성한 현명한 배치 개념이다. 그리고 중앙광장에서 뒤 강의동이나 다른 기능공간으로의 연결을 위해 앞 강의동 일부를 뚫고 그 주변에 적정 규모의 휴게기능과 다양한 형식의 건물 입구를 계획하고 내부공간을 이와 관련하여 배치한 점은 매우 우수한 계획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또 중앙광장에서 식당을 비롯한 지원시설이 배치된 종합교육관의 지하로 직접 연결되는 선크가든을 둔 것은 실용

적인 이유와 입체적인 공간을 연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시 훌륭한 외부공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변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표현된 이러한 적극적인 계획개념 덕분에 중앙광장을 전체 캠퍼스의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중심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캠퍼스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나무가 아직은 빈약한 형태로 심어져 있어서 정확한 공간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역을 구분하여 녹지와 포장된 광장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것이나 바닥의 레벨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단순명료한 외부공간이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이 광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또 중앙광장의 가치를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중심공간으로서의 실용성에 둔다면 강의동 측면에 경사벽을 두어 육중한 느낌을 주고자 한 작가의 조형적 의지는 별다른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강의동간 그리고 강의동과 종합교육관을 연결하는 공중복도는 각각의 기능을 가진 개별건물들을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완결된 교육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적용된 중요한 계획요소로 유니온 칼리지(Union College)나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의 파빌리온 시스템(Pavilion System)에서 그 계획적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결복도는 기능공간 사이를 연결한다는 실용성 이외에도 자상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교류에 의해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육중한 벽돌치장의 건물과는 다른 경쾌한 이미지와 구조적 표현을 강조하고자 철골과 유리들

thought of the possibility of adequately mixing the administration with other functions and then position it where it can fortify the campus's order.

#### Site-planning concept and the exterior space

Locating the Multi-education Hall, which is the main center of student activity, above the central plaza, and layering the four lecture halls to the left and right of the plaza-two on each side-is a clever site plan able to satisfy both the facility program and the plaza's symbolic and practical needs. To connect the lecture halls in the back or other functional spaces with the central plaza, the architect opened up part of the front lecture hall and planned moderately-sized rest areas and various forms of entrances. Also the architect made a superb exterior space, in points of practical reasons and geometrical volumes, by putting a sunken garden, where lies a cafeteria and supporting facilities connected to the basement of the Multi-education Hall, in the central plaza.

The aggressive planning concept, expressing the organic relations with the surroundings, defines the central plaza as the core of the campus's symbolism and practicality. But the tree, which is said to tell the history of this school, remains in a scanty figure. By geometrically arranging the greenzone and the paved plaza, and by differentiating the floor levels the architect seems to have intended various activities, but a proposal that the simple and distinct is more apt to accommodate

the variety can be asserted. (Actually students were playing soccer in this plaza during lunch time.) And also the architect's sculpturesque intension of a bulky feel by putting a slanted wall on the side of the lecture halls, is not persuasive in that it doesn't coordinate to the central plaza's concept of overall union of facility and space.

The overhanging pathways connecting the multi-education hall and the lecture hall or between the lecture halls, is an element to form a complete education community as a whole by connecting the individual buildings with different functions. These pathways have their origin in the Pavilion System of Union College or the University of Virginia. The connecting pathways not only have practicality in that it connects function and space, but have a merit in giving a three-dimensional and active atmosphere by being visually interactive with the exterior space. But the light image and structural expressions of the pathways seem rather poor compared to the buildings covered with massive bricks. Also the pathways give an unfinished and temporary impression as it is not totally unified with the building but connected with a gap. Among the three types of pathways used, the architect used both pathways with or without canopies on the type connecting the lecture halls. This kind of ambiguous expression has functional limitations to be interpreted as an effort for diversity.

A very interesting exterior space that could be found in this campus was in between the lecture halls. The long and narrow space made by the parallel positioning of the lecture hall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central plaza on

사용함으로써 조형적으로 빈약하게 느껴지고, 연결 건물과 완전히 일체화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고 걸쳐 있어서 임시적이고 미완성적인 요소로 해석되었다. 아울러 세 가지 종류의 연결 복도 중 강의동간의 연결에 형태와 캐노피의 유무로 구분되는 두 종류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다양화의 의도로 해석하기에는 기능성에서 한계를 가지는 애매한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캠퍼스에서 발견한 매우 인상적인 외부공간은 강의동 사이의 공간이다. 강의동의 평행배치로 인하여 생긴 이 좁고 긴 공간은 평면적으로는 중앙광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강의동을 연결하는 공중복도들이 위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적절한 위요감을 갖추고 있다. 형태와 기능으로 보아 이 공간은 많은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가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캠퍼스의 활동성과 보행환경을 강조한 작가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창조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바닥재료 변화와 적절한 식재에 의해 비교적 원만하게 보행공간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나 녹지와 보행공간 쪽의 차별 배분이나 비례감의 확보, 또는 지향성의 설정 등의 디자인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면 캠퍼스내 특징 있는 가로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건축물 계획

건축물 계획에서도 창조적이고 참신한 여러 가지 시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효율적인 공간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적용되는 중복도와 양쪽 실배치라는 전형적인 형식을 탈피하여 강의동에서 다양한 형태로 입구, 홀, 계단실, 휴게공간 등의 공용부분을 과감하게 배분하여 변화를 준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종합

ground and has overhanging pathways above, which give a comfortable feel of enclosure. In aspects of form and function this space has sufficient possibility to induce all kinds of activity. The architects emphasis on activeness and foot-walking environment has been creatively expressed in this area. Though the different floor materials and appropriate trees make a pleasant walking space at the present, more consideration and additions on design contents, such as greenzone, differentiation of the width and proportion of the walking space, and establishment of feel of direction, would make the walkways a more characteristic place in the campus.

### Planning of the architecture

Many creative and new attempts could also be found in the planning of the architecture. Breaking away from the typical planning of layering the classes on both sides of the hallway, which is economically most effective, the architect's attempt of dividing the public elements-such as the entrance, the hall, stairways, rest area- in the lecture hall by various forms was new. The change of hallway width, functional layering of rooms, and the fluid relationship of inner and outer space of the multi-education hall, the elevation by wood material expressing comfortable housing at the dormitory, the use of modern form and material and the application of natural light for a pleasant atmosphere in the administration office, and the transparent facades of the stair hall and the conference room allowing

교육관의 변화있는 복도폭과 기능적인 실배치 또는 실내와 외부공간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다용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체육관의 실용성과 탁월한 구조미, 기숙사에서 주거기능의 편안함을 표현한 목재 입면, 행정동에서의 현대적인 이미지의 형태와 재료 사용, 온화한 분위기를 위한 자연광의 도입, 그리고 중심광장과 다른 시설들과의 시각적 교류가 가능한 계단실과 대회의실의 투명한 입면 등 창조적이고 섬세하게 디자인된 건축물들이었다.

반면에 중앙광장을 의식하여 현란하게 조각된 강의동의 입면은 다양한 매스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입체감을 상쇄시키고 있고,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종합교육관의 코어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사용상 불편함이 예상되고, 체육관은 구조모듈에 한정되어 입구홀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면에 협소한 입구가 계획되었고 건물 밖으로 노출된 구조체들 사이와 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건축물 계획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소한 단점들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캠퍼스는 명확한 개념의 진실한 형태 표현이 돋보이는 아담한 소도시라고 요약 평가하고 싶다. 작가의 창조적 계획 의지와 참신한 공간적 시도로 완성도 높은 건축물과 외부공간들로 가득 찬 한국산업기술대학과 같은 가치있는 캠퍼스가 더 많이 계획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번의 방문에서 얻은 어설픈 느낌과 몇 시간 관찰 결과로서의 숙단, 그리고 제한된 자료와 얕은 건축적 지식에 근거하여 장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작문에 누가 되는 영똥한 비평이 되었다면 이 지면을 통해 작가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visual interactions with the central plaza and other facilities, all of these were creatively and delicately planned.

But the complicatedly manipulated elevation of the lecture halls cancels out the naturally expressed space by the differentiation of masses. The core of the multi-education hall, where all kinds of function meet, is relatively finished obscurely and is expected to be somewhat inconvenient. As the planning of the gymnasium was restricted to the structure module, the entrance hall could not ensure sufficient space and a small-sized entrance had to be planned. Also the space made between and under the structures sticking out of the gym is not being effectively used. These are the minor faults that can be pointed out in the planning of the architecture.

I wish to point out that the campus of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s an elegant small town where sincere expression of form according to clear concepts is made. I expect praisable campuses, which is filled with architecture and open spaces made with the architect's innovative will and new spatial intentions, like the campus of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o be planned more in the near future.

In case the words above, that has its foundation on a one time visit, a short time observation and pondering, limited data, and my shallow knowledge on architecture, become a clumsy criticism that will bring disgrace on a work of deep effort, I seek the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 through this page.

## 김포 공중화장실 Paradigm of Coexistence

김희곤 / 흥간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Kon

APT단지내 근린공원에 위치하는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였다. 우선 기초 화장실의 문제점 즉 주변공원으로 건물이 확장 연계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대한 고민이 계획의 출발점이었다.

부가적으로 적극적인 공원의 일부로서 당당하게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격리된 공간에서 산책길의 일부 놀이터의 연장선상에 올려놓는 것이 계획의 전제였다. 문제제기가 퍼포먼스로서 발전한 예이다.

- 퍼포먼스 -
- 화장실이 공원의 당당한 일부가 될 것.
  - 화장실이 기쁨과 즐거움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
  - 화장실 및 관리실에 로비개념을 도입할 것.
  - 화장실 Mass가 조각적이고 놀이터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
  - 배설의 기쁨, 상상의 추진력, 어린이의 꿈과 결부시킴.

재미있는 발상을 건축형태 및 기능으로 계속 발전시켰던 작업이다.

형태적 의미를 부여하는 조각적 요소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와 연결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공간지각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공원의 조형물과 특히 장소적 인식성의 변화가 일어나길 유도했다.

특히 APT에서 내려다 볼때 UFO가 공원에 내려앉은 듯한 만화적인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길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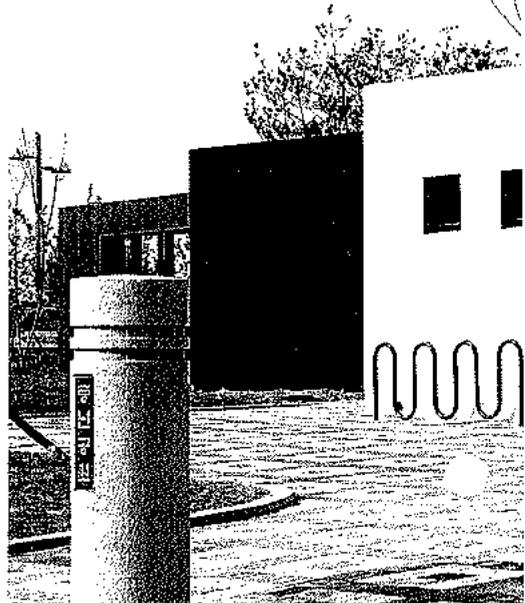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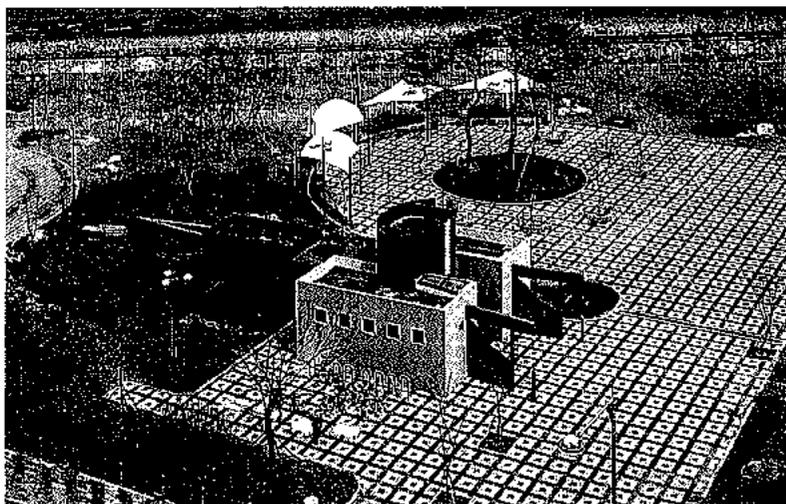
근린공원은 APT의 큰 정원이자 놀이마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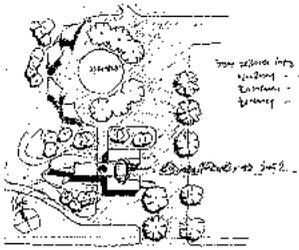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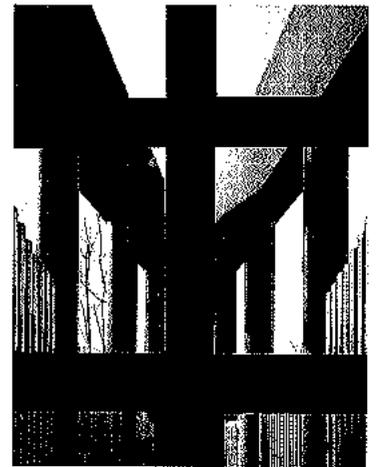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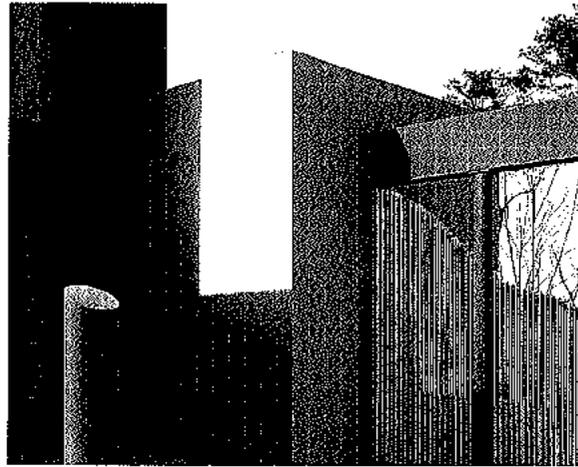
그 마당은 APT 모든 거주자의 심리적 열린 공간이다.

그 열린 공간에 어린이의 동심과 꿈을 공존시켜 현대사회의 지적 육체적 에너지 소모를 재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시공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공인되는 것을 보면서 공공건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강한 사회성과 교감하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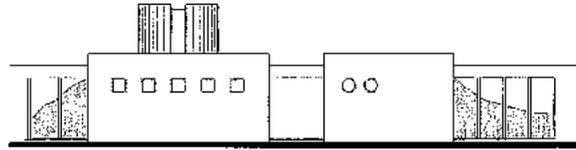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사우지구 제1 근린공원
건축주	김포군청
연면적	72.24㎡
외부미감	몰탈위 페인트 붕칠
용도	관리실 및 공중화장실
규모	1층
구조	R.C조
설계담당	권오상, 원윤정
사진	김재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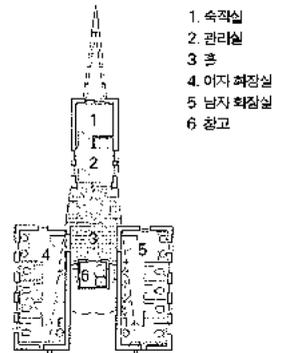
1/20 2000

배치개념 스케치



0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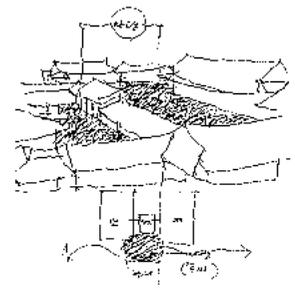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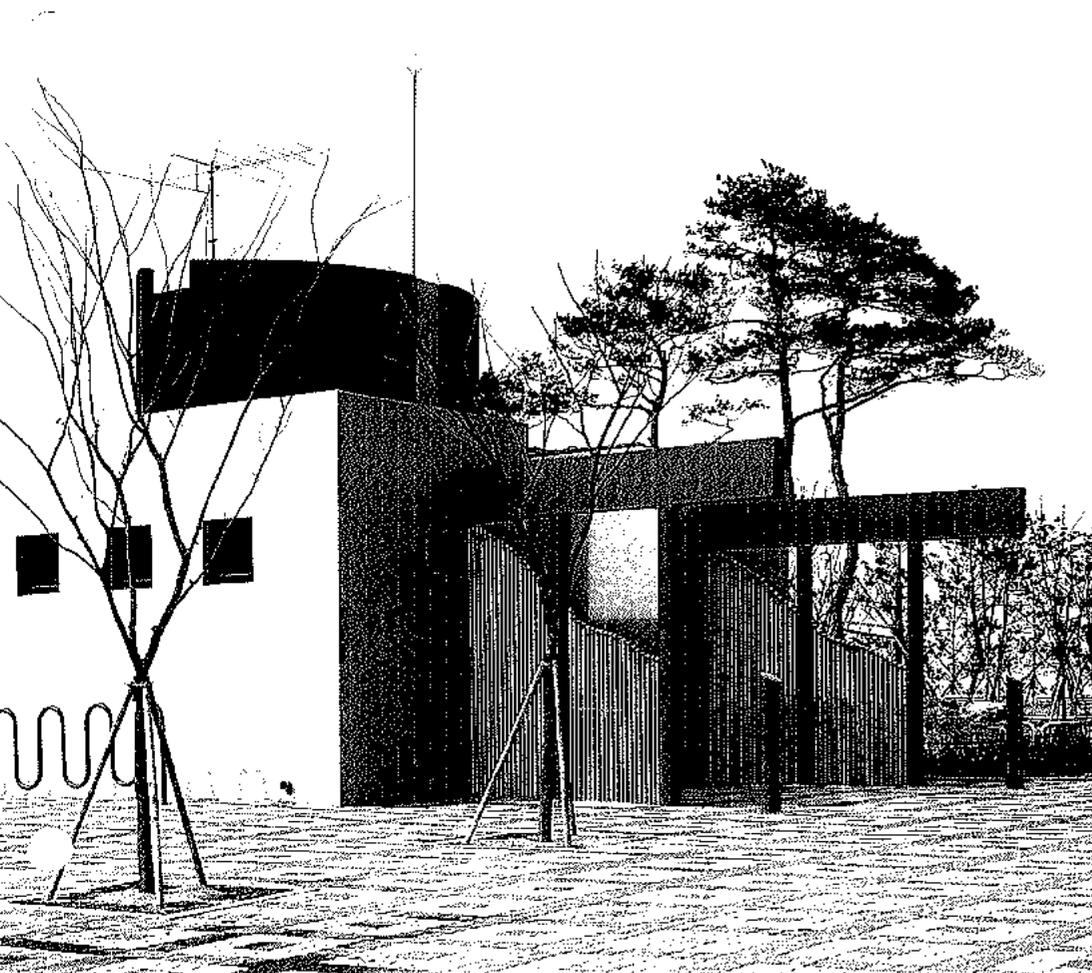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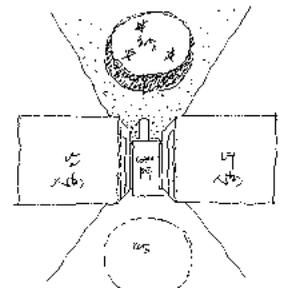
- 1. 숙직실
- 2. 관리실
- 3. 휴
- 4. 이자 화장실
- 5. 남자 화장실
- 6. 창고

0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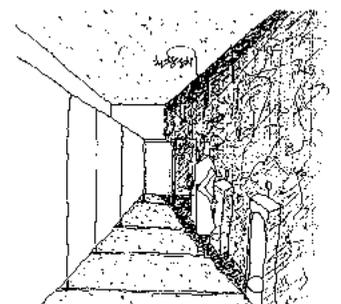
1층평면도



평면개념도



컨셉



실내전경 스케치

# 세심관(洗心館)

Se-Shim-Kwan

서종달 / (주)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Designed by Seo Jong-Dal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0번지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45,210.00㎡
건축면적	425.497㎡
연면적	1,170.052㎡
건폐율	18.02%
용적률	49.1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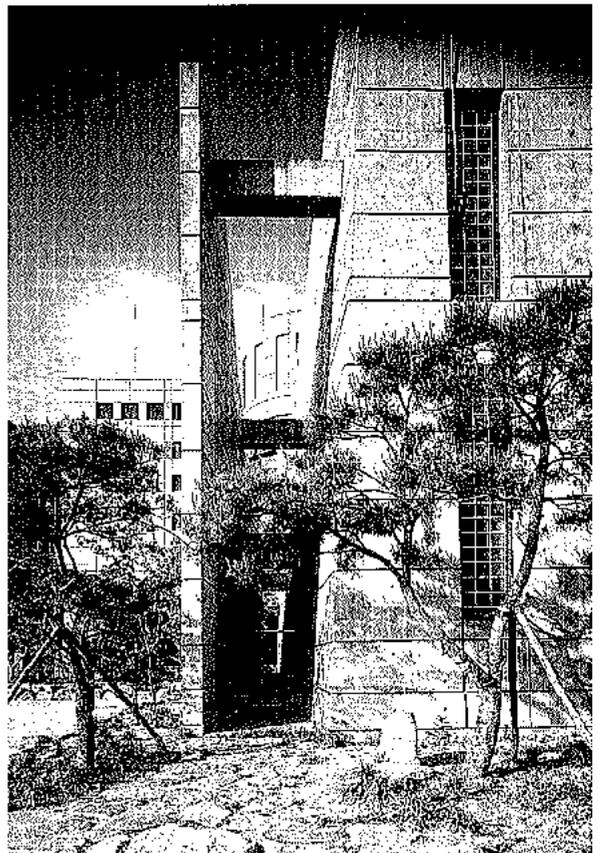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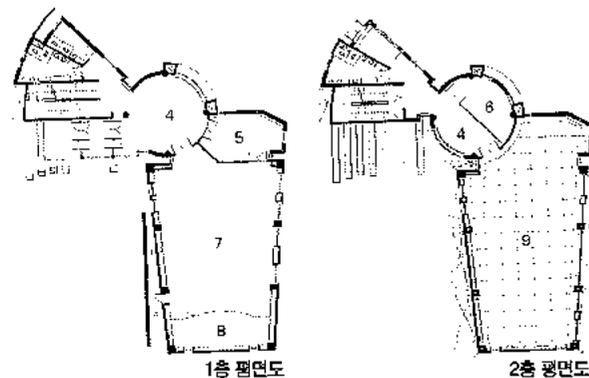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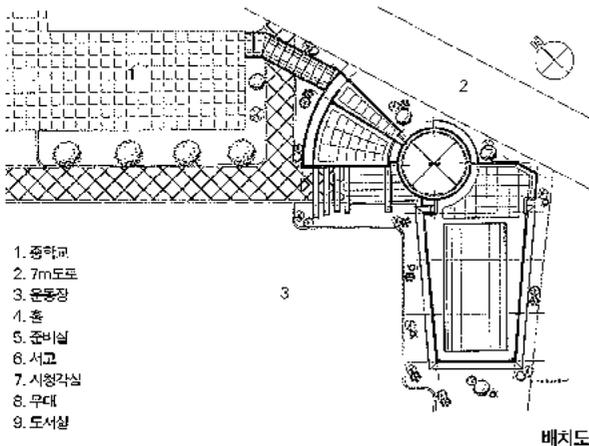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로 등교길이었던 영남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참사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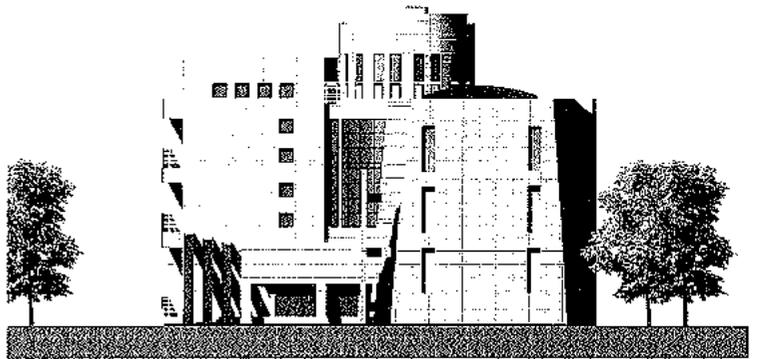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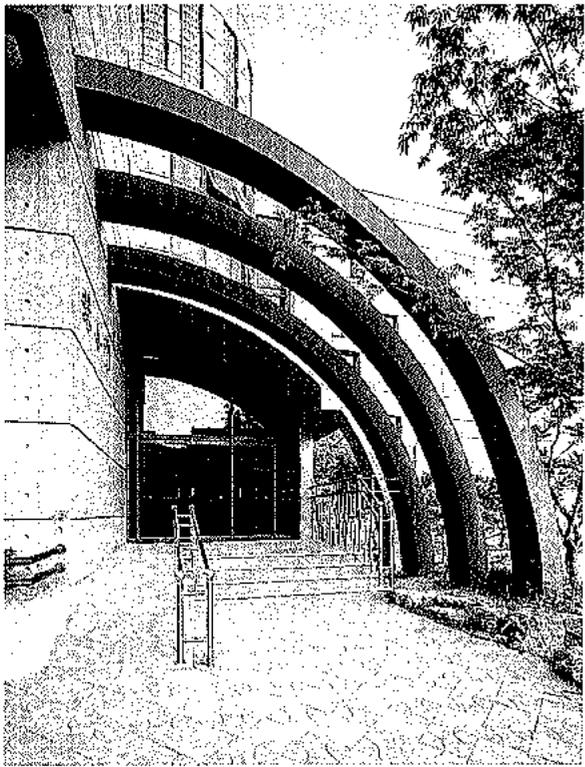
기슴아픈 영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가슴에 남겨지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형태구성의 의미로 새의 날개짓하는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원통형의 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사각 매스가 비스듬하게 올라가도록 하여 건축물의 사회적, 기념비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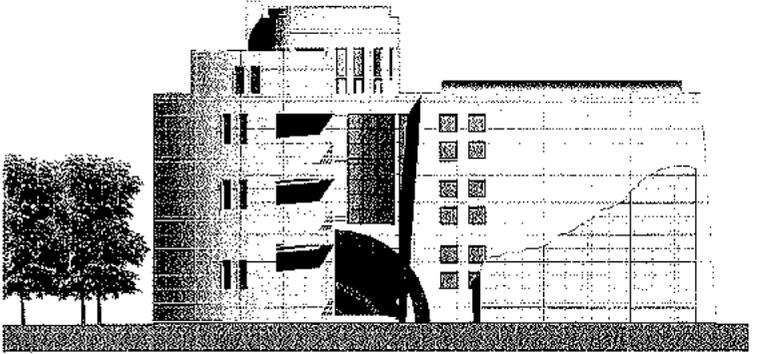
외부 마감은 노출콘크리트로 어린 영혼들의 사죄, 애도의 표현과 가스 폭발로 인한 부서진 흔적인 불규칙한 선을 가진 가벽들을 죽움과 삶, 과거와 현재 등의 주제로 침묵의 표현으로 승화시키려 하였다.

전체적인 공간체계의 핵심은 진입로로부터 철골조 아치의 전이공간을 통하여 원형의 로비(추모홀)에서 다른 내부공간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학교부지 내에서 추모공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남측입면도



서측입면도



# 포항공대 LG전자연구동

## POSTECH LG Cooperative Electronics Engineering

이충언 · 김광섭 /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지곡동 133번지 외 215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교육 연구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527.565㎡
건축면적	2,981.16㎡
연면적	10,132.17㎡
건폐율	5.77%
용적률	18.50%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컬러복층유리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학교이론과 접목되어지는 상징적 의미와 산학협동에 의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인재 육성의 건립목표를 배경으로 포항공대 전체의 Master Plan에 순응하고, LG전자 연구동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코저 노력하였다.

외관의 형태적인 구성면은 두개의 Mass(Solid)를 앞뒤에 두고, 그 사이에 계단 피라미트 형태의 유리 커튼월을 구성 Solid 와 Void의 대비, 사각형과 삼각형의 조합을 꾀하여 학교전체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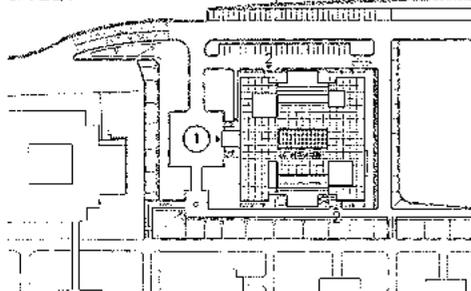
평면적인 공간구성 요소로 실험실은 가장 기능적인 것을 요구하므로 Solid한 부분에 배치를 하고 경사진 부분에는 좀 더 자유로운 교수연구실을, 1층에는 많은 이동이 필요한 대 · 소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크린룸 등을 배치하였다.

휴먼 스케일에 입각한 미래의 건축공간 창조에 의미를 두며 중앙 삼각형 단면의 아트리움은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공간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천창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양의 자연 채광은 내부를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출입구 부분은 낮게 처리하여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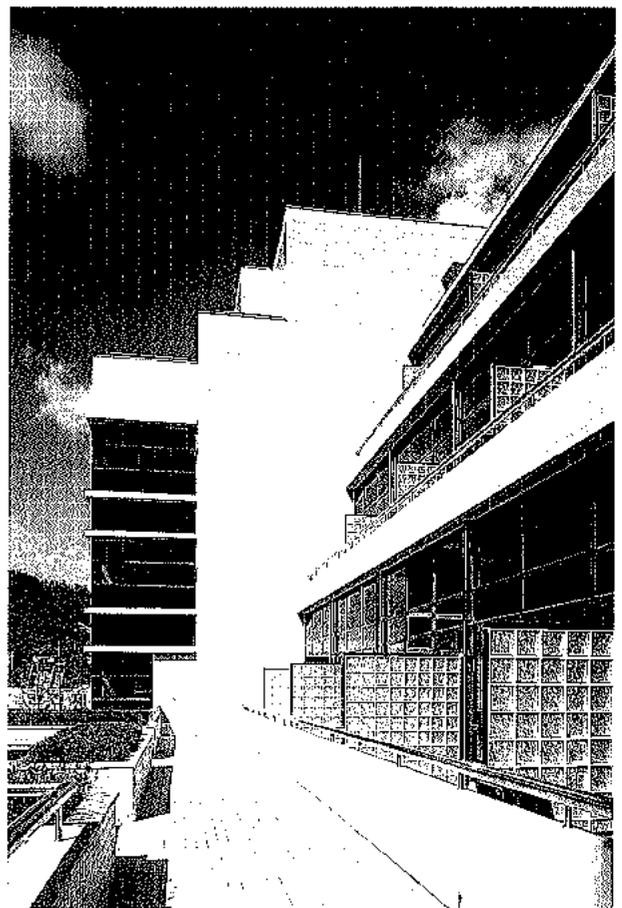
아트리움은 대규모 행사나 전시회 등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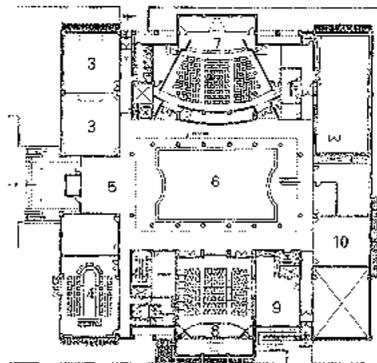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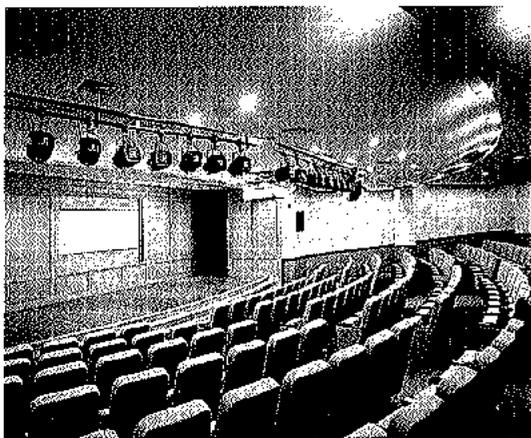


1. 주출입구  
2. 부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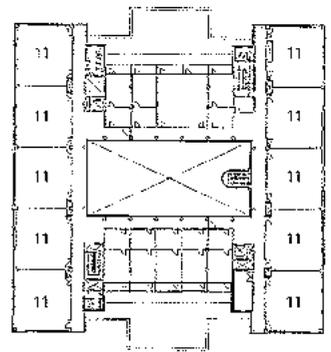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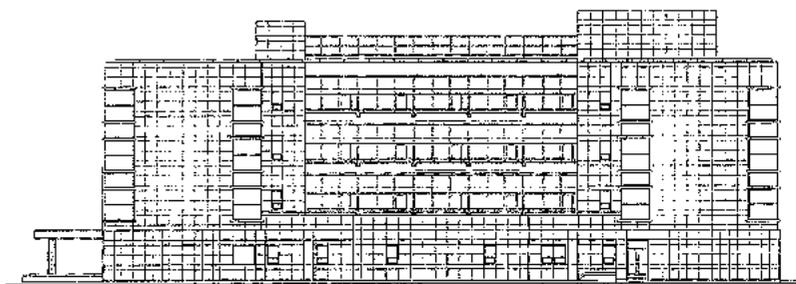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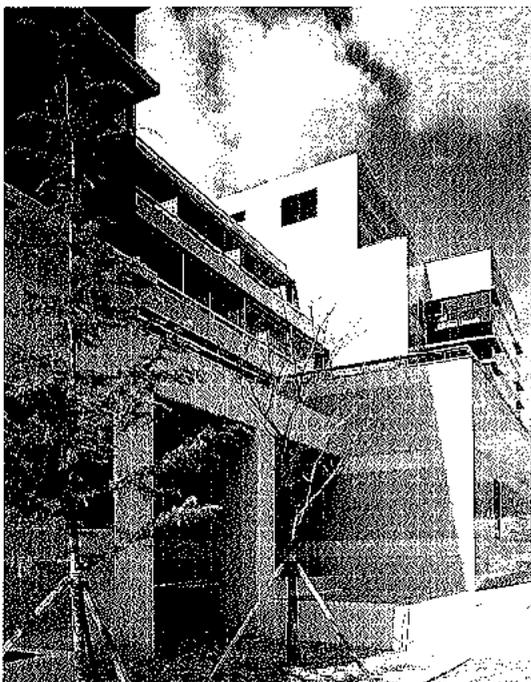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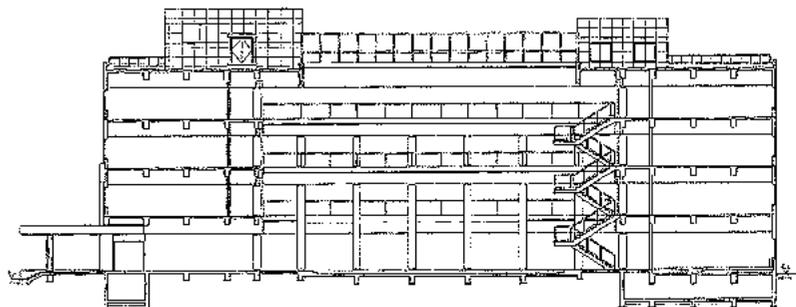
3. 강의실 6. 중정 1층 평면도  
4. 회의실 7. 소강당 8. 대강의실



9. 학생휴게실 3층 평면도  
10. 세미나실 11. 심원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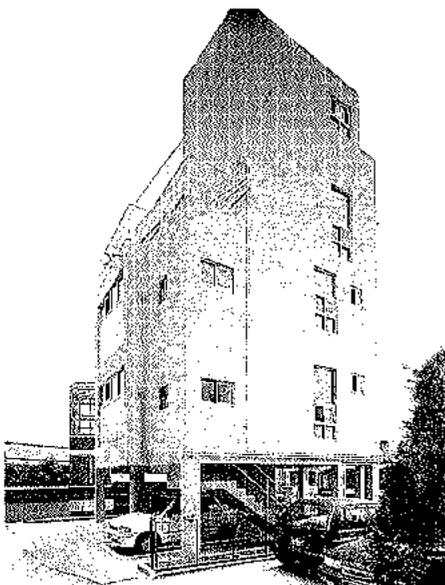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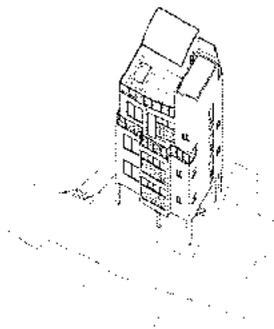
단면도

## 효창동 주택 Hyochang-dong Residence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울  
Designed by Kim Seok-Hwan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6-2
대지면적	115.70㎡
건축면적	69.31㎡
연면적	280.62㎡
건폐율	59.90%
용적률	173.18%
조경면적	180.00㎡
규모	지상4층
구조방식	R.C조
주요내장재	시멘트블탈위 벽지, 수성페인트
주요외장재	드라이비트 시스템
기계설비	화산콘설탄트 / 최상현
전기설비	진산전기 / 유병선



이 건물의 대지는 삼각지와 공덕동 로타리로 이어지는 용마로에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경사지형을 따라 올라간 위치여서 지붕에서는 주변으로 시야가 넓게 확보되며 주변에는 효창운동장과 용산구청 그리고 숙명여대가 산재해 있다. 대지의 3면이 도로에 접하고 남북으로 1개층의 레벨차가 있어 일조권 적용이나 지하층의 채광 확보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시내의 개별 대지는 가로와 흐름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도시 기능에 연관된 개체로서 기능이 발휘된다. 이 주택에서 지반은 전후 레벨차의 효율적 이용과 가로와의 연관을 위해 원래의 지형과 달리 의치처럼 인공구조물로 치환되어 있다. 원래의 지반을 도려내고 구조물에 의한 지반을 형성하여 그 속을 이용하였다. 1층전체는 피로티의 주차장이다. 이 피로티는 단지 이 집의 주차기능 뿐 아니라 도시의 오픈스페이스가 되어 시선이 트이고 바람이 통한다. 그리고 지상으로 피어의 힘에 의해 떠받쳐진 주거시설이 전망을 한껏 누리며 쓰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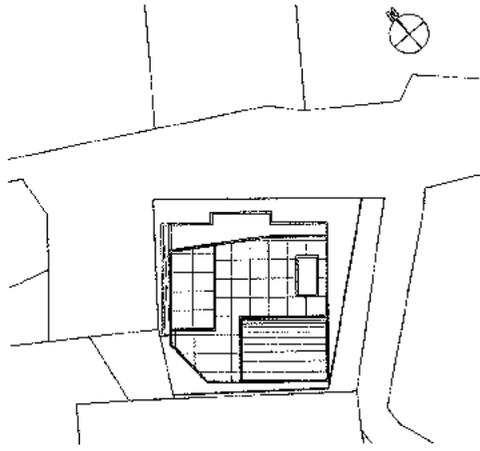
지상층은 층별로 독립되어 있다. 한 칸에 3개의 방을 나란히 배치하고 거실과 식당을 단일공간으로 개방하여 전후의 창을 통해 고여드는 햇살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주방은 조리 맞추납기구와 세탁기 냉장고를 연속해 두어 주부의 동선을 줄였다. 지하층은 2세대로서 측면도로에서 별도로 독립된 출입구가 면해 있고 이 건물의 지상 동선과 분리되어 있다.

계단은 층별로 거주하는 이웃들이 접촉하는 마을길과 같은 성격을 부여하였다. 주차장에서 일자형 계단을 밟으며 살며시 둘러올라가도록 한 계단은 석기질 타일과 노출된 미장면 그리고 단순한 난간 형상에 의해 담백하고 조용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계단은 수직의 가로로서 옥상의 마당과 만나며 외부공간과 순환을 이루고 있다. 계단의 끝에는 옥상의 마당이 펼쳐지고 도회지 건축의 답답함이 일시에 해소된다. 옥상 정원은 이 집이 갖고 있는 또다른 기능의 오픈 스페이스이다. 피로티와는 다른 성격의 비인 공간으로서 휴식할 수 있는 사유의 정원이다. 드넓게 펼쳐진 전망과 맑은 대기를 접하며 도시주택의 단조로움으로부터 탈피될 수 있다. 옥상에는 돌출된 계단탑과 법규상으로 제한된 크기의 다락방 매스 사이로 과정공간을 두어 마당으로서 독립된 쓰임새를 갖게하고 다락방 지붕에서 모인 물이 떨어지는 낙수대와 옥탑 사다리에 의해 크고 작은 매스들로 조형적 콘트라스트를 이루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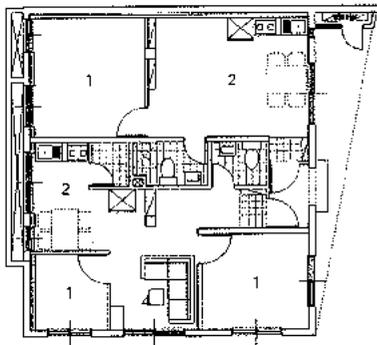
외부형태는 내부의 표출이다. 피로티에 의한 허와 실의 매스의 대비가 긴장감을 부여한 가운데 단순한 백색 색상으로 통일하여 매스의 힘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상과 재료에 의해 조형적 내용의 깊이를 갖게 하였다.

현실 법규의 요구에 따른 해결책이었지만 이 집은 피로티에 의해 도시형 주택이 덕목으로 갖는 합리성과 효율성 총족을 넘어서 마음껏 대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에 갖고 있는 근대건축적 사고에 충실한 양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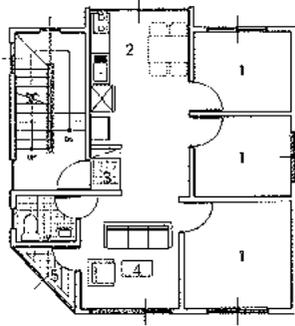
- 1. 방
- 2. 주방, 식당
- 3. 화장
- 4. 거실
- 5. 입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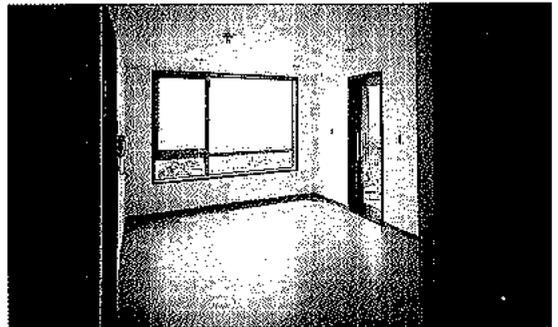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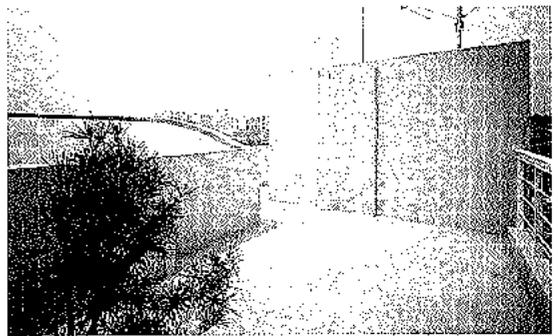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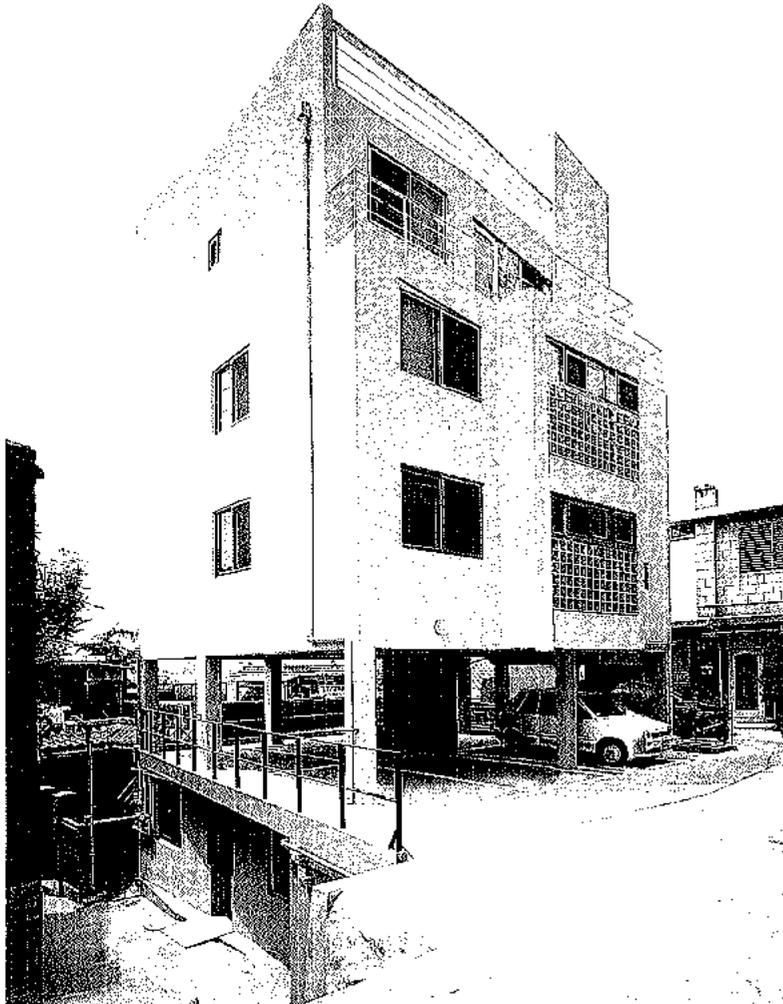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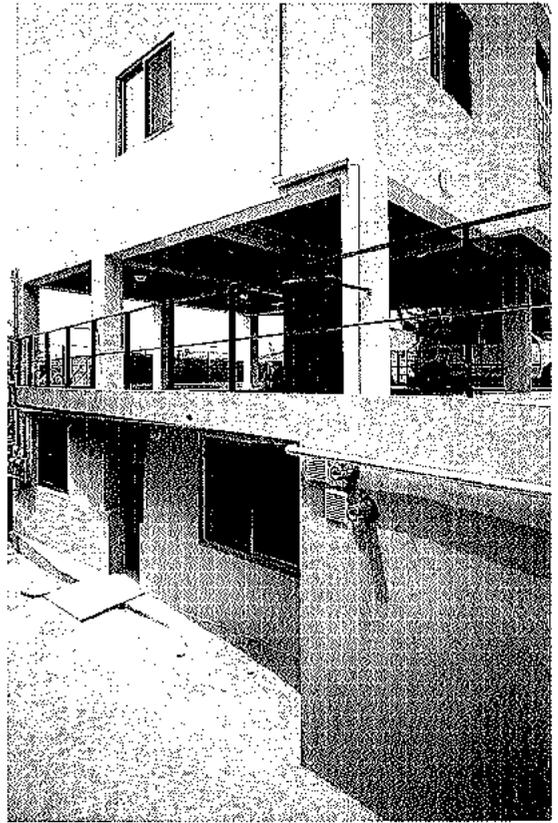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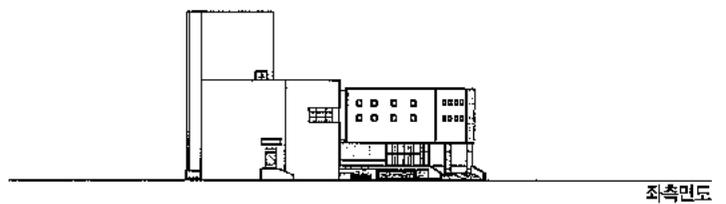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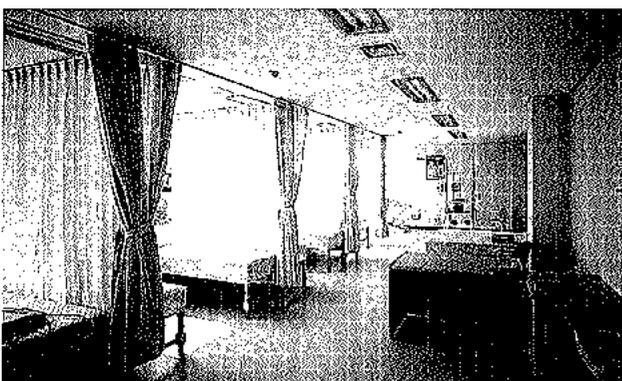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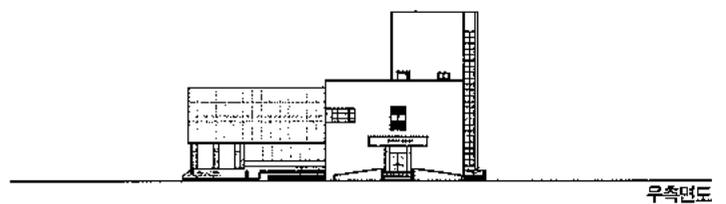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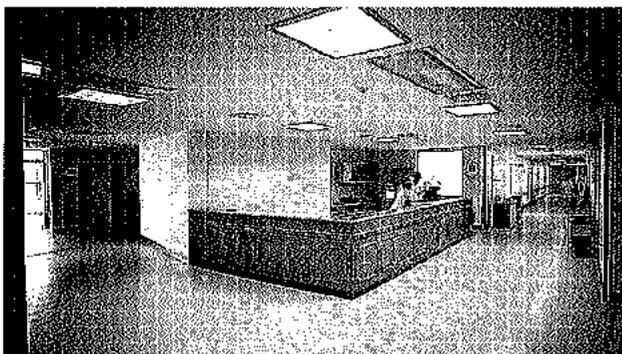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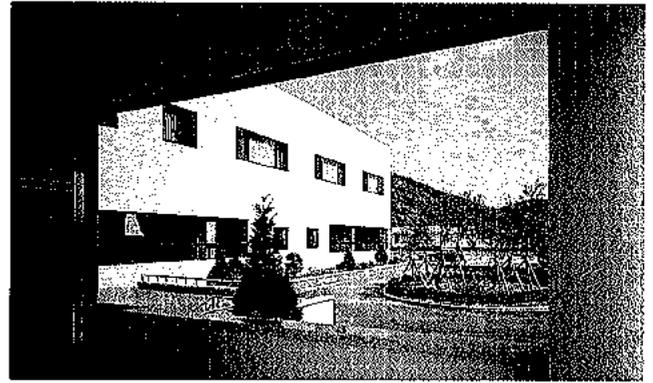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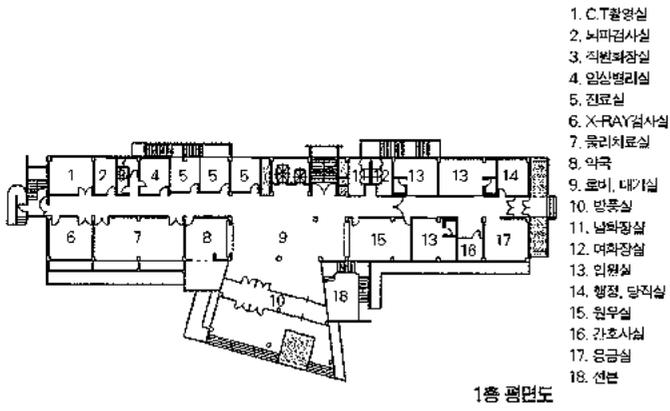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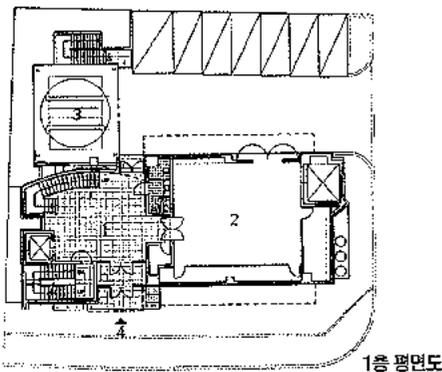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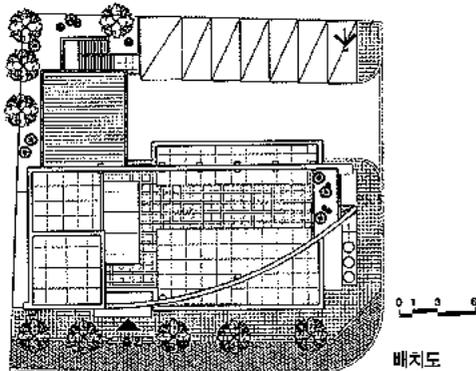
# 신도리코 경기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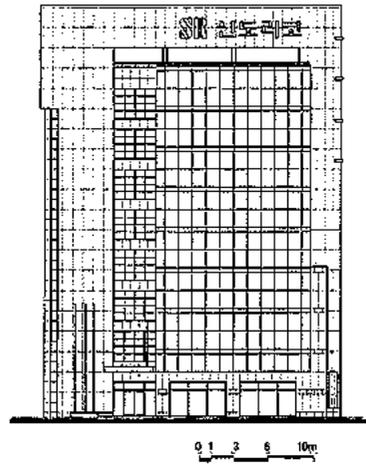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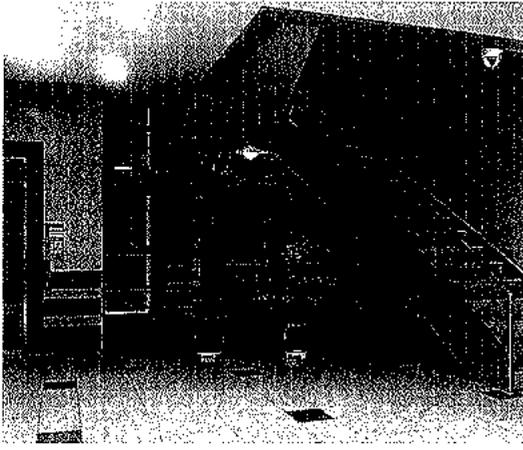
## SINDORICO Kyunggi Office

손두호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Designed by Sohn Doo-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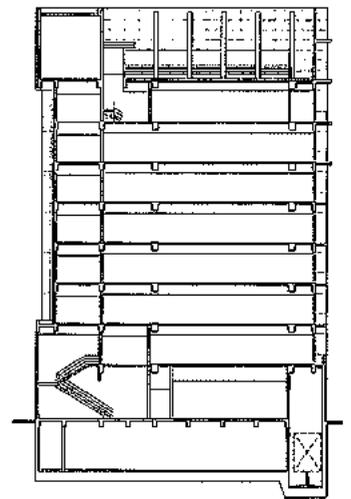
### 건축개요

-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14-1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 대지면적 742.3㎡
- 건축면적 348.09㎡
- 연면적 2,722.44㎡
- 건폐율 46.89%
- 용적률 303.52%
- 실계담당 안인석, 최오용
- 규모 지하1층, 지상8층
- 구조 R.C
- 최고높이 36.65m
- 주요설비방식 중앙공급식
- 주요용도 업무시설
- 외부미감 벽-Al커튼월, 알루미늄쉬트, 베이스패널
- 내부미감 바닥 - 화강석물갈기, 디럭스타일  
 벽 - 화강석물갈기, 아크릴수지페인트  
 천장 - 암면흡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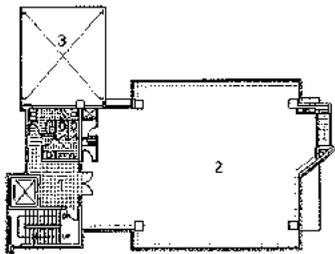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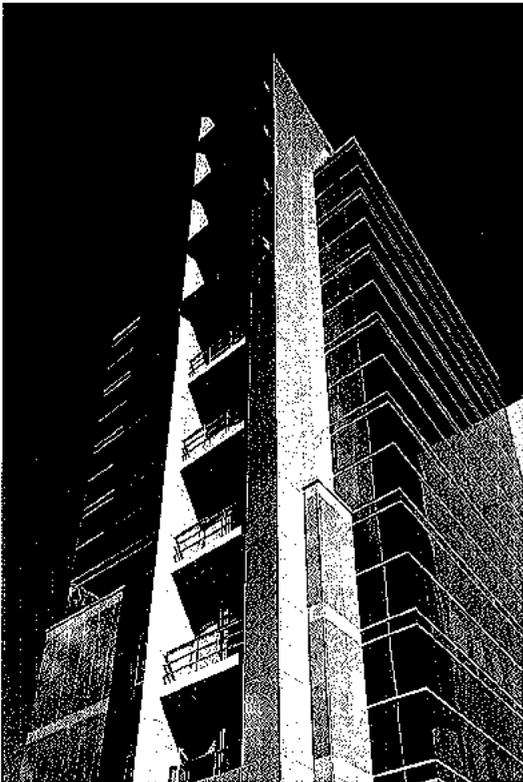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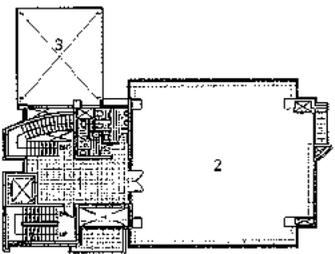
정면도



형단면도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1. 홀
- 2. 사무실
- 3. 주차타워
- 4. 주출입구

## 한국중공업(주) 사옥

Headquarter of Hankook Heavy Industry Co.

(주)범건축 + K. P. F

Designed by Beom Architects & K. P. K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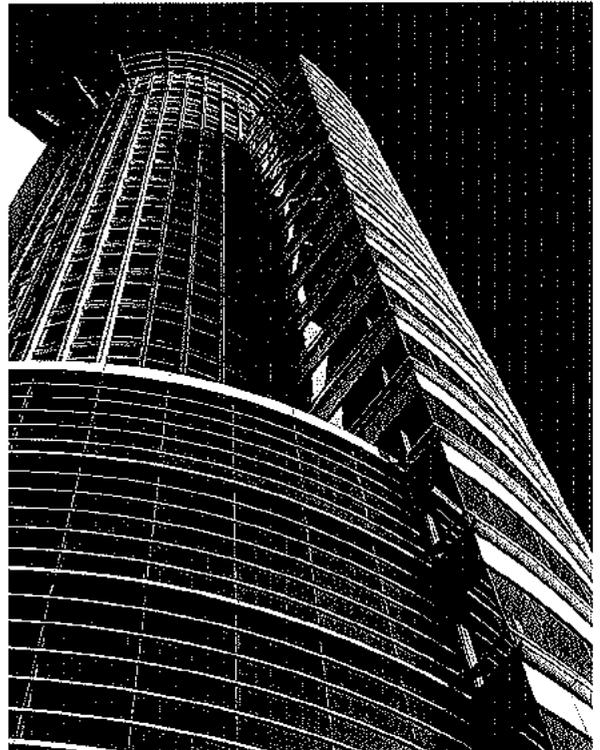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3,096.6㎡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1·4종 미관지구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람접회시설
건축면적	1,757.54㎡
건폐율	56.76%
연면적	51,496.73㎡
용적률	981.83%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층수	지하9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451대 - 자주식 : 313대, 기계식 : 138대
조경면적	479.24㎡
외장재	외벽 - 알미늄 슈트, 화강석, 자봉 - 콘크리트 평 슬라브위 슈트방수, 창호 - 불소수지 코팅 알미 늄, 24mm컬러복층유리
구조	전우구조, WEIDLINGER ASSOCIATES
설비	한일 M.E.C(기계), 한양전설(전기)
사공	(주)동부건설
감리	(주)범건축

### 뱅뱅사거리...

강남지역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장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낮에는 그저 어찌다 지나는 뜸한 행인이 있을 뿐이고, 밤이면 네거리 전체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적막한 거리로 변한다.

이곳에 활력을 주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으뜸인 계획 목표였다. 강남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양재역 사거리에서 맑고 쾌청한 날이면 북한산이 시각의 끝점으로 웅장한 강남대로-진정한 의미의 대로이다를 따라 북쪽으로 언덕을 넘으면 바로 시야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건물. 강남대로의 양쪽을 메우고 서있기 시작하는 높은 정형의 건물군과 확실히 구별되는 독특한 조형성과 장소성을 지닌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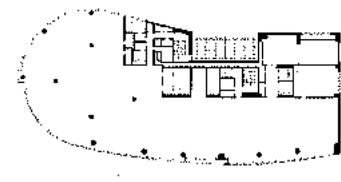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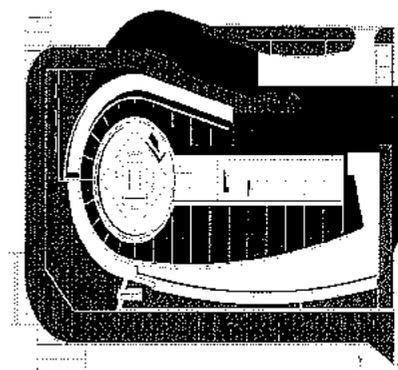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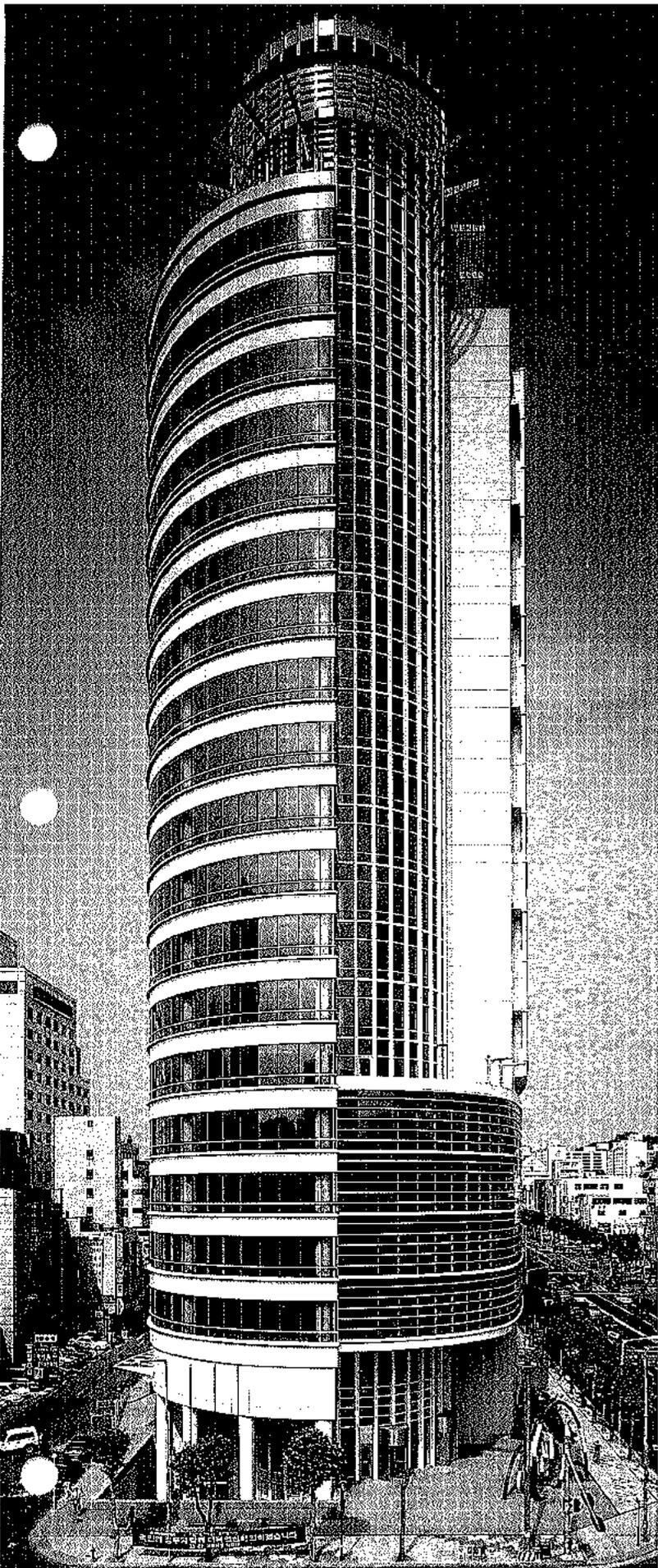
어쩌면, 대지의 위치 자체가 이미 강력한 상징성과 인지성을 지니고 있기에, 조금은 드세고 튀는 건물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일년에 며칠 되지 않는 날이긴 하지만, 쾌청한 어느 날의 쪽빛 하늘과 푸른 북한산을 배경으로 화려한 대



비를 구사하는 조금은 화려한 건물로 조형은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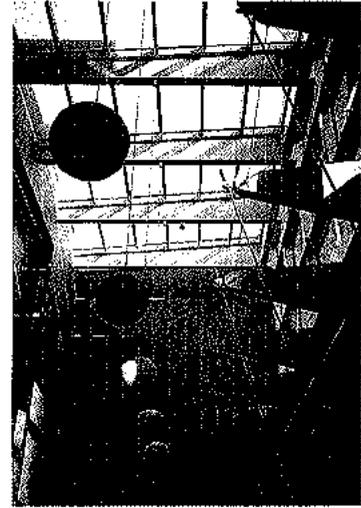
바로 이곳, 뱅뱅 사거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층 건물군.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는 있지만, 정형화된 상자형태의 건물과는 구분되는 부드러움과 섬세함 그리고 우아함까지 갖춘 독특한 조형의 건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우악스러운 형태의 정형보다는 부드러운, 그리고 잘 분절되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다 흐르도록 곡면을 채택하여 다른 건물과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입면을 구사하였다. 한 대형 블록의 모서리, 많은 보행자가 건물의 산설로 인해 감각적 인지가 끊기지 않도록 세분화되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곡면, 아니 바로 원통의 조형이 바닥으로부터 시작되고, 원경에서 느껴지는 수평의 인상이, 가까이 에서는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수직 멀리언(mullion)과 삼각형 장식의 보행자의 시선을 즐겁게 할 것이다. 많은 면적을 할애한 모서리의 보행자 전용공간과 건물의 내부를 반영한 재미있는 조형물, 지하로 직접 통하는 선권가든도 즐거운 머무름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속의 보석 같은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 비평; 우리건축의 생산적인 담론을 위하여

### For a Productive Discourse on Our Architecture

승효상의 수백당을 통해 본 건축비평의 올바른 방향찾기

일시: 99. 5. 29. (토) 10:30 ~ 12:10

장소: 이르재건축

참석자: 이종건(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주대관(엑토건축 소장)

정인하(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사회)

최동규(서인건축 소장, 본지 편찬위원)



건축사지를 보는 회원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모임의 성격을 밝혀두고자 한다. 건축사지 99년 3월호 작 품리뷰란에 건축가 승효상의 주택 수백당이 선택, 게재되었고, 그에 대한 건축비평을 이종건교수가 했다. 또 그후에 「수백당, 그 또다 른 평가와 이종건의 비평에 관한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주대관소장이 글을 썼다. 이번일이 건축계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다. 그저 지 나가는 일로 치부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 수백당에 관해 계속된 지상비평은 수백당 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지에서는 차제에 수백당에 관해 계속되는 논의를 좀 더 생산적인 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시 수백당에 관해 건축가와 대담을 했던 정인하교수, 비평을 했던 이종건교수, 비평에 대한 다른 소견을 피력했던 주대관소장이 한자리에 모여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같은 건축가의 입장에서 다른 건축가의 건축을 보고 평가할 때는 게재된 사진, 도면 등을 보고 일차 적인 판단을 하고 또 그 후에 그에 대한 건축비평을 읽고 이차판단을 하게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축비평 즉, 평가는 그 글 을 읽는 모든 건축관련자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건축비평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 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수백당을 본 소감은 좋은 건축이라는 느낌과 또 한편으로는 이교수 말대로 조금 이상하다는 느 낌을 갖게 됐다. 이상하게 느낀 것은 보통의 집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즉 보통주택에서 보여지는 내용물들이 일시에 소거된 듯한 그런 느낌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로 수백당에 관한 대담 및 비평, 비평에 대한 다른 소견, 수백당 도 면 및 사진 자료 등을 다시 보고서야 건축주가 현직에서 은퇴한 점, 도시를 벗어나 교외에 거주하기로 한 점, 부인이 화가이므로 작 업실이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해 보니 건축주의 필요와 건축가의 이상이 잘 부합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자리가 생산적인 논의, 수백당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가는 계기 또 건축비평이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만큼 건축계에 꼭 필요한 지양분이 되는지를 가 능해 볼 수 있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대개 작품리뷰에 선택된 건축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기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평에 조금 다른 견해 가 있다고 해서 그 건축에 조금도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3월호 비평에서 참 이상한 집이다라는 말이 거듭 나오는 것 을 보고 기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주변에 다른집이 전혀 없는 대지, 완전 건축가의 독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지를 보면 어느 건 축가라도 욕심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수백당 건축가도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낸 것 같다. 또 주대관 소장의 글도 읽어보니, 더더욱 이 집은 가볼만한 집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이 대담을 지켜볼 독자들을 위해 진지하고 솔직한 논의가 되 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 이번일이 흔히 건축잡지에서 보게되는 건물사진, 작가의 이야기, 또 그에 대한 건축비평으로 이어지는 일련 의 기존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수백당에 관한 논의, 또 수백 당에 관한 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비평문화의 성숙을 위한 생산적인 담론을 기대해 본다.(최동규 / 본지 편찬위원)

정인하: 먼저 글을 읽지 못한 독자를 위해 「수백당」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건: 건축물을 본다거나 또는 건축가를 해석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그것 혹은 그/그녀를 어떤 객체적인 대상으로 두고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다는 행위는 그 자체가 비평이라는 형식을 입을 때, 대상이 갖는 의미를 캐내기 위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해석의 틀을 매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봤느냐보다는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백당도 그렇고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그 대상을 보는 것은 비평 글쓰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글쓰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동안 한국에서 비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진 글쓰기를 '벗어나는' 태도를 말합니다. 20세기초까지의 문학이나 예술 쪽의 영역에서 전기적 비평이라고 해서 작가의 성격,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그 대상에 상 관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정신분석적 틀이라든지 또는 형식주의적 비평이라든지 등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어 연결짓는 작업을 벗어나, 비평이라는 작업 자체를 독자적인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행위로서의 글쓰기는 또한 대상으로부터 파악할 것들을 마치 음식의 재료로 삼아 새로운 음식을 만들듯, 새로운 글쓰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수백당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파우스트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승소장의 설계변도 듣지 못했고, 도면도 본 적 없이 맨몸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 이전에 승소장의 건물과 글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작품의 비평에 때로는 작가의 변을 들을 경우 오히려 역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는 그 때 이미 작가의 입장을 벗어나 비평가의 입장에 섭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그동안 승소장은 많은 작품들에서 우리 몸이 진행되는 그 깊이 방향으로 체형을 주는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혹 예외는 있지만, 특히 이 집은 매스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을 강제적으로 직선화시켜 켜매는 방식이라든지, 집을 다스리는 태도에서 승소장 특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형식미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실체성과 비실체성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예컨대 자연을 만나게 하는 방법에서 실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는 명백히 서구적인 논법이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건축가가 서구 모더니즘의 궤적에 따라 추기한 건축가 자의식 들어내기 역사를 지금 이 땅에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건축가의 자의식이 어떻게 건물 또는 프로그램과 만나고 있는가 하는 세 가지 관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인하: 소위 근대이후에 건축이나 예술에 나타났던 미적인 자의식 아니면,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이고 리토릭(rhetoric)한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종건 교수께서 쓰신 글을 보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계속 논의가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주대관 소장께서 먼저 수백당을 보신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종건 교수께서 쓰신 글을 보신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대관: 우선 수백당을 본 느낌이 이교수님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설계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나게 조절된 건축이라는 느낌을 가졌고, 이교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항목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자 했던 부분이나 보았던 것을 알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같은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나 후학들 또는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더 설명의 필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교수께서 쓰신 글이 앞부분에서 상당히 절제된 다음에 뒷부분에 관한 내용에 치중했기 때문에 저는 앞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비평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이론을 하는 사람이 글을 쓰든, 그 연결통로가 상당히 단절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론을 전공한 사람은 건축의 읽기, 읽기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한다거나 간파하는 측면이 많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한단계 나아간 건축가의 생각을 끌어내는데 약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협조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반복되거나 한다면, 한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문화나 풍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백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비평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일단 분리했고, 그 자체에 대해서 글을 쓴 저의 시각은 밝혔다고 봅니다.

정인하: 주대관 소장이 보시기에 이종건교수의 글이 단해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가나 모든 작품이 배제된 상태에서 비평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 자체로 단해진 텍스트라고 보십니까?

주대관: 질문하신 의도가 이교수의 글이 하나의 자율적인 또 하나의 생산된 텍스트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지, 아니면 작품과 완벽하게 단절된 텍스트로 보아 너무 비설명적인 것이 아닌지의 문제인지?

정인하: 후자쪽입니다.

주대관: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평에는 분명히 태도들이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은 비평자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교수의 비평 자체에 관심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저의 설계 연장선상에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수백당

교집합을 갖느냐 안갖느냐의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정인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분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긴박하게나마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점 하나하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논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건축가가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종건 교수의 글에서는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건:** 흔히 자연을 경관의 대상으로 삼아 차경이라는 견지에서 전통건축에서 시각화시키니까 지금의 건축가들도 그런 논법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백당의 경우 전면에 원경을 이루는 산으로 있고, 배치 자체가 도시가 아니라 시골 소위 말해서 자연 안에 있는 상황인데, 주대관 소장도 지적했다시피 바다 앞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향해 온통 열어놓고 살지 않습니다. 바다가 이미 일상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시각에서, 너무나 멋진 그림, 좋아하는 음악이나 사람은 반드시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함으로써만 내밀함 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그 깊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대의 역사는 자연을 대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백당에서의 자연을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연에 대한 감상이나 파악의 경로가 대개 우리의 경우 다른 사물을 경유하는, 다시 말해서 둘러서 간접적인 반면, 수백당은 직접 눈앞에 시각화시키고, 그것도 어디에서나 동일한 자연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스를 길게 늘어뜨려 배치하고 있는데, 실과 실 사이를 많이 벌려 접근 경로를 길게 만들고 거기에서 느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개의 건축가들이 꿈꾸어 오던 것들입니다. 수백당의 경우 건축가는 그러한 생각을 극으로 밀어붙여 안팎을 대등하게 취급하는 데까지 갔는데,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전이공간 본래의 의미나 긴장이 희미해져 다분히 교과서적(개념적)인 상태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까 주대관 소장은 제가 건물을 이론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말했는데, 저도 설계를 하고, 따라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현재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역사를 재해석해서 불러들임과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평과 창작은 필히 교섭해야 할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연을 대상화, 시각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자연의 속 깊이어까지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자연을 다른 중간적인 존재를 경유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들이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보편화된 상황으로 이상화시켰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입장에서 수백당을 건물자체의 이름다움을 떠나 부정적으로 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인하:** 승효상 소장의 말씀은 인간이 자연을 참견하는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연의 변화 자체를 내버려둬야 된다는 것이 설계 개념이었고, 자연에 대한 태도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말은 그렇지만, 실제 사이트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커서 어차피 땅 전체를 디자인으로 다스리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매스로 이 평수로 만약 자연을 최소화해서 점유하고자 했다면 웅덩 매스를 모아야 하고, 자연을 온통 열어두기보다는 적절히 닫고, 온통 집을 3면 또는 4면의 벽들을 외기에 면하게 만들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미세한 조절을 하면서도 충분히 자연을 깊이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백당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를 일차적으로 취급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대관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관:** 그런 부분은 글에 이미 썼기 때문에 부언할 내용은 없습니다.

**정인하:** 승효상 소장이 그동안 작품활동을 하면서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종건 교수께서는 '빈자'의 개념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위장된 뉘앙스를 가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논의의 초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승소장의 '빈자의 미학' 자체가 위선이다, 위장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다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는 그 생각이 분명히 과장되고 또 자의식화되어 있다고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사실

롤랑 바르트는 <현대의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기호와 실체가 분리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언어가 자기지시적일수록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 아마도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 인 하

그 문제가 말이라는 것, 빈자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과 실체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건축가가 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나 건축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집은 평당 6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고, 굉장히 절제되고 단순화 된 것 같은데 무척 화려합니다. 계단이나 창이나 마감처리가 사람이 정말 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빈이 화려하게 변신해 있는데, 빈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님을 역력히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빈자의 논의가 이 집에서는 가식이라고 본 겁니다.

**정인하:**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현대의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기호와 실체가 분리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언어가 자기지시적일수록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종건 교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빈자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과 실체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건축가가 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나 건축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일본에서 이미 빈의 미학이라든지 철학이 근 70년 전에 체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승소장이 차용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빈의 미학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조금 다르지만,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쓸함, 외로움, 적막함, 화려하지 않음, 담담함, 다시 말해 자의성의 거부 등을 통한 미학을 주창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경로라고 봅니다. 다른 경로는, 빈이라고 하는 태도를 철학적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다양한 방식의 건축적 방법이나 형식이나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빈을 가난하게 보임으로만 치달는다면 거기에는 분명 막다른 골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은 승소장이 빌딩을 설계할 때는 빈자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난처할 겁니다. 본인도 아마 그런 딜레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는 빈자의 미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실천경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만 보이게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앞문에서 쫓겨난 것이 뒷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예와 마찬가지로, 쫓아낸 화려함이 다시 들어와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대관:** 저는 개인적으로 승소장의 빈자의 미학 자체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언급한다면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 건축계에서 상당히 유사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율이나 없음 이런 것들이 동양적인 가치 부여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반해서 동양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무위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승소장의 빈자의 미학에서는 무라는 개념을 오히려 서구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념화에 대한 작위같은 것이 있지 않나 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에 반대된 개념의 접근에 의한 실천에 의해서 더 동양적인 가치들을 앞에 내세운 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내세운 건축가의 이론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자체보다는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건축가 개인의 책임이고 몫이라고 봅니다.

**정인하:** 작위성과 무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존재와 비존재, 공간과 건축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실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관:** 적어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흔적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적인 측면에서 기능의 문제를 떠나서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옷과 같아서 현대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옷을 그냥 편안함으로 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목덜미에 라벨을 붙여야 옷을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실태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라벨을 붙인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간을 자기가 점유하고 공간속에 거주하기가 성취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주자가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하:** 주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건축가는 "집이란 건축가가 프레임만 설정해 주고 나머지는 사는 사람들이 그들 사는 방식에 따라서 각자 변형을 하든지 그사람 체취가 묻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종



수백만

건 교수께서는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금방 말씀하신 승소장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승소장이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건축주가 그 집에 그림 걸 데를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사실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것을 퇴각시켰습니다. 어쨌든 깔끔하게만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삶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대관 소장이 얘기했듯, 사는 사람이 어떤 옷을 선택하는 것은 사는 사람의 몫이고, 거주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는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집에 관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는 배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승소장이 보여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집의 모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집의 가치나 집이 가지고 있는 내밀함의 정서나 혹은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얘기하는 구석공간이라든지 등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잡지가 주변은 가린 채 이 집만 보여 주는데, 주변을 보면 이 집은 홀로 고고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곳에는 창을 통해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훑쳐보고, 자연이라든지 그리고 공간의 개념을 위해 응달 공간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수법들이 온신처로서의 집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집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안전감, 온신에 대한 개념이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주거의 본질에 상당히 비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작품성취를 위해서...

정인하: 서양건축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주거작품들, 가령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부아(Villa Savoye), 피에르 샤로(Pierre Chareau)의 메종 드 베르(Maison de Verre), 필립 존슨의 뉴 카난주택 등을 보면 비슷한 류의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고있는 사람들의 그것보다는 주거개념이라는 측면에서의 탐구가 훨씬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런 모든 것들이 무시되더라도 하나의 인간의 정신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정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뚫고 나가는 치원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축이라는 시각자체를 한국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지역의 입장이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적으로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비켜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부아가 우리의 상황에서 모형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국수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세계적인 건축을 만든다든지 세계적인 건축사상을 내보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건축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모든 인류의 지성사가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점에서 동일한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인하: 주대관 소장께서는 주거작품으로써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관: 이교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거주하기가 소홀히 되어있든 안되어 있든 그것이 건축가가 이 집에서 거주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빌라 사부아주택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은 근대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근대인들이 살아갈 집으로써 르꼬르뷔제가 제안했다면 승효상은 수백당을 통해서 현대 99년을 살아가는 계급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집으로써 이해하고 제안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하기가 빠졌다 안빠졌다 문제가 아니라 빠진 상태 자체가 이미 이 시대의 건축이나 주거의 거주하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본다면 그것 자체도 이미 하나의 작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하기의 시각을 승효상소장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나 이교수께서 생각하시는 거주하기의 생각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의 문제는 어떻게라는 문제, 실천에 대한 문제, 만들어 내기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장르에서는 대개 문제에 대한 비판에 그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퍼포먼스나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여줘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어떻게 얼마만큼 실천해 내고 있는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작품자체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시대의 사람

비평은 글건축입니다. 글로 건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비평하는 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너무 해설쪽으로 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래야만 비평이 우리나라에 성립할



이 종 권

수 있고, 또 새로운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가 되어 그것들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건축가와 부딪히면서 새로운 건축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이 원하는 건축속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은 어쨌든 이 시대의 상당히 대표적인 건축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인하:** 주대관 소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종건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주대관 소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집을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대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교수께서 말씀하신 거주하기의 문제라든가 거주하기가 지향해야할 바를 실천하느냐 안하느냐는 승소장이 그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교수께서는 르 꼬르뷔제의 주택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건축적인 가치나 시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거주하기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주하기의 문제가 주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종건:** 바로 그것이 무엇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전폭적으로 맡겨서 건축가의 생각을 담아낸 집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거하고 싶은 것들이 이 집에서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주대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원주택같은 것이구요. 거기에서 옷을 벗어버린 편안함보다는 시각적인 즐거움, 밖에서 건물을 보는 시각과 안에서 자연을 하나의 그림 즉, 대상으로 자연을 끌어들이려는 두가지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축축하게 살갓에 묻어나는 구질구질한 일상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시대의 계급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사람들의 거주하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종건:** 그렇다면 그것이 배어있지 않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거의 다 배어있고 다른 동시대 건축가들도 다 하거든요. 옆에 있는 집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가보면 보통 집쟁이가 지었다는 집들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해 하고 사랑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 시대의 대표적 주택이라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주대관:** 일산의 다른 대지에서 80평, 100평으로 찢라진 땅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거의 차단이 됩니다. 대가가 작은 크게 내놨지만 커튼치고 밖을 볼 수가 없고, 그것을 여기서는 마음껏 구사를 했다는 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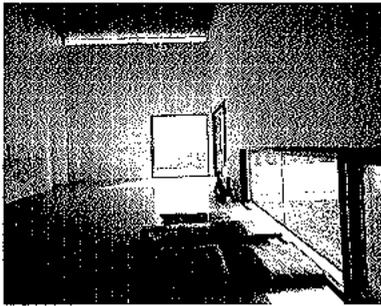
**이종건:** 일산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집들도 다 창을 가지고 마음껏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집을 좋은 주거의 예라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죠.

**정인하:** 만약에 다른사람도 그렇게 하고있는데 승소장이 그것을 좀 더 능숙하게 극대화시켜서 드라마틱하게 구사했다고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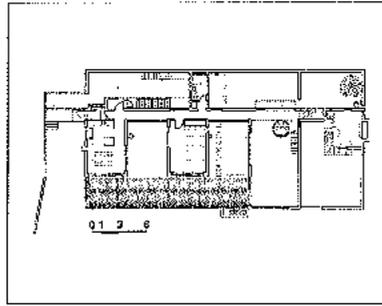
**이종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각차이를 보이는 점이 이 집이 이 시대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대관:** 아까 말씀중에 르 꼬르뷔제의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불편하다, 편안하다,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표적으로 그 시대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평창이라든가, 오원칙과 결부되어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작품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면 거주하기의 문제는 건축가의 개인적인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토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이교수의 말씀은 거주성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건:** 그 얘기는 아니고, 거주성은 아까 말했듯이 사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건축가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건축가가 이 시대에서 빈자의 미학을 들고 오든 또는 건축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와 맞서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 사는 사람의 거주방식이 들어있다 들어



수백당



수백당 1층 평면도



수백당

있지 않다는 얘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대관:** 저는 입장이 다른데, 앞에 부분은 잘라내고 본다는 것입니다. 승소장이 말씀하시는 빈자의 미학을 잘라내고 이 건물, 하나의 집을 놓고 봤을 때 이 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모두 원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산에 있는 집들에서 원하는 행위와 이 집에서 원하는 행위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종건:**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이 집을 원한다고 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을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인하:**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대관소장께서는 설계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시대의 상류층 부르조아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전형적인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종건 교수께서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주대관:**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의 서로의 태도의 차이, 이것이 왜 수백당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빼버리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 길이 다르면 서로 토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토론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부분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해서 토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이 토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또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작품적인 가치가 있느냐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교수께서는 이교수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또는 승소장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교수께서 가지고 있는 주거론이라든가 거주하기 문제라든가 그런부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실천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인하:**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은 주대관소장이 말씀하신 시대를 담고 있는데 무엇을 담고있느냐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교수께서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대관:** 바로 이교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문제들 그것 자체가 이 시대의 주거의 상당부분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종건:** 건축가의 한계가 아닐까요? 이 시대의 한계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건축가로서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건축가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구요.

**주대관:** 그런데 많은 주택작품들이 이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봅니다.

**이종건:** 그것은 경향인데, 건축가들의 경향이지 이 시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특유한 방식으로 덮어씌운다고 봐야지, 우리 시대를 드러내는, 건축가 일부의 시대는 드러내지만 우리 시대라고 하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하:** 건축가가 어떤 시대를 드러내는 것 보다는 어떤 시대를 앞서서 주거에 대한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는 측면은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종건:** 늘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가 일종의 계몽주의적인 측면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계몽성 자체가 주거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인하:** 이교수께서는 비평은 좋고 니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대관소장이 이교수께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없이 대상을 비판하는 너무 주관적인 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그래서 주대관 소장의 글을 읽어봤어요. 사실은 그전에 민현식 선생님에 대해 비평한 것을 보았는데, 매우 분석적으로 꼼꼼히 썼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성정으로는 와 닿지 않아요. 이미 원가를 알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들을 꼭 줄줄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여줘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어떻게 얼마만큼 실천해 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작품자체도 현재를 살



주 대 관

아가고 있는 지금 이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축속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은 어쨌든 이 시대의 상당히 대표적인 건축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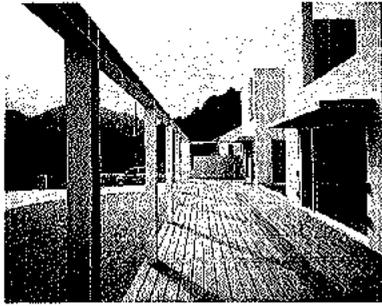
펼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대관 소장이 주장하는 인과식, 분석적으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논증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주대관 소장의 경우, 그 글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론에 이르러 나온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할 얘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어 독자의 설득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대관 소장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비평은 다양한 형식을 가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적 비평이라든지 정신분석적 비평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원인을 제공하고 이유를 제공하여 이래서 이렇게 않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신비평 이전에 나온 것들로서 문학에서는 퇴각이 된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이것이 원인이고 결과가 이렇게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비평이라고 하는 글쓰기는 문학의 한 장르로 보지, 그것을 원인과 분석을 하는 논문식 글쓰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대관 소장이 비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주대관 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글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는 점, 예컨대 첫 번째 이상하다라는 집은 가치판단이 중지된 상황인데 가치판단을 집어넣어 본 것으로 해석했고, 두 가지 가능성 중 부정적인 문구만 따와서 얘기를 한 점, 그 다음 매스의 빌림을 원숭이 영명어식 논법으로 욕망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건물을 보고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한 이야기의 모두(冒頭)를 형식주의적인 오류로 본 것 등입니다. 그 뒤의 글에서 나는 "결국은 자의식이 이 시대 어떻게 드러나며 나타나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글쓰기나 비평이 주관적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데, 결국 비평가의 근거는 제가 볼 때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평가의 살아왔던 경력과 공부했던 안목 등 총체적인 것들이 근거가 되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비평가로서 사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글쓰기와 분석적인 글쓰기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신비평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평이라고 하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해석 또는 이데올로기적 비평도 존재하고 현상학적 비평도 존재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그분에 따르면 비평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평은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고, 저도 아직 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학적으로, 어떤 때는 분석적으로, 어떤 때는 거침없는 형식으로, 어떤 때는 부드럽게 등으로 다양한 형식을 취해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평을 분석적인 글쓰기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거북합니다.

**정안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이라는 것이 메를로 폴티(Merleau-Ponty)가 이야기하는 체험의 주체로서 몸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과연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현전의 것들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전에 이미 다른사람의 기존의 것에 구조화되고 그것이 의미가 배어있는 것이라면...

**이종건:** 그것까지 포함해서 몸이죠. 몸은 물리적인 몸만이 아니고 특히 현상학적으로 넘어가서 몸을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신체로서 몸은 아니거든요. 정신과 육체가 소통하는 측면에서 현상적 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객관성의 근거는 무엇이나, 과학의 객관성은 존재하는가의 논의로 확대되겠죠. 거기서 리얼리즘도 나오고 철학적으로 분기가 나오는데, 몸이라고 할 때는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소통성이 전제되고, 그것이 비평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랬지, 그러니까 저렇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가 있을 때 징검다리를 너무 촘촘히 놓았다, 너무 벌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정안하:** 제가 질문한 요점이 그것이 아니고 가령 수백당을 살펴볼 때 이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것이 건물내부에서 체험된 또는 지각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교수는 그 당시의 몸 자체에 의미를 가지지만 건물 자체는 만약에 승효상이라는 건축가가 20년이상 동안 갖고 닭이온 어떤 이론적인 여러 가지 배경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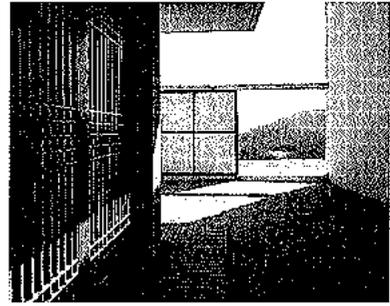
**이종건:** 잘못 묻고 계시는데, 비평의 근거가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이라는 단어가 경험을 체험하는 또는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제가 제 몸이라고 할 때는 경험에서 그 순간에 포착한 현전의 상황이 아니라, 제 몸에 누적된 역사와



수백담



수백담



수백담

제 몸을 관통하고 있는 경험과 제 몸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이런 것들이 이미 승소장이라든가 한국사람이라든지 서양사람이라든지 관통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분히 한 사건의 경험을 팔라 그 20년, 40년의 누적을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는 질문인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흐르는 관류와 조직과 사상과 체계가 겹쳐지는 것이지, 그 안에 체험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인하:** 물론 그것까지 포함해서 머리속에 가지고 계신 모든 사상 등이 스스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건 교수의 생각은, 그것을 만들어 내는 무엇인가 커다란 또다른 외재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종건:** 당연히 그렇죠.

**주대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관적으로 몸에 육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이미 앞에 구구절절히 구질구질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인간인 이상 직관적인 판단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쓰기 한 것에 대해 분석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질구질한 것들이 모여서 거주하고 집이 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구질구질한 사물이 모여서 세계를 이룬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디테일한 것들이 즉 구체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건축을 이루어내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인 공간, 구체적인 디테일 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분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적이라고 한다면 예를들어 사과의 맛은 산도와 그 지방의 풍토와 토양성분 등을 얘기할 때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하지 사과를 문학적인 단어를 통해서 사과의 오묘한 맛을 설명했다든지 그 사과맛이 주는 감동을 세세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분석적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결과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부분도 있을 수 있을 때 다른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추론을 통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애 동등의 부분을 분석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같죠.

**이종건:** 그게 아닙니다. 논리는 다 있는데, 주대관 소장이 저한테 비판한 것 중의 하나가 인과관계의 증명이나 추론이 없다고 했는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비판이 아니고 해설이고 또 그 앞에 많은 비평사에서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경향이 아니라 비평사에서 실증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팽배하다가는 결국 실증주의 측면, 사회과학적인 측면은 비평에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드러내주는 세계는 결국은 심리학적 오류로 정의해서 넘어섰다는 것이죠.

**정인하:** 신비평이라고해서 다른 비평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까?

**이종건:** 신비평의 우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평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해설이나 심리치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택했다는 거죠. 그 이후를 따지면, 비평사가 성립한지 50년밖에 안됩니다. 그때 이미 많은 것들을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대관 소장이 얘기한, 제 글에 인과관계의 분석이 없다는 것은, 다분히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건축가의 사고과정을 추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건축가의 사고과정에 뛰어 들어 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비평이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통해서 창조한다면 비평가는 글을 통해서 창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정인하:** 끝으로 비평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건:** 주대관 소장이 저한테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비판했는지 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평에 대한 시각을 너무나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 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욕망과 연관시킨다고 해서 형식주의적 오류라 하셨는데, 그것은 글에서 보고 한 것이



수택당

아니라 그것들을 논의할 모두(冒頭)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들을 뺐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을 빼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만 해서 욕망으로 봤다는 등등이 편파적이라고 봅니다.

**정민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종건 교수의 관점이 유교적이고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타리(Felix Guattari)와 들뢰즈(Gilles Deleuze)의 경우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생산해 내는 굉장한 긍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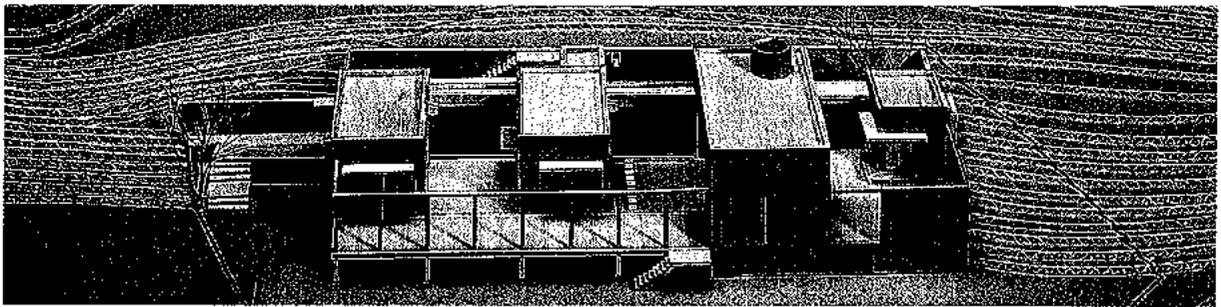
**이종건:** 욕망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근대의 모더니티에 관한 얘기들의 테두리 안에서는 다만, 다른 방식으로 욕망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승소장같이 영향력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 지금 우리는 중대한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이 엉망진창인데, 왜 그런지는 근대성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욕망에는 삶의 욕망도 있고 죽음의 욕망도 있는데, 근대성의 역사는 분명 죽음의 욕망 쪽으로 방향을 잡은 징후가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근대인들은 모두 '눈'에 집착해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1700년도부터 사람들은 그 이외의 감각들을 거세해 나갑니다. 듣기, 보기, 만지기 심지어는 인간에게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동물을 제거해 나가요. 머리가 긴 것도 금지해요. 동물처럼 생겼으니까. 식탁의 에티켓도 그때 생겼습니다. 포크도 그때 생겼어요. 잔디도 1900년도에 생겼어요. 잔디를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화시켜서 자연을 정복, 대립하고, 그런데 그 논의를 발전시킬 경우 승소장의 수졸당이라든지 최근의 한국 건축가들이 미당에 나무바닥을 까는 것도 비슷한 시각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삶 자체나 자연의 야생성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은 인간이 지배를 계속 확장해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지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적은 모두 욕망이 추동한 것입니다.

**정민하:** 그런데 계속 느껴지는 것이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이종건 교수께서 쓰신 글에 나타나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한쪽은 근대적인 태도에서의 부정적인 욕망이고, 다른 한쪽은 의미를 생성하는 긍정적인 욕망, 그 두가지가 계속 모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인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대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부연하면, 추론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예를 들면 그것이 상당부분 글쓰기하는 사람의 육화된 어떤 경험도 있지만 독자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맞는 상황에서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가 이외에는 최근에 사회학에서 이진경씨가 공간이라는 것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철학하는 사람들도 공간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공간, 건축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이 우리 건축의 또다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부분에 대한 읽기에서 이교수의 글이 조금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글을 썼고 추론이라는 것이 분석적이지 않다고 해서 글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들은 칸의 건축을 보고는 설명이 안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루이스칸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논리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나 후학이나 건축가에게 조금 더 친절한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종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건축과 사회가 단절되고, 독자와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해설을 요구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적이면 많은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저는 여전히 그것은 건축의 초보 서적이거나 해설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비평이라는 입장에서는 비평의 한 장르가 완성됐으면 혹은 역으로 문학적으로 성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장르로 트고 나갈 수 있는 근거나 자립의 근거마련을 위해 자율적, 창조적, 글쓰기가 됐으면 어떻겠느냐고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은 분명 해설이 아니니까요.

**주대관:** 저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에 대한 사회학의 문제로 봅니다. 즉 실천의 문제로 봅니다. 예를들면 요즘은 철학과 사회학의 경계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지만 사회학으로 넘어오는 순간 구체적인 실행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수백당 초기모형

했을 때 건축이라는 것은 비판에 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안하고 던져지는 행위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은 훨씬 더 구체적인 문제들이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문학쪽에서의 신비평의 문제들이 건축의 글쓰기에서는 상당부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문학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글 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적으로 독자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것보다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모형만으로는 이미지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쓰기에서도 밝혔듯이 여기 이 때가 상당히 굵은데 실제 지어진 것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까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추론하는 것이 건축의 글쓰기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인하:** 오늘의 이야기의 중요한 논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건축의 비평이 문학적 비평과는 다른 차원의 글쓰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꾸 비평을 작품 해설 쪽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비평은 글건축입니다. 글로 건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글로 작업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비평을 이차적 글쓰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성적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행위로 보듯이, 건축비평도 새로운 글건축이기 때문에, 예컨대 건축을 중요시 여기는 무엇을 담고 있는 한 건축에서 어떤 부분이 40층이 돼야된다, 100층이 돼야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요, 그 형식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혹 다른 비평하시는 분들도 글쓰기를 할 때 너무 해설 쪽으로 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야만 비평이 우리나라에 성립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가 되어 그것들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건축가와 부딪히면서 새로운 건축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대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차적인 문제가 안되는 일은 저도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차적인 문제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만나는 일, 비밀통로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따로따로가 되지 공존하는 또다른 세계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중건:** 칸의 작품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감동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제 글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 능력의 부족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해설적이면서 설명적인 비평은 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러한 글은 비평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히려 전혀 엉뚱한 글이지만 그것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준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야나기 가와이 간지료에게 “그것은 기교지 미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비판)이 당시 일본의 일종의 명인이던 가와이에게 하나의 새로운 씨를 심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디컨스트럭션처럼 뒤집고 나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시 부탁하건대, 해설과 비평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대관:** 왜 건축글쓰기에서는 약간의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이 교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교수의 말씀도 상당부분 합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에 잡지에 작품을 실으려고 했을 때 사진 작가의 크레디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떤 아주 기가막힌 순간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창조된 사진작품입니다. 건축적인 텍스트를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사진의 텍스트로 옮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정이 잡혀서 그 자리에 가서 단순하게 촬영을 했을 때는 내가 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텍스트에 재생산된 텍스트로서 사진을 쓸 때 크레디트를 인정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평의 태도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생산적인 자세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썼을 때하고 그냥 작품 소개에 달려서 쓴 것하고는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하:** 장시간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의 이 자리가 건축비평이 좀 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는데 보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아카시아의 구성 및 관련행사

## Meetings, Awards, Prizes and Social Events of ARCASIA

### 1. 아카시아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하여

#### 1) 사무국(Secretariat), 회원구성(Membership)

아카시아 규약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영구적인 사무국을 두어야 하는데 사무국의 본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장소, 또는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으며 회장이 지명하는 사무국장을 두어야 한다. 사무국장의 임무나 기능은 정관에 의한다.

아카시아의 회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창설회원협회(KHIA, IAI, PAM, ASA, SIA, UAP)

나. 기타 아시아 지역국가의 건축사협회 및 아시아국가내의 특정지역의 건축사협회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 입회한 협회

#### 2) 이사회(the Council)와 연례회의(Annual Council Meetings)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각 회원국 건축사협회 대표 2인. 그중 한사람은 반드시 각국 협회장이거나 협회장이 지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 직전회장(The Immediate Past Chairman)

다. 회장(Chairman). 회장론 이사회 연례회의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

라. 부회장(Deputy Chairman) 3인. 역시 연례회의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 그중 한사람은 회장 부재시 대신한다.

마. 명예서기(Honorary Secretary).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지명하며 의결권은 없다. 서기는 반드시 회장이 속해있는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바. 명예회계(Honorary Treasurer).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지명하며 의결권은 없다. 회계도 반드시 회장이 속해있는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사. 고문(Advisors). 이사회는 회장을 통해 한사람 또는 그 이상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회의 진행에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한다. 고문도 역시 의결권은 없고 임기는 회장의 재량에 맡기며 인원은 최대 2인으로 한다.

\* 전임 회장들에게도 이사회 참석을 통고하나 이들에게도 의결권은 없다.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하나 횟수는 조절할 수 있다. 정족수(Quorum)는 적어도 회원협회수의 반은 되어야 한다. 1998년도까지 19번의 이사회를 했고 금번 제10차 학술토론회(ARCASIA Forum-10)전에 열리는 이사회는 제20차 이사회가 된다. 그동안 이사회에서는 건축사자격 상호인증문제, GATT문제, 상호협력문제 및 아카시아회원국들간에 당면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협의하고 결의문들을 만들었다. 우리협회가 수행해서 아카시아 회원국의 작품집을 만들었던 아카시아북 프로젝트(ARCASIA Book Project)는 ACA-6(1994)때 마무리되어 제출되었고, 국제윤리규약들의 협의 및 아카시아 5개년 계획의 워크샵 등도 이사회에서 다루었다.

이사회에서 협의되는 안건 및 행사순서는 다음과 같다. (Standard Format of Agenda for ARCASIA Council Meeting)

- 공식개회(초청자들 포함)
- 다과(비회원/초청자는 다과후 자리를 뜬다)
- 공식안건협의(회원협회 대표, 초청된 참관자 및 회원협회 참관자)

01. 전번 이사회 회의록
02. 회의록의 문제점들
03. 회장의 보고
04. 명예회계의 보고
05. 전년도 감사의 보고
06. 각 회원국 연례활동상황 보고
07. 워크그룹들의 활동보고
08. 아카시아 학술토론회 집행위원장 보고
09. 아시아 건축사대회 보고
10. 아카시아 건축상 보고
11.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보고
12. 아카시아 명예이사회 의장 보고
13. 신임 집행위원장 추대
14. 회(의)장단의 선출: 회장(1), 부회장(3)
15. 다음번 이사회 장소 및 시간  
차기 학술대회장소 혹은 아시아 건축사대회장소
16. 기타사항
17. 회의내용 종합에 대한 명세서기의 보고
18. 회장의 폐회사

각 회원국협회의 연례활동사항 보고서 양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andard Format for the ARCASIA member Institute's Country Report)

01. 협회 역사(略史)
02. 협회의 회장단
03. 회원구성
04. 연례예산
05. 시·도지회의 수
06. 연례 건축사대회
07. 협회의 법적인 위치
08. 자국내에서의 건축사들의 법적인 지위
09. 자국내의 건축사 등록 관청
10. 국제기구 에 등록사항
11. 협회의 전년도 주요 행사개요
12. 협회의 기대되는 프로그램
13.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전이나 수상
14. 자국내에서의 건축사/ 건축직/협회등에 당면한 문제점들
15. 협회의 재원
16.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문들이 회원국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17. 미래 계획
18. 기타 주요안건

### 3) 실행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실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3인), 직전회장,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실행위원회는 연례행사 준비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회의는 필요시에 소집되거나 회의가 없을 경우 우편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시 결정하나 역시 우편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 실행위원회의 정족수는 3인이다.

### 4)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와 연례회의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ACAE,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는 각 회원국 협회의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회원국들 중에서 건축교육위원회(the Board of Architectural Education)가 없는 국가의 건축사협회는 ACAE대표 한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여기서 다음 각 회원국이란 국가내의 특정지역(territories)을 포함한다.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는 1998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제12차 회의를 했고 금번 1999년 아카시아학술토론회(ARCASIA Forum-10)전에 제13차 아카시아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협회가 건축사자격 및 교육인증에 대한 특별워크샵(주제: 교육인증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Minimum Standard of Accreditation)을 교육위원회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다.

건축교육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ㄱ) 건축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이사회를 대신하여 집행하고 총고한다.
- ㄴ) 각 회원국협회간에 건축교육위원회(the Board of Architectural Education)에서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율한다.
- ㄷ) 아시아지역의 각국의 국익을 위해서 회원협회 및 건축학교들을 돕는다.
- ㄹ) 각 회원국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기준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아시아지역의 건축학교들을 돕는다.
- ㅁ) 국가간에 학생 및 교수의 상호교환을 장려한다.
- ㅂ) 건축교육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관한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나 어떤 조직에서 아시아지역을 대표한다.
- ㅅ) 어떤 결정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후에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연례활동사항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andard Format for Presentation of ACAE Reports By Member Institutes of ARCASIA)

- 1.0 자국에서의 건축교육의 역사(略史)
- 2.0 자국에서 회원 협회가 건축교육과 관련된 기여도(다음 내용을 포함해야함)

- 건축사협회는 자치모임인지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 국내에서의 건축사 자격, 외국에서의 건축사자격, 자격시험 등을 인 증하는데 대한 건축사협회의 역할
- 건축사 자격 인증 및 자격시험을 위한 별도의 법적인 기구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건축사협회와 상호협력관계인지?
- 건축시험하내에 학생기구나 조직 또는 지부가 있는지?
- 자국내 건축학교 및 건축과들과의 연계관계

- 3.0 건축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만일 없으면 건축교육담당자 이름
- 4.0 건축교육에 관한 재원 조달
- 5.0 건축교육과 관련된 전년도 주요 행사들
- 6.0 건축사 협회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학생공모전이나 캠퍼리대회 또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들
- 7.0 자국내의 건축학교나 건축과, 또는 교수들과 연계된 어떤 정규행사가 있는지
- 8.0 건축교육/ 자격인증/ 자격시험에 관해 협회에서 발간하는 잡지나 회보 의 목록
- 9.0 건축교육과 관련된 협회가 당면한 주요한 사항들
- 10.0 장래 계획
- 11.0 기타주요사항
- 12.0 보고서 지칭 양식
  - A4크기
  - 순서: 반드시 상기의 순서대로 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Nil'로 표시
  - 수량: 25부, 배포대상-회원협회들, 교육위원회 의장단, 보관용 및 참 관자용(있을 경우), 그리고 1부는 아카시아 사무국에, 다른 1부는 말 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의 아카시아 기록보관소에 보내야 한다.

회의장소 및 일정은 교육위원회 의장(ACAE Chairman)이 결정한다.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고, 회의소집 은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위원회내의 최소 5개 회원협회 전체 가 또는 아카시아 의장이 적어도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 2. 아카시아 건축상(the ARCASIA Awards)

앞에서도 간단히 소개했었지만 아카시아 건축 상은 1992년 파키스탄에서부터 시작되어 격년제로 아시아건축사대회(ACA)가 열리는 짝수 해에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을 해왔으나 1997년 도쿄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1998년은 과도 기로 작품선정은 그 해에 하고 시상은 이듬해인 1999년에 하 기로 했고, 1999년부터는 학술토론회(ARCASIA Forum)가 열리는 홀수 해에 작품선정을 하고 이듬해에 시상을 하게 되었 다. 이는 짝수 년도에 몰려 있는 행사를 분산시키고자 함이다.

1992년이래 그 동안 4번에 걸쳐 수상작을 선정했고 금번 우리 협회(KIRA)가 주최하는 제10차 아카시아 학술토론회에서 제 5차 아카시아 건축상 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 1) 수상취지 및 작품상 집행위원회(Awards Committee)

아카시아 건축상은 '아시아라는 상황 속에서 (in the Asian Context)' 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디자인의 우수함을 격려하고 인정하기 위해 아카시아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회에서 결정한 분야별로 수여하는 작품상이다. 아카시아 건축상은 그 직전 해의 연례회의 이사회에서 지명된 작품상 집행위원장(Awards Convenor)이 총괄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하도록 지명해서는 안된다.

### 2) 심사위원회(Awards Jury)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ㄱ) 아카시아 회장(Chairman ARCASIA)-(1)
- ㄴ) 작품상 집행위원장(Convenor ARCASIA Awards)-(1)
- ㄷ) 아카시아 학술토론회 주최국 비건축분야 지명인사-(1)
- ㄹ) 아카시아 회장이 속해 있는 구역(ARCASIA zone)외의 두 개 구 역에서의 지명건축가-(2)
- ㅁ) 아카시아지역(ARCASIA region)이외 지역에서의 지명건축가-(1)

심사위원은 위의 6인을 초과할 수 없고 동점 일 경우 아카시아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정족수는 위의 6 인중 4인이며 그 속에 작품상 집행위원장이 포함되어야 하고 아카시아 회장의 불참시는 작품상 집행위원장이 대행한다.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수여하는 모든 것은 최종결정으로 간주한다.

### 3) 작품상분야(Awards Categories)

다음 8개 분야에 걸쳐서 아카시아의 취지에 맞는 우수작품을 선정한다

- A. 주거용 (Residential Projects)
  - A-1 단독주거
  - A-2 집합주거
- B. 도시공공 건축물(Public Amenity Buildings)
  - B-1 상업용 건물
  - B-2 여가, 휴양시설 및 호텔
  - B-3 연구소 및 종교건축
  - B-4 스포츠시설 및 공항시설

- C. 산업용 건축물 (Industrial Buildings)
- D. 보존 시설 (Conservation Projects)

### 3.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아카시아 학생설계경기, 아카시아 학생건축상

#### 1)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Student Jamboree)

건축학도 잼버리대회는 아시아건축사대회 (ACA)와 함께 짝수 년도에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다. 각 회원국으로부터 두 명의 학생대표가 공식 초청되며 경비는 각 회원국 건축사협회에서 부담하고, 대표자 선정 기준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따른다. 주최국은 가능한 한 숙식 및 행사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숙소는 2인실 정도의 학생 기숙사나 호텔이 좋고 행사장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행사장은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열리는 같은 도시에 있는 주최국의 건축학교나 대학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은 가능하면 자국의 국민복 또는 전통복식을 지참하여 개최행사에 사용한다. 우리협회는 1988년 ACA-3개최시 제2차 잼버리대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운용지침 (ACAE Guidelines for the Holding of Student Jamborees)은 지난 1991년 베이징 대회시 건축교육위원회 (ACAE)에서 장시간에 걸친 토의 끝에 채택되었다.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개관 2) 목적 3) 책임의 소재 4) 주제 및 상세계획 5) 행사안내 6) 참가자 수 7) 재정 8) 조직위원회 9) 행사장 10) 숙박관계 11) 음식 12) 잼버리 프로그램 13) 주최국 학생들의 협조사항 14) 공항과의 교통 15) 비자관계 16) 국민복/전통의상 (National/ Traditional Dress) 17) 학생작품전시회 18) 단체사진 19) 보고서작성-참가학생 20) 보고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기록 제출함으로써 주최국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보고서는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개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건축학도 잼버리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재능 있는 건축학도들에게 아시아지역에서의 여행기회를 주며 동시에 자국과는 다른, 그러나 관련 있는 환경에서의 건축을 경험할 기회 제공을 촉진시킨다.
- ㉡) 장래에 촉망되는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다른 나라들에서의 당대의 상황이나 문제점들의 이해를 고취시킨다.
- ㉢) 아시아지역 내에서 건축학도들 사이의 개인적인 유대관계 수립을 장려한다.

- ㉣) 아시아의 건축학도들로 하여금 아시아건축사협의회 및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장래 자국의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로서의 활약을 야기한다.
- ㉤) 학생들의 참석으로 아카시아 행사를 활기치게 한다.

잼버리 대회의 주제는 반드시 아시아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건축교육관련 또는 설계/디자인 관련문제들 (Architectural Education matters or Design Issues facing the Asian region)중에서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문을 받아 택한다. 주최국의 잼버리 대회 책임자는 반드시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대표자라야 한다.

건축학도 잼버리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 학생 세미나 또는 워크샵 1일-서로간의 지식 및 정보교환
- ㉡) 건축사대회 참가 1일-아카시아 주행사에 학생대표 참가기회 부여
- ㉢) 최소 하루저녁 아카시아 사교행사에 참여-기성건축사들과의 교류
- ㉣)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대표들과 회합-건축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의 협의
- ㉤) 1일 시내관광

#### 2) 아카시아 학생공모전, 학생건축상 (ARCASIA Student Competition and Prize)

아카시아 학생공모전은 1992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의 ACA-5 대회시 파키스탄 건축사협회 (IAP)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각 회원국협회에서 학생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최우수 두 작품을 라호르에 보내서 대회기간중 전시를 했었다. 그때 우리협회 (KIRA)의 공모전은 잼버리 주제가 정해지기도 전에 진행되었으므로 잼버리 주제에 맞는 작품 준비도 못했고 발표문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학생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이 영어가 서툴러서 동행했던 우리협회 총무과장이 많이 고생을 했었다.

1993년 홍콩에서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시 학생공모전에 대해서 정식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격년제로 건축학도 잼버리 및 아시아건축사대회 (ACA)와 함께 짝수 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회원국내의 건축학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신일본건축가협회 (JIA)가 재정적인 지원의 제안을 하였고 최우수 학생작품상에는 일종의 건축기행경비인 300,000엔 (미화 약 2,900달러)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타 입상작들은 상장을 수여한다. 이 상의 명칭은 아카시아 학생건축상 (ARCASIA Student Prize)이다.

학생건축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ㄱ) 아시아 지역의 건축학도들을 격려하여 각국의 건축 및 아시아지역의 건축을 좀더 많이 느끼게 해주고
- ㄴ) 회원국 학생들간의 건전한 공모전을 장려하며
- ㄷ) 이 프로그램은 또한 재능있는 아시아건축학도를 발굴하는데 기여한다.

#### 4. 건축관광 및 사교행사

건축관광 및 사교행사는 협회지 1999년 2월호의 '아카시아란 무엇인가?'의 내용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아카시아/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이 모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아카시아 점검표에 의하면 학술토론회의 주제는 '아시아상황에서의 디자인 문제들 중에

서(amongst design issues in the Asian Context)' 정해야 하며,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주제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축 및 환경에 관한 절박한 문제들 중에서(amongst pressing issues concerning Architecture and the Environment in the Asian Region)' 정해야 한다. 우리협회가 주최하는 1999년 이번 제10차 학술토론회의 주제는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이다.

이제 행사를 약 3개월 남겨놓고 있다. 관련행사로써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 20차 이사회, 제13차 건축교육위원회 및 '교육인증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샵 제5차 아카시아 건축상 및 아카시아 명예이사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사무국 및 국제위원회의 관련위원들, 아카시아 준비위원회는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000여 회원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로 그 동안의 우리협회의 참가 및 활동보고 사항을 첨부한다.

(글 / 조인숙: 본 협회 국제위원, 다리건축)

####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참석현황

대회명	장소	전개일	세무명칭	회의명	회의개회횟수	참석자	행정보고서	참고사항
제1차 아시아건축사 대회	울진보 스포츠타워	'98. 11.12~15	98. 11.11~12	ACA-B	8회	김지덕, 유 건	건축사98121396호	
			98. 11.11~12	ACAE	12회	조인숙	건축사98121397호	
제2차 아카시아 토론회	동경 일본	'97. 9.20~21	97. 9.22~23	FORUM 9	9회	이정근		
			97. 9.20~21	COUNCIL MT	16회	이정근		
제3차 아카시아건축사 대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96. 9.23~26	96. 9.25~26	ACA-7	7회	김지덕, 박정국	건축사96111331호	홍재배, 조동주, 김교부(사무관)
			96. 9.23~24	COUNCIL MT	17회	조인숙, 김지덕	건축사96111331호	
제4차 아카시아 토론회	싱가포르	'95. 11.24~29	95. 11.27~29	ST. JAB	6회	조성욱, 조인숙	건축사96121332호	교육위원회 제1차 자리으로 비어 참석
			95. 11.24~25	FORUM-8	8회	이정근, 김현숙	건축사9711333호	건축사96121332호
제5차 아카시아 토론회	다낭과 랴리엔	'94. 12.12~16	95. 11.24~25	COUNCIL MT	16회	김지덕, 오윤석	건축사96102122호	학생(학생) 홍재배
			94. 12.16~16	ACAE MT	9회	이정근, 박정국	건축사96102122호	
제6차 아카시아 토론회	다낭과 랴리엔	'94. 12.12~16	94. 12.12~13	COUNCIL MT	15회	김지덕, 오윤석	건축사96102122호	홍재배, 오윤석
			94. 12.12~13	ACAE MT	8회	이정근, 이원환	건축사96102122호	
제7차 아카시아 토론회	홍콩	'93. 9.20~24	93. 9.23~24	FORUM 7	7회	김지덕, 송기덕	건축사93112395호	노원(대)이(대)장
			93. 9.20~21	COUNCIL MT	14회	이정근, 이원환	건축사93112395호	*상, 이원환, 김윤성
제8차 아카시아 토론회	리호르 파키스탄	'92. 10.25~28	92. 10.25~28	ACA-5	5회	이상배	건축사92121234호	
			92. 10.25~25	COUNCIL MT	13회	김지덕, 이원환	건축사92121234호	
제9차 아카시아 토론회	비밀림 동구	'91. 9.23~26	92. 10.25~27	ACAE MT	6회	조인숙	건축사92121234호	홍고, 윤희, 이(대)기
			91. 9.27~28	FORUM 6	4회	정문석, 김태훈	건축사92121234호	한일(대)건축학회
제10차 아카시아 토론회	방콕 태일란드	'91. 9.23~26	91. 9.24~25	COUNCIL MT	12회	김지덕, 이원환	건축사91121272호	학생(학생) 김윤성
			91. 9.24~25	ACAE MT	5회	조인숙, 조인숙	건축사91121272호	홍고, 일본, 이(대)기
제11차 아카시아 토론회	아그라 인도	'90. 9.26~10.1	90. 9.28~29	ACA-4	4회	송기덕	건축사90121269호	
			90. 10.1	COUNCIL MT	11회	김지덕, 이원환	건축사90121269호	
제12차 아카시아 토론회	방콕 태일란드	'89. 10.19~22	90. 9.26~28	ST. JAB	4회	조인숙	건축사90121269호	
			89. 10.21~22	FORUM 5	5회	이소진, 남수현	건축사90121269호	한일(대)건축학회
제13차 아카시아 토론회	서울 대한민국	'88. 11.7~11	89. 10.19~20	COUNCIL MT	10회	송기덕	건축사89111247호	*홍고, 이(대)기, 박정국
			88. 10.19~20	ACAE MT	3회	홍재배	건축사89111247호	
제14차 아카시아 토론회	방콕 태일란드	'88. 11.7~11	88. 11.8~11	ACA-3	3회	송기덕	건축사88111247호	주(대)국
			88. 11.7~8	COUNCIL MT	9회	김지덕, 이원환	건축사88111247호	
제15차 아카시아 토론회	방콕 태일란드	'87. 10.22~24	88. 11.7~8	ACAE MT	2회	정문석, 조재현	건축사88111247호	1990년 Agra Meeting(2년) feedback
			87. 10.24	FORUM 4	4회	이(대)기, 송기덕		김지덕, 유원정(조재현)
제16차 아카시아 토론회	방콕 태일란드	'86. 10.11~13	87. 10.22	COUNCIL MT	8회	김지덕, 이원환		홍재배, 박정국, 이원환
			87. 10.20	ACAE MT				
제17차 아카시아 토론회	후안라몬푸르 필리핀	'86. 10.8~13	86. 10.11~13	ACA-2	2회	이정근, 송기덕	건축사86111212호	홍재배(비공인, 필리핀)
			86. 10.8~10	COUNCIL MT	7회	정문석, 김윤성	건축사86111212호	
제18차 아카시아 토론회	방콕 태일란드	'85. 11.15~19	86. 10.8~10	ACAE MT	1회	0 당일, 김지덕 (연수위원장) (보고서: 조재현)	건축사86111212호	*연대(비공인) 교수 보고서 작성해준 것 배포
			85. 11.9	ST. JAB	1회	유원정, 조재현	건축사86111212호	파(대)스(대)기(대)기, 방(대)기(대)기(대)기
제19차 아카시아 토론회	방콕 태일란드	'85. 11.15~19	85. 11.17~18	FORUM 3	3회	오윤석, 김지덕	건축사85121201호	한일(대)건축학회
			85. 11.16	COUNCIL MT	6회			
제20차 아카시아 토론회	방콕 태일란드	'84. 10.25~28	85. 11.16	ABAE MT		송기덕 (특별위원장)	방(대)고(대)기(대)기	*ARCASIA 회원(대)로 송(대)기(대)기
			84. 10.25~29	ACA-1	1회	김지덕, 김지덕	건축사84111188호	가(대)기(대)기
			84. 10.26~27	COUNCIL MT	5회	박정국, 김현숙		
			84. 10.26	ABAE MT				홍재배

(아카시아 이원환, 송기덕, 김지덕, 유원정, 조재현)

## 새로운 시대정신 New 'Zeitgeist'

이정수 / 호서대 건축설계전공 교수  
by Lee Jeong-Soo

### 우리가 처한 현실

최근 공영매체를 통해, 대형 백화점과 외국계 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황을 건 전쟁'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대형 공룡들의 전쟁 사이에서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지역밀착형 구멍가게의 대응책을 지켜보면서, 건축계의 실정 또한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입장만은 아닌 듯 싶다. 사실 건축설계업계에서도 이러한 4각 구도는 엄연히 존재하며, 최근 IMF 이후 국내 설계시장의 전모는 이러한 유통시장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이후 제기된 전문가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문제는, 대학에서의 설계교육 시스템으로부터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사회 제 분야에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축설계분야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고통을 내부적으로 감수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몇 년전 '서유견문록'에 못지 않은 충격으로 서구건축기술을 국내에 소개하는데 일역을 담당하였던 국내 대형설계업체는 최근 비만한 체중을 감량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으며, 전문화되지 못한 기술력이지만 다양한 영업품목으로 그런 대로 호시절을 구가하였던 중소설계사무실은 차별화되지 못한 정체성 부족의 영향을 특특히 겪고 있다. 또한 건축시장의 한편에서 스스로 하이레벨의 부티크임을 강조하였던 작가 사무실은 외로운 투쟁의 길을 가야하는 형편이 되었고, 서민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일선 소규모 설계사무실은 뚜렷한 영업품목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고도성장 속에서, 뚜렷한 자기 정체성 부여나 자리매김에 소홀하였던 지난 시절의 업보인지도 모른다.

건축허가면적(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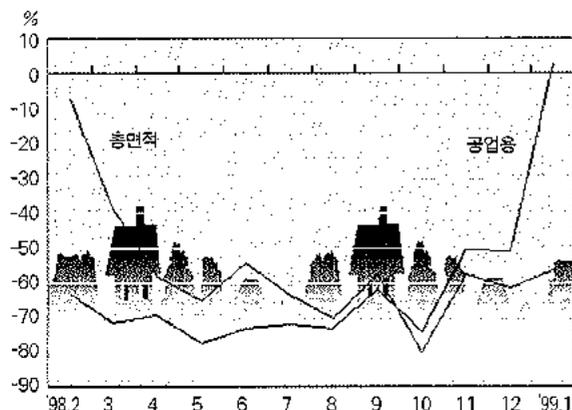


그림 1. 건축허가동향(자료출처 : 통계청)

구분	한국	일본	미국
1. 인구(백만, 1997)	45.99	126.2	267.9
2. 1인당 국민총생산 <sup>1)</sup> (1997)	10,307\$	29,964\$	33,289\$
3. 등록 건축사수(인)	약 6,933 <sup>2)</sup>	140,500 <sup>3)</sup>	62,000 <sup>4)</sup>
4. 건축사 1인당 인구 (인구/건축사)	6,634명	898.2명	4,321명
5. 건축사 1인당 국민총생산(천\$) <sup>5)</sup>	68,371.4	26,914.3	143,840.7

1) 통계청 자료, 1998년 한국의 국민1인당 총생산은 6,823\$ 임.  
2) 등록 건축사수임(1999년 6월). 발급된 건축사자격증 수는 11,287 명임.  
3) 사일본건축사협회연감회의 회원수(1998.4.). 1급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는 271,231(1996년 말, 住宅局 建築指導課 자료)임.  
4) AIA members/www.e-architect.com/institute/membersrv.asp 참고.  
5) (인구 x 1인당 국민총생산)/건축사수

표 1. 각 국가별 건축사수 분석

사실 건축사집단은 직업분야에서 의사·변호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 미국에서 이들은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전문가들이다. 국내에서 최근 이러한 집단이 처한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모두 외부로부터 자격을 갖춘 인원선발을 늘리도록 압력을 받아왔다.

건축사의 경우 1993년 이후,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축사 숫자의 절대부족과 사회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적절한 건축설계 공급의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초로 건축사시험의 대번혁이 시도되었고, 매년 약 1,000여명의 건축사들이 사회에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은 건축사가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자격증으로 치부되었던 시대로부터, 사회참여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고 문화의 창조자로서 건축사를 바라보는 인식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IMF 이후 발생한 원천적인 일감부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늘어난 건축사수가 상대적 경쟁격화와 체질전환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사실 건축사수의 증가는 일반인들에게는 양질의 건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건축사들에게는 부족한 일감을 늘어난 건축사들이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밥그릇 싸움의 심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건축관련학과와 신설추세를 들여다보면, 향후 이러한 경쟁체제는 더욱 격화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1993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68개 대학에 74개의 건축과가 있으며, 입학정원 4,890명(총 재학생 19,186명)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대한건축학회, 1994.3. 자료). 하지만, 1994년 이후에도 많은 건축관련학과들이 지속적으로 개설되었고, 2,010년 무렵이 되면 이러한 인력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전문인력으로서 사회에 배출될 것이다. 건축사자격인정제도의 여파로 건축사시험제도의 변화, 그리고 다수 대학의 건축설계전공과정이 5년제로 바뀌어지는 등 건축설계관련 분야에서의 변혁, 그리고 경제의 회복과 성장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시기에 이르면 건축사수 대비 인구규모, GNP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의 건축설계시장의 현실은, 각국의 건축사수의 변화와 경제규모, 인구 등을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여건으로 보여진다. 실제적으로, 향후의 상황은 인구대비, 건축사 1인당 GNP 등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건축사는 약 7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1급 건축사가 약

30%, 2급 건축사가 70% 미만, 그리고 목조건축사가 약 2%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들 중 70% 정도가 건축설계·공사감리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산·구조, 설비, 조사·감정, 연구·교육, 행정 등에 종사하고 있다(조경, 1999.2). 또한 매년 약 7,000명의 1급 건축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1996년말 1급건축사가 271,231명이 있다. 그 중 약 140,500명의 1급, 2급, 목조건축사가 (사)일본건축사학회연합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무리 경제대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건축사의 수는 사실 우리의 경제규모, 인구에 대비해 보면 매우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많은 건축사들은 다들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 것인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IMF라는 상황이 가지고 온 일감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건축전문가로서 건축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건축설계 패러다임과 건축사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새로운 건축설계 패러다임에의 적응

### 1) 지방화시대

다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방화시대'가 시작되었다고들 한다. 물론, 사회 제반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시도지사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 특산물을 홍보-1979년, 일본의 오이타(大分)현의 지사인 히라마쓰 모리히코(平松守彦)가 제창하였던 '一村一品' 운동이 지방의 특성화를 모색한 그 원조적 사례이다-한다든지, 지역축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일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지방화와 더불어 제기된 '지역이 지닌 개성을



그림 2.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주거재개발(코포 롯) 코포 롯은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주거개발 방식이다.

되찾지'는 '지역운동' 및 자신이 소속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자극을 받아, IMF 이전의 지난 몇 해 동안 서울에서 개업을 고집하던 이제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무실을 개업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지방화와 더불어 진행된, 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건축전문가의 U-turn 현상은, 지방 건축계에 이미 내재된 건축역량에 또 다른 동기부여를 가함으로써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미 이러한 기운은 싹트고 있다. 건축사에 게재되고 있는 "지역건축탐방", 그리고 "지역성 탐색을 위한 대토론회(1999.3; 충북건축사회)" 등이나, 각 지역의 풍광과 문화특성을 살린 건축물을 찾는 "98 칠십리 건축작품 공모"(1998.5; 서귀포시) 등과 같은 건축상 시상 등은 이러한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준농림지에 건축되는 초고층아파트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외지인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공습하듯이 이루어지는 개발방식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각 건축사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경에 합쳐되는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크나큰 책임을 맡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는 단순히 건축사들만의 몫은 아니며, 그 지역의 건축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기본전제로 한다.

과도한 밀도와 획일적인 아파트 개발방식으로 부터 지역의 고유한 풍경과 가치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적절한 개발방식-지역의 고유한 환경을 반영하는 주택지 조성을 도모하는 'HOPE(Housing with Proper Environment)' 계획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건축문화는, 지역에 밀착하여 활동하는 '지역 건축사'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 2) 환경중심의 시대로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대두되는 공해시설의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사실 지방자치에 따른 부작용이지만, 환경개념의 대두-도쿄도의 '쓰레기 전쟁'은 1971년 가을에 시작되었으며, 주택지에서의 일조권을 비롯한 환경권 개념의 대두는 이미 1970년대의 일이다와 더불어 한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특히 국내에서도 건축물과 관련하여 미산시 문신미술관 조망권 문제(1994.10.14), 범어사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마찰(1995.1.11.), 유달산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6~15m) 지정(1995.10.13), 봉은사 입구 고층건물(19층) 공사중지 명령(1994.6.3) 등과 같이 '조망권'과 '문화 환경권'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는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1992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이젠다(Agenda) 21', 1997년 12월 '교토 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건축관련 분야도 건축폐기물량의 억제, 에너지 사용량 억제 등 실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시장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유명무실하였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설계 기술적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개념의 대두는 포괄적인 환경보전형 도시 시스템 내에 건축물이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건축설계 과정에서도 환경기술, 재활용(리사이클링) 기술이나 생태건축에 대한 기술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기술의 적용은 단순히 신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과 관련하여 개조(Reform) 시장의 새로운 전개를 예견할 수 있다. 환경규제에 따른 건축재료를 비롯한 전반적인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의 신축 위주의 시장형성으로부터 개조 시장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즉, '생태건축'이나 '건축 재료의 리사이클링' 기술이 주제가 된 건축물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 패러다임이 건축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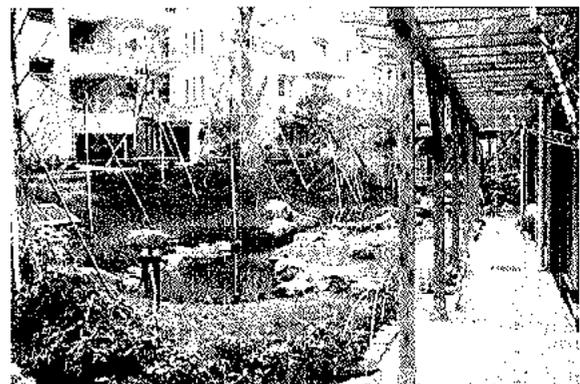


그림 3. 환경생태주택내의 습지(후쿠지와 집합주택, 도쿄)

### 3) '배리어 프리'의 시대로

일본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일본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5.4%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의 진행은, 실버시장의 실현과 함께 주택건설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사실 배리어 프리는 건축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및 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중, 고령자와 장애자를 배려한 주택의 문제는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점이다.

실제적으로 '배리어 프리'는 장애를 없앤다는 의미이지만, '배리어 프리 주택'이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이자 계속해서 삶을 영위할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부모와의 동거를 전제로 한 2세대 주택으로부터 노후생활을 전제로 한 주택에 이르기까지 적용가능한데, 주택설계 및 공급과정에서 '배리어 프리'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건축설계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주택금융공고에서는, '고령자·장애자 대응 주택 활동용자제도'를 두고, 고령자와 동거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거나, 고령자 생활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의 단차를 없애거나 욕실,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자를 더 확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유형에서도 개념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세대는 30~40대가 대부분이지만, 가족중 특별히 고령자나 장애자가 없는 경우 자신의 노후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을 짓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향후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자신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실버타운'의 개념에 의해 집단적으로 노인촌 또는 노인휴양소와 같이 별개의 특정한 건축양식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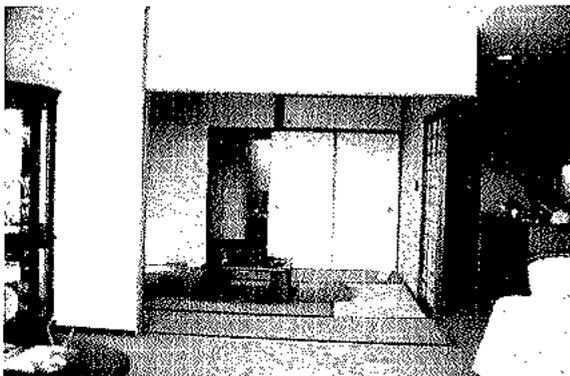


그림 4. 배리어 프리 개념에 의한 단위주택의 내부(나카긴 케어센타, 짜바 뉴타운)

변에서 항상 같이 있는 보편적인 건축원리로서 '배리어 프리' 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배리어 프리 주택은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없이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배리어 프리 주택에서는 지금까지 설계와 건설과정에서 건축의 고유한 분야로 여겨져 온 지식이나 기술로부터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일선의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제료업체에서의 약진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 4) 조경 및 도시디자인의 시대로

최근 학문의 세분화와 더불어 사실 대학에서 건축교육은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오브제 중심의 형태나 공간교육에 급급한 실정이다. 도시는 건축을 담는 그릇이고, 또한 개개의 건축물의 집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건축은 건축으로서 존재할 뿐이고, 도시는 도시계획가의 손에 내 맡겨져 있는 듯하다.

고도성장기의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화로 도시는 경제나 산업의 논리에 의한 개발되었으며, 기능이나 효율을 추구하는 곳으로 간주되었다.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개발'은 중요한 목표이었고 초고층아파트는 지역발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도시는 달라져야 한다. 기능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종래의 도시관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난개발에 의해 자연과 역사를 상실하고, 무개성으로 매력 없이 없어진 도시의 존재방식은, 먼저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실 '양'으로부터 '질'을 추구하는 발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생활을 제대로 바라보고자하는 움직임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방송매체에서도, 도시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경관이나 풍경이라는 어휘가 주요한 키워드로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즉,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가 휘몰아쳤던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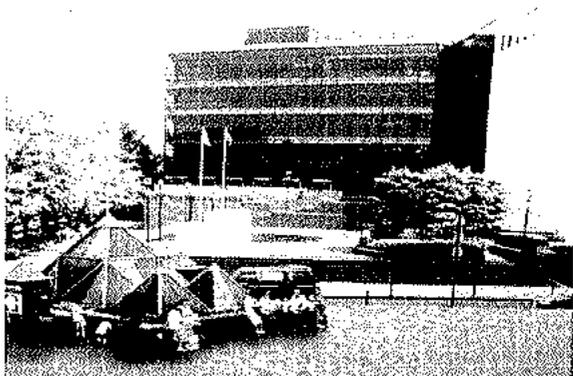


그림 5. 공공공지 위치조정을 통하여 마추보도목 배치된 페어링장 (요코하마 야마시타 공원)

날에는 개개의 도시의 역사를 무시하고 제로로부터 새롭게 계획하는 도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에는 도시의 역사나 공간구조, 그리고 경관으로부터 기초하는 도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도시시설만으로는, 매력적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지역에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 본격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 세기는 확실히 도시 및 조경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많은 곳에서 도시설계적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하는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디자인 뿐만 아니라, 집합주택단지 설계과정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IMF 이후, 이제까지의 통념을 깨고 지상에 녹지를 조성한 한 아파트 단지가 절친리에 분양된 경우만 보아도, '조경'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단지설계가 수법적 측면에서 코디네이터 또는 마스터 아키텍트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 디자인적 콘트를 수법-디자인 코드나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이제까지의 독립된 '단지' 중심의 사고로부터 '단지'의 경계를 넘어서 '도시'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의 건축설계 분야에서도 '도시읽기'라는 어휘가 상징하듯이, 건축물이 도시를 배경으로 어떻게 위치하는가가 중요한 테제로 등장하고 있다. 점점 건축가의 사고 속에서 도시의 역사, 문화에 대한 배경읽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고립된 '섬'으로서 격리된 디자인 사고로부터 벗어나, 도시어로 열린 그리고 조경 및 환경디자인을 이해하는 건축설계적 사고가 요구되어진다.

### 5) 정보화사회로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그림 6. 마스터 아키텍트에 의한 집합주택단지개발 (벨플린뉴 미나미오사와, 도쿄)

추진을 위하여 건설정보화사업(건설 CALS, Commerce At Light Speed)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를 통하여 건설공사비의 절감을 모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화가 건설산업의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건축설계 분야는 사회 제반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의 추세에 대하여, 여전히 예술로서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고 애써 태연해 하려는 듯 보인다.

실제적으로 '정보화'가 건축사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하나의 가능성은, 설계사무실 운영에서의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개념의 도입이다. 작년 겨울 어떤 모임에서 건축설계관련 소장으로부터 건축관련 각 분야의 생산성에 대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설계·구조·인테리어·건설 등 각 분야에서 연간 수주액과 종사 인원 대비로 생산성을 계산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1인당 어느 정도의 수주액이 있을 경우 현재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그 동안 축적된 개인별 업무실태 및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즉, 정보화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객에게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사실 일반인에게는 '짐을 짓는다'는 행위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때로는 건축주들이 상당히 망설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조합하여 많은 사전지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선부른 지식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서비스로는 건축주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건축설계시장에서의 '원 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필요하다. 이는 망설이고 있는 고객에게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를 통하여 동기 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축사의 업무가 단순히, 조형적으로 아름다고 상징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시대로부터, 부동산 동향이나, 세금문제, 그리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보수, 관리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풍부한 지식과 객관적 근거에 의거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 우리는 설계사무실을 찾아오는 보험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개개인의 연령, 연봉 등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금전적인 부담을 담은 서비스 시트를 제공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

험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즉, 건축사의 업무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건축주가 생각하는 건축물의 규모, 비용, 경비조달 방법 등을 듣고, 건축계획, 자금조달 계획, 세금관계, 향후 건축물 관리계획 등을 담은 시트를 제시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

셋째, 사이버 시장에서의 세일즈이다. 인터넷은 이미 사이버 잡지(webzine: <http://www.archforum.com/>)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공모전에서도 "사이버가수를 소재로 한 이담의 산책"(1998.3: 공간학생건축상)이라는 주제가 제기되는 등 점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 전문가들에게도 이러한 건축 정보화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어 진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건축관련 상담코너-사이버 건축사의 등장-의 개설이다. 가끔 의뢰기관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인터넷 종합병원 또는 '사이버 가정의'라는 코너를 볼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환자의 다양한 고민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의사들의 성실한 조언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가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의원 특히 가정의를 전공으로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건축설계시장에서도 사이버 건축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로서 연결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신뢰성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건축적 행위를 결정하는 건축주 연령이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당장에는 프로젝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이버 세계에 익숙한 이들이 머지않아 사회의 주축이 될 것이며, 사이버 세계를 통한 건축서비스가 보편화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림 7. 건축사·변호사·교수 등이 참여한 NPO활동 (세다가야 마찌초쿠리 센터, 도쿄)

##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모색

### 1) 건축사의 사회참여

일본에서는 지난 3월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시행되어, 이제까지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민참여와 물런티어에 의한 주민활동이 법적틀내에 위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고베대지진의 복구과정에서, '주택재건'을 지원하는 건축사를 비롯한 변호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많은 전문가 물런티어 그룹들이 참여하여, 지진 후 극도로 혼란상태 빠진 도시를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두된 법제나 세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공인법인의 관계, 그리고 이상론과 현실론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NPO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건축사들의 역할이다. (사)일본건축사연합회(<http://www.aec.or.jp/user/abarinet/>)는 1997년 1월 '건축사관 NPO'로서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를 출범시켰다.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 건축사회의 '지역공헌활동추진센터'는 자금후원, 기금모집을 시작으로, 건축사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활동단체에 자금·기술·정보 등을 조성·지원하고 있다.

즉, 건축사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지역 물런티어 그룹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협의하는 등, 건축사가 행정관청과 시민 사이에서 유희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사의 지역 활동은 다음 세기에 부각될 새로운 '건축사의 모습'으로 기대되어진다.

즉, 21세기의 지역사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지역의 거주환경이나 삶의 질을 고양하여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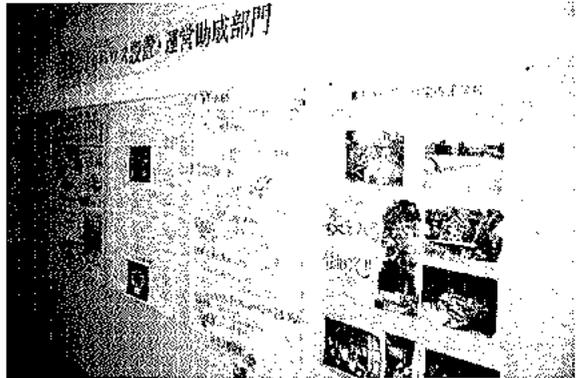


그림 8. 지역주민들의 제안(마찌초쿠리센터, 도쿄)

회 문제의 결정권은, 지방자치제 이후 이미 그 지역의 주민에게 옮겨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건축사의 역할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축전문가의 사회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서울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시민건축대학" (1999.5), "건축·만화·재즈의 만남" (1999.5) 등과 같이 건축이 사회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곳에서 보여진다. 특히 지방에서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모하는 "건축 백일장 '98" (1998.9; POAR건축 주관, 인천), "울산 유치원생을 위한 어린이 건축가 대회" (1998.5; 울산대학교, 울산) 등과 같은 행사들은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집없는 저소득국민자들을 위해 집지어주기 운동의 하나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건축사 집단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이러한 활동, 즉 건축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얻는 것은 신뢰성일 것이다.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얻고, 교제의 폭 및 업무분야의 확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업무분야의 확대는 건축설계나 건축공사의 수주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풍경이나 경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구조물의 디자인, 예를 들면 가로등, 다리, 가로외 보도 디자인 등 건축사의 미학적 감각을 활용한 제안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의 활동범위의 확대를 포함한다. 즉, 보다 지역에 밀착된 건축사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 2) 지역건축사의 가능성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료진료 시스템의 측면에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의 소규모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정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는 사실, 지역에서 각 가정의 병력이라든지 각 개인이 지닌 특성을 잘 알아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발병시 각각의 증상 및 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처방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이다.

법률서비스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로펌과 같은 대형 사무실도 존재하지만, 점점 소규모 지역 법

률서비스사무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실례를 들면, 각 지방마다 현지에 파견된 간이법정이 있어, 사소한 법률심판의 경우 본 법정에 이르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법률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건축사들에게도 하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즉, '지역 건축사'의 가능성이다. 각 지역에 토착화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가서 건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건축사사무실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제공한 건축적 서비스가 '계약'이라는 법률적인 절차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건축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건축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로 비용화시킨다면, 계약이라는 한기닥 회담을 향해 무보수로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관례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규모 단위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100%의 설계 및 감리비가 요구된다면, 단순한 건축상담의 경우 3%, 법률적인 검토를 수반하는 기본계획안의 경우 7%, 건축허가를 위한 준비의 경우 10% 등...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대지를 구입할 경우나, 신축이나 증축을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여건에서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한지,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 사전에 가능한 검토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지역 건축사의 가능성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중심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이다. 사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 중소도시는 이러한 건축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사의 활동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 즉, 서울이나 지방의 작은 도시나 건축사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간다면, 사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을 잘 이해하는 건축사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NHK TV에 방영된 한 일본 건축사의 사례를 보면, 물론 이 건축사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는 하지만, 그는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의 작은 집수리로부터 신축에

\* 1992년 창립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는 집없는 저소득 국민자들을 위해 집지어주기 운동을 하고있는 대표적 비정부조직으로서, 이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적 비정부기구(NGO) 해비타드(HABITAT)의 한국지부이다.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심과 노력에 의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집수리'에 해당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몇 년 전부터 건축사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건축사면허는 '미장이' 면허'라는 말로서 불만을 높인 적이 있었다. 역설적으로 건축사가 점점 '미장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장이'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고, 골목마다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지역 건축물에 대해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 건축사 역시 이러한 지역과 밀착된 서비스 시장의 침투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도는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원 맨 스튜디오'의 가능성

과거, "건축 설계 사무실의 급여가 왜 이리도 작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흔히 "건축은 장인과 도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굶어가면서 배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일이 많다해도, 당장 내일부터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가?"라는 반응을 들곤 하였다.

IMF 이전 건축시장의 금성장과 함께 건축사 보조원의 처우는 많이 개선되었다. 대형 건축설계사무실의 경우는 대기업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들렸다. 하지만, IMF 이후 이러한 호시절도 추삼할 한때처럼 지나가고, 대량해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 많은 직원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건축사와 몇몇 사람들만이 앉아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원 맨 스튜디오(One Man Studio)-나홀로 사무소'의 가능성이다. 즉, 건축설계 업무가 진행되는 초기에는 혼자 힘으로 상담 및 업무진행을 하다가도, 그 일이 본격화되어지면 각 프로젝트 별로 '프리랜서(Freelancer)'로서의 기술자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상위집단만이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인력시장의 탄력성이 높아지면 중급기술자의 인력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력시장의 경직화는 경영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준다. 반면에, 인력시장의 탄력성이 높아지면, 설계사무실의 보조원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반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이 없는데, 무작정 내일을 기약하고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일이 내일 생

길 수도 있는데 직원을 해고할 수도 없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테크니션 풀(Technician Pool)'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기술자의 집단을 형성하고, 각 프로젝트별 필요성에 따라 단기간 활용하는 시스템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주수 여부에 상관없이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중간기술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지닌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기술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과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단순한 년차에 따른 경력수준과 급여책정의 문제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프로젝트의 종류와 기술수준, 그리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사협회 차원에서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축사보조원의 원활한 중개와 정보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컴퓨터의 웹 사이트의 제공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조원의 능력을 분야별, 기술수준별로 지수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난국에 처하면 많은 처방들이 난무하게 마련이다. 흔히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기투자자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사실, 건축설계사무실의 고통은 극한에 와있는데, 무슨 자기투자를 논할 수 있겠는가.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신고현황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은 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작년 3월 대비하여 마이너스를 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IMF 시대의 종식 이후에도 '건축사'라는 전문가의 길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규모가 작은 점포는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면 고객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는 가장 평범한 진리로부터, 건축설계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건축사들이 다음 10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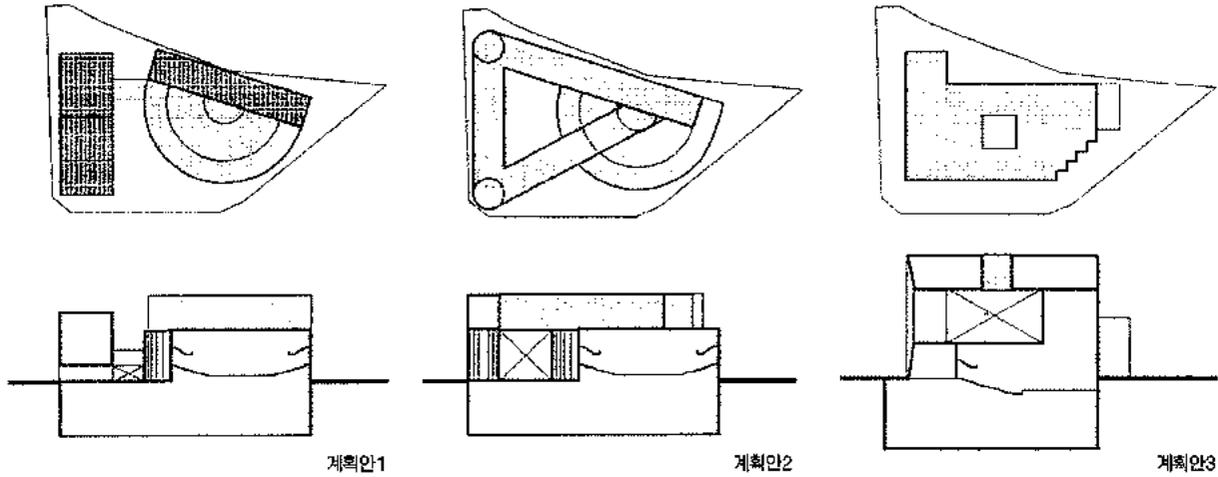
- 鹽見 寛, 動き出した建築士版NPO - 地域再興活動の状況と展望, 逸果19, 1999.2
- 日理, 70年代に學ぶ 危機の時代の機こしが, 1998.8
- 조창현 외, 지방자치론 일면 21세기가 보인다, 보림, 1997.9.
- 이호걸,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의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1996.12.
-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위원회, 국제화시대를 맞는 우리건축교육의 진전화, 1994.3.

# 성북구 종합문화센터

## Sung-Buk Arts Centre

이정근 / 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by Lee Jeong-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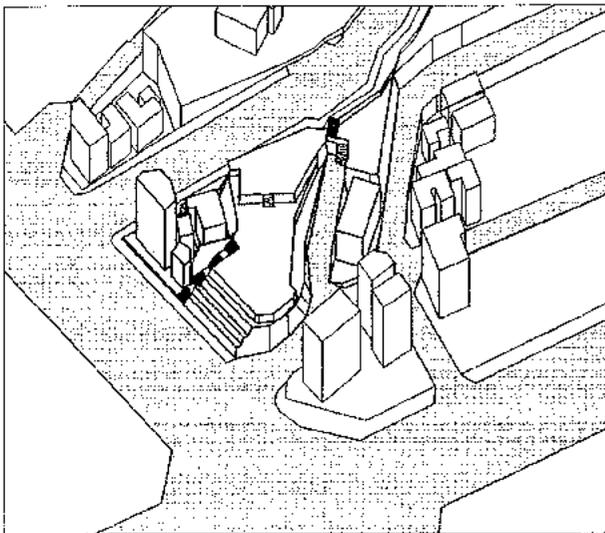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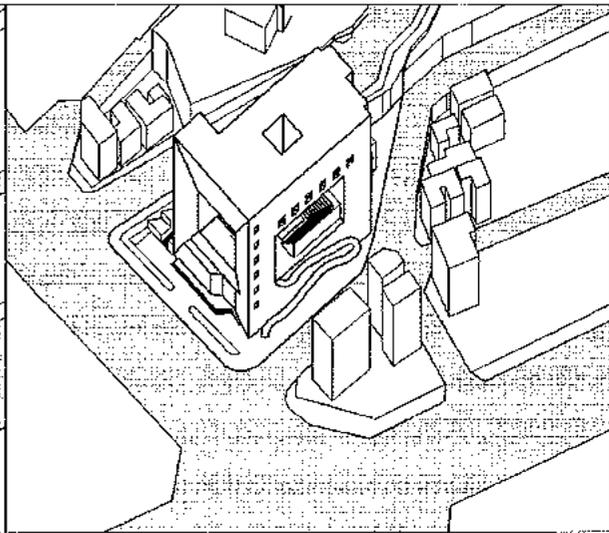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성북구에서 실시한 현상에 응모했던 작품이다. 가끔 현상응모를 해보지만 아직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각별히 애착이 가는 것들이 더러 있다. 이 응모안은 세부적으로는 결함도 많지만 설계접근의 커다란 근본 틀에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견지했다고 여겨져서 독자들 앞에 펼쳐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대지는 삼선교 네거리의 성북동 쪽 모퉁이에 위치하여 산세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인근 지역은 모두 개발되어 옛 지형의 흔적을 전혀 읽을 수 없도록 변해버렸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복개된 성북동에서 내려오는 현도로 밑을 흐르는 개천에 면하여 돌출한 산세의 끝머리에 위치한다. 잡다한 인공의 상처를 이겨내며 바다에 갇힌 섬처럼 지금까지 땅의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며 버티고 있다는 것이 대견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아있는 땅의 숨결을 지워버리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요구하고 있는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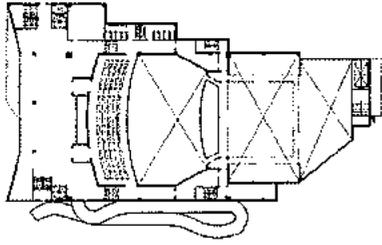
모의 공연장과 전시시설 등을 이곳에 수용하려면 땅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있다. 모든 시설을 지하에 넣는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리고도 싶었지만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프로그램의 해석이라는게 명백하다. 그래서 나는 공연장을 현 지표 밑으로 넣고 전시관과 교육관은 지상위에 띄워 올려서 지세의 흐름의 맥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물론 지표면도 인공의 슬라브로 바꾸고 지표 밑의 구성도 달라지겠지만 원 지세의 흐름의 물리적인 특성은 어느 정도 살려낸다는 의도이다. 그래서 원래의 둔덕의 표면은 공연장의 지붕위가 되지만 야외 공연마당이 놓일 뿐 예전과 다름없이 산등네 언덕으로부터 이곳을 지나 삼선교 네거리 쪽으로 다닐 수 있게 하였다. 이 공연마당은 상부에 올려진 전시/교육관으로 인해 눈과 비, 또는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시/교육관은 전면광장과 공연마당 레벨에서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며 후면에는 공연장의 홀라이트워 위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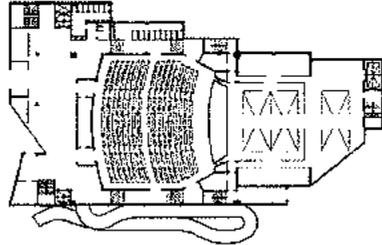
현황대지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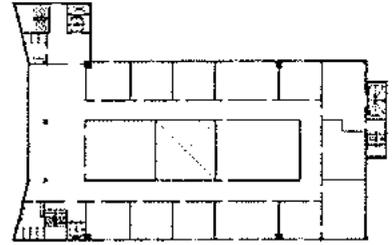
계획안 엑소노메트릭



L. 33.0 평면도



L. 38.3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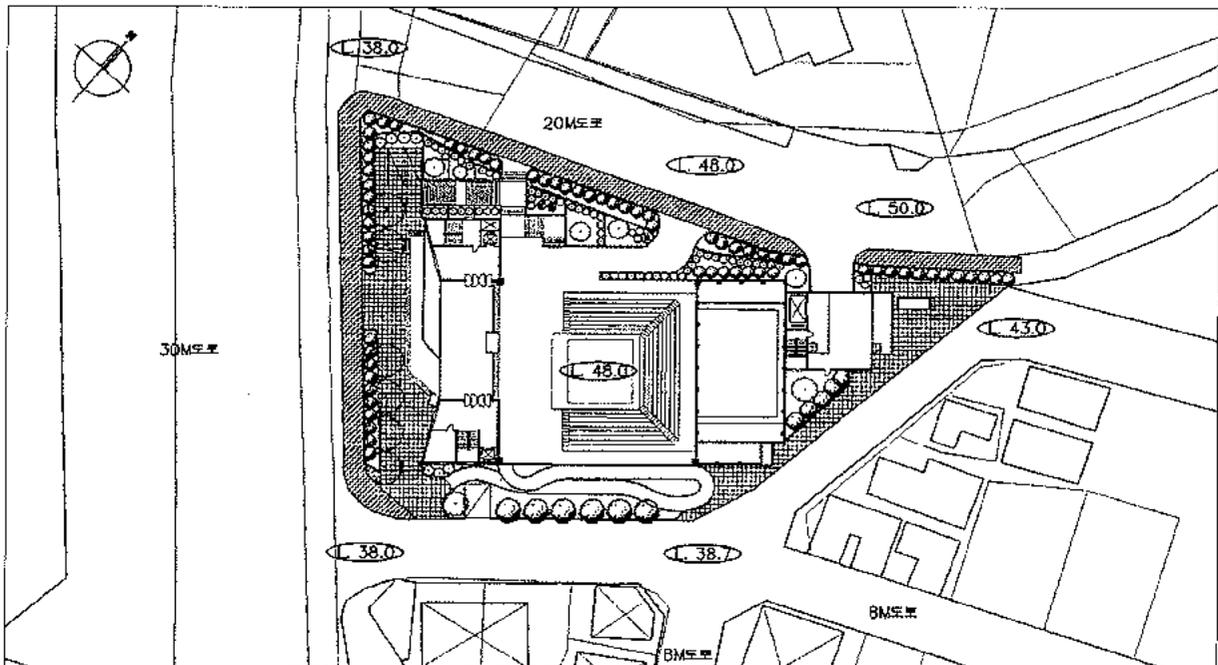


L. 63.0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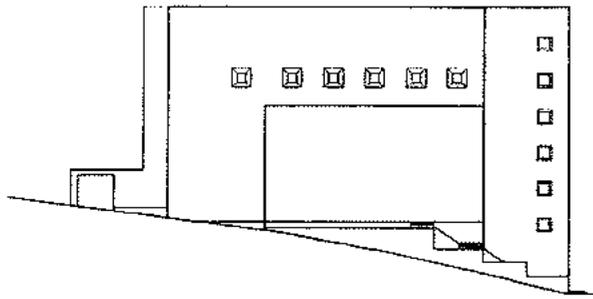
프로그램에 요구된 공연장 수용인원과 무대의 규모를 고려하면 대지의 기공 길이가 짧아서 주출입구 전면 에 충분한 광장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 계획안에서는 상기 아의 공연마당이 좁은 전면 광장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공연장과 전시관에 드나드는 화물은 각각 대지의 특성인 다른 레벨의 도로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 계획안이 도시의 인근환경 과 갖는 관계는 체적의 비례나 디자인의 동질성의 추구가 아니라 건물 덩어리의 부피와 표면들로 구성되는 시각정보를 억제 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지 주변 지형의 레벨들이 아의 공연마 당과 이어지는 외부공간의 구성체계가 실내에 포치된 기능공 간들의 매스와 뒤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중심은 건물 덩어리에 있지 않고 만인이 공유하는 허 공에 위치한다. 건물의 전개도가 땅에 접한 부분과 홀라타워가 있는 후면을 빼고는 전면, 좌우면 그리고 상부의 네 면이 모두 둘러 있다. 이 계획안에서 가장 약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지하 굴토부분의 증가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지하 주차장으로의 진입이

하부 무대설비의 위치를 피해야하기 때문에 지하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회 관의 공공성과 도시적인 위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투입하는데 있어 선택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것이나 하는데 로 귀착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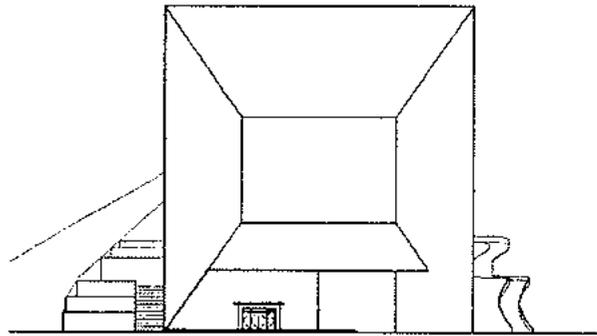
다른 건물에 비해서 어느정도의 공공성과 기념성이 요구되는 건물에서 억압적인 규모의 양감과 권위적이 고 경직된 시각질서를 탈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여기 서 이미 생활공동체의 성원들이 기존의 자연조건을 길들이거나 또는 그것에 적응하여 온 방법을 그대로 새로운 계획에 연 장시키는 것이 그 하나라고 보았다. 기능들의 효율적인 구성체 계가 결집되는 건물이라는 양기가 주인이 아니고 사람들의 활 동이 주체가 되는 건축환경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모름지기 공간의 구조적인 질서체계가 아니라 사 람의 활동과 공간이 구분없이 혼용되는 과정적인 질서체계가 아닐까 여겨진다. 이를 어떻게 우리의 생활공간 속에 실현시킬 것인가는 각 건축가의 작업에 달렸다.



배치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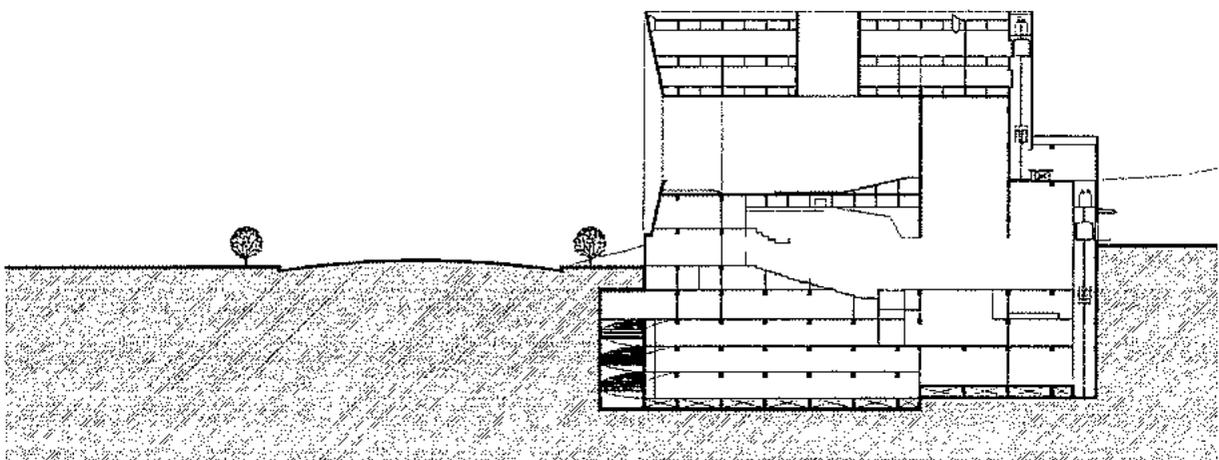
정면도

현상설계 작업을 한지 일년이 다 되어간다. 현상설계가 당장 먹거리가 보장된 일은 아니지만 일하는 동안만은 어느 경우보다 즐겁다. 이미도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해 볼 수 있는 조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나만이 그런게 아니라 직원 동료들도 돈되는 일보다는 이렇게 돈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더 선호하는 모습이 원연하다. 만약에 당선되어서 건축허가와 착공을 전제로하여 도면을 그려나간다면 이렇게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층층의 조직을 비집고 보고를 올라야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득이 안되면 다시 그려야한다. 때로는 건축주 조직 내부의 이견과 사정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이중삼중으로 해야한다. 어디 그뿐인가. 여러단계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심의 위원의 평가에 가슴을 졸여야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때에는 비감마저 들지않던가.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 당선왕된 것이 다행이라고 자위할 때도 가끔은 있었다.

즐기는 곳에는 항상 대가가 있는법. 현상설계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건축주의 얼굴이 없다는 것이다. 맞 상대하는 건축주가 있다면 이러 저러한 문제는 이렇게 저렇

게 답을 제시할 수 있을텐데. 제시한 답이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설득을 시켜 보기라도 할텐데. 현상설계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기란 이루 형용하기가 어렵다. 어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리라고 가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날 일기 예보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협력은 단순한 산술적 합산의 결과가 아닐 것은 뻔하다. 현상설계는 원래 당선이 그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는데 당선을 염두에 두면 그만큼 일하는 재미도 반감된다.

현상설계를 참으로 즐기는 방법은 빙어리 냉가슴을 앓느니 결과에 대한 관심은 멀어 두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성향을 가정하여 맞추어 나간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딱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 아니겠는가. 이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런다고 당선되는 것도 아닌데 즐기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인가. 현상설계도 많이 떨어지다 보면 나름대로 개똥철학이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다. 현상설계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지만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선이 아닐 경우에는 최소한 줄긴 시간이라도 내것이 되게 한다.



주단면도

## 지역건축탐방 12 - 진주 · 마산 · 창원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Chinju · Masan · Changwon

### · 세 도시 이야기

경남지역 역사아래 구한말까지 지역중심도시였으나 근대화의 길에서 빗겨나간 1천년 역사도시 진주, 개항기부터 제3공화국까지 경남의 산업도시로서 지역발전에 중심역할을 다하고 있는 산업도시 마산, 그리고 정치적 결단으로 재빠르게 건설된 계획도시이며 경남도청소재지인 행정도시 창원...

각 도시가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다른 세 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논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경남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들로서 각 도시들이 띠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건축의 모습, 그리고 각 도시에서 지역적 특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건축가들을 개관한다.

아울러 경남 남부지역건축의 지역성은 가능한가에 대해 토론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보아 진주 · 마산 · 창원으로 대표되는 경남남부 지역의 도시건축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가름한다.

〈고성룡(경상대 교수) / 편집디렉터〉

### 도시공간의 변천과 미래

진주 · 마산 · 창원의 도시발전과 전개 / 안재탁(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_\_\_\_\_ 78

### 도시건축의 특성과 지역건축가

행정도시 창원의 지역성과 도시건축 / 서유석(창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_\_\_\_\_ 85

마산-도시건축의 지역성 탐구 / 김태중(경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_\_\_\_\_ 91

역사도시 진주의 도시건축 / 고성룡(경상대 건축공학과 교수) \_\_\_\_\_ 95

좌담: 경남남부 지역건축의 현황과 정체성 \_\_\_\_\_ 102

- 일시: 1999년 5월 19일(수) 17:00 ~

- 장소: 창원시 호텔 인터내셔널 필 룸

### 전주 · 마산 · 창원의 도시발전과 전개 The Potential of South Kyongnam Architecture

안재락 /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y Ahn Jae-Rak

#### 들어가는 말

도시는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양상의 결정체이며, 형성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정치적, 경제적 특질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불균등이 그대로 도시의 형성과정에 반영되었고, 각 도시는 자주성을 잃은 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는 제3공화국에 들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부터 개별적 가치를 거의 상실하고, 단순히 양적 팽창을 위한 다량의 양상을 심화시켜 나갔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각 도시는 여전히 국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방도시는 이미 자주성을 잃은 지 오래이고, 도시를 지배하는 국가권력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세 도시는 어쩌면 이러한 국가적 지배원리가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도시들이다. 공업단지의 입지, 신도시의 건설, 도청소재지의 이전 등 국가적 사업이 이들 도시의 성격을 결정지워 주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 도시를 비교하고, 경남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도시공간 속에서 찾는 일은 지남의 기술이 아닐 수 없다.

오규스탄 베르크는 도시의 차별화를 도시성(都市性)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성은 건축이나 도시

공학에서 제공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풍토성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 물리적 실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느 정도 객관화된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물리적 실체가 동질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각 도시의 차별성은 어쩌면 역사성이나 풍토성, 자연과 문화 등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주, 마산, 창원은 도시의 생성배경을 완전히 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세 도시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형성의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각 도시의 걸쭉질" 속에 숨겨져 있는 시대별 도시공간의 특성과 그 변천과정을 개관하여, 각 시대를 지배했던 도시공간규범이나 틀이 무엇이었으며,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각 도시에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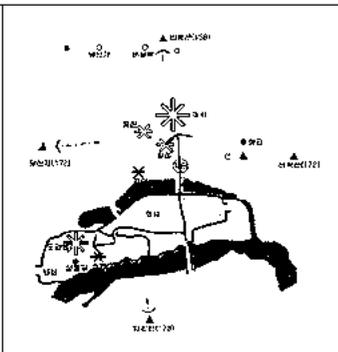
그러나 짧은 지면과 딱히 세 도시를 비교해 보겠다고 평소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필자의 빈곤한 지식으로는 위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한 시도이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문헌을 통해 세 도시의 형성과정과 상당한 편견이 내포된 공간적 특성을 도시별로 나열하는 정도로 이들 도시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 도시의 성립과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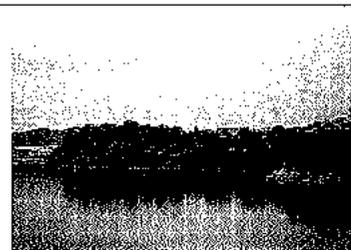
전주, 마산, 창원은 울산이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경남을 대표하는 가장 큰 세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의 성립배경과 그 후의 전개과정은 지리적 여건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전주

전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성곽이 만들어졌던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대도(大都)의 하나로, 영주적 성격을 가진 보수적인 도시인 듯하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역이었으며, 남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강 주위로 구름과 절벽이 둘러쳐져 있어 자연적 요새이다. 그리고 주변에 기름진 옥토가 있어 도시를 태동시킬 충분



전주성과 강북의 시가지 전경



전주성의 전경

풍수리지에 입각한 전주의 옛시가지 공간구성

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남강을 내려다보고 약간 구릉진 곳에 만들어진 진주성은 방어적 성격의 군사용 성곽으로, 성벽을 따라 병마와 기마가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의 2중 성벽을 가진 독특한 형식으로 성의 북쪽에는 대사지라는 못이 있었다. 남강과 나불천, 그리고 대사지로 둘러싸인 진주성은 물의 공간이 1차적인 방어선이 되었다. 그리고 나불천과 말티고개 쪽으로 각각 백제와 신라로 향하는 군사도가 일찍부터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산청과 함천, 의령 등으로 통하는 주요간선도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진주는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거열성이라고 칭했으며, 통일신라 때 강주, 고려 때 진주군으로 불리다가 전국 12목(목)의 하나로 지정되고, 995년 10도 개편에 따라 삼남도 소속 병마절도사가 주재하였고, 고종 때인 1895년 23부제 실시에 의해 도청소재지인 진주부가 되었다. 이렇듯 진주는 대읍(大邑)으로서 성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도시에서 출발하여 점차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도시적 성격이 변화·발전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인 1925년 4월 1일 식민지 전략으로 개항지인 부산으로 도청이 이전되면서 국가발전의 중심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일제의 구정계획과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발령 이후 진주에는 구획정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의 진주 구시가지의 기본골격이 만들어진다. 진주성 북쪽에 위치한 대사지가 매립되어, 사방 25m의 십자형 간선도로망이 조성되었다. 특히 남강 남쪽의 강남지역에는 육거리를 비롯한 방사형의 도시골격을 가진 일제강점기의 전형적인 도시만들기의 모습이 남아 있고, 이 지역의 넓은 학교부지 역시 초기 도시형성기의 외곽지대로 현재는 시가지의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6.25사변으로 진주시의 중심시가지는 거의 파괴되었으며, 전후 시가지의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시가지 재정비가 시작된다. 1차 계획이 대안동 구획정리사업이며, 이후 일부의 고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가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정비해 나간다. 그 결과 진주시의 시가지 가로체계는 정전

형(井田型)으로 교차점에는 로타리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진주시의 구시가지의 가로패턴은 대부분 이 때 만들어진 것이다.

70년대 이후 남강의 범람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방이 축조되고, 공업용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도동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되었다. 도동지역은 일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이 지역에 신청사가 건설 중에 있고, 공단의 외곽이전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진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70년대 후반 경상대학교의 기적동 이전과 80년대 후반부터 부족한 주택지 공급을 목적으로 한 평거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지가 외곽지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1995년 도농 통합시가 된 이후 그 진양군을 흡수함으로써, 광범위한 농촌지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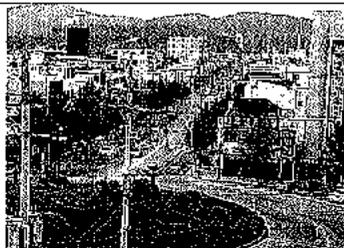
### 마산

마산은 작은 포구에서 출발하여 개항과 함께 항구도시로 발전하면서 경남의 대표적인 상공업도시로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과 성쇠를 같이 해온 도시이다.

마산은 한반도의 남동단에 위치한 마산만을 모체로 발달하였으며, 지형적으로는 무학산(761m) 여항산(743m) 등의 비교적 높은 산이 시가지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해안으로는 배후 산지에서 뿜어 나온 소기류의 완만한 산각 사이로 소규모의 침식분지가 소하천과 시가지를 이루고 있다. 해안은 리아스식으로 만입이 발달하여 천혜의 양항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배후의 산지가 해안을 따라 평행하게 펼쳐져 있어 평지의 발달이 미약하여 도시가 선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마산의 근대적인 도시개발은 항만의 매립과 함께 해 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산포는 고려초기부터 전국 12조창(漕倉)의 하나로 조세의 해운운송을 담당한 지역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고려말 왜관의 침탈과 해난사고 등으로 조창 기능이 상실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된다.

1760년 경상도의 조곡을 운반하기 위한 조창으로 마산창이 설치되어 항포구로서의 역할을 재개하게 되면



진주 구시가지의 로타리



진주 강남지역의 전경



1930년대 진주 시가지

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관원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각지의 상인들이 운집함으로써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마산은 개항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전까지는 전략적 요충지로, 남부지방의 곡물집산지로서의 기능을 가진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다.

마산의 도시화는 1899년 개항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올해로 개항 100년을 맞이하는 마산은 개항과 함께 전략적인 목적에서 러시아, 일본이 조계지(租界地)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후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권에 들어간다.

일제 강점기인 1928년부터 값싼 대지확보를 목적으로 신마산 해안의 매립이 이루어졌고, 1945년까지 제 1부두와 제 2부두, 중앙부두 등 대대적인 부두건설공사가 이루어졌으나 무역향으로서보다는 일제의 대륙진출을 위한 병참기지개발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근대적인 항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게 된다.

해방과 6.25동란은 도시 기반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마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열악한 판자촌을 여러 군데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후 판자촌은 도시계획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1965년 양덕동일대에 국내최대의 합성섬유 제조업체인 한일합섬의 공장이 건설되면서 공업도시로서의 기치를 올리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1970년 1월 제림·공포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봉암동 일대에 매립·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해공단 수출자유지역에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 마산은 소상공업 도시에서 남해안의 중심 상공업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한다.

70년 마산역의 건설, 1973년 남해고속도로의 개통, 1977년 구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의 합성동 일대의 이전으로 구마산, 신마산에 이어 동마산이 새로운 부심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중앙간선도로가 8차선으로 정비되고, 구마산, 신마산과 동마산을 잇는 마산의 중심축이 형성된다.

인근 창원시의 산업기지화는 인구증가를 더욱

촉진시켰고 또한 시의 발전은 인근 창원시의 발전과 짝하여 더욱 확대되었고, 점차 내륙 쪽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신마산은 경남대학교가 이전해 오고, 진동, 고성, 통영, 거제 방면 교통의 편리를 도모하기위한 서부 터미널 건설, 창포동에서 월영동까지의 매립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마산의 최상부인 서쪽의 무학산 중턱으로 마산-고성간 산복도로가 개설되고, 새 도로가 생기는 등 마산의 부심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해방촌으로 불리던 구 러시아영사관 부지 일부에 있는 판자촌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신마산은 교통, 교육, 주거, 상업 등을 갖춘 마산시의 부심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창원시가 독립되어감으로써 도시의 규모축소가 이루어져 졌고, 창원에 행정적 기능이 집중되면서 창원으로의 인구전출이 많아지면서 마산의 인구는 1989년 50만명을 넘어 선 것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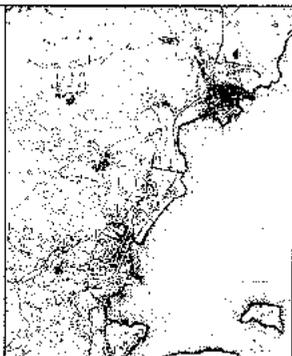
마산, 창원, 진해를 하나의 도시로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연담도시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996년 창원군 내서읍, 구산, 진동, 진북, 진천면 등 5개 읍면을 통합한 통합마산시로 확대되었다.

#### 창원

창원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자족적 신도시로, 처음에는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이후 경남도청의 이전으로 명실공히 경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도시이다.

창원은 정병산(566m), 장복산(582m), 비음산(600m), 춘산(297m)등이 연결되는 창원산맥과 서북부의 인용산(328m)으로 도시전역이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대부분의 토지는 평탄한 농경지였으며, 군데군데 구릉지가 분포되어 있어 신도시의 개발이 용이하였다.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부로 마산과 인접하고, 부산, 대구, 전주 등과 1시간 내 거리에 있으며,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는 교통여건이 좋은 곳이다.

국가 경제발전의 비약을 위해 공업의 근대화



1930년대의 마산 시가지



마산시 도시전경



마산항 전경

가 요망되었던 '70년대초 반월, 여천 등과 함께 창원도 신공업 도시로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공업도시들은 종래의 기존도시 내에 개발되었던 공업단지들의 영세성과 한계성을 탈피하고, 수송신장에 따른 무역량의 확보와 수출의 편의를 위해 새로이 개발된 임해형 공업도시들이다.

창원시는 제3차 경제개발 57년계획의 계획기간(1972~1976) 중인 1974년 4월 건설부고시 제92조로 마산시의 일부지역 43,352㎡가 대규모 기계공업기 건설을 위한 산업기지가개발구역으로 고시되면서 도시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공업단지부지에 210개의 기계류생산 공장을 유치, 취업인구 8만 7천명을 고용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주체인 산업기지가 개발공사에 의하여 공장입주에 필요한 공업단지 및 지원시설의 개발에 착수되면서 공단의 지원도시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2년 경과한 1976년 말에 58개 기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인수도 4만 5천명의 시급(市級)으로 성장·발전하면서 도시체제를 갖춘 주거지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1976년에 창원지구 출장소가 설치되고, 1977년 4월에는 창원도시계획 재정비결정 고시가 있었으며, 1977년 12월부터 신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4월 1일 창원지구출장소 관할전역과 마산시 의창동을 편입하여 18개의 행정동으로 창원시가 설치된다.

1983년에는 전주와 마산이 유치를 위한 열띤 경쟁을 하는 등 논란 끝에 결정된 경남 도청의 창원이전은 공업단지의 배후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행정, 교육, 문화 등 경남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에는 창원군의 일부를 통합하여 도농통합시로 확대하였고, 1997년에는 대동제를 실시함으로써 24개동을 12개의 대동으로 개편하였다.

창원은 다른 도시와 달리 '산업기지가개발촉진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1974년 '산업기지가개발 기본계획'에서 공단과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1975년 마산시에 의해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배후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었지

만, 현재의 창원시의 도시공간의 체계는 1977년의 '창원도시 기본계획'과 1979년에 수립된 '창원 신도시 도시설계'이다.

'창원 신도시 도시설계'는 당시 '도시설계'가 제도화되지 못하였던 시점에서 도시개발에 관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행상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도시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개발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중심상업지구의 개발은 상당히 문제를 가지게 되어, 1983년 국토개발연구원팀에 의해 중심상업지구의 '도시설계'가 다시 수립되었지만 역시 시행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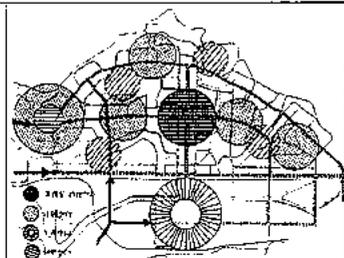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의 도시계획은 용도의 구분이 명확하고, 근린주구에 충실하게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신도시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간배치를 활동유형에 따라 주거공간, 생산공간, 업무공간, 위락공간으로 구분하고, 동서로 연결된 주간선도로인 창원대로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리하여, 남쪽에 생산공간인 공업단지를 두고, 북쪽에는 주거지인 배후도시를 조성하였다. 배후도시에는 중앙에 띠모양의 중심지구를 두어 업무와 상업, 위락의 공간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주거지역을 배치하였다. 공단과 배후도시 사이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주거지역과 중심지구 사이에는 시설녹지를 설치하여 공간별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중심지구는 50m 도로로 나뉘어져 북쪽은 행정·업무지구로, 남쪽은 상업지구로 개발되었다.

근린주구의 구성은 지형 및 지역특성에 따라 주구를 구분하여, 15개의 근린주구로 구성되었다. 단위 근린주구는 1~2만명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개소와 1개의 근린주구 중심을 구성하고, 평균 1km내의 도보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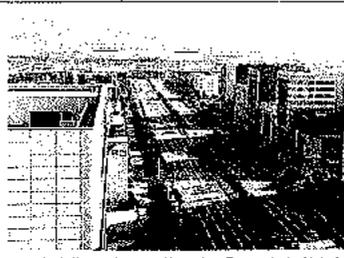
### 도시공간구조의 지속과 변용

#### 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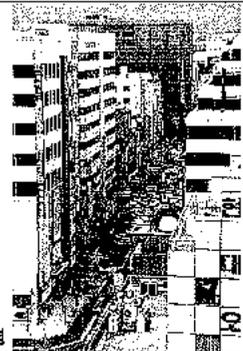
하윤의 봉면루기(鳳鳴樓記)에 의하면 '진주의 주산은 성북(城北)의 비봉산이고, 안산은 강 건너의 망진산이라 하였으며, 좌청룡은 옥봉으로 그 봉우리가 절제를 받지 않은(주산 보다 더 높다) 객과 같으므로 그곳에다 개경원을 지어



창원 도시공간구성체계(1979년 도시설계)



창원대로(마주보이는 건물은 공단관리공단)



창원 중심상업지구의 8m 도로변 전경

기세를 누르려고 하였다 고 말하고 있다.

진주의 읍성(邑城)은 진주 고을 중 지세가 비교적 높은 돌출부에 설치하였으며,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한국에서 보기 드문 이중성곽의 형태로, 내성은 주로 방위 목적이며, 외성은 내성 관아 소속의 관속 및 그 가족과 진주일대의 부재지주의 거처였다. 이와 같이 도시공간구조로 볼 때 진주의 구시가지는 조선시대의 풍수지리에 입각한 대음(大邑)만들기로 형성된 전통적 공간구조의 틀을 갖추고 있다.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진주를 대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진주성과 남강을 들고 있어, 지금까지도 진주의 도시공간형성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한편 남강나루로부터 성내·외를 연결하는 남문·북문·객사로 이어지는 도로의 골격은 위치의 이동이 있었지만 진주의 중앙로로 도시발전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진주의 도시구조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골격을 여전히 조선조에 형성된 강북의 구시가지의 골격에 신개발지가 덧붙여진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적 도시구조를 어떻게 지속하는가가 진주시의 도시공간관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현재 도시구조의 형성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타의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이다. 일제 강점기의 구획정리사업을 통한 시가지개조과정, 6.25사변으로 인한 시가지의 파괴, 남강댐의 축조, 급속한 경제개발 등의 요인들이 직·간접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조 이전부터 일제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형성된 시가지는 진주성에서 비봉산 아래의 구시가지 일대로, 과거의 잔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진주성과 성내의 문화재, 비봉산, 선학산 일대의 유적과 획지사이의 일부 도로의 흔적들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진주의 도시공간은 남강과 구시가지를 감싸는 작은 산들을 배경으로 진주성이라는 지배적 역사자원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구시가지의 울과 곁을 어떻게 유지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개발의 욕구를 공단 등의 이전적지와 신개발

지에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시가지 이전적지와 주변 구릉지, 남강변에 고층의 아파트 등이 입지함으로써 이러한 도시공간의 골격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남강변의 공원화사업과 구시가지에 대한 경관관리의 의욕을 보이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마산

마산은 바다와 산을 배경으로 시가지가 시면 구조를 이루고, 지형적 특성상 도시공간의 성장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시대별로 형성된 구마산, 신마산, 동마산의 지역을 선적으로 연결시켜나가는 과정이 도시공간의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경사진 시가지가 짜임새를 이룰 때 마산의 도시는 도시의 공간구조에 어울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산의 도시확장은 구마산과 신마산의 양분화된 발전에서 70년대 이후 도시의 확장에 따라 동마산이 교통의 요지로 형성됨으로써 마산만, 무학산을 배경으로 구마산·신마산·동마산이 선형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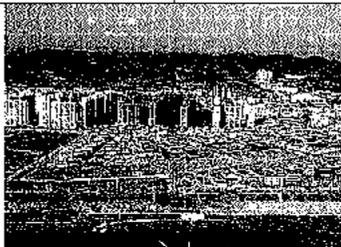
어시장-불종거리-부림시장을 축으로 하는 도심과 합성동지구와 월영지구 등 2개의 부심으로 나뉘어 1도심 2부심의 기능을 갖는 다핵구조의 양상을 보인다. 최근들어 구마산의 도심기능이 약화되고 동마산과 신마산의 기능확대로 중심이 양극화되면서 구심성을 잃어가고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모습을 보이는 주거밀집지역, 무학산 구릉지의 불량주거군과 월영지구, 신마산 매립지구, 북마산지구, 합성동지구 그 밖의 공장 이적지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단지블록화가 심화되어 도시공간 간의 심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선형으로 도시를 연결하는 중앙간선 도로, 해안도로, 산복도로는 주변 도시와의 연결도로의 역할까지 부담하면서 도시골격에 비해 너무 넓어, 배후의 산과 바다와의 공간적, 시각적 연속성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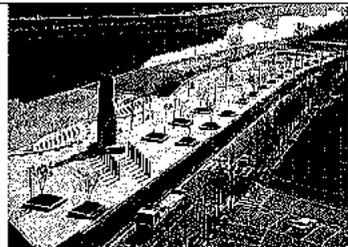
자유수출지역과 한일합섬 등 대규모 공장부지



새로운 개발축이 되고 있는 진주 도동지구의 동진로



진주 펄퍼 택지개발지구 전경



진주 남강변 공원(남가람 문화거리)

가 도시중심으로 근접하고, 발전축상에 위치함으로써 동마산과 신마산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게 되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과거 마산의 산업을 지탱시켜 주었던 공업들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도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산은 창원, 진주에 비하면 자연발생적 요소가 지배적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도시 중심과 항만에 대규모의 개발적지가 산재함으로써 이러한 공간질서를 심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마산이 산과 바다, 그리고 구릉지로 구성된 도시의 공간적 질서를 얼마나 잘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가에 쾌적한 도시공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창원

지금 창원은 계획도시로서의 지속과 새로운 요구에 대한 변용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보행권 중심의 철저히 근린주구의 생활권용 기초로 한 신도시가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인식부족에서 온 무분별한 용도변경, 변화하는 생활스타일과 차량중심의 사회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심한 물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도시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의 평가가 높은 것은 도로체계나 공원, 단독주택 중심의 철저한 주거지역 관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77년에 제정된 '창원도시기본계획'에 계획표인구를 30만명으로 두었으며, '84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01년의 목표인구를 30만명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의 인구는 1997년 현재 이미 50만을 넘어섰으며, 동지역만도 46만여명에 이르러 계획인구를 훨씬 초과하였다. 97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16년의 계획구역내의 목표인구를 59만 5천명으로 설정함으로써 최초 계획의 약 2배의 인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개발지표를 전국 평균 수준의 약 2배로 두고 있음은 기존 계획의 여유에서 온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점차 중저밀도 개발에서 고밀도 개발비율이 높아질 것은 필연적이다.

근린주구에 근거한 생활권 중심의 계획, 여유 있는 녹지공간, 그리고 도시설계에 의한 개발의 지침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함으로써 몇 가지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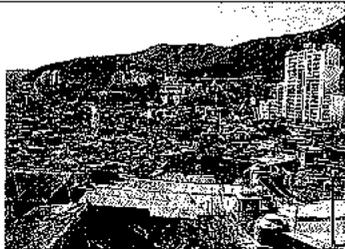
첫째는 중심상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일관된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기능상의 혼란을 가져 온 점이다.

중심지구는 70m의 중앙로가 지구를 동서로 양분시키며, 다시 남북으로 120~200m 간격으로 10m 또는 20m도로로 분할된다. 이렇게 분할된 가곽(街廓: Super Block)은 다시 중앙의 8m 도로가 통과하여 동서로 양분하여 가구(街區)를 형성하도록 계획되었다. 79년 '도시설계(안)'에서는 Super Block 단위의 개발, 각 블록별로 오픈 스페이스와 주차장의 공동계획, 건물 전후면을 연결하는 보행통로의 설치, 1층 부분의 3m 건축선 후퇴, 그리고 가로연속성을 주기 위해 건물의 장변을 대로변 향하게 하는 Linear Ray-Out 패턴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평균층수 6층 정도의 개발밀도가 점차 10층, 15층 이상으로 높아졌고, 블록 단위의 개발도 개별필지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주차수요의 증가로 8m 접근도로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혼재되면서 상업지역은 매우 혼잡하게 되었다. 대중교통의 환승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도 자동차의 이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둘째, 주거지역 단독주택의 불법용도변경과 이의 합법화 여부를 두고 찬반의 논의가 일고 있는 점이다. 창원시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가로변을 중심으로 주차공간 등의 불법용도 사례가 적지 않다. 중심지구는 대규모 개발로 실제 필요한 다양하고 영세한 업종이 들어가기 어렵다. 특히 업무지구는 넓은 지역에 비해 업무기능을 보조할 서비스(식당, 잡화 등)기능이 입지하지 못해 인근 주택가에 불법적으로 상가가 들어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와 형평성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는 신도시 개발 초기에 지어진 소형평형



구릉지의 불량주택군과 아파트 재건축(마산)



마산 한일합성부지



마산 해안도로 전경



등마산 중심가로 전경



마산 횡동거리



창원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의 저밀도 아파트의 재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아파트는 이미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고, 소형이라 재건축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지만, 저밀도 단지의 면적이 적지 않아 이를 허용할 경우 도시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주변 단지 주민의 반대로 만만치 않다. 그러나 노후화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다른 도시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행복한 고민으로 보일 수도 있다. 여러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거주만족도가 전국 최상위에 오르는 등 창원은 여전히 높은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문제들은 최근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의 유지관리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오는 말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전개

진주, 마산, 창원의 도시생성은 각각 우리 도시의 고대, 근대, 현대를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진주는 강과 진주성이, 마산은 항구가, 창원은 계획성이 도시의 정체성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도시의 정체성을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살려나가지 못한다면 지역적 특성은 실체를 잃은 이미지에 불과할 것이다.

세 도시의 2016년 기본계획의 기본전략에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각 도시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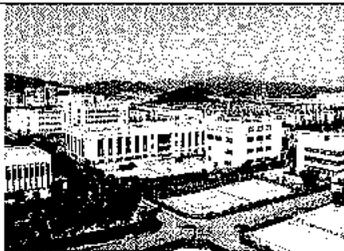
는 '꿈과 열이 숨쉬는 교육·문화도시'를, 마산은 '장래 21세기를 향한 위상정립'으로 개항 100주년 마산터윈의 건립을, 창원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관의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성이라는 것은 각 도시가 가진 역사성에 생활의 흔적이 담겨질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생활의 자원이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도시만들기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도시에도 예외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규모화는 도시의 연속성을 파괴되고, 도시조직 및 토지이용의 역사적 관성은 깨뜨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겪는 문제이지만, 이들 도시에서도 예외없이 이러한 문제에 도시공간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중심과 주변이 시각적으로 역전되거나, 도시외곽이나 구릉지의 고층, 대형 아파트의 건설로 도시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 건축조례에서 보인 다운요녕(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300%에서 800%)은 도시공간의 관리를 위한 자치도시로서의 권리찾기로서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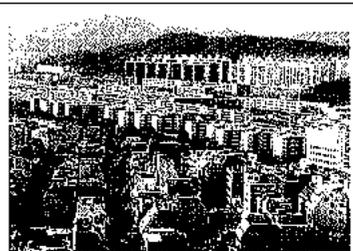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서부경남을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가져오면서 지역의 맹주로서의 위상을 찾으려는 진주, 과거의 경남의 상공업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마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경남의 중심도시로서의 모습을 확고하게 다지고자 하는 창원, 이 세 도시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창원 중심상업지역의 업무지구 전경



창원 단독주택지 전경



창원 중심지구에서 본 주거지역 (저층아파트는 재개발 예정)

### 행정도시 - 창원의 지역성과 도시건축

A Look of Urban Aspects & Modern Architecture in Changwon

서유석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Seo You-Seok



다원형의 분지를 이루고 있는 창원시

#### 창원시에 관한 몇가지 편견

일반적으로 창원시에 대한 타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와는 다른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창원시가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면서 초래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성과 본질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는 이와 유사한 수도권의 다른 신도시들이나 기존 도시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것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도시로서의 역사 또한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인지도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업도시가 겪었던 주거환경의 악화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공업도시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공해도시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겪게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기보다 후발 산업국으로서 우리 스스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창원시의 경우, 이미지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창원시의 도시환경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로 오염되어 있을 것이라는, 실제와는 상이한 편견을 가지기 쉽다.

창원시에 대한 또 한가지 오해는 창원시가 인

위적으로 조성된, 연륜이 짧은 신도시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 이후, 도시로서 성장한 창원시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970년대 창원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주로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창원지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철기문화의 중심지인 변한 12국 중의 하나로서, 현재까지도 야철지와 패총 등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 특히 창원이라는 지명의 기원을 살펴보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갈 수 있는데, 고려 충렬왕 당시의 안이었던 현재의 창원지역이 의창현으로, 지금의 마산지역인 함포가 회원현으로 승격되고, 조선 태종때 이르러 지방행정구역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창의 '창' 과 회원의 '원' 자를 따 창원부를 설치하면서 창원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이로 미루어 창원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오랜 역사성을 지닌 도시인 동시에 신도시로서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다.

#### 창원의 도시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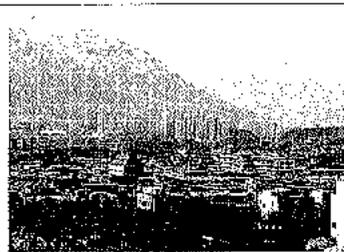
현대적인 도시로서 창원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4월 1일, 마산시에 편입된 창원군 일부지역(창원면, 상남면, 웅남면)이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이다. 이 곳에는 정부는 중화학공업



창원시내의 공원(홍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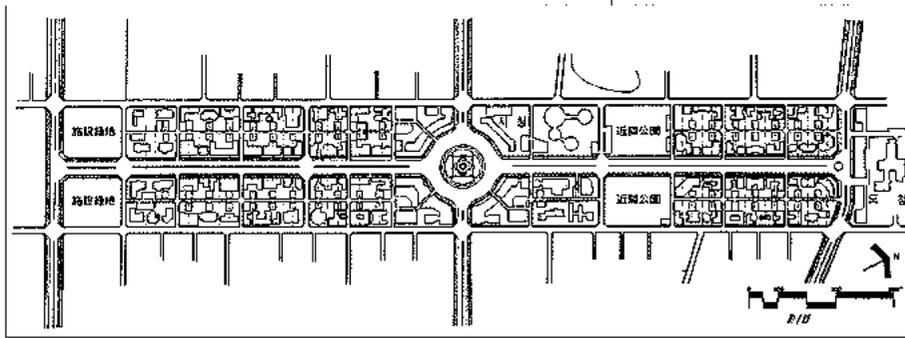


창원대로 남측의 공단지역 전경



창원시내의 주거지역 전경

테마기획 | 지역건축발명 - 전주·마산·창원



창원 중심지구의 공간구성도(1979년 도시설계)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기계공업단지 건설과 함께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공업기지 배후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창원시 모체가 되고 있다. 창원지구의 산업기지 조성사업은 방대한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 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하였다.

1976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지구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구역상 마산시로부터 창원지구가 분리되었고, 1977년에는 창원출장소 행정구역 전역과 창원군 및 김해군의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하는 '창원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979년에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호주의 캔버라를 모델로 한 '창원신도시설계'가 확정되면서 그 때까지 단순한 공단 배후도시로서 안절한 마산시에 대부분의 도시기능을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독자적인 도시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80년에 이르러 창원시는 창원지구출장소 관할구역 전역과 마산시의 의창동을 편입하여 시로 승격됨으로써 도시계획상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으로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나 도시형성 과정에 있어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잦은 변화는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으로부터 출발한 도시형성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시생활 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도입한 서구식 도시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훗날 도시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1983년, 부산에 있던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해 오면서 그 때까지 국가산업단지로서 단순히 공업도시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창원시는 산업과 행정기능을 겸비한 지역중심도시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1984년 도청 이전

직후 1만 5천여명이었던 창원시 인구가 1999년 현재 53만여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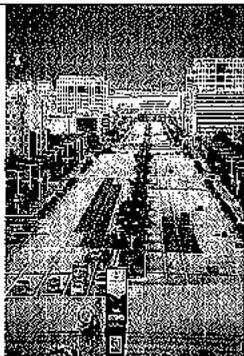
1995년에는 국가전체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창원군 일부지역(북면, 대산면, 동읍지역)과의 도농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주택 및 공업용지의 부족으로 도시개발의 역동성을 점차 잃어가던 창원시는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 창원의 도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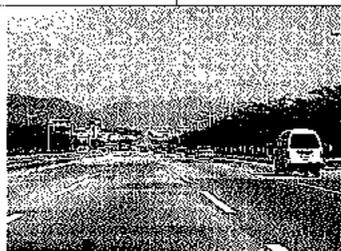
이와 같은 특이한 도시형성과정으로 인하여 창원시는 우리나라의 기존 도시들과는 다른 특별한 도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먼저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동시에 최초의 도시설계가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시내 곳곳에 산재한 풍부한 공원녹지와 격자형으로 잘 발달된 넓은 가로망, 그리고 비교적 잘 정돈된 용도지역 등으로 기존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매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원시는 신도시이면서도 또한 경남도청과 국가기계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베드타운화된 수도권의 다른 신도시들과는 달리 행정기능과 생산기능을 겸비한 자족 도시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대도시의 위성도시화로 자립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이 미흡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창원



중앙로(도청 옥상에서 동남 관리공단 방면으로 바라본 모습)



창원대로(폭 50m, 길이 12km의 직선도로로, 도로 좌측에는 주거지역이, 도로 우측에는 공업지역이 배치되어 있다)



창원시 전체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고층아파트군

시가 가지는 중요한 장점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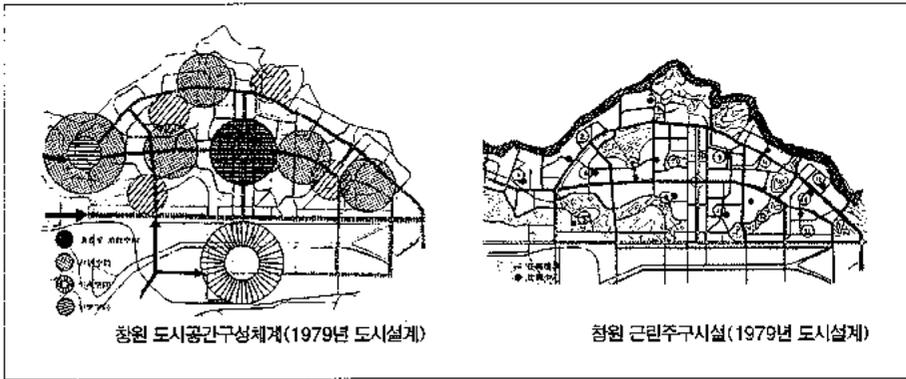
셋째, 창원시는 평균연령이 27세 정도로 매우 젊고 30대 이하가 전체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구학적으로 보면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이다. 특히 20대 (19.1%)와 30대

(24.8%) 및 10대 미만 유아(22.0%)의 인구 구성비율이 높아 공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인구분포상 특정 연령에 집중되는 신도시로서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외지인의 급격한 유입에 의한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성장해 온 도시들에 비해 도시공동체로서의 구심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은 도시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처음 계획된 자동차 위주의 도로체계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생산력, 정보화, 효율적이고 잘 발달된 도로체계와 물류시스템, 쾌적한 주거환경, 젊고 우수한 인적자원 등이 21세기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볼 때 이상과 같은 도시적 특성을 지닌 창원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우수한 도시경쟁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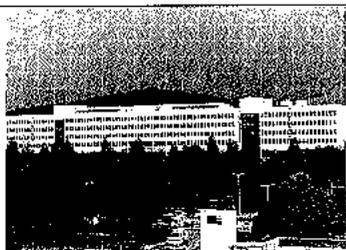
### 창원의 도시공간구조

창원시는 도시형성 과정에서 그 성격이 공업도시에서 전원도시로, 그리고 행정도시로 변화되어 오면서 도시공간구조 또한 이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어 왔다. 현재의 창원시 도시기본골격은 1974년의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과 1977년의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1979년의 창원신도시설계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979년에 행해진 창원신도시설계는 창원시의 도시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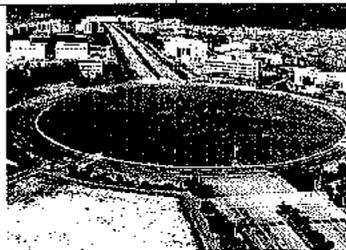


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79년 도시설계 당시 계획된 도시구조의 기본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창원신도시설계를 기본으로 형성된 현재의 창원시 도시구조를 살펴보면, 도시전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폭 50m, 길이 12km의 창원대로와, 이 창원대로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분기된 폭 70m, 길이 2.6km의 중앙로가 도시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형성하면서 창원시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창원대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타원형의 분지를 이루고 있는 창원시의 지형적 특성상 창원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두 개뿐인 출구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내 통행도로라기보다 주로 마산 및 부산과의 도시간 연결도로로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원래는 대로변을 따라 200여m의 폭으로 형성된 시설녹지와 더불어 남측의 공업지역으로부터 북측의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완충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었으며, 지금도 그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창원대로와 수직으로 만나는 중앙로는 도로 양끝에 경남의 행정적 중심인 경남도청과 국가기계공단의 중심인 동남관리공단이 각각 위치하고 있어 기능성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도로이다. 이 두 도로 양쪽에 일정 간격으로 각기 두 개씩 평행하게 배치된 8개의 30m 도로는 타원형의 도시형태와 격자환상형을 이루면서 용도지역을 위계적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25m 이하의 다양한 폭을 가진 도로가 다시 용도지역을 분할하면서 배치되어 도시



경남도청(상징적 성격이 강한 중앙로의 한쪽 끝에 위치)



창원시의 상징인 시청앞 중앙광장 (직경 200m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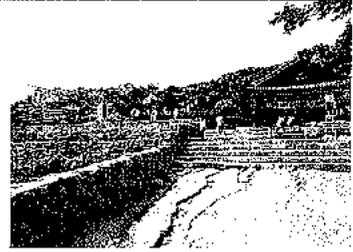


중앙광장 잔디밭에서 바라 본 창원시형 전경



중앙로변 보도(좌측에는 차도와 분리하는 5m의 시설녹지가, 우측에는 용지공원이 있다.)

중앙로변 자전거도로  
(좌우측의 시설녹지에 의해 보도 및 차도에서 분리)



성주사(창원시 성주동)

전체가 세분화된 격지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창원시는 서구식 전원도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근린생활권 중심지역에 상업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점적(点的) 토지이용패턴이나 가로변의 시설녹지, 보도 및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일반주거지역의 전용주거지역화, 명확하게 분리된 용도지역 등은 바로 그러한 개념을 구현한 것으로서, 창원시를 다른 도시와 차별화시키는 주요 요인들이다. 여기서 점적인 토지이용패턴은 도로를 따라 상업시설들과 도시의 각종 활동들이 선형적으로 형성되는 기존의 토지이용방식이나 도시생활패턴과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창원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처음에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일체 불허하는 대신 일반주거지역내에 이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을 점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도모하고 단독주택지의 쾌적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자내에 불법 근린시설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이러한 계획의도가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에 비해 간선도로변에는 대부분 폭 5~10m의 시설녹지로 차단된 단독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전원적이며 쾌적한 도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나 다른 도시들의 간선도로변에서 일반적

으로 느낄 수 있는 활력과 역동성이 부족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 창원의 지역성과 건축문화

창원시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동네라는 것이다. 창원시가 행정구역상으로 독립한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와 같은 신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창원시 인구가 90년대를 전후해서 갑작스럽게 증가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 유동인구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 공동체로서 창원시민들의 지역적인 유대감은 그리 크지 않으며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방 도시들에 비해 지역색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창원시를 다른 도시와 구별짓는 지역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창원시에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한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창원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 또한 타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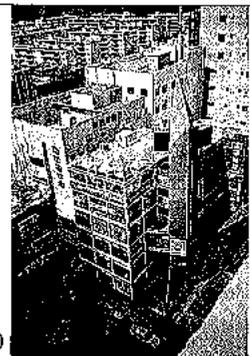
하지만 창원시에는,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준높은 현대 건축물 못지 않게 훌륭한 역사적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과 석상패총을 비롯하여 가야시대(혹은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성주사, 조선시대에 건립된 창원향교와 운암서원, 창원 대도호부 읍성 등은 창원의 대표적인 유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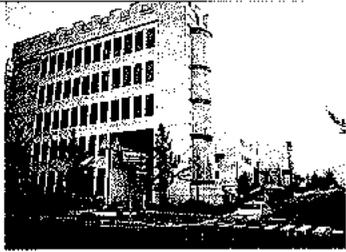
사파정동 주민회관(허정도)



X-Plus 빌딩(조건영)



우림빌딩(조건영)



경남고원회관(최관영)



상업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심공원



대한고원공제회 경남회관(정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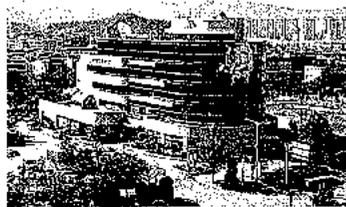
이에 비해 창원시의 현대 건축물들이 건축가에 의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창원시가 급격히 성장하던 80년대 후반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창원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중앙로 주변의 상업업무지역에 공공업무시설과 상업건축물들을 건립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따라서 창원의 주요 현대 건축물들은 용도지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계획도시로서의 특성상 주로 중앙로 주변의 중심상업업무지구

에 집중되어 있다. 창원의 주요 현대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국 현대건축들이 그러하듯이 특정한 현대건축 유형을 보여주기도는 아주 다양한 건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사파정동 주민회관(허정도)은 창원시의 기존 건물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징적인 건물이다. 흔히 장난감 건축의 한 유형으로 불려지는 이 건물은 다양한 색상과 매스의 조합을 보여준다. 초록색, 황토색, 노란색 등 파스텔톤의 현란한 색상과 삼각형, 원통형, 곡선 등의 기하학적 형태가 복잡하게 모여 어린이들의 블록쌓기 놀이를 연상케하는 사파정동 주민회관은 신도시이자 젊음의 도시인 창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용호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X-plus 빌딩은 앞의 건물과 매우 대조적이다. 서울 동숭동 JS 빌딩의 설계자이기도 한 건축가(조건영)가 설계한 이 건물은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박스형의 간단한 매스들을 조합하여 일

핏보면 매우 단순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건물은 철골과 유리, 뿔칠타일 등을 이용하여 변화있는 질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X자형의 철골구조와 격자형의 창문, 화색빛 매스에 그려진 하얀색 가로선 등의 기하학적 조형들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함속의 다양함이라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도로변에서 보면 바로 그 뒷쪽으로 우림빌딩이 위치해 있는데 이 건물 역시 조건영씨가 설계한 건물이다(그가 창원시에 설계한 건물은 이외에도 최익수 의원이 있다). 이 건물은 X-plus빌딩과 거의 동일한 재료와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유사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나 좁은 도로를 끼고 있는 입지상의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삼각형과 사각형을 조합하여 구성한 계단실이나 마름모꼴의 돌출된 옥탑, 그리고 박스형의 철골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옥상 일부를 잘라내어 설치한 테라스 등을 통하여 매스상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림빌딩은 하얀 색의 노출 철골과 뿔치막하게 구현된 유리창, 그리고 유리창 안쪽으로 드리워진 베이지색 블라인드, 그리고 돌출 옥탑 상부에 칠해진 강한 톤의 청색 등을 통하여 입면의 기하학적인 분절과 색상에서 X-plus빌딩과는 다른 느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X-plus빌딩이 색상보다는 질감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림빌딩은 색상과 매스를 이용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건물인 셈이다. 이 건물들은 시청앞 중앙광장에서 바라보면 용호상업지역의 단순한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남회관(인터플랜)



KBS 창원방송총국(박훈명)



창원시청앞 중앙광장에서 경남도청에 이르는 중앙로변 행정타운 전경

경관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 건물들의 질적 수준을 높 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창원시 중앙로 주변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경남회관(인터플랜), KBS 창원방송국(박춘명), 경 남교원회관(최관영), 대한고원공제회 경남회관(정림건축) 등 의 공공업무시설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업건축물들이 들어서서 창원의 도시건축을 대표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곳에 많은 건축물들이 계획되거나 건설 중에 있다.

### 맺음말

창원시는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자가 그에 뒤따르지 못하여 도시설계 당시 구상했던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서의 특성이 지금은 많이 훼손된 상태 이다.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공원녹지, 각 종 명목으로 훼손되거나 축소된 자전거도로, 보행자보다 자동 차 위주로 계획된 도시구조, 도시의 스카이라인 전체를 지배하 는 과도한 고층아파트군, 건물의 정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장형 필지로 구획함으로써 형성된 중심가로의 열악한 도시 경관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도 시설계상의 근원적인 오류를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등으로 써 야기된 문제들은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 는 것은 점적(点的)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을 분리함 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시생활패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시기본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앙상업지역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 독주택지역을 조성하거나 근린생활권의 중심지역에 상업시설 들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한 단독주택지내의 불법점포 난립 문

제는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시민 들간의 압력을 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창원시 는 산업기지가발촉진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수 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창원지역과, 건축법과 도시계 획법의 적용을 받는 구창원지역, 그리고 동농통합에 의해 창원 시에 편입되어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구창원군 지역 등 하나의 행정구역내에서 각기 다른 법 적용을 받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짐으로써 도시관리의 효율성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이나 도로 등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과, 유사한 규 모의 다른 도시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대 규모 스포츠 콤플렉스(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경륜장, 실내 체육관 등), 종합문화예술회관, 컨벤션센터(계획) 등의 주요 건 축물들이 거의 완비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경남도청 이 위치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경남의 주요 공공시설물들이 중 앙로를 중심으로 타운화되어 있으며, 신도시이면서도 시내 여 러 곳에 역사적 유적이 산재해 있어 우리나라 그 어느 도시에 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원도시이자 행정도시, 그리고 산업도시의 기능을 완비한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 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1925년 이전까지 경남의 도청소재지 였던 진주와, 근대 이후 경남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인접도시 마산의 질서와 부러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 고 현재의 장점들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다면 창원시는 우리나 라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이자 21세기의 우수한 도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창원시청앞 중앙광장에서 경남관리공단에 이르는 중앙로변 상업지역 전경



중앙상업지역에 인접한 단독주택지 (도로변 주택들 내에 불법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 마산 - 도시건축의 지역성 탐구 Signs of Regionality in Urban Architecture

김태중 /경남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by Kim Tae-Jung

### 마산의 도시화 과정과 내적 정서

도시로서의 마산의 역사는 부산 원산 군산 등 '산' 자 붙은 다른 항구도시가 그러하듯 일천한 편이다. 개항 당시의 마산은 농업과 소규모 근해어업을 주로 하는 전국 어느 해안과 다를 바 없는 한적한 지역이었다. 마산은 다른 항구도시와 마찬가지로 개항이후 외세에 의하여 도시의 기본구조가 구축되었으며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열강간의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친 곳이다. 러시아 단독조계와 일본 단독조계가 그것이다.

1899년에 개항된 마산은 금년에 개항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몇 가지 행사가 관의 주도로 열리기도 하였지만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 100주년인 과연 기념하고 축하할 일인지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마산은 한때 부동항을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남진정책의 목표가 되어 신마산 일대에 러시아 건축양식의 호텔과 영사관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오늘날의 마산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구마산과 일본의 조계에서 발전한 신마산 그리고 북마산의 세 중심점이 합쳐진 결과이다. 1919년의 지도를 보면 당시의 마산은 소규모의 매립해안과 불규칙한 가로망으로 표시된 한국인 거주지역 구마산과 빈틈한 가로체계의 행정기관이 모인 일본인 거주지역 신마산으로 나타난다. 두 지역은 도로와 철도로 연결되긴 하였으나 중간에 전담이 있어 확연하게 서로 구분되어 있었

다. 그리고 무학산과 북마산 언저리 곳곳에 자연취락이 있었다.

마산 도시구조의 변화는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변해갔다고 할 수 있다.

변화의 첫단계는 해방과 한국전쟁이다. 해방으로 귀환동포가 부산은 물론 마산까지 들어오고 또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몰려 마산의 인구는 해방 당시의 6만명에서 13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전후 이들 가운데 다수가 마산에 정착하면서 마산은 그때까지의 내적 질서에서 벗어나 슬럼화로 치달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이전까지 북마산-신마산-구마산을 연결하는 철로변의 도시풍경은 공장과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카오스 그 자체였다고 기억된다.

마산 도시구조 변화의 두 번째 계기가 된 것은 70년대의 공업화와 수출정책이었다. 즉, 1967년에 한일합성이 준공되고 1970년에 수출자유지역 26만평이 독립된 보세행정구역으로 설치되면서 마산은 시가지 경계를 넘어 동북 방향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후 남해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도심을 3등분 해왔던 철도가 철거되어 북마산 구마산 신마산의 3개역이 현재의 마산역사로 통합되면서 마산의 중심부는 통과 교통의 경로에서 해방되어 도시정비의 기초가 구축되었다. 여기에는 1979년의 시외버스주차장 이전도 빠뜨릴 수 없다.

마산 도시화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1982년의 전국체전이다. 체전 준비의 시가지정비사업으로 8차선 광로가 관통되면서 마산에도 메인 스트리트의 개념이 도입되고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이음으로써 시가지 전체가 하나의 벨트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산의 지세는 내륙의 진주 나주 진주 청주 등 '주' 자 붙은 전통적인 행정중심 도시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들 도시가 동심원을 가진 분지형인데 반하여 마산은 무학산 자락이 급격하게 바다로 빠지는 급경사에 자리하고 있다. 지형적인 특성은 부산 초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지형에서 도시는 해안선을 따라 선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면 바다를 매립하거나 산으로 막히지 않은 내륙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마산은 이 패턴을 그



1919년의 마산지도  
(위가 한국인 거주구역의 구마산이고 아래가 일본인 거주구역인 신마산이다)



신마산의 일본조계지 흔적



신마산 일본조계지 흔적



마산 시가지 전경

대로 밝은 도시화과정을 보여왔다.

마산의 정서적 문화양식의 특성은 조금 복잡하다. 식민지 항구도시에서 출발한 저항성과 일찍부터 외래문화와 접한 데서 나온 개방성과 포용성, 그리고 진취성과 적극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의 저면에는 고성, 함안, 의령, 창녕 등 토착 농경사회를 배후에 둔 보수성과 우직함도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다.

마산 정서의 바닥에 면면히 흐르는 이러한 적극성과 저항성, 그리고 우직함이 발화된 것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흐름에 큰 분기점이 된 3.16의거와 무마항쟁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만이 마산의 전부는 아니다.

내륙사람들이 마산에 대해 갖는 척박한 것가의 이미지에 맞지않게 마산사람들은 뛰어난 서정성을 보여왔다. 대중음악가 반야월과 선구자를 작곡한 조두남, 가고파의 이운상과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등은 마산만의 잔잔한 바다와 부드러운 해안선에서 그리고 수려한 무학산의 정기를 받아 그 예술적 감성을 키웠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마산의 문화적 지역성은 보수성에 바탕을 둔 개방성과 적극성, 외래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저항성, 그리고 마산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바탕을 둔 서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마산건축의 어제와 오늘

마산지역 건축활동의 주역은 크게 4세대로 나

누어진다. 60년대의 건축대서스 세대와 70년대의 1세대, 80년대의 2세대, 90년대 이후의 3세대가 그것이다. 이 구분이 칼로 자르듯 명확한 것은 아니다. 세대 상호간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1961년의 5.16군사쿠데타 이후 민족주체성 강조와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건설수요는 늘었지만 지역건축가들의 작품내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설계사무소의 업무는 건축설계라기 보다는 대서업무를 처리하는 개념이었고 직원들도 사무장, 사무원으로 통칭되는 형편이었다. 건축내용도 주거용건축과 소규모 상업용건축, 관공사와 학교 건축 등이 대부분이었다.

박영진, 임명익, 백남진, 백승기로 대표되는 60년대 초창기 건축인들의 전력은 목수 공병 공무원 기술과목 교사 등으로 정식으로 건축교육을 받은 세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건축계 수립의 기초역할을 한 이들의 공적은 일정범위까지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을 작품 혹은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한 것은 197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1세대 건축인들이었다. 처음으로 정규대학의 건축교육을 받고 마산에서 활동을 시작한 1세대 인사로는 김정수, 이치규, 김효일, 김철진, 모재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서울 등지의 일류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은후 고향으로 돌아와 활동을 시작한 인사도 일부 있



신마산의 적산가옥



마산 산복도로



마산의 메인스트리트와 오피스 빌딩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건축대사소에서 독립한 인사가 그보다 더 많았다. 70년대의 공업화과정에서 일기 시작한 수출자유지역과 한국중공업 등지의 일감이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했다.

70년대에도 대서소 세대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으나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1세대 건축가들이 지역 건축계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73년도의 고려호텔(김효일), 문외과(이치규), 문외과 주택(이치규), 정요씨 주택(김효일)을 들 수 있다.

70년대 1세대 건축가의 작품 특성은 합리적인 구조와 기능적인 평면, 장식을 배제하고 순수한 형태미를 추구한 70년대 모더니즘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실 이는 당시의 건축재료와 기술수준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한 경제원칙과도 잘 맞는 것이었다.

70년대부터는 외지 건축가의 작품도 마산에 세워지기 시작하여 지역건축가들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했다. 70년에 건축된 롯데크리스탈 호텔과 뒤를 이은 한국은행 마산지점(정림건축), 양덕성당(김수근)이 그것이다.

80년대부터는 마산에도 고층 오피스빌딩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2년의 전국체전 준비로 가로정비가 시작되어 8차선 광로가 개통됨으로써 이 광로가 마산의 메인 스트리트가 되고 번두리였던 북동쪽의 석전동과 함성동 일대가 새로운 CBD로 부상한 것이다. 교보빌딩과 삼성빌딩 동아빌딩 등이 당시의 대표적인 오피스빌딩들이었지만 모두 외지에서 설계된 것들이었다.

80년대에 들어서도 1세대 건축인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했지만 배동권, 조대제, 허정도, 허필도로 대표되는 2세대의 건축활동이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70년대에 1세대의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힌 후 80년대에 들어 독립한 인사들로 작품경향은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 건축교육기관에서 건축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마산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지역에서 배출된 건축인이 지역자체의 인적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다.

지역건축의 3세대가 부상하기 시작한 90년대는 현상공모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1, 2세대의 사무실에서 이론을 보완하고 실무를 익힌 3세대 건축인으로는 김정한, 정경석, 신삼호, 조용범을 들 수 있고 타지에서 교육 및 실무를 익힌 후 지역으로 돌아와 활동하는 건축인으로는 임부춘과 박병철을 들 수 있다. 3세대는 그 전세대보다 더욱 치열하게 작품성을 추구하면서 건축의 사회적 맥락과 환경적 역할에 관심이 많은 세대이고 자연히 공모전의 출품을 통하여 건축이념을 표현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마산 도시건축의 지역성찾기와 미래의 비전

지금까지 해방이후 마산건축의 대체적인 흐름을 개관해 보았다. 문화적 바탕에서 서울이나 대구보다는 척박하지만 마산의 건축활동은 그간 지역의 공업화과정에 편승하여 물량 자체는 비교적 부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계획도시 창원과 인접한 까닭에 건축실현의 무대로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산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도시화의 역사와 지역정서에 따라 경주나 전주에서 보는 것 같은 건축창작에 관한 외적 구속력도 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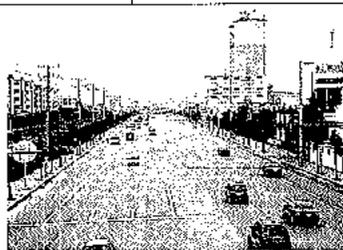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의 지역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축적 색채가 명확한 것 같지는 않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한 지역만의 지역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개성적인 지역건축을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성을 대표할만한 건축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건축의 지역성은 속성상 도시의 공간구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마산건축의 지역성에 앞서 도시 공간구조의 지역성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즉, 스카이라인 형성방법을 포함한 마산만의 수변공간과 무학산의 연계문제가 하나이고 선형적 확산상태를 보이는 마산의 주도심권과 부도심권을 마디짓는 문제가 다른 하나이다.

현재의 마산은 산복도로와 해안도로에 의하여



마산중심가 청동거리



해안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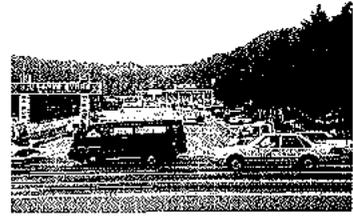
마산중심가-물중거리의 모뉴먼트



마산만 전경



양덕성당



마산역과 광장

3등분되어 있다. 해안과 산허리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산과 바다에 접근하는 통로가 차단되어 자연에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심리적 접근성도 문제이다) 해안도시라는 인식도 차츰 흐려지고 있다. 마산의 수변공간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활성화는 접근성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산과 바다의 접근성은 등고선을 따르는 종축보다는 산세의 경사를 따르는 횡축으로 얻을 수 있다. 이벤트적인 기념식보다는 산과 바다가 인식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역할까지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무학산 기슭과 도심 그리고 해안의 스카이라인을 정하여 도시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마스타플랜에 맞추어 이끌어가야 한다. 건축물은 층수와 밀도로 동시에 규제되어야 한다.

마디짓기는 권역 사이의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개념이다. 완충공간은 공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마산의 공원은 전부 산에 있다. 공원이 평지로 내려와 도시의 허파가 되어야 한다. 권역 하나 하나가 작은 도시가 되어야 하고 권역내부의 불필요한 자동차교통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와 탐색과정에서 찾지못했던 지역성의 뿌리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공간의 지역성을 부여할 때 건축의 지역성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마산건축은 자본의 논리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지역건축 자체의 여건과 속성을 인정하면서(역사적으로 건축이 자본으로부터 해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지역 건축생산조직이 주도하는 정확하고 성실한 시공, 지역적 환경 특성과의 조화, 지역의 정서와 부합하는 재료와 색채의 사용 등을 통하여 오랜 세월을 정진함으로써 지

역성을 서서히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위에서 마산건축의 지역성 문제와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지만 한 필지만을 다루는 개개 건축인의 힘만으로 지역성을 구축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건축인들은 도시 구성 요소에 있어 점 하나의 비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단위 건축물 차원의 의식에서 벗어나 도시적 차원의 면 단위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건축을 환경적 맥락이 아니라 예술적 완성품인 오브제로 생각하는, 건축인이 갖기 쉬운 독선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 건축교육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기념비적 건축작품 이외는 도시의 맥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또 전문단체에 의한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저마다 튀는 건축형태와 재료로 지역성은 구축되지 않는다. 건축인은 형태의 순수성과 공간의 절대성에 매달리기에 앞서 먼저 지역의 역사성과 대지의 장소성을 읽고 이에 적응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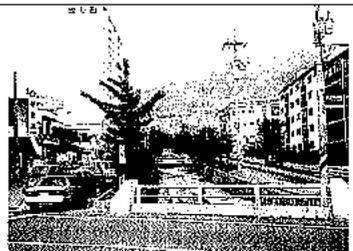
또한 건축인 전문가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단체가 나서서 건축과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와 건축을 통괄하는 포럼이 결성되어야 한다. 역량할 가진 시민단체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단체가 관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관은 감독과 규제 역할의 관이 아닌 시민단체, 전문가단체와의 상호 감시와 상호 견제를 받는 관이어야 한다.



마산의 수변공간



오동동 고려호텔



신마산 일본인구역의 원형천

## 역사도시 진주의 도시건축 City and Architecture of Chinju as Historical City

고성룡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oh Seong-Lyong

### 진주의 도시공간 변천

#### 일제강점기 이전(1910년 이전 조선시대)

진주의 도시공간은 고대 이래로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하였다. 삼국시대에는 거열성(居列城)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 문무왕 12년에는 진주에 청주서(菁州誓)를 설치하는데 서(誓)는 지방군영(地方軍營)을 일컫는 것이다. 이때부터 진주 도시공간이 골격을 갖추었으며 이후 진주성을 증축하면서 도시공간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진주성이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과도 관련된다. 진주는 지질학적으로는 충적층으로, 멀리 지리산과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이 진주성역을 흘러들어 오면서 사행하게 된다. 이 남강을 진주성의 남역으로 하고, 북으로 고려 공민왕 2년 진주 관서의 대사동쪽 터가 점점 내려앉아 가로 세로 50여 자의 연못이 되었다고 하는 대사지(大寺池)가 자연스럽게 천혜의 요새를 만들게되면서 진주성이 구축된다. 또한 진주성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국도의 교차지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을 더하여 행정 및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고려시대 후기 성행하게 된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으로 진주의 도시공간이 정비된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진주는 진산인 비봉산(飛鳳山)을 중심으로 전면의 남강이 흘러 집단양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터로서, 그 형상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

라 하여 비봉포란(飛鳳包卵)형이라 한다. 따라서 진주에는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나, 건축물 - 예를 들어 객사인 비봉관(飛鳳館), 비봉루(飛鳳樓), 조양관(朝陽館) 등등 이 많다 그리고 봉황의 먹이로 설정되어 있는 죽실(竹實)을 위해 곳곳에 대나무밭을 만들어 봉황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 현재에도 대나무는 이곳 진주의 주요 수종을 이룬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임진왜란 직후까지는 진주성내에 진주목관이 자리잡고, 행정, 군사, 주거가 혼재되면서 진주성내 지역에 도시공간이 단일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진주성이 외성과 내성으로 증축되고, 우병영(右兵營)이 진주 내성에 설치되면서 기존의 도시행정을 책임지는 진주목 관아와 진주목사가 관장하는 진영관아(陣營官衙)가 성외에 설치되어 도시공간이 이원화되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킨 직접 요인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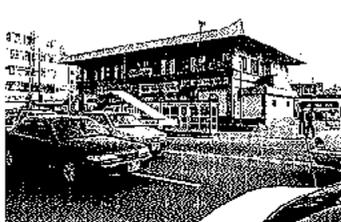
조선후기에는 삼정(三政)이 문란해지고, 농민반란, 동학혁명 등 각종 봉기 등 사회불안이 그대로 진주의 도시공간에도 적용되어 도시공간 또한 폐해가 컸다. 도시공간에 전(廳)이 고착화되고 가가(假家) 등으로 가로가 침범되어 무질서해지고, 진주성곽도 자연붕괴 후 그대로 방치된다. 이렇게 하여 진주도시의 활력을 주는 공적 요소들이 점차 퇴락해 갔다.

#### 일제강점기 (1910년~1945년)

조선시대 후기의 도시공간은 앞서 말한 사회혼란기의 도시행정의 마비로 극도로 폐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강제합방 당시 도청소재지였던 진주의 도시정비는 필연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은 시구개정(市區改正)으로 도로정비나 토지구획정비를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토지를 수용하는 목적이 강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는 조선시가계획령이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계획에 착수하게 되나, 일본의 침략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서양의 기능주의적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때 수립된 도시계획은 광복이후에도 일부 실행되어 진주가 갖추었던 이원적 도시공간구조에서 점진적으로 현재의 도



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진주시 전경

시공간구조로 변천하는 계기를 이룬다.

#### 해방이후 현대까지 (1945년 광복이후 현재)

광복이후에 진주는 6.25사변이라는 전쟁으로 도시공간에 변화가 발생한다. 전쟁이후 폐허가 된 시가지를 1차로 대안동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1952년에 실시하여 현재의 진주 도시공간의 중심인 중앙동 거리와 도시시설이 세워지게 되고, 4차선 도로와 인도를 갖춘 현재의 가로가 형성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도시계획을 그대로 차용한 결과 (신안, 평거지구 10만 수용계획 등)이기도 하다. 그후 상평 1차 토지구획사업(1968년)과 장대지역(1970년), 서부지구(1971년), 칠암지구(1974년) 토지구획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나불천과 봉원지구(1980년)도 개발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도시공간이 구성되게 되었다. 또한 199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도농통합에 적용되어 진주시는 주변의 진양군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도시탐색

#### 도시공간체계

현재 진주의 가로망은 역사도시이면서 지방도시인 전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정비된 격자 가로망 체계를 이루고 있다. 진주의 격자망 도로는 일제시대인 1920년대 토목사업을 일으키면서부터 그 모습을 띄기 시작하였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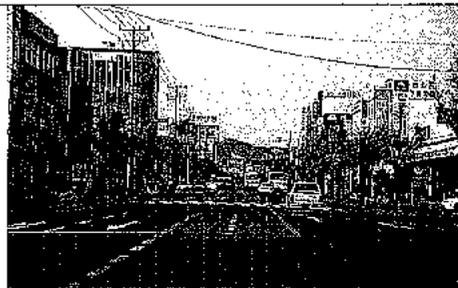
후 1940년부터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대단지 매립지의 한 모서리에 로터리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사방에 25m 너비의 간선도로가 조성하며 시가지의 시구조개정을 단행하여 경남 서부지역 경제구역의 중심지의 성격을 갖는 상공도시로서의 진주읍 시가지를 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진주시 외각인 평거지역의 평야지에 신시가지를 건설하고, 동부의 구릉과 도동, 집현까지 채소 파수 등의 주산지로 조성하여 신시가지의 근교농업지대로 개발하였으며, 마산-진주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도시공간체계가 가틀을 잡게 되었다.

6.25사변이후 진주시가지를 재정비하면서 1950년 이전의 간선도로를 현재의 중앙간선도로로 변경하여 4차선으로 처음으로 조성되었다. 이것을 기점으로 격자식의 도로를 동서남북이 직교되게 조성하고 직교되는 곳에 9개의 로터리를 두어 도시공간의 체계를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하였다. 이후 남강의 흐름을 따라 만곡선인 강의 호안에 가로를 만들고 토지구획정리지역 내에는 격자식 가로망을 계속 조성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급으로 늘어난 교통난 때문에 로터리들이 사라지고 교차로가 이를 대신하여 진주시의 모습이 변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진주의 관문에 해당되는 진주 IC 입구와 구 대동기계공업단지대지에 고층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고, 강변의 양안에 고층 아파트단지를 추진하여 이전까지의 진주 도시공간 이미지를 파괴하면서 진주 도시공간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또한 새로 개발되었던 진주 서부의 상



강변에 우뚝선 동방호텔



진주의 주축이 되어온 25m 너비의 중앙간선도로

평공단은 도시가 팽창 발전하면서 오히려 도시공간계획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진주는 과거 중앙 간선도로를 축으로 1도심 구조였으나 현재는 도시의 팽창과 시청 등의 이전으로 도시 중심부에는 상업시설만이 남게 되는 다핵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 진주의 도시공간

### 주거지역

진주는 원래 전략적 요충지로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취락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신라시대부터 민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주변에 농경지가 없었기 때문에 집단적인 취락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다만 진주 주변의 옥봉, 비봉산, 망진산, 도동 등의 산기슭에 삼삼오오로 민가가 위치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조에 이르러 총적지에 농경지를 일구고, 관아를 중심으로 주변의 높은 지역에 백성들이 모여들어 취락을 이루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진주성의 내성과 외성 및 대사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초기집들이 주류였으나 임진왜란의 가혹한 전제로 진주 인구는 줄어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민가는 1호당 2동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조선 말기인 1903년부터 일본에서 수입된 양식 건물들이 진주에 건립되었고 일제 치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식 주택과 일본에서 희석된 양풍 건물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6·25동란을 겪으면서 진주 도시공간과 도시주택은 완전 파괴되어 전후 복구와 함께 현재와 같은 도시형 주택이 건설되었다.

진주시의 주거시설은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2층 규모의 단독주택들로 구성된 주택단지들이 진주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시기지일대인 대안동과 칠암동, 도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다. 단독주택의 주거형태는 한 층을 세를 주고 다른 한 층을 집주인이 사용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특히 강변을 끼고 있던 칠암동 일대는 잘 정리된 구획으로 고급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러나 뒤늦게 출현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 단독주택단지들과 혼재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시 조망을 어지럽히고 있다.

한편 진주시의 다핵화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출현한 고층 아파트단지들은 진주의 동서로 흐르는 남강의 줄기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진주 도시공간의 성격을 주로 좌우하는 남강의 경관과 진주를 둘러싼 산들로 구성되는 전통적 컨텍스트인 도시경관을 무시한 양적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적 맥락보다는 주택공급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라는 배경에서 대규모화하고 고층화한 아파트단지들이 도시의 새로운 성격을 형성하며 확산되고 있다. 다른 도시들이 이미 폐해로 지적되는 도시공간의 문제들이 여전히 신개발된 신안, 평거지구와 망경지구, 가좌동지역 도시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획일화된 주거지역의 과대 팽창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토지이용현황조사에서 주로 아파트를 포함하는 주거지역은 1992년도에 10.3km<sup>2</sup>, 1994년에는 10.7km<sup>2</sup>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km<sup>2</sup>, 4.0km<sup>2</sup>로 변함이 없으며, 녹지지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간 진주라는 도시공간이 스스로 성장하면서 만든 도시를 만드는 선과 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아파트들은 그것들을 급격히 지우고 있는 것이다.

### 상업지역

진주의 상업시설은 진주시민이 보통 시내라고 말하는 남강의 북쪽인 진주교에서 진주MBC방송국까지 이어지는 중앙간선도로변에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는 진주시청과 소방서, 우체국, 중앙시장, 시외버스 터미널 등 관공서와 상업, 업무시설들이 병존하면서 중심성이 강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 효율성은 양호하나 시의 상징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어의 경우 관청이나 종교적 공간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방문자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사회의 형태적, 정신적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주거지역 - 신안, 평거 아파트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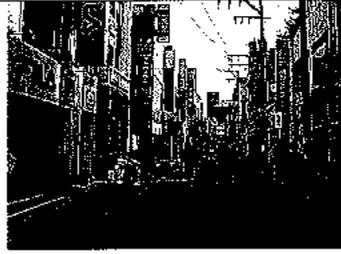
주거지역 - 신의 스카이라인을 막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거지역 - 도시계획을 무시한 주공 아파트단지



상업지역 - 진주 중앙시장



상업지역 - 차 없는 거리



상업지역 - 진주MBC방송국

있으나 진주의 도심 상업지역은 이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주시의 중심부 지역은 상업과 행정의 혼용 상태를 정리하는 다른 공간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도시가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기능이 이전되어 남겨지는 도심공간에 대한 계획이 절실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곳은 상업과 위락시설이 주류를 이루며 여전히 진주 도시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진주 도심에서 가장 인식이 높은 거리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간선도로 이면인 진주극장 뒷길이다. 이러한 보행자 공간은 상업지역내의 대부분의 중요 시설간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보행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업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공공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스트리트 퍼니처 등 인프라는 아직 만족할 정도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진주 간선도로의 동쪽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과거에는 사회교류의 장의 역할도 담당한 5일장(삼외장, 섬내장)이었고, 나중에 5일장이 상설시장으로 변모되면서 입지한 곳으로 진주 또다른 중심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재래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타지역 연결교통의 발달로 서부경남 시장경제의 주축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이 간선도로의 하부에는 진주에서 유일한 지하상가가 조성되어 있다.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지하 보행자 보도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어 도심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1개 점포로 구성된 이 지하상가와 재래식 중앙시장과 긴밀한 연계를 고려해 본다면

도심공간에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진주시 서쪽에 새로이 조성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힘입어 신안, 평거동의 교육대 거리와 상대동의 동진로가 새로운 상업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또한 요구되고 있다.

### 공업지역

도시의 새로운 팽창으로 그간 조성되어 운영되어 온 도시 동쪽의 상평공단은 도시계획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진주의 지리적 성격 때문에 많은 물류비용이 부담되는 대기업들이 진주를 빠져나가고 영세한 기업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도시의 팽창으로 이미 부도심에 수용되는 현황이어서 공단으로서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진주시의 진입부분 즉 석류공원이나 상평교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첫 위치에 입지되어 있어 도시경관이나 도시이미지와도 상충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남강 변에 위치한 이 공단은 남강의 장기적 발전과 도시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사분단지를 조성하여 이전을 장려중이나 이것도 지역 경제의 영세성으로 여의치 않고 있다. 역시 공단 이전과 도시 공간의 재정비가 숙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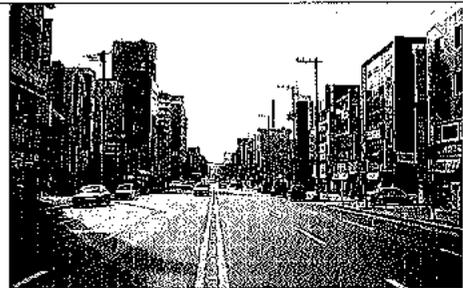
### 공원, 문화지역

진주에는 진주공원, 진양호 공원, 석류공원, 송림, 금산, 가마못 공원 등 여러 공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이 미흡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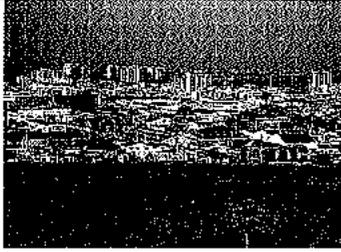
그러나 그 외는 다르게 일제 시대 후기부터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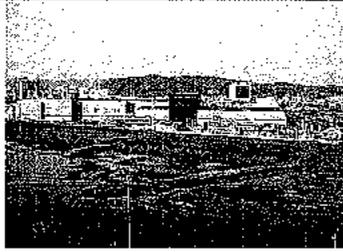
상업지역 - 진주의 중심인 중앙간선도로변 (진주교에서 MBC방송국까지)



상업지역 - 새롭게 성장하는 진주교육대 앞과 동진로 거리



공업지역 - 상평공단 전경



공업지역 - 새롭게 증축한 공단내 대형공장



공원지역 - 진양호

원으로 진주시민에게 제공되고 제3공화국 시절에 적극 개발된 진주성은 진주공원(축석공원)이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주의 심장과 같다. 진주성 내에는 유서 깊은 축석루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와 임진왜란 당시의 전적지와 기념물,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 등이 있어 진주 시민에게 휴식의 공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모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것을 도시적 맥락에서 살펴볼 경우 우리에게 하나의 지역성을 찾는 방향키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진주에 위치한 다른 공원들도 단순한 휴게기능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각각 특색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진주성 공원이 역사와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망경공원은 도시조망 기능을 강화하는 주제별 공원개발이 필요하다.

진주에는 댐 개발로 형성된 진양호 엄청난 규모의 호수와 남강이라는 사행천으로 규정되는 수변공간이 존재한다. 이를 이용하는 도시경관의 형성과 개발이 미비한 형편이지만 앞으로 관광사업과 결부하면서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남강변의 수변공간 개발은 도립 경상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한 침암동지역을 중심으로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문화·예술도시인 진주의 전통과 독특한 문화적 개성을 지닌 도심 속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1992년에 시범 문화예술거리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는 남가람 문화거리는, 도시의 중심부를 흘러가는 남강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살리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제공하는 문화적 기회와 더불어 진주시민에게 친숙하고 유익한 삶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남강의 환경적 보존과 정화사업으로 옛 수질을 되찾고 강변 자연녹지 공간의 활성화를 이루는 한편, 강변에는 탁상행정적 발상인 만국화 공원이 아닌 과거의 대나무 숲을 되살려 진주의 상징성과 지역성 회복에 관심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진주가 문화와 역사의 도시라면 그같은 문화와 역사가 생성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진주의 문화유적에서 그 시대에 왜 진주지역에서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고,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진주시민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주가 문화와 교육도시로서의 이름 값을 제대로 지니려면 여러 형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야문화 발굴 등 과거 역사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를 도시 이미지화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과 보존은 하나의 달레마이긴 하지만 친년 역사를 지녔다는 도시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이를 수용하는 문화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주제별 건축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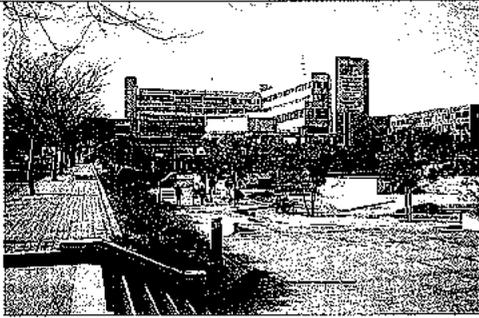
국립 경상대학교 캠퍼스 건축군: 남해 고속도로상이나 진주인터체인지를 돌아 나오면 6차선대로에 접한 건축군을 만나게되는데 이는 진주 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니는 국립 경상대학교 캠퍼스이다. 경상대학교의 건물들은 198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다. 주변의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계곡에 위치한 캠퍼스는



공원지역 - 진주성과 축석루



공원지역 - 테마가 없는 석류공원



국립경상대학교(전면에 중앙분수대와  
뒤에 학생·교수회관이 보인다)



국립경상대학교 교양학관

동서방향으로 난 2개의 주 도로로 나뉜 3개의 축에 따라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 캠퍼스 중심축의 코어에 위치한 교수 학생회관은 중앙광장과 매개 공간역할을 하는 옥외공간이 있다. 그리고 대량동선을 원활히 처리하는 라운지와 하부의 식당에 이르는 여러 레벨처리가 돋보인다. 한편 각 부대 시설로 이어주는 브리지는 한층 공간의 깊이감을 더 해준다.

대학 도서관 남쪽에 위치한 교양학관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세련되게 처리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교양학관은 점차적인 레벨 차에 평면을 깎기타입으로 펼쳐고 단 2층으로 처리하고 각 윙과 윙 사이에 옥외공간을 두어, 많은 학생들의 단위밀도와 이동을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며 진입지점으로부터 10m까지 올라가는 대지조건에도 잘 적응되고 있다. 그리고 각 윙 과 윙 사이의 개별적 옥외공간은 휴식시간에 훌륭한 안식처가 된다.

이에 못지 않게 경상대학교내에는 농과대학, 공과대학, 인문관 등 초기에 설계된 건물들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반면에 교육부의 설계입찰로 최근에 지어지는 강의동은 오히려 계획 초기의 분위기에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동명중고등학교:** 합천방향 33번 국도로 진입하는 초전동 들판의 비닐하우스와 온실들 사이로 월야산을 배경으로 동명중고등학교가 있다. 고층부 옥외공간의 프레임에 의해 시각적인 중첩이 표현되며, 반복된 박스형 매스를 속의 중정 피라미드는 또 다른 사선의 질서를 보여주는 건물군이 특색이다. 동서로 축을 설정하여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의 반복

은 느낌의 반전과 시선의 다양성을 의도한다. 토지 이용은 물론이고 중정 지하에 도서관을 두어 학교대지와 건물을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확장 구성한 것이 새롭다. 또한 동서 축과 남북 축을 설정하고 축의 시작과 끝에 건물을 세우고 대지 내부의 장소성을 규정해 나가는 시도가 돋보인다. 진주 동명중고등학교는 학교건축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가야자모병원:** 독특한 외장재료인 스플리트 블록과 동판을 사용한 이 병원은 정면을 여러 개의 매스로 분리시켜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면에 정면성을 부여하는데 성공한 건물이다. 환자 대기실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섀프톤과 1층과 지하층의 접근성을 살리기 위한 중간층의 입구계획은 우선적으로 환자를 고려한 계획임을 인지시킨다. 주 출입구 상부의 커튼월은 강한 인지성을 부여하고, 주택 같은 경사지붕은 산부인과가 주는 심리적인 요인을 적절히 제거하고 있다.

**목산정형외과:** 신안동 택지조성지역에 위치한 목산정형외과는 전,후면의 30m와 8m도로를 이어주는 지하외부공간을 두어 자연광의 유입과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정면과 배면의 기벽은 입체감을 더하며, 특히 노출콘크리트와 스텐레스 스틸 등의 재료의 적절한 사용은 정형외과의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철암성당:** 1991년 화재로 기존의 성당을 철거하고 새로이 지은 성당은 측면 외벽을 돌출시켜 음양에 의한 입체감과 종교 건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첨탑과 십자가가 올라가는 기존 형식을 탈피하여 주위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건물로의 주 진입을 저층의 주택건물군으로 되어있는 남



동명중고등학교



가야자모병원



신안성당

쪽으로 두어 자연스러운 진입 동선을 유도한다.

**신안성당:** 신 택지개발지구의 삼각형대지에 위치한 성당건물은 직접 도로에 접하는 대지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페디먼트를 형상화한 기벽을 위치시켜 과도기적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절곡시킨 지붕은 위엄을 있되 그 위용을 과시하지 않는 절제를 보인다. 3면의 도로와 또 이웃해 있는 초등학교를 외 부공간요소로 활용하면서 시각적으로 트인 효과를 얻고 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진주의 대형 문화공간으로 남강변 남쪽 대지에 입지하며 건너편에는 풍광이 훌륭한 뒤벼리라는 절벽이 보인다. 전통을 지나치게 의식한 엄청난 스케일의 기와지붕모양과 열주는 어찌면 강 반대편에서 바라볼 때만이 적절하게 느껴질지 모를 일이다. 그 거대한 처마를 뚫고 떠받치고 있는 20여개의 열주들의 과장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선큰 기둥과 연결된 지하의 전시장, 수공간, 넓은 피로티 공간, 보이드된 로비, 육군박물관의 등근 외벽을 상기시키는 외벽 등을 통해 고(故)김중업선생의 어휘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진주라는 지역성을 찾으려한 실험적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을는지...

**갑을기든:** 진주 개도 천년을 기념하여 새로이 놓여진 천수교 다리목에 위치한다. 중심성을 찾기 어려운 대지 상황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중정은 건물의 핵이 된다. 3층에 위치한 옥상정원은 예식부 홀의 옥외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남강과 맞은 편의 절벽을 고스란히 차경하고 있다. 전면부의 커튼월은 남강에 상응하며, 복도와 브리지로 연결된 여러 개의 매스들은 위압감을 주지 않고 친근하다. 외부, 피로티, 중정, 현관 그리고 홀로 연결되는 일련의 진입공간에서 다분히 건축적 공간경험을 읽을 수 있다.

**진주제일예식장:** 전형적인 형식보다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주는 외관이다. 메인 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한 매스가 적용되고, 이를 막기 위한 엄청난 글라스 월이 적용되고, 다분히 감성적인 빨간 띠와 돌출된 기둥, 최상 지붕층의 페디먼트식의 박공처리가 이를 말한다.

**교보빌딩 진주지점:** 진주 제1호 광장인 진주역 앞에 서있는 교보생명 지점빌딩은 높은 건물이 흔하지 않은 진주에서, 그리고 세련된 건물이 아직은 낯선 진주에서 시선을

끌만하다. 서울의 미니어처 격인 이 새끼 교보빌딩은 서울의 어미 교보빌딩의 명성과 더불어 충분히 국제적이며 자본주의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구조의 표현이 명확하고 질제되어 있으며 넓고 평탄한 면은 잘게 분할되어 그 위에 햇빛이 비치면 투영되는 주변의 경관과 더불어 마치 잔잔한 호수면 같이 아름다우며, 저층부도 그 일부를 과감하게 절삭하여 도시에게 제공하며, 재료의 마감수법 및 전체적인 비례 또한 규범적이다. 그러나 이 탄탄하고 모범적인 건물이 우리에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이 건물이 도시의 맥락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이 만들어진 다음 그것을 적당하게 대지에 맞추어 놓았다. 도시성은 있으나 지역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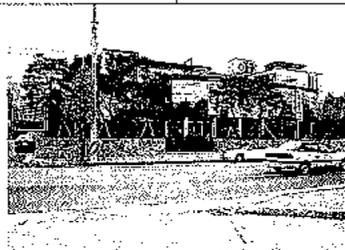
**맺는 말**

건축물은 그 시대의 문화척도로서 평가된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건축물들은 현재 우리의 언어이며, 물질적 정신적 소산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자학적인 행위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디컨스트럭티비즘, 하이퍼모던, 네오모던 등 아방가르드 건축의 충격에 노출되고 있는 현재의 건축풍토를, 이제는 지역성이 갖는 표현언어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지역성은 최신 스타일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그렇다고 무비판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 단지 건축의 본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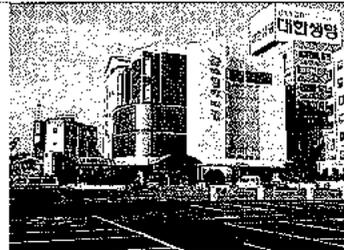
진주지역의 도시와 건축들도 아직은 건물과 대지 또는 건축물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해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개인의 개별적인 범주 내에서 해석되어 하나의 완성된 건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건축물이 세워지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빛과 기후, 3차원적 지형과 도시구조, 그리고 그 지역 그 시대의 건축적 한계와 경향이 그대로 도시에 건축에 반영된다면 바로 지역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경남문화예술회관  
(예술회관앞 강변로는 현재 남가람 문화거리로 조성중이다)



갑을기든



제일예식장

## 경남남부 지역건축의 현황과 정체성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South Kyongnam Architecture

일 시 / 1999. 5. 19(수). 17:00 ~  
 장 소 / 창원시 호텔 인터내셔널 펠 룸  
 참석자 / 고성룡(경상대 건축공학과 교수, 사회)  
 박형규(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허정도(마산 서진건축사사무소 소장)  
 김태중(경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안재락(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유석(창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강성훈(창원 해동건축사사무소 소장)  
 문철수(진주 두암건축사사무소 소장)



좌담광경

고성룡\_\_남부 경남에 위치한 마산, 창원, 진주는 각 도시의 성장 역사나 성격이 다른 지역의 인접한 도시들에 비해 매우 다르다고 생각되어 이 세 도시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웃하고 있다는 장소적 조건에서 어떤 공통점을 도출해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선 마산, 창원, 진주 세 지역의 도시적 특성이나 건축적 특징들을 각각 이야기하여 보고, 그 가운데서 지역적인 특성들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대의적으로 이 지역의 도시공간과 건축을 소개하는 기회이기도 하니, 각 도시별로 도시를 포함한 건축의 발전과 현 상황들을 간략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경남건축사회 박형규회장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박형규\_\_이렇게 여러 교수들과 지역 건축가들이 모여 지역의 건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있어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건축사지에서 지역의 건축들을 정리하



고 지역성을 표출하려는 편집기획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경남건축사회를 대표하는 입장이니 세 도시를 총괄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룡\_\_이 지역에서 양풍 건축을 위시해 근대건축은 주로 마산이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허정도 소장께서 그동안 마산에서 줄곧 창작활동을 하셨으니 우선 마산의 건축흐름과 도시의 상황을 겹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허정도\_\_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이전까지는 마산의 건축이 구습에 따라 건축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마산을 고향으로 한 건축가들이 속속 돌아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이치규, 모재기, 김호일씨, 김정수씨 등이 1971년도부터 1974~5년 사이에 고향에 돌아와 이 분들의 건축작업 솜씨들이 마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1970년대 초반에 마산수출자유지역이 들어서면서 마산이 공업도시로 바뀌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받아 건설이 이루어지고 인구 집중으로 주택이 대량 건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과 인구집중으로 정규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이 마산에 유입되면서 마산의 건축이 많은 변화되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유입된 건축가들에 의해 마산시내 설계사무실에 근무하던 차세대 건축인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또 그들이 몇몇 좋은 작품이나 대규모 건물들을 지방에서 설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기로 점차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설계기법들이 마산에 정착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가 지나가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작업과 설계방법을 지켜 본 차세대 건축인들, 즉 현재 40대 정도의 사람들이 마산에 정착하여 그대로 건축의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한 계기가 되었다면 1980년대 전반기에 마산에서 전국체전을 치른 일입니다. 그 일로 건설 붐이 크게 일어났고 이내 건설분야의 호경을 맞으면서 많은 설계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역량은 축적이 되었지만 지역성을 고민한다던가 작품성이 있어 들어낼만한 건축물은 쉽게 업무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978년 진주에 경상대학교가, 1979년에는 마산에 경남대학교가 건축공학과를 개설하였고, 이후 경상대학교와 경남대학교에서 졸업생을 본격적으로 배출한 뒤 고급인력의 진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에서 건축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1970년대 초 졸업생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있었으나 그 숫자나 기여도는 미미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근 창원이 도청소재지로 비대해지면서 많은 건설물량이 창원에 집중하니, 마산의 인적 자원이나 설계사무소도 모두 창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산은 오히려 정체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대학교 앞인 남마산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건축의 질적인 측면이나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창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마산건축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룡** \_\_\_\_\_ 허 소장 말씀처럼 마산의 건축발전에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계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초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지정으로 건설 붐이 일어났고, 이를 1980년대 초 지역대학의 교육이 활성화하면서 건축인구가 많아져 뒷받침되었으며, 1980년대 다시 경제성장과 함께 건설경기가 일어나면서 건축 붐이 일어났으나 1990년에는 인근 도시인 창원의 팽창으로 정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산 경남대학교의 김태중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마산 건축이나 도시의 변화된 양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건축에 대해서 리뷰해 주십시오.

**김태중** \_\_\_\_\_ 마산의 도시와 건축의 전개에 대

해 허소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에 약간 부연코자 합니다. 마산이 구한말 개방당시는 구마산 지역에 자연 발생적인 취락이 있었고 신마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두 지역의 중간에는 논밭만 있어 오늘날의 모습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뒤 한국전쟁 이후에 두 지역사이에 벨트가 연결되어 오늘날과 같은 하나의 도시공간으로 연결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마산의 도시나 건축발전에 영향을 준 원인을 하나 더 들어본다면 6.25동란 중에 마산에는 피난민이 몰리고 이후 공업화,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분위기가 활발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능력과 관용성이 높아졌다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는 그대로 건축발전에도 암암리에 흡수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갯가로도 칭해지는 해면도시가 갖는 활력과 자유로움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건축물은 주로 대중적인 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소장 말씀대로 다른 도시보다는 애항심을 갖는 분들이 일찍 고향 쪽으로 정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마산의 큰 흡입력이라고 봅니다.

약간 주제와는 멀어지지만, 마산 사람들이 부마항쟁이나 3.15에서 보듯이 유별나게 역세면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저항정신이 강하지만, 그러면서도 서정성이 강하고 고향을 꿈쩍이 생각합니다. 서정성을 이야기하면 반야울, 조두남, 윤이상, 강만길씨와 같은 많은 문화인이 마산출신인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은 상당히 2분법적인 성격을 가져서, 한편으로는 아주 역세고 진보적인 반면에 다른 편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서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질도 마산의 도시건축을 이룬 먼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성룡** \_\_\_\_\_ 마산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 김교수께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마산건축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이러



한 관계를 계속 찾아가면 아마 지역성이나 크게는 지역적 미학도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이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다시 논제로 돌아와, 어찌 보면 창원이라는 도시가 진주와 마산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 신도시로 태어나 창원 나름대로의 문화도

생겨나고 건축도 다른 두 도시에 비해 도청 소재지인 관계로 물량면이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데, 창원의 도시 및 건축의 발전과 특성에 대해서 창원에 계신 두 분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유석** \_\_\_\_\_ 창원에 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3~4년 전에 생각했

던 창원하고 여기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접하게 되는 창원은 이미 지 차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보통 진주와 마산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이고 창원은 신도시라고 외부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의 실질적인 토박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원이라는 동네는 실제로는 아주 오래된 동네라는 것입니다. 창원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조선 태종 때 거창군과 대원군이 합쳐져 창원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것이며 그 당시는 현재의 마산과 창원이 하나의 동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세까지는 미미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창원은 1970년과 1974년 사이에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하나의 도시라기 보다는 마산을 배후 도시로 하는 그러한 산업단지로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창원은 1980년대 들어 서가지 모습이 본격적으로 형성됩니다. 다들 알 듯이 우리 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로서 도시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는 창원 시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상당히 최선의 방책이었던지는 몰라도 그대 만든 도시계획이 현재에 와서는 창원과 마산 두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마산의 인구가 유입되고 1990년대를 들어오면서 급격히 성장하는 바람에 이제는 적정한 도시관리가 어렵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좋은 터를 잡기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물론 도시는 건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구창원과 신창원이 합쳐지면서 같은 창원시이면서도 구창원 지역은 건축법이, 신창원에는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야기하는 혼란이 도시공간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곧바로 창원 도시건축의 기형적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 특징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산이나 진주처럼 근대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충적인 시간을 갖고 근대화가 된 도시와는 달리 창원은 신도시로 계획되어 어느 날 갑자기 촌에서 하나의 대도시가 되다 보니 지역건축가가 성장하기도 전에 전국 건축가들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각종 상업시설은 소위 서울과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창원 건축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오히려 창원이 가져야 했던 지역성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원의 경우에는 역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성룡** 전체적으로 창원의 발전상황과 도시건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역 건축가가 없이 발전하는 도시건축이나 지역 건축이란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창원에서 계속 활동했던 강소장께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건축의 발전 상황을 건축물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훈** 사실 저는 창원이 좋은 도시인가 나쁜 도시인가를 평가해 보면 반반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창원이 원래의 도시계획에서 흔들리게 되는 동기는



1970년대 중반의 석유파동이었습니다. 사실 초기 창원의 도시계획은 순수하게 공업기능만을 수용하도록 하였는데 석유파동, 경제침체 등으로 산업기반이 약해지자, 공업기능 외에 창원대학교라든가 경남도청과 같은 여러 기능을 유치하면서 교육, 문화,

공업화 도시라는 복합도시로 다시 도시발전을 수정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도시로서 갖는 문제점이 바로 창원 도시공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서나 생활 패턴을 고려치 않고, 너무 서구화의 개념에서 도시계획을 하여 엄격한 조닝을 적용하다보니 전이지대가 없는 도시가 창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규격화되어 비인간적인 구획분할이 창원의 도시적 패색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도시보다 나은 점은 조경공간이나 휴게공간 같은 여유공간을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너무 딱딱한 계획도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의 도시표정을 이루는 건축물들의 문제점으로는 상업건물의 무질서를 누구나 지적합니다. 이는 상가의 경우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도시계획결과로 보상받은 한 대지의 주인이 3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나 되고 또한 대기업과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 지분을 가지는 시스템에서 야기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공건물과 일반 기업체의 시속 등이 긍정적인 창원의 도시건축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성룡** 창원이란 도시가 발전하게된 여러 배경을 들었습니다. 타 도시와는 달리 창원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경제와 맞물려 지나치게 상업성으로 갔으며 그 결과 건물이 획일화 되어버린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진주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안재락 교수께서 전체적인 도시현황에서 본 진주의 도시건축을 얘기해 주시고 문철수 소장께서는 진주라는 도시 속에서 성장해온 진주의 건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

재략 교수께서 건축의 바탕이 되었던 진주의 도시 컨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안재략** \_\_\_\_\_ 이러한 좌담의 자리를 갖는 것은 이 지역의 지역성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의 건축을 이야기할 때 지역성이란 얘기를 때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실체를 못 찾는 것이 현실이고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는 하나 풀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진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적인 도시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주성을 빼고 진주를 생각한다면 어떤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느 설문조사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아무 것도 없다' 로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진주에 대한 이미지조사를 해보면 진주성, 촉석루, 논개, 남강 등으로 이어지는 과거에서 진주 이미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는 어떤 특성을 있는나고 물으면, 성(城)이 있다고 답하게 됩니다. 진주성에는 원래 내성과 외성이 있었는데 현재는 내성만이 남아있어 이 지역의 도읍으로서의 흔적과 역사적 과정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사건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진주는 다른 도시들보다 역사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의 역사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물어본다면 진주성을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통시적인 시각의 관점으로 도시나 건축에 접근을 해야됨을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주의 도시적 특징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마산을 항만도시로 창원을 계획도시라고 한다면 진주는 역사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영주(領主)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규모 면에서는 마산이나 창원보다 작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를 오랫동안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마산이나 창원 중심성에서 본다면 부산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서의 중심성이나 자립성보다는 관계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주는 작지만 주변 여러 도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진주로 나와서 일을 해야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의 성격을 주변의 도시를 거느리는 영주도시라고 말합니다. 아는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경남으로 옮겨질 당시 창원과의 경쟁에서 뒤진 아쉬움을 진주시민들이 대부분 가지는 것도 바로 이 영주성이 아주 뿌리깊게 내

려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진주의 도시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진주의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쪽에 편안해 보이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전쟁과 같은 여러 험난한 역사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삼국시대나 왜적에 의해서 그리고 6.25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역사를 통해 진주성을 본다면 일상 생활보다는 군사 요충지로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세워졌고, 결국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주라는 도시가 그 동안에 가져왔던 어떤 성격이 우리 일반인에게 알려진 바와는 다른 보수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체적인 문화라던가 저항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역사적 도시라고 하지만 원래의 모습을 의외로 갖고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현재 진주의 지도를 보면 산아래 구릉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의외로 격자형의 계획된 가로체계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가지를 가보면 진주성 때문에 구시가지의 인식이 되나, 좀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면 공단지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격자형의 도시 골격과 규격화된 필지 단위를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남강 앞쪽은 아직도 일제시대 계획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육거리 등 소위 방사형의 가로가 아직 남아있고, 당시 일제가 새로운 학교라든지 관청건물을 짓기 위해 새롭게 개발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강북 쪽에는 부분적이거나 옛날 가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에서 큰 가로는 정리하더라도 내부의 세세한 부분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흔적들을 비껴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빠르게 하는 작업으로 없애버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도시를 전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이 진주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도시로서의 건축공간으로서의 역사성인데, 최근에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은 역사도시로서 진주로는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도시가 아무리 역사도시라고 하더라도 역사성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속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이어질 때 그러한 지역의 특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룡** \_\_\_\_\_ 진주의 도시 특성과 아울러서 여러 문제점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서로 나누게 될 지역성 문제에 관해 방향을 미리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진주라는 도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컨텍스트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주에서 건축활동을 하고 계시고 진주 출신이신 문소장님께서 진주 도시

건축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문철수 \_\_ 도시계획 전문가의 관점에서 안재락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건축가적인 관점에서 진주의 도시건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진주만의 특성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1970년대부터 양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1990년대 이르고 있으며 진주의 도시나 건축도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제가 건축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특기할 만한 진주의 건축적 사건은 김수근 선생의 진주박물관과 김종업 선생의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진주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건축을 문화로서 느끼기에 충분하며, 진주에 가면 이러한 건물이 있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건물이 1980년대에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990년대의 건축적 사건으로는 진주시청사와 같은 대형 관공서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진주는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 대형 건축물이 적은 편이므로 이러한 관공서 건물은 진주건축이 대형화로 가는 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 주도로 양적인 대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주는 지역적인 특색으로 작은 스케일이 보다 도시공간에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로 진주 축석루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주는 도시 중앙으로 남강이 가로지르는 형태로 수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강한 성격을 가진 수공간의 축에 축석루가 놓여있고, 진주박물관과 경남문화예술회관도 이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은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축석루는 도시내 다른 공간의 스케일이나 건물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케일을 앞장서서 파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형화되는 관공서 건물이었습니다.

또한 진주의 도시적인 특성을 열거한다면, 앞서 언급한 남강으로 형성되는 강한 수공간 水空間과 비봉산 같은 주변의 산입니다. 산은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도시 자체도 작고 주산도 작고 강은 강력하긴 하지만 크기로 보아서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축석루도 화재로 인해 재건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공간과 스케일이 진주의 도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너무 큰 스케일의 건축은 진주라는 도시공간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다음 에라도 너무 큰 건물이 세워져 진주의 고유한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어쩔 수 없



이 커져야 하겠지만 관공서 건물만이라도 좀 조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성룡 \_\_ 지금까지 남부경남에 위치한 마산, 창원, 진주 세 도시의 발전 현황이라던가 문제점, 도시나 건축적 특성들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세도시가 함께 엮어질 그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건축사지의 편집계획을 보니 이 지역을 묶어 '제2의 신라문화권' 또는 '가야문화권' 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도시가 너무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구태여 묶는다면 '경상도에 남쪽에 있는 지역' 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경남 지역건축이라는 점에서 지역성이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성을 규정할 수 있다면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죠.

박형규 \_\_ 진주, 마산, 창원 모두 사실상 지역의 고유 특성이나, 생긴 모양, 주민들의 근성을 알고 나면 지역성이라던가 정체성을 찾는 점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마산에 나서 지냈는데, 마산은 보면 무학산이 놓여 있고 그리고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진주는 교육의 도시, 충절의 도시라 하여 안정되어 있는 반면, 마산은 공업화가 되면서 항만도시, 공업도시로 너무 비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은 좀 순수한 면이, 진주는 보수적이고 정잡은 면이 있다면 마산은 배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건축물은 그 주민을 담는 그릇이므로 지역성을 이해하는데 이를 이해한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중 \_\_ 지역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는 시민사회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랄까, 진주의 지역성이라면 축석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던가, 마산은 항구도시라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산은 항구도시지만 실제로는 도시축과 해변공간과는 많이 격리되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진주가 역사도시라고 하지만 역사성이 지역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야, 신라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지역성을 나타내려면 역사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보다 근대화된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우리지역의 문화가 지역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룡 \_\_ 지역성을 대표하는 것이 역사성에

도 있지만 저도 공동체 의식으로 그 지역이 만들어 내는 정체성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태중 교수께서 역사성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 내는 정체성이 중요한 지역성의 기반이 되겠다고, 그러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유석**\_\_\_마산, 진주에 비해 창원엔 랜드마크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관 주도로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오류를 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도 그렇고 마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고유한 지역성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시안적이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지역성을 분석하여야 장차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지역성이라는 것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태중**\_\_\_사실 지역성은 현재에 더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성을 이루는 27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료 등이 모두 동일하고 환경이 비슷해져서 자연적인 요건이 유사해져 가고 가치관이 다양해져 지역성이라는 것의 공통 벡터를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공통된 것을 찾는데 역사성이나 문화적 특성이 없다면 다시 만들어야 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창작에 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도시를 보면 아주 많은 규제에 의해서 창작보다는 맥락적으로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건축도 배경을 고려하는 지역성을 나타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성룡**\_\_\_지역적인 건축특성으로 좀더 초점을 맞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머리를 맞대고 지역성부터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겠지만, 너무 피상적일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의 건축이 이런 거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어떨까요.

**허정도**\_\_\_저는 다른 의미에서라도 지역성이랄까, 지방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방 건축가들과 직접 경쟁할 때 우리의 지역성에 익숙하다면 지금과 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그러한 현실을 타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열심히 지역성이나 이 지방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서유석**\_\_\_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좋은 사례

를 보여주는데, 유럽의 무역장벽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문화가 세계문화를 지배하고 다양성 속에 놓여있지만 이에 대해 자기 것으로 경쟁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 지역이라는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다음 아닌 지역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지역건축가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획일적인 형태 구성이 제한된다면 서울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지 굳이 지역건축가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재락**\_\_\_사실 지역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휘의 부족을 느끼는데, 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성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한편에서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상당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문제의 책임을 논할 때는 다른데서 찾고 있지 않나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진주에 대해서 여러 조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느꼈는데, 건축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축석루 앞의 장어집들이 줄지어 있고 또 그 건물 지붕들이 이상한 기와 형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진주를 느낄 때 그러한 요소를 오히려 강렬히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며 그사이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건축가들이 가진 정서와 실제로 지역민이나 타지역민이 느끼는 정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획일화 정책을 쓰는 공무원의 책임이나, 지역에 관한 연구는 하지 않고 세계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교수들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지역성을 찾아내는 데만 이제까지 초점을 두었지만 저는 지금부터라도 지역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성을 만들어 내는 몫은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에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차츰 이루어졌다던가 아니면 위대한 한 명의 건축가가 이루었다 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축가의 역할이 중요시됩니다.

외국에서도 그 어느 지역을 만들거나, 분석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은 그 지역의 건축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짧은 시간에 차별화된 요소를 찾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건축가 스스로 익숙해져 버린 제도에 의해 얽매어진 부분의 원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성룡**\_\_\_실무를 하시면서 한번쯤은 누구나가 고민하는 것이 지역성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

제를 실제 작업에서 어떻게 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훈**\_\_\_저 역시 김태중 교수와 맥락을 같이하는 입장입니다. 의식의 지역성이 예술의 지역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각 지방마다 고유한 조례의 규정이 이루어진다면 즉, 현실적으로 제도의 장치가 보완된다면 지역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유석**\_\_\_저는 지역성에 대한 안교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역성은 결국 분위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 도시의 분위기가 개별 건물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별건물에서 지역성을 찾는다면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진주 그러면 오래된 도시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도시 개별 건물은 오래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된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마산에 가보면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창원에 가보면 깨끗하고 녹지공간이 많긴 한데 전혀 인간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역이 갖는 분위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공무원의 의식전환이나 제도상의 조치로 지역성을 갖게 되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도시건축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성에 대한 시민의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므로 곧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은 건축관련전문가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문철수**\_\_\_지역성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지만 저는 알바 알토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토의 건축을 논할 때 지역성을 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분명히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성을 찾는 문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무를 하면서 건물이 들어갈 알맞은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지역성을 추구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력으로 나름대로 지역적 포석을 달아주는 의미에서 어떤 재료든지 형태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성이나 역사성보다는 주변의 텍스트를 추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고성룡**\_\_\_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지역성은 어느 지역의 분위기가 이미지이고 또는 한 도시의 컨텍스트를 반영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충실할 때 지

역성이 표현되리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성을 가시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시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일체성 확보 노력과, 그 정체성을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로 나타내려는 건축가나 전문가 집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역성 표출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이제 죄담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경남의 마산, 창원, 진주 각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던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모든 지역을 총괄하고 계신 박형규 회장께 부탁드립니다.

**박형규**\_\_\_저는 개발분이 한창일 때 실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던 시대에 종사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지역성을 논의하면서 질적 추구가 경남 지방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건축인의 의식전환도 필요하지만 건축교육이 아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세대 건축인을 교육하시는 교수들께서 지역건축의 큰 주제를 잡아주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허정도**\_\_\_마산의 경우 최근 의회청사를 제외하고는 마산시청 현상공모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다할 현상설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질적인 추구의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 마산에 적은 것도 아쉽습니다. 유일하게 김수근 선생의 양덕성당이 좀 괜찮고 정림건축의 한국은행 마산지점이 있었는데 몇 년전에 철거되었습니다. 그 보다는 서울의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했지만 오히려 내세울만한 작품이 없고 이는 건축가 자신들도 자신의 작업임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질을 추구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마산의 도시건축이 추구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1902년 그러니까 97년전에 최초로 마산의 도시상황을 기술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우리 도시에 대해서 써 놓은 최초의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 책에서, '마산에는 자연조건이 좋아 천혜의 양항(良港)이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라도 남겨진 도시적 맥락을 찾아 이를 건축과 접합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태중**\_\_\_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의 마산은 촌락이었고 도시로서 성장한 것은 고작 50년밖에 안된



니다. 실제 진주, 창원, 마산을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50년된 마산의 도시공간도 실은 역사성이 있는 역사적인 결과물이거든요. 또한 앞서 말했듯이 지역민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역성의 답을 구해 앞으로의 도시건축에 적용해 봄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고성룡**\_\_\_ 요즘은 하드웨어보다는 휴먼웨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휴먼웨어로부터 지역성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창원의 도시건축의 발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훈**\_\_\_ 창원은 신도시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신세대적인 개념이 창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공간도 신도시라면, 젊음에 맞춘다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식을 많이 갖게끔 주변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서유석**\_\_\_ 창원이 다른 두 도시보다 풍부한 녹지와 잘 뚫린 도로망이 있고 국가기계산업공단이 위치하여 시 재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원은 휴먼스케일에서 벗어난 도시이며, 소위 뒷골목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잘 정비된 가로변에 오히려 시민은 전혀 걸어나가지 않는다는 부정적 측면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해서 개선할 것인가? 걷고 싶은 도시, 뒷골목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안재락**\_\_\_ 저는 어차피 지금 논하고 있는 지역성이든지, 역사성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얻어질 것 같지만 이것은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최근 여러 도시들이 풍물가를 조성한다든지 하여 나름대로의 특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쪽 모아 보면 똑같이 또 다른 획일화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의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일본의 몇몇 도시가 굉장히 노력해 정말로 나름대로의 도시이미지 형성에 성공하니 이내 제도화되고 다른 지역에서 모방하면서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경우를 보고 또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축의 발전을 보는 시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당연히 수용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에

가보면 시가지마다 특징적인 모습들이 보이지만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가진 것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건축가들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지역성을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적 틀의 규정에 적극 참여해야만 지역성이라는 것이 창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진주만의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제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철수**\_\_\_ 지역건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지역성 있는 건축이나 건축가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가들도 일반인의 애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문화에 대한 접근과 설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 정체성 추구에 대한 철저하고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성룡**\_\_\_ 지역건축가들이 일반인에게 좋은 건축에 대해 항상 얘기해 주고 이해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건축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도 도시나 건축에 위기가 많았는데 그 때마다 중요한 것은 대중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문화의 해'나 '시민을 위한 건축교실'의 시도는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긴 시간에 걸쳐 마산 창원 진주로 대표되는 경남 남부지역의 도시 현황과 특성 그리고 지역성이나 경남 남부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지역건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건축사회 박형규 회장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박형규**\_\_\_ 오늘과 같은 좌담이 경남건축사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화의 자리가 자주 있어 건축을 하는 우리자신부터 자기개발을 통해 의식개혁을 하고 경남건축을 위해 발전적인 길을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경남건축사회에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차세대 건축인물 양성하는 학교와 실무를 하는 건축사들이 함께 노력해 어떻게 지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기록 정리: 고성룡)

협회소식 / 111
건축계소식 / 112
현상설계 / 117
해외잡지동향 / 12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8
게시판 / 130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개최**

예비비사용 승인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제5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11일(화) 11시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협회 전사공간(1층 사무처공간 활용)시설 공사 및 공조기 수선을 위해 예비비 5천만원을 사용키로 함.)
- 제2호의안: 비품 폐기 및 매각 처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99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재물조사(99. 4. 26~5. 10)를 실시하고 사무용 장기 비품 및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 노후된 비품을 폐기, 매각 처분키로 함.)

(기타사항)

99한국건축문화대상 주최기관 참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및 서울경제신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면 이사회를 통해 참여 여부를 재협의키로 함.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 공모**

6월 25일까지 접수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는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 시상을 위한 작품을 공모한다. 아시아지역, 특히 아카시아 회원국들의 건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의 수상작은 제10차 아카시아포럼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며, 2천년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때 부문별로 시상할 예정이다. 작품은 아래 8개부문에 나누어 접수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상업용건물(오피스텔빌딩, 쇼핑센터) ▷휴양지·레저·호텔건물 ▷연구소·사회시설(커뮤니티센터, 종교건물, 병원 등) ▷특수건물(스포츠단지, 경기장, 공항 등) ▷산업용건물(공장, 창고 등) ▷보존프로젝트(복원, 보존재사용 등)

응모대상은 회원 건축사가 설계하여 최소 2년전에 시공된 작품이며, 제출자료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작품접수는 6월 25일까지 본협회 아카시아건축상 응모심사위원회로 하면 된다. 문의: 본협회 회원지원실(02-581-5711~4)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898명**

3,610명 중 24.9% 합격예정

지난 5월 9일 실시된 99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명단이 5월 20일 발표됐다. 이번 합격예정자는 예비시험 응시자 3,610명중 24.9%인 898명이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6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5일 실시한다.

## 서울건축학교, 99여름워크숍

무주군에서

서울건축학교 99여름워크숍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30여명의 건축가와 학생들이 모여 이 시대에 필요한 사고와 지역사회의 대한 관심 그리고 대안모색을 논하는 토론의 장으로 무주군과 전북대 건축과 교수진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튜디오투어는 다음과 같다.

권문성(아트리에17) 김석윤(김건축) 김승희(경영위치건축) 김영섭(김영섭도시건축) 김영준(이르재/김영준건축) 김원(광장건축) 김인철(아르키움건축) 김종규(마루건축) 김현(에다건축) 김홍일(위드건축) 민현식(기오현) 서혜림(힘마건축) 오성훈(공간건축) 임재용(오씨에이건축)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최문규(가건축) 최욱(케이퍼씨건축) 한만원(한도시건축) 황두진(티에스케이건축) 히로시 이나미(동경innami synthesize planning)

문의: 02-763-0471

## 99건축문화의 해 기념 GSAK 건축전시회(9906)

6. 21~27, 포스코센터에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오는 6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포스코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99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는 99-1학기 건축전을 개최한다. 13개의 디자인 스튜디오 학생의 봄학기 작품과 안에서 보는 건축, 드로잉, 건축과 사진 및 조형예술과정의 선정작품을 전시한다. 초청비평건축가로는 강장완, 서혜림, 황두진씨가 참여해 6월 21일(월) 09:30부터 오픈크리틱을 갖고, 이어서 전시 개막식을 갖는다.

디자인스튜디오투어

- 초급스튜디오: 한영경, 박홍서, 안창모, 헬렌박, 이일훈
  - 고급스튜디오1: 김준성, 이종건, 조택연, 김현태, 백문기, 유방근
  - 고급스튜디오3: 이강현, 민선주, 천의영, 이영범A, 이영범B
  - 건축기술구조투어: 박경수, 육동건, 정준희, 한영철
  - 건축역사이론투어: 정진원, 이종건, 김석만, 장두이, 정보원, 홍승명, 임정의, 김원식
  - 도시설계투어: 이상구
- 문의: 02-390-5245

## 건국대 건축대학원 전시회

99학년도 1학기

- CRITIC강사  
윤승중스튜디오: 임창복, 유원재, 김병현  
김원스튜디오: 이종호, 김영준, 이상해  
이정근스튜디오: 황일인, 김영섭, 이정만, 임석재  
김인철스튜디오: 서혜림, 최욱, 유방근  
유건스튜디오: 유태웅, 박재유, 민선주  
이상현스튜디오: 이종호, 조병수, 민규암  
장해철스튜디오: 김관석, 김준성, 안명제, 송인호
- OPEN CRITIC  
6월 18일(금) 14시: 이정근스튜디오, 유건스튜디오

6월 22일(화) 14시: 윤승중스튜디오, 김원스튜디오, 김인철스튜디오, 이상현스튜디오, 장해철스튜디오

- 전시회

일시: 1999. 6. 22(화)~6. 29(화)

장소: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로비

- 문의: 02-450-3286, 3287

## 제5회 안암건축포럼

'현대사회에서의 건축가의 역할' 주제로

안암건축포럼(회장 김창수)에서는 지난 5월 13일(목) 저녁 7시부터 서울 리베라 호텔 15층 피어니홀에서 '현대사회에서의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건축가 김정철(정림건축)을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 경기대 건축공학과 작품전시회

창립20주년기념 6월 26일(토)부터 7월 2일(금)까지

경기대 건축공학과에서는 오는 6월 26일(토)부터 7월 2일(금)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플러스갤러리(02-557-9286)에서 작품전시회를 갖는다. 26일 오전 10시부터는 김병운(백제예술대교수)씨와 이상현(건국대 건축대학원교수)씨가 비평건축가로 참여하는 오픈크리틱 시간을 갖는다. 전시디렉터로는 우경국(서울캠퍼스), 도창환(수원캠퍼스)씨가, 준비위원으로는 조병수, 김동욱, 전성남, 이갑조, 이상우, 정진원, 이상구, 김준성, 우경국, 도창환씨가 참여한다.

주제: Cross over

대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일대 / 수원  
성 주변

내용: 이 시대 보편적 문화현상의 하나인  
Cross over 현상을 건축적 시각을  
통하여 재해석하고 그 방법을 주어진  
대지와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자  
건축화시키는 작업

## 단국대 건축공학과 건축전

제31회 졸업작품전

단국대 건축공학과에서는 '21C 서울 네  
트로폴리스-용산국제업무도심계획' 이라는  
내용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1차전시-1999. 5. 19~22(단국대/서  
울 중앙도서관)

2차전시-1999. 5. 24~29(국제센터빌  
딩1층 로비/용산역)

## 한서대 건축공학과 건축전

창립20주년기념  
6월 26일(토)부터 7월 2일(금)까지

한서대 건축공학과에서는 지난 5월 25  
일(화)부터 5월 29일(토)까지 연암관  
1층 전시실에서 '해미2002 해미의 비  
전' 이라는 주제로 제2회 건축전을 개최  
했다.

## 이스라엘의 현대건축 전시회

지역성과 현대의 만남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과 이  
스라엘의 문화교류 협력을 도모하기 위  
한 '이스라엘 현대건축 전시회'가 지난 5  
월 17일(월)부터 29일(토)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6전시실(지하1층)에서 열  
렸다. 이번 행사는 99건축문화의 해 조  
직위원회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공  
동 주최했으며, 이스라엘의 주요 공공건  
물(국회의사당, 시청, 대학건물 등)을 비  
롯해 시나고그(유대회당), 가정집, 아파  
트건물과 예술 건축물 등이 전시돼 이스  
라엘의 다양한 건축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8일  
부터 12일까지 울산문화회관에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전남대 용봉전시관  
에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주대  
학생회관에서 각각 순회전시가 있을 예  
정이다.

문의: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02-  
762-8090, 주한이스라엘대사관 02-  
564-3448

## 전국 대학생 디자인 캠프

7월 2일(금)부터 9일(금)까지 목원대에서

대한건축학회 국내지회위원회는 건축문  
화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대학  
생 디자인캠프를 목원대학교에서 오는 7  
월 2일(금)부터 9일(금)까지 7일간 개최  
한다. 목원대학교와 지회위원회 산하 전  
국대학 건축디자인 캠프 운영위원회 공  
동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특히 목원  
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의 교육부 지정  
특성화 지원학부 선정의 일환으로 개최  
된다. 전시는 오는 7월 19일(월)부터 24

일(토)까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6월 20일부터 인터넷 목원대학교 건  
축도시공학부 홈페이지(<http://mwis.mokwon.ac.kr/maus>)에 공고.

## 청주국제건축디자인캠프

7월 5일(월)부터 11일(일)까지

99건축문화의 해 충청북도추진위원회에  
서는 지역의 문화재 주변환경의 문제를  
주제로 국내외의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국제건축디자인캠프를 오는 7월 5일부  
터 11일까지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등  
에서 문산, 개최한다.

참가자

건축·도시·조경 및 관련분야의 대학원  
생 및 실무자 튜터 지도하에 1개팀별 4  
~6인으로 총 60명 각 팀별로 학생부 2  
인까지 읍저버로 참가 가능

주제

- 도심광장 계획 및 주변환경개선
- 기존건물 건축계획 및 리노베이션·파  
사드 정비
- 중앙공원+성안길+철당간광장이 연계  
된 문화거리
- 도심속의 전통성과 현대성

장소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국립청주박물관

청주예술의전당

강연자와 비평가

니시무라(일본) 도쿄대 교수

기타하라(일본) 지바대 교수

탕쉐산(중국) 북경임업대 교수

최효승(한국) 청주대 교수

각팀 튜터 및 건축가

문의

준비위원회(전화 0431-229-8477)

## 제4회 목조건축학교

7월 5일부터 17일까지  
대전 한우리쉼터에서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에서는 오는 7월 5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 동구 한우리 쉼터에서 2×4목구조건축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인 제4회 목조건축학교를 개설한다. 이론강좌와 2×4목구조주택의 시공실습이 병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다락방을 포함한 30여평 규모의 목구조 주택을 약2주만에 건축할 예정이어서 매우 강도높은 교육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목구조 주택은 완공 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 배려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실내 부분 마감 디테일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 이번 연수과정에서 건축될 2×4목구조 주택 실습 건축물은 장애인 보호단체인 한우리 쉼터에 기증되어 장애인용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7월 5일까지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전화 02-722-3686) 또는 한국목조건축협회(권은정, 전화02-574-9364)로 하면 된다.

## 99건축사진 여름 워크숍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충무로 카파사진교육원에서

한국건축사진가협회(회장 임정의)와 카파사진교육원(원장 강홍수)에서 공동 주최하는 99년 건축사진 워크숍이 오는 6월 30일(수)부터 7월 3일(토)까지 서울 충무로 카파사진교육원에서 개최된다.

〈교육프로그램〉

- 건축과 사진의 접점... 빛과 공간/임정의(청암건축사진연구소)
- 소형카메라를 통한 건축 및 인테리어의 표현/김재경(프리랜서) 김재윤(현대건

축사진기자)

- 건축, 인테리어 사진에서 필요로 하는 테크닉/김경호(CE스튜디오) 박영채(프리랜서)
  - 건축물의 투시적 조절(Perspective Control)/김태오(간스튜디오) 이인미(프리랜서)
  - 대형 카메라를 이용한 건축의 표현/강일민(프리랜서) 엄승훈(CAMP스튜디오) 강용관(프리랜서)
  - 조명으로 재연출된 사진... 모형, 패널/조태룡(프리랜서) 백은열(인테리어사진 프리랜서) 박완순(건축세계 사진기자)
  - 공간성을 중심으로 한 고건축, 현대건축물의 촬영 실습/류경수(프리랜서) 조명환(프리랜서) 문정식(플러사사진기자) 이기환(건축문화사진기자) 류정훈(프리랜서)
  - 암실에서의 흑백 현상, 인화 실습/김재경(프리랜서) 박영채(프리랜서)의 4명
  -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과 그 표현방법/강홍수(KAPA원장)
  - 보다 진보된 건축사진 및 송평/점점웅(정스튜디오) 강홍수(KAPA원장)〈초빙건축가 프로그램〉
  - 이일훈(후리건축대표)/집짓는 이야기/6월 30일 오후5시
  - 민선주(위가건축)/실체(實體)와 상(像)/7월 1일 오후5시
  - 박명덕(동양공전 건축과 교수)/한국건축을 어떻게 볼 것인가/7월 2일 오후 5시
- 문의: 한국건축사진가협회(전화 02-567-2700)

## 제11회 대전광역시건축상 작품공모

건축대전, 건축상 2개 부문

이번 제11회 대전광역시건축상은 대전시 주관으로 10회에 걸쳐 시행해온 대전광역시 건축상을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주관으로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과 통합,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대전지역 건축문화를 결산하는 건축축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 출품자격

- 건축대전부문: 제한없음
- 건축상부문: 응모건축물의 설계자(건축사)
-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한 시공자)

- 응모대상작품

- 건축대전부문: 건축(탑포함)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으로 주제는 자유로이 하되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상부문: 95.1.1~99. 9. 9.까지 시공완료(예정)된 대전광역시 관내 건축물(주용도)로서 건축상에 응모한 적이 없어야 하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 또는 동법25조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설계자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작품규격

- 건축대전부문: 패널/100cm×200cm 이내, 모형/90cm×90cm×90cm이내
- 건축상부문: 패널/100cm×200cm이내(작품명, 작품전경사진)(60cm×50cm)배치, 평면, 입면을 포함하여 표현하되 2매이내로 제한함.

※ 패널들은 나무로 제작하고, 유리 부착 금지, 규격이외의 작품은 접수치 않음.

- 제출서류: 응모원서1부(건축상은 타시도 등록건축사, 건설회사의 경우 등록 확인서류 첨부)

- 심사: 별도심사위원회 구성

- 발표: 1999. 9. 11(토) 오후6시

- 시상

건축대전부문/

-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상(5점): 상장 및 상금
- 특별상(2점): 상장 및 상금(장애인 시설 계획이 우수한 작품의 1점)

• 특선(약간): 상장

• 입선(다수): 상장

건축상부문/

- 금상(1점): 상패(설계자, 시공자) 및 상금 200만원(설계자)

• 은상(1점): 상패(설계자, 시공자) 및 상금 150만원(설계자)

• 동상(1점): 상패(설계자, 시공자) 및 상금 100만원(설계자)

※ 심사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 시상일시 및 장소: 1999년 9월 13일 오전 11시 대전시립미술관 강당

- 전시구분: 건축대전 및 건축상

- 전시장소: 대전시립미술관 강당

- 전시기간: 1999. 9. 13(월)~9. 19(일)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 6. 1 ~ 9. 9. (접수시간: 13시~17시)

- 원서교부처: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사무소 (042-257-0004, 522-3314) 대전광역시 건축과(042-250-3464)

- 작품접수처: 대전시립미술관내 건축대전 및 건축상 작품접수처

## 부림캐드네트워크, 11개도시 Architects2000 로드쇼 개최

6월 8일부터 24일까지

(주)부림캐드네트워크는 관계사인 부림에이디프로 7개 지사 및 부림소프트 5개 지사와 함께 전국 11개 도시에서 Architects2000 로드쇼를 개최한다. '건축사사무소의 새로운 2000년 준비...'라는 부제를 달고 거행되는 이번 행사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건축사사무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별히 미래의 건축사사무소를 그대로 옮겨놓고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업무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차세대 건축캐드프로그램인 피라미드2000의 내용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전 10시 40분부터 2시간동안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더불어 기존 개발상품인 오토플랜과 오토피라미드가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다. 로드쇼 개최일정은 다음과 같다.

8일 인천뉴스타호텔, 9일 수원캐슬호텔, 10일 원주웨딩타운, 11일 대전리베라호텔, 15일 부산롯데호텔, 16일 창원호텔, 17일 울산코리어나호텔, 18일 대구그랜드호텔,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23일 광주신당파크호텔, 24일 제주KAL호텔

## 김인수 사진전 개최

풍경여행 - 유럽의 정원예술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에서는 르네상스부터 최근까지 대표적인 유럽정원의 모습을 외부환경 전문가인 작가 김인수의 시각에서 조정 및 건축적인 특성을 살려 사진으로 표현한 것을 지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플러스갤러리에서 전시했다.

문의: 환경조형연구소 02-743-0074

## '건축장인의 꿈과 꿈' 특별전

4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아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건축장인의 꿈과 꿈' 특별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건축유품 주의 건축사 조명에서 벗어나 건축물을 완성시킨 건축장인과 그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한 연장들을 선보였다. 장인들의 꿈이 배어있는 연장과 함께 이들의 마음으로 이룩된 화성, 종묘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을 통해 오늘날 가져야 할 진정한 장인정신과 책임있는 건축문화를 되새길 기회가 됐다.

## 원도시 건축아카데미 「2050」

12월 16일까지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주)원도시건축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본질을 찾아 인간사회가 수용해야 할 새로운 세기의 상황과 건축이 대상으로 해야 하는 각 분야들의 변화를 예견하는 공개 세미나 「2050」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설계조직의 교양확장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8일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가 건축에 관한 주제로 시작, 매월 첫째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원도시건축 지하1층 홀에서 12회로 구성, 열린다. 건축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일자	분야	강사
4/8	건축	이상해(성균관대)
5/13	역사	한정숙(서울대)
6/3	생명과학	평상익(서울대)
6/10	인류학	송도명(시립대)
7/1	철학	김상환(서울대)
8/5	건축	임석재(이화여대)
9/3	과학사	임경순(포항공대)
9/9	미술사	노성두(고려대)
10/7	미학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11/4	대중문화	이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12/2	철학	이종관(성균관대)
12/16	종합세미나	좌장: 이상해

문의: 02-543-4977

##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 입법예고

풍치지구에 업무용빌딩 신축허용 등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풍치지구에서도 일반 업무용 빌딩이나 학원·작업후련소 등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에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종교 시설 내에 설치하는 남골당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구역의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 구조상 위해 우려가 있는 기존건축물의 개축이나 이미 재해를 입은 건축물의 개축시 견뎌율을 20% 더 올려주고, 상습침수지역인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기준을 2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반시민 의견조치를 6월 9일까지 마치고,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회: www.kira.or.kr 협회홈페이지 → 시도건축사회 → 서울)

## 가칭「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 창립 및 토론회 개최

6월 15일(화) 14시에  
우리협회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축법제연구회(회장 최찬환)에서는 개정된 건축 관련법에 대한 평가 토론회와 가칭「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창립 총회를 개최한다.

### - 토론회

- 일시: 1999. 6. 15.(화) 14:00~18:00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주제: 최근 규제개혁완화와 관련하여 개정된 건축관련법에 대한 평가 토론회
- 제1주제/국토이용·도시분야: 유해웅박사(국토개발연구원)
- 제2주제/시공·감리분야: 현창택교수(서울시립대)
- 제3주제/주책·건축분야: 김도년박사(서울시 시장개발연구원)
- 좌장: 최찬환교수(서울시립대)
- 토론자: 김상식(부림건축), 김인호(국방부건설기술과장), 한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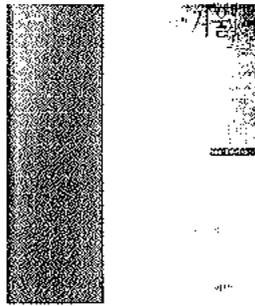
(건설교통부), 김영하(단국대학교수), 최병선(경원대학교수), 정석희(국토개발연구원)

### - 창립총회

- 학회명: 가칭「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
- 일시: 1999. 6. 15.(화) 18:00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회비: 2만원

## 건축신간안내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AutoCAD2000Bible



### ◇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이 책은 한 젊은 건축사가 건축하는 이의 내면의 느낌과 감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문(散文)과 시(詩)로 정리한 책이다. 1부 '건축이야기'에서는 건축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비롯하여 건축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2부 '건축시'에서는 개업후 주요작품을 진행하면서의 느낌을 적은 시와 스케치를 함께 엮었고, 3부 '건축표현'에서는 계획안을 비롯하여 준공된 건축물의 사진과 건축을 함께 해나가면서 건축주, 관계공무원, 컨설턴트, 시공자 등에 대한 고마움의 정을 담은 글이다. 지은이는 "어쩌면 너무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었지만 그간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건축설계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살아가야 할 후배들에게 한 선배가 실제로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일상의 여러 감정과 흔적을

전하여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건축을 사랑한다는 것이 때론 더 힘들고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피곤함, 야근, 자책, 혼돈, 주변상황의 변화 속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건축하는 사람의 애환과 감정의 기록으로서 이 시대 젊은 건축사가 겪어야할 고뇌와 이겨내야할 건축 주변환경과 격려해주고 도움을 받았던 여러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기억 등 격변의 시기를 살아온 젊은 건축사가 해결할 것을 요구받았던 많은 문제들과 고민하는 건축사의 감정의 흐름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홍완기(우건건축) 지음/149쪽/6천원/  
시공문화사(02-737-3930)펴냄

### ◇ AutoCAD2000Bible

1999년 5월 AutoCAD의 최신 버전인 2000이 미국 오토데스크사에서 출시되었다. 이 버전에서는 설계용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수의 설계 도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2000은 객체 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여러개의 도면을 한꺼번에 띄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다중 문서환경(MDE: Multi-Document Environment), 외부 참조도면이나 이미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오토캐드 디자인센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사용자에게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객체 지향형 캐드이며 세계 캐드시장의 선두주자인 오토캐드2000 사용자를 위한 지침서로, 초보자들에게는 오토캐드 사용의 기초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해주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중급 사용자에게는 고급 사용자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며, 전문가에게는 다른 책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오토캐드만의 독특한 사용자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비전커뮤니케이션즈프레스/650쪽  
/2만원/도서출판 비컴프레스(02-564-9664)펴냄

##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하상교육회관

월계1동 어린이집

의정부 우편집중국

### 하상교육회관

Education Center of Hasang

천주교 대전교구청에서는 교구간 교류확대와 신지는 물론 일반인의 피정, 수양, 교육을 수행할 하상교육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했다. 특히 대종국·대북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하상교육회관은 지난 3월 15일 지명(5개) 설계경기로 치뤄져 당선작에 동우건축(김태인)안이, 우수작에 한밭건축(이영순)안이, 가작에 씨앤유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 ▶ 당선작 / 동우건축(김태인)



조감도

대지위치	중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263-3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학교시설용지
연면적	8,105㎡
건축면적	4,764㎡
건폐율	2.61%(전체면적대비)
용적률	4.44%(전체면적대비)
층수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지붕일부 철골트러스
외부마감	신토석벽돌기암/외부용 입체 무늬 페인트/동판지붕

#### 설계개념

하상교육회관은 교회내 공동체 일치를 위한 교구간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상징적 지위확보와 함께 대종국 및 대북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기반시설로서, 성직자와 신지는 물론 일반인의 피정, 수양, 교육을 위한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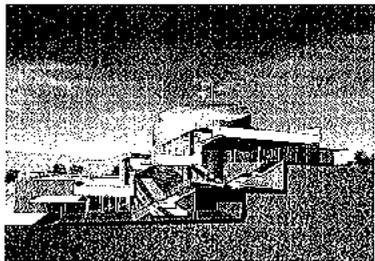
이 계획안은 대상부지가 대전가톨릭대학교 부지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캠퍼스시설과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는 공간과 기능의 제시도 필요하다. 또한 복합시설(종교시설+교육시설+숙박시설)로써 각 기능간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의 계획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배치계획은 숙박시설을 독립시키고 나머지 시설을 묶어 2개의 동(숙박시설동+집회·지원시설동)으로 시설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숙박시설은 '디'자 배치를 통해 독립적인 외부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그리고 집회·지원시설동은 자연지형과 인공지형이 공존하는 땅의 형상을 최대한 살리면서 농촌지역의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매스는 부지내의 골짜기를 따라 스텝형으로 구성하여 전방의 경관확보와 함께 자연지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매스의 전면에 야외미사장, 목주기도처, 수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내부에서의 조망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능동적인 외부공간을 연출해 내었다.

건물로의 진입동선은 차량진입이 제한되는 중앙광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곧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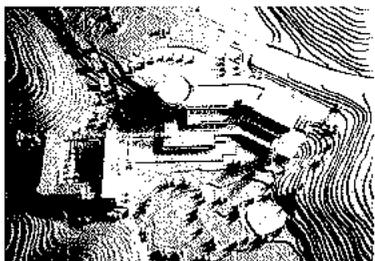
중앙홀로 연결된다. 중앙홀은 1~3층에 걸쳐 오픈(Open)된 공간으로서 점진적인 시선의 구축을 통해 극적효과를 만들며 종교시설의 엄숙함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효율적인 동선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개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식당은 전체시설의 중앙에 배치하였으며, 사용그룹별로 분할이 가능하게 하여 내부동선의 효율적인 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수공간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외부공간과 연계된 식당내의 쾌적함을 도모하였다. 숙소는 1~2인실 2.7×7.2m, 4~6인실 3.3×8.1m의 모듈을 기본으로 하여, 층별, 방위별 조닝을 통해 운영상의 효율성을 바탕에 두고 계획하였으며, 실들의 중간에 알코브나 휴게실을 배치하여 복도의 협소함을 해결하여 풍부한 공간체험이 가능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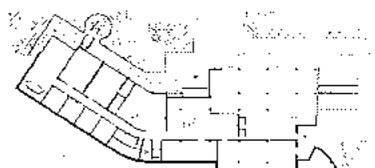
건물의 전체적인 입면은 신토석 벽돌쌓기와 동판지붕을 사용하여 기존 대학시설과의 이미지상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유지·보수상의 문제를 용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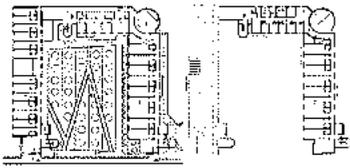
중앙홀 단면투시



모형도



집회, 지원시설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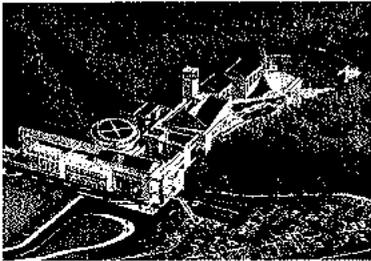


숙소동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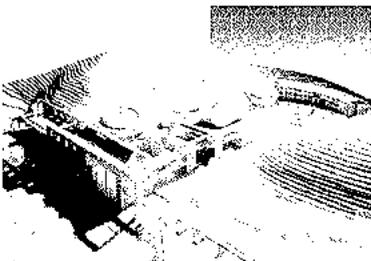


단면도

▶ 우수작 / 한밭건축(이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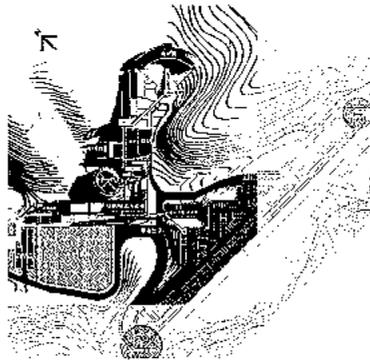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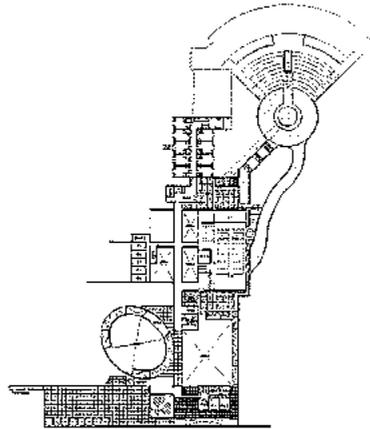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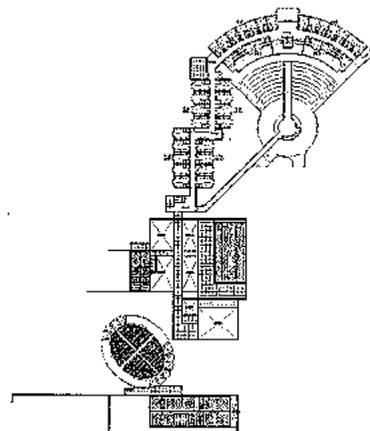
대지면적	182,470㎡ (55,197.16평)
연면적	8,180.44㎡ (2,474.58평)
건축면적	4,109.78㎡ (1,243.21평)
건폐율	8.30%
용적률	15.98%
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외벽	화강석/적벽돌/합성수지 에 밀전페인트
창호	두께 18mm 컬러복층유리
지붕	동판거말집기



배치도



Level 3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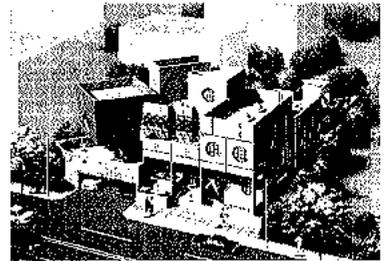
Level 4 평면도

월계1동 어린이집

Children's House, Wolgye 1-dong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설계경기를 실시, 접수된 총 13개 작품 가운데 (주)시원건축(오재룡)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3월 25일 발표했다. 가작으로는 종합건축 석영(신석순)안과 (주)고려 종합건축(류병욱)안이 선정됐다.

▶ 당선작 / 시원건축(오재룡, 최형욱)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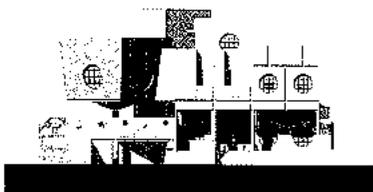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411-4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462㎡ (139.75평)
건축면적	276.60㎡ (83.67평)
연면적	554.31㎡ (167.67평)
건폐율	59.87%
용적률	89.86%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
외부미감	컬러벽돌+드라이비트+ 18mm 복층유리
설계담당	최형욱, 신동찬, 이용상, 제 대성, 김관기, 김희경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하며 항상 현장을 찾아보면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의 존재를 접하게 된다. 그 땅을 보면서 만들어갈 유무형의 형태와 공간은 주어진 용도와 환경, 그리고 장소의 역할들이 어우러져 세상에 태어나고 사용하게 되듯, 이 프로젝트는 영아 및 유아들의 생활공간으로써 영아유아의 본능적인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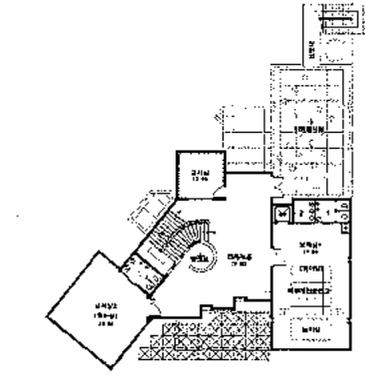
태 및 자아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부지가 갖고 있는 특성은 어쩌면 수용해야 할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척 버려질 공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야 할 정도로 해석이 어려운 형태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제약적 조건이 주어진 용도에 맞는 다양한 체험적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요소로 조합되기 위해선 우선 토지이용의 조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반되어야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부공간들은 작은 공간이지만 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어지게 다양한 높이공간의 스킵 플로어가 만들어졌고, 각 공간의 새로운 체험과 실험으로 이루어지는 친숙한 조형으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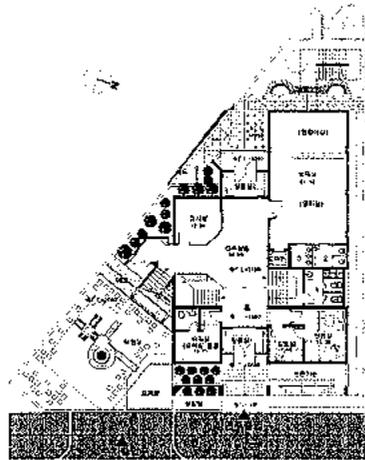
영유아들의 순수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들만의 생각, 행위 등 나타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기능과 조형. 이것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전제로서 인식하였다. 걷다 넘어져도, 뛰다 뒹굴어도, 위험적 요소가 아닌 체험적 요소로서 만지고 쌓으며 이동함으로써 느끼는 창의성 있는 실험 및 상상적 요소는 내부 및 외부 공간에서도 만들어 보았으며, 전통적 매개공간인 마당의 개념 도입부부터 앞마당을 거쳐 안마당(유원장), 다시 정점으로부터 뒷마당(미로)은 그 공간이 갖는 특징들을 명확히 표현하려는 흔적들로서 영유아들의 시간대적 생각과 호기심, 신체적 변화에 의한 활동적 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월계1동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능동적인 인성교육과 그 지역의 특화된 유아교육의 질 좋은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 공간으로서 살아숨쉬는 장소로 제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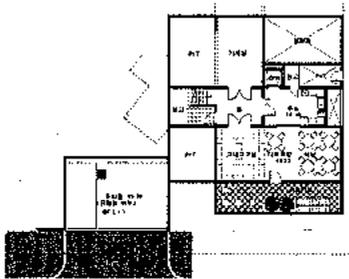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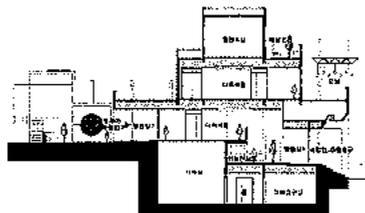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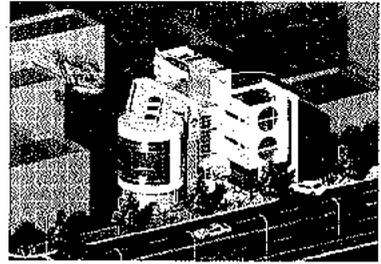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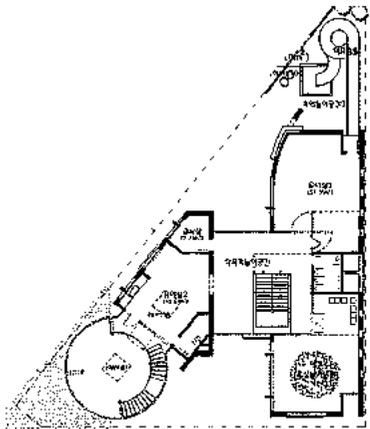
단면도

▶ 가작 / 고려종합건축(류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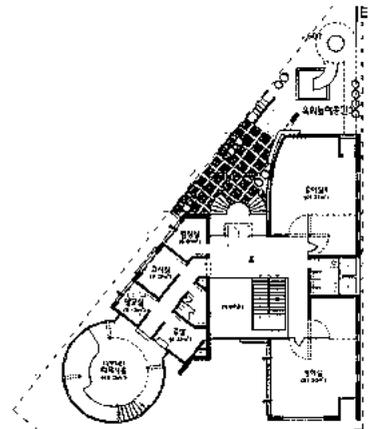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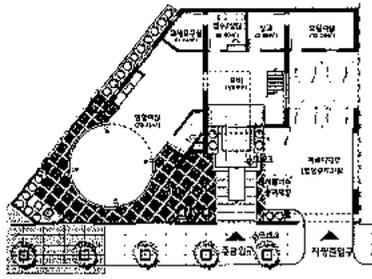
대지면적	462㎡
연면적	553.69㎡(167.49평)
건축면적	262.57㎡(79.43평)
건폐율	56.83%
용적률	87.5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외단열 시스템, 알루미늄 패널, T18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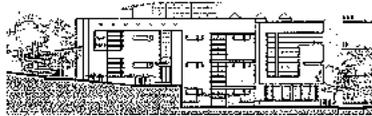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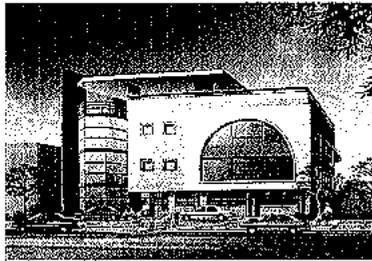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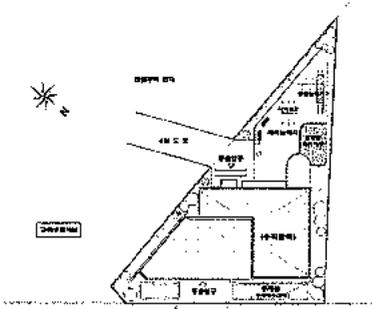
남측 입면도

▶ 가작 / 종합건축 석영(신석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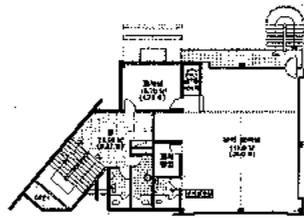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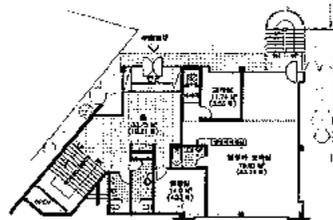
대지면적	462㎡(140평)
연면적	553.56㎡(167.51평)
용적률	82.47%
건축면적	190.52㎡(57.63평)
건폐율	41.23%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프레스 코트(드라이 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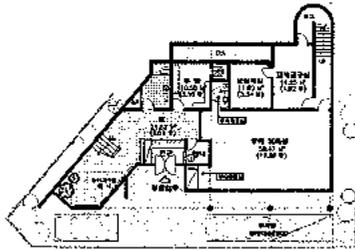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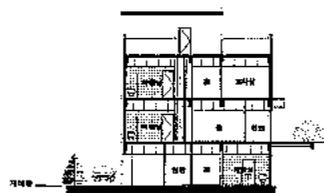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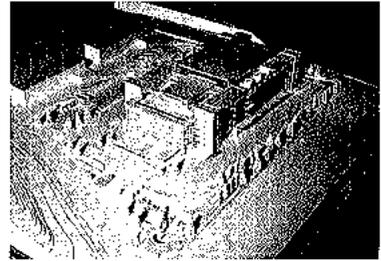
종단면도

의정부우편집중국

Master Post Office of Uijungbu

정보통신부에서는 서울 경기북부지역의 우편물을 수집하여 자동처리시스템으로 분류, 발송하는 기능 중심의 의정부우편집중국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4월 14일 동우건축(이용익)+현대건설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9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설계경기의 2등작은 희림건축+대우건설안, 3등작은 엄이건축+두산건설안, 4등작은 종현건축+삼성건설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동우건축(이용익)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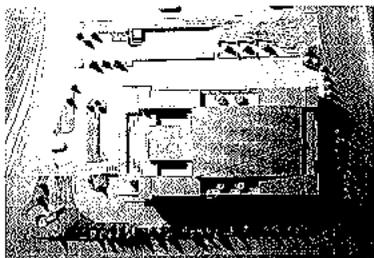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20-1 (용현지방산업단지내)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용현지방산업단지
대지면적	26,395.75㎡(7,985평)
건축면적	8,364.15㎡(2,530.15평)
연면적	34,292.50㎡(10,357.75평)
건폐율	31.69%
용적률	98.45%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의정부 우편집중국은 서울경기북부지역의 우편물을 수집하여 자동처리시스템으로 분류, 발송하는 기능중심의 작업장 건물이다. 사업부지는 3면이 도로에 면해있으며 비교적 빈듯한 모양이나 인접도로와 함께 다소 고저차(약 18m)가 심한 조건이다. 먼저 건물은 토지이용효율과 부지레벨을 고려하여 남북방향으로 배치하고, 전면을

넓게 확보하여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건물전면 15m 도로측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였는데, 우편차량과 일반승용차의 동선을 엄격히 구분하고 일 방향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내부에서는 사무공간과 작업공간을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건물형태는 기능에 따른 매스를 단순히 조합하여 구체화하였는데, 공공건물 이미지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위계적인 매스감과 스카이라인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구조 형식은 작업장 내 우편기계설치와 구조체의 노출 등을 고려하여 격자보형식의 철근콘크리트조를 채택하였으며, 지하층수를 최소화하고, 기계전기실을 매립층에 위치시켜 토공사비를 절감하였다. 이 밖에도 작업장 내에서의 분진제거를 위해 하부급기/상부배기의 공조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충분한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구부의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내를 적극적으로 녹화하여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인접한 공원 및 공개공지와 연계되는 녹지축을 구성하여 도시환경 차원에서 단지 주변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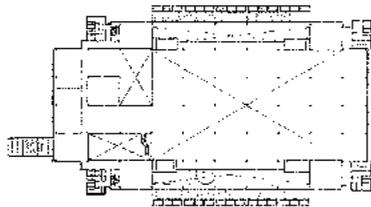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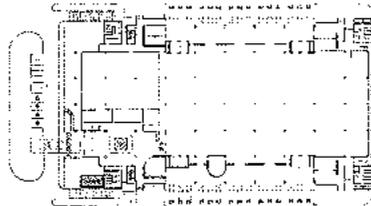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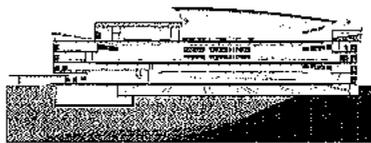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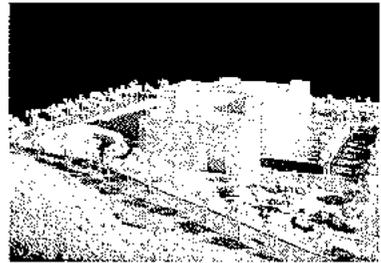
단면도

▶ 우수작 / 희림종합건축(이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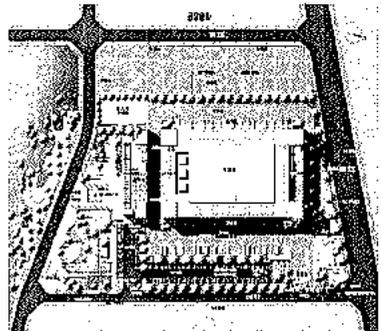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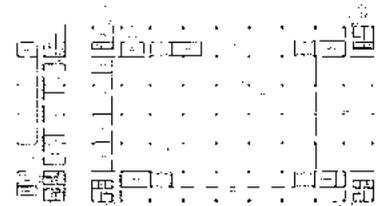
대지면적	26,395.75㎡(7,984.71평)
건축면적	7,948.09㎡(2,404.30평)
연면적	33,946.90㎡(10,268.94평)
건폐율	30.11%(법정 80%)
용적률	102.21%(법정 300%)
공개공지	1,350.90㎡(법정 1,319.79㎡)
조경면적	4,986.30㎡(법정 3,959.36㎡)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외부마감	사무동: T18mm LOW-E 복층유리/T3mm 알미늄시트 공장동: T18mm 컬러복층유리/T1.6mm 스틸패널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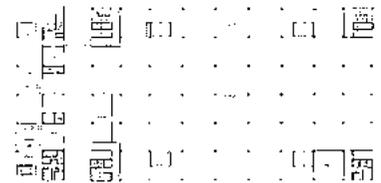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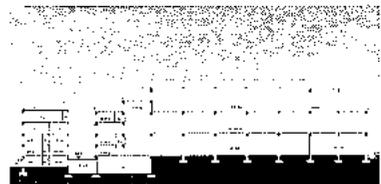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단면도

- Architectural Record
- The Architectural Review
- Domus
- World Architecture
- 建築文化
- a+u
- 新建築

##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4월호

주택특집으로 이루어진 이번 호는 실험적인 성향이 짙고 조립식으로 지어질 수 있는 소규모 주거기능의 파빌리온

을 소개하였으며, 주위맥락의 반영, 재료의 사용, 건축구성면에서 독특함을 지닌 주택을 다각도에서 조명하였다. 또한 MoMA에서 열리게 될 전시회 "Un-Private House"에 대한 기사에서는 전시되는 작품과 그것에서 보여지는 공간적 성질, Mies로부터 이어지는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 ■ 다섯개의 파빌리온

여기에 소개된 파빌리온들은 거주기능을 지닌 소규모 건물로서, 조립식 건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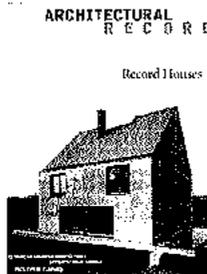
명상을 위한 휴식처, 이문을 펼치기 위한 실험적인 프로젝트, 보트하우스, 레일 위로 이동 가능한 주택, 강 위로 캔틸레버에 의해 매달려 있는 유리박스형의 주택, 손님용의 작은 오두막집 등이 소개되었다.

▶ Hans Peter Wörrndl의 Guckhüpf 파빌리온은 힌지로된 플라이우드 패널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램프, 여닫이 문, 들어올리는 문, 발코니 또는 창문 등으로 변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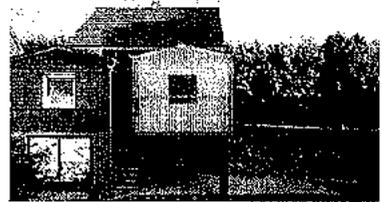
삼층 높이의 내부공간은 지붕데크와 작은 방 아래에 조성되었다.

현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조류 관찰대, 보트 창고, 연주회, 파티, 독서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 Kalthöfer-Korschildgen의 독일 Remscheid-Lüttringhausen 실험주택의 건축주는 2층에 거주하는 60대 노인이



나갈 경우 작업실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스틸 프레임에 레일을 부착하여 성인 두명의 힘으로 쉽게 위치이동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여름에는 부속건물이 스틸로 된 맥크위로 분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겨울에는 다시 붙여놓아 외투를 입지 않고도 부속건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플라이우드로 된 내부미감과 단열제는 제거가 가능하여, 온실로 변형될 수 있도록 하였다.



Kalthöfer-Korschildgen의 독일 Remscheid-Lüttringhausen

### ■ 건물유형 연구 - 주택

건축에 앞서서, 장소에 대한 강렬한 감각이 각 작품에 있어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주위환경의 형태와 텍스처를 환기시키는 은유는 Will Bruder의 아리조나 Byrne 주택, Brit Anderson의 호주동부 Rosebery 주택 등에서 나타난다. Ando Tadao의 미술관 같은 Chicago House는 형태적으로는 도시의 지붕들과 대화를 나누는 한편, 내부지향적인 격리된 영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주위 맥락에 대한 고려 대신에, 다른 곳에 집중한 건물들로서, 평범한 재료를 정밀한 목공기술과 결합한 Shim Sutcliffe Architects의 토론토, Craven Road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Herzog & de Meuron의 프랑스 Laymen 소재 주택

이 건물은 고전적인 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비전통적인 재료인 콘크리트 단일체로 이루어졌다.



Herzog & de Meuron의 프랑스 Laymen 소재 주택

약간 경사진 대지로 인해, 필로티에 의해 떠있는 플랫폼 위에 집이 얹혀있는데, 이것은 마치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동시에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처리는 건축 아래로 땅이 자유로이 흘러감을 보여 주며, 콘크리트 재료의 육중함과 들어올려져 있는 상태가 보여주는 가벼움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 ■ MoMA의 "Un-Private House" 전시회

Terence Riley가 전시기획을 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게 될 이 전시회에서는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과 최근의 건축적 변혁을 반영하는 세계 각국의 건축가의 주택작품 26개가 전시된다.

각 작품은 공통적으로 투명성, 유동성, 공간적 펼쳐짐 등의 공간적 특징을 보이면서 경계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Un-Private House"라는 전시회 제목이 붙여지게 되었다.

또한 전시된 작품은 재료사용의 감각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Mies의 영향이 발견되고 있는데, 현 건축가들은 유리의 사용이 단순히 거주자가 밖을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도시적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안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므로써 Mies의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4월호

이번 호는 Daniel Libeskind의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과 현상적이고 구축적이며 물질적인 Benson

Forsyth Edinburgh의 스코틀랜드 박물관을 비교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와함께, 리오시 해안 경관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으며 해안절경의 전망과 전시가능을 위한 외부로의 조망차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Oscar Niemeyer의 Rio de Janeiro 미술관을 소개하였다. 또한 Rafael Moneo의 스페인 Don Benito 문화센터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세히 다루었다.

#### ■ 두 개의 박물관 - 유태인 박물관과 스코틀랜드 박물관



박물관이라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도시와의 관계나 소장 작품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을 보여주는 두 사례로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며 은유적인 Daniel Libeskind의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과 현상적이고 구축적이며 물질적인 Benson + Forsyth의 Edinburgh 스코틀랜드 박물관이 소개되었다.

도시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앞의 작품은 매우 개념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Libeskind는 베를린시 지도에 나타나는



유태인 문화운동의 중요지점들을 연결한 선에 의미를 두고, 그것들을 건물의 입면과 평면의 개구부로 구체화하였다. Edinburgh에 있는 미술관에서는 각각의 개구부들이 구체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 성루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전통적 중요성을 상징)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을 프레임에 담고 있다.

전시동선에 있어서는 Libeskind의 건물은 아래층에서만 경로의 선택이 가능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아래층에서 세 개의 경로-Holocaust Tower, Hoffman 정원, 갤러리로 이어지는 계단-가 나타난다.

그러나 갤러리 층에서는 주경로 이외의 경로가 스코틀랜드 박물관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방문객은 길고 좁은 판을 진행하게 되며, 보이드를 지나는 곳은 매우 드라마틱하지만 위층에서는 접근이 안되도록 되어있다.

#### ■ 작품소개

##### ▶ Oscar Niemeyer의 Rio de Janeiro 미술관

리오데 자네이로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는 접시모양의 이 미술관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름 9m의 줄기역할을 하는 원통형에 반지름 18~20m의 접시형태가 캔틸레버로 매달려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구불구불 휘어진 램프는 부두에서 건물을 둘러싸는 폴라자를 연결한다. 접시형태의 본체는 3개 층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아래부분은 사무실로 쓰이고 위의 두 개 층이 갤러리로 사용된다.

가장 위층은 기획전시와 설치작품을 위한 부분이며, 중간층에 소장품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Niemeyer는 원형공간 코어부분에 육각형 평면의 파티션을 두어 유동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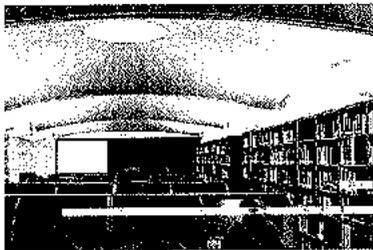
이 파티션은 경우에 따라서 예술을 압도

하는 리오시의 파노라마를 가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밖에 ▶ Lawrence Nield의 호주 Sunshine Coast 대학 도서관 ▶ Juan Navarro Baldeweg의 Princeton 음악도서관 등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 인테리어 디자인

▶ Rafael Moneo의 스페인 Don Benito 문화센터



내부 디자인은 Moneo의 빛과 재료 처리의 독특함으로 특징지어진다.

건물은 극장과 그 상층부에 도서관을 두고 일련의 부속실에 의해 두 면이 둘러싸이는데, 빛을 건물 안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점이 디자인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부분이었다.

지붕위로 솟아있는 10개의 천창이 갤러리 부분에 빛을 제공하며, 도서관과 기록보관소 부분에는 거대한 백색 튜브를 통해 나머지 빛이 전달된다.

백색 튜브를 통한 빛은 플라이우드로 된 휘어진 천장 판에 다다르면 빛이 확산되어 책을 읽기에 적당한 조명환경을 연출한다.

그 밖에 ▶ Studio Gron의 스웨덴 Gothenburg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 Domus

1999년 3월호

이번호는 각 국가들이 뚜렷한 정체성과 독자성을 지니지만, 오늘날 다시 연합하고 있는 지중해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산업디자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지중해 지역 건축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읽는 것과 현실속에서 현재를 읽어내는 이중적인 독해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Nadim Karam의 베이루트, 환경조각물과 이태리의 디자인업체, Olivetti사의 디자인과 디자인철학을 소개하였다.



건축, 산업디자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지중해 지역 건축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읽는 것과 현실속에서 현재를 읽어내는 이중적인 독해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Nadim Karam의 베이루트, 환경조각물과 이태리의 디자인업체, Olivetti사의 디자인과 디자인철학을 소개하였다.

### ■ 지중4해 건축 특징

▶ Alvaro Siza의 포르투갈 Oporto 건축 스튜디오 건물



세계화와 지역적 특수성 사이의 갈등은 Siza의 작품과 작업방식에 오랜동안 나타나는 주제이다.

그는 Oporto 주변의 변화하고 있는 교통, 통신 하부구조 내에 그의 스튜디오를 위한 사이트를 설정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주요한 도시적 위치에서 새로운 건물은 도시성을 드러내려고 하며, Oporto지역 랜스케이프의 도시적, 산업적 패턴의 결합을 조장한다. 이 건물의 특징은 비결정형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과도기의 랜스케이프와 솔직하게 대응하는 어색한 비례에 있다.

그 외에 ▶ Ada Karmi-Melamede의 예루살렘 대법원 ▶ Zvi Hecker의 텔아비브 역사박물관 ▶ Stefano Boeri의 Naples 항, 보행자 지구 기본계획, ▶ Alvaro Siza와 Roberto Collova의 시실리, 성모교회 재건과 Alicia광장 복원이 다루어져 있다.

### ■ Nadim Karam의 베이루트, 환경조각물



Nadim Karam은 세네갈 출신으로 레바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활동하였는데, 그 기간중 마키 후미히코와 다카마츠 신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에서 그의 개념이 성숙해진 후 레바논으로 돌아와 다시 작업을 하고있는데, 그의 아이디어는 명확하며, Urban Art의 언어체계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그가 벌이는 건축적인 퍼포먼스는 현존의 은유를 가능케 하도록, Sign-object를 사이트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는 재능있는 이야기꾼으로서, 중동의 전설로부터 영감을 얻어 '고전의 행렬 (archaic procession)'을 이끌어나간다. 그것은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개념이 무시된 은유이다.

금속 실루엣의 동물과 사람 형상의 행렬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도시 사이트에 세워지는데, 1995년 베이루트 국립미술관에 설치된 이 작품은 내전기간 동안 동서 베이루트의 경계가 되었다.

### ■ Olivetti사 - 이태리 유토피아의 산실

타자기 생산을 시작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90년의 세월을 겪으며 예술과 사회라는 지적 세계와 긴밀히 결부된 정치적, 문화적 유기체의 전형으로 자리잡았으며, 사고의 표현만이 회사의 원동력이 될 줄 모토로 삼고 있다.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생산된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디자인과 그것에 담긴 디자

인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 기타

▶ 인류학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시각적인 창조성을 강조하는 디자이너 Alessandro Mendini와의 인터뷰와 작품소개 ▶ 터키와 그리스의 산업디자인 ▶ Claudio Lazzarini의 오토 디자인 ▶ 모우스 창간 70주년 기념 이벤트로 열린 Robert Wilson의 퍼포먼스 "파사드 위의 70 천사" 지상중계 등이 소개되어 있다.

World Architecture

1999년 5월호

이번호는 기존 건물에 완전히 대비되는 타원형태로 독립되어서 있는 Kisho Kurokawa의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 증축이 소개되었으며, 건물유형 연구로서 카지노 건축 현황과 사례들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Kisho Kurokawa의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



Gerrit Rietveld가 설계했던 이 미술관은 쿠로카와에 의해 새로운 건물이 부가되어 6월에 재개관하게 된다. 덴마크 조경건축가인 Sven-Ingvar Andersson이 마스터플랜을 담당하였는데, 건물이 부가되면서 지하에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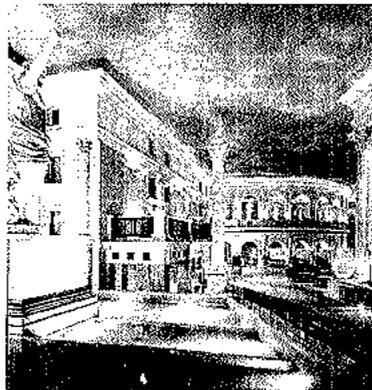
을 두었으며, 전체 건물의 시선축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원형이던 건물이 타원형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건물과는 선긋된 지하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로이 독립되어있는 볼륨을 가진다.

기존건물의 에스컬레이터가 지하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올라서면 타원형의 볼륨이 눈에 들어온다. 또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선은 점차 보이드로 향하며 다시 연못으로 옮겨간다.

말뚝되고 강한 인상은 타원형의 형태 뿐 아니라 마감재의 선택에 기인하는데, 내부에 들어서면 보다 완화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회색빛 알루미늄 마감의 Picture Cabinet은 기존건물방향으로 캔틸레버에 의해 매달려 있는데, 비밀스런 내부공간을 지닌 이 박스는 전시 동선의 마지막 지점이 되어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다.

■ 건물유형 분석 - 카지노



아틀랜틱 시티의 Caesar 카지노

미국 호텔 카지노의 새로운 세대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레저와 오락산업 디자인 경력을 가진 건축가들이 이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디자인 사례와 유럽의 규제되고 양식적으로 절제된 카지노, 그리고 비디오와 음향설비를 갖춘 미래형의 디지털화된 일본 카지노 등이 소개되었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는 테마에 의해 디자인되는데,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이 단순한 도박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시설들, 즉 음식점, 쇼핑물, 오락 시설 등에 이끌리게 된다.

▶ 로마를 테마로 정한 아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Caesar는 단순히 카드보드를 잘

라 만든 로마광장의 모사가 아니라 거대한 콜로네이드를 부가한 삼차원적인 셋팅을 자랑하며, 보다 사실적인 무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디자인 되었다.

▶ 런던의 Ladbrokes Sporting 카지노는 모던하고 단순한 디자인에 풍부한 색채의 사용으로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주도도록 디자인되었다. 방음벽을 부어 런던시의 소음을 차단하였으며, 창이 없는 몇 개의 방들은 도박인을 위한 타임캡슐과 같이 시간개념에 관계없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일본 긴자 거리에 있는 Brisbin Brook Beynon Architects가 설계한 카지노는 각 좌석마다 작은 화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위층의 극장에서 상연되는 각종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좌석의 사람들은 원하는 카메라의 앵글과 화면 확대, 축소 등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기타

▶ 최근에 건축붐이 일고있는 Cuba의 건축환경, ▶ 텍사스 건축을 소개하였다.

建築文化

1999년 5월

이번 호는 「모더니즘 33인」이라는 특집을 다루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되는 근대 건축가 33인을 시작으로



로 근대건축에 영향을 끼친 여러 분야의 인물들을 통해 근대건축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 보는 특집을 마련하고 있다. 33인에 대한 소개는 18명의 논자(論者)가 평을 싣고 있다.

## ■ 특집 / 모더니즘의 33인: 모더니스트 제1편-해외편

### ▶ 인물들을 통해본 모더니즘

인류가 여태껏 겪어 보지 못했던 격동의 20세기를 뒤돌아보며 다시 읽는 작업이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건축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20세기 최대의 운동이었던 모더니즘을 되돌아보는 특집이 마련되었다.

이 특집에서는 모더니즘을 인물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고자 하고 있다.

당연 가장 먼저 소개되어야 할 사람들은 건축가가 되겠는데, 교과서 등에서 흔히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거장들 뿐만 아니라, 거장들에 비해 그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모더니즘의 전개에 나름대로 비중있는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망라하였다는 점이 이번 특집의 기획의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거장 중심으로 해석되어져 왔던 모더니즘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보통의 통사에서 무시되거나 간략히 소개되어져 왔던, 모더니즘과 병행하여 나타나 서로 '共振'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이나, 건축에 영향을 끼친 타 분야의 사람들-도시 계획이나 평론을 맡았던 사람이나 미술, 사상 등의 분야에 속한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모더니즘을 보는 편파적인 시각을 벗어난 해석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특집은 모더니즘 시대의 인물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각 논자들은 그들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들을 글로써 나타냈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견지해 볼 수 있는 기획으로 기대된다.

### ▶ 모더니즘의 33인

이번 호에서 소개된 근대 건축가 33인은 오토 바그너, 루돌프 슈타이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찰스 레니 매킨토쉬, 피터 베렌스, 아돌프 로스, 피에 몬드리안, 오귀스트 페레, 아일린 그레이, 테오 반 두즈부르그, 군나 아스프룬트, 루드비히

힐버자이머, 미스 반 데로에, 루돌프 쉰들러, 르 꼬르뷔제, 게릿 리트펠트, 루드비히 뮈트겐슈타인, 하네스 마이어, 엘리시츠키, 프레들릭 키슬러, 콘그란틴 메르니코프, 리처드 노이트라, 지그프리드 기디온, 라스코 모홀리-나기, 벡민스트 풀러, 알바 알토, 마아트 스웬, 카렐 타이거, 장 푸르베, 아달베르트 리베라, 쥬세페 페라니, 오스카 니마이어, 조셉 릭워트이다.

### ▶ 33인에 속한 건축가들의 대표작 13選

이번 특집에 소개된 건축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서 13개의 작품을 선별하여 컬러 확보로 소개하였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아, 알바 알토의 마이레아 저택 등 거장의 잘 알려진 작품들과 피터 베렌스의 AEG 터빈 공장, 루돌프 쉰들러의 로베르 비치 하우스, 아달베르트 리베라의 EUR회의장 등 컬러로 접하기 힘든 작품들의 확보가 소개되었다.

## a + u

1999년 5월

이번 호에서는 「뉴욕, 일렉트릭 시티(New York, Electric City)」라는 제목의 특집을 마련하였다.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가 넘쳐나는 도시, 뉴욕. 이 도시를 활기차게 하는 원동력이 전기에 의한 것이라는 착안 하에 전자매체를 통해 작업하고, 이 매체를 건축에 반영한 뉴욕에 세워진 작품들을 특집으로 엮었다. Joan Ockman의 서설과 함께 6명의 작가와 그룹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 ■ 특집 - 뉴욕, 일렉트릭 시티(New York, Electric City)

### ▶ 전기에 의해 활력을 얻는 도시 뉴욕

뉴욕의 공기에는 전기가 넘쳐난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활기를 띠고, 고압 전류에 의해 뉴욕커들은 움직여지고 있는 듯 하다.

인기있는 실험장으로서, 뉴욕은 몇 개의 조류를 탄생시켰다. Folding이나 페이퍼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건축을 여기저기에 내 놓으면서 말이다.

'Ceci tuera cela',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제까지의 것은 필요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어치인 것처럼 종이는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었고, 영상에 의해서, 순수히 전기에 의해 생성되는 프로세스에 건축은 존재하고 있다.

카드보드의 퇴거, 그리고 육체와 단어 사이의 분열, 전자혁명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인쇄물, 논설, 추측들의 홍수.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튜디오에 틀어박혀서 그들의 스크린을 감시하고 있는 뉴욕의 건축가들은 육체와 단어를 맺어주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 작가들의 활동

이들의 작품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개별 건물, 도시계획, 퍼포먼스와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내용과 수법 또한 전자매체에 의해 움직여지는 증권시장의 설계에서부터 전자매체를 통한 퍼포먼스, 전자 정보시대의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 전자매체를 통한 프리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일렉트릭 시티 뉴욕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건축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 ▶ 소개된 작가들과 작품

소개된 작가와 작품으로는 카와쿠보 레이 /가와사키 타카오의 Future System, Studio Morsa의 Comme des Garçons in Chelsea, Asymptote: Rashid+Couture의 New York Stock Exchange Trading Floor Operations 와 Center/3DTEV, Graz의 Music Theater, Diller + Scofidio의 Jet Leg(약 90분간의 퍼포먼스, 2막, 막간

없음), Jump Cuts(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시네 플렉스의 선전 비디오), Travelogues(JFK공항 국제선도착로비 Sterile Corridor의 퍼블릭 아트), Archi-Tectonics의 Wooster St. Loft, Millbrook의 주택, Maashaven의 타워들, Gear Magazine의 사무실, RUR Architecture: Reiser+우메모트의 East River Waterfront, Graz의 Music Theater, Beyer Blinder Belle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개수계획 등이다.

### ■ 리포트와 연재물

이번 호에는 상디갈 50주년기념 리포트 2편이 소개되었다. 그 첫 번째는 윌리엄 커티스의 글 「르 꼬르뷔제의 상디갈-우주적 정치적 경관으로서의 수도」이며, 두 번째는 작디쉬 사가의 「상디갈: 찬성인가 반대인가」이다. 연재물로는 「건축과 컴퓨터 사이언스」와 「시대의 시점 제4회-温故知新」이 게재되었다.

## 新建築

1999년 5월

이번 호의 최신작 소개에서는 마키 후미히코의 '힐사이드 웨스트',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 일요학교', 하라 히로시와 아틀리에 파이의 '타카키 의원', 이소자키 아라타의 '아키오시다이 국제예술촌 카쿠다케 키오노리의 昭和館', 니켈 설계의 4개 그룹이 공동 작업한 '하카다 Riverain' 등의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연재물로는 「소재로 보는 90년대의 공간과 표현 제 2회-영상화하는 유리소재」가 게재되었다.



### ■ 작품

▶ 힐사이드 웨스트 (설계: 마키 후미히코)  
'힐사이드 웨스트'는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점포, 사무소, 공동주택 등을 한데 구성한 도시형 복합건물이다.

대지는 5.5m의 레벨차이가 나는 나란한 두 도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주택가를 면한 도로쪽의 필지와 상업시설을 면한 도로쪽의 필지가 서로 모서리에서 연결된 형태이다.

따라서 건물은 3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상업시설이 들어선 쪽에 레스토랑 카페 사무소 등이 들어선 A동, 주택가가 면한 쪽에는 공동주택인 C동, 그리고 그 사이에 정육점 갤러리 사무소 등으로 이루어진 B동이 각각 위치하였다.

이 3개의 동은 5.5m의 레벨차이에 의해 조금씩 다른 높이의 대지에 위치하면서 연결되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레벨차이를 완충시키며 나란한 두 도로를 연결하는 외부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택가를 면한 C동의 경우는 건물의 높이를 낮추어 주변 건물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 빛의 교회 일요학교 (설계: 타다오 안도)  
빛의 교회 일요학교는 기존에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빛의 교회에 일요학교(주일학교)를 증축한 것이다.

규모와 외관은 기존의 교회건물과 거의 유사하다.

콘크리트의 상자에 끼여진 벽이 철가된 형태의 주제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나 내부에 들어서면 사뭇 다른 인상을 받게 된다.

빛에 의한 연출은 유사하나, 예배당과 달리 주일학교라는 것은 주택과 같이 생활의 공간과 유사한 것이라는 개념이 묻어나고 있다.

▶ 아키오시다이 국제예술촌 (설계: 이소자키 아라타)

산지의 계곡에 위치한 여 예술촌은 숙박 시설과 식당을 갖춘 식당동, 공연시설을 갖춘 본관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실내 연주 홀과 야외 홀을 각각 1

개씩 갖추고 있으며, 숙박동은 계곡의 경사를 따라 단이 진 연못 위에 2층 높이의 숙박용 유니트들이 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관의 야외무대의 후면에도 건물에 의해 둘러싸인 연못이 있어 이곳이 본래 계곡이었다는 흔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숙박동과 본관의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이 되고 있다.

▶ 하카다 Riverain (니켈 설계의 4개 그룹이 공동작업)

하카다 Riverain은 3개의 사이트로 구성되는 재개발 지역 계획의 총칭이다. 이 재개발 지구는 과거 상권의 중심이었으나 쇠락하여 30년 전에 재개발을 추진한 곳이다.

재개발 지구는 하천과 면한 워터 프론트인 '리버 사이트', 이에 인접한 '호텔 사이트' 그리고 리버 사이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면한 웨스트 사이트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역은 추진자와 설계자가 모두 다르나 이들의 재개발 코디네이터로 사 당국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제3섹터'라는 조직이 마련되어 상호 보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다.

리버사이트에는 미술관과 상업시설, 호텔사이트에는 호텔이, 그리고 웨스트사이트에는 공연시설이 들어섰다.

통계 statistics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4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4월분(98.4) 4백3십4만7천7백87㎡ 보다 47.9%(2백8만2천2백80㎡) 증가한 6백4십3만67㎡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4월 누계분 2천2백5십3만3백48㎡ 보다 32.3%(7백2십6만8천6백90㎡) 감소한 1천5백2십6만1천6백58㎡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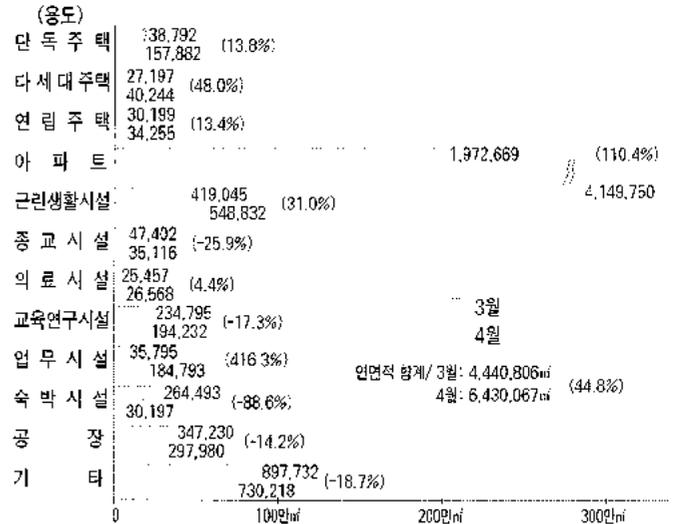
다. 전월비

전월 3월분(99.3) 4백4십4만8백6㎡ 보다 44.8%(1백9십8만9천2백61㎡) 증가한 6백4십3만67㎡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994,605	4,273,055	2,278,450 114.2
	부산	122,688	236,075	113,387 92.4
	대구	75,312	101,787	26,475 35.2
	울산	13,455	56,817	43,362 322.3
	경기	641,497	907,196	265,699 41.4
감소지역	인천	322,059	146,468	(175,591) -54.5
	광주	46,886	30,186	(16,700) -35.6
	대전	70,008	56,096	(13,912) -19.9
	강원	202,427	68,610	(133,817) -66.1
	충북	235,687	70,010	(165,657) -70.3
	충남	126,105	90,961	(35,144) -27.9
	전북	41,555	29,487	(12,088) -29.1
	전남	124,741	69,060	(55,681) -44.6
	경북	99,836	98,970	(866) -0.9
	경남	186,453	152,454	(33,999) -18.2
	제주	44,493	42,855	(1,638) -3.7
합계	4,347,787	6,430,067	2,082,280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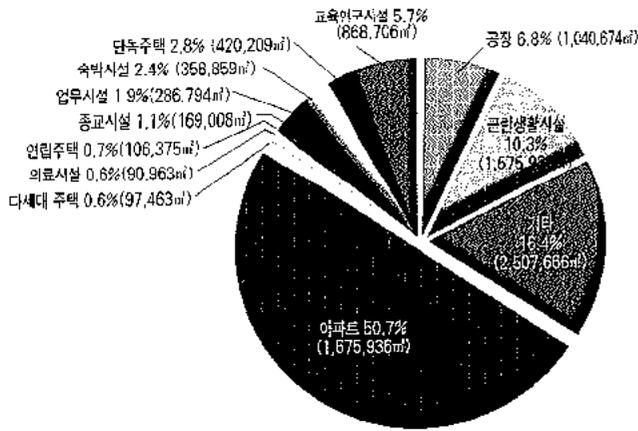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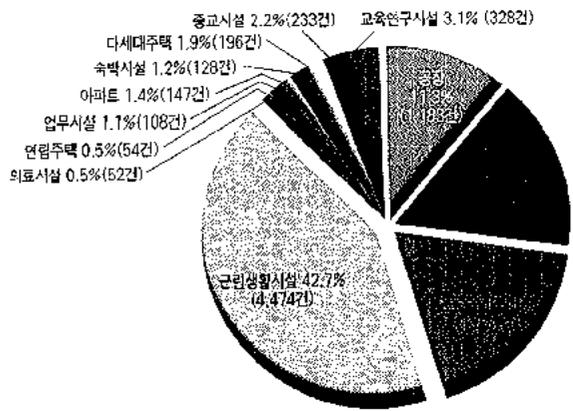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575	582	139,911	684	726	157,882	109	144	17,971	12.8	
다세대주택	109	123	113,021	80	84	40,244	(29)	(39)	(72,777)	-64.4	
연립주택	41	49	106,342	16	23	34,255	(25)	(26)	(72,087)	-67.8	
아파트	65	181	1,739,045	61	188	4,149,750	(4)	7	2,410,705	138.6	
근린생활시설	1,100	1,123	417,226	1,520	1,586	548,832	420	463	131,606	31.5	
종교시설	83	91	62,735	59	62	35,116	(24)	(29)	(27,619)	-44.0	
의료시설	8	8	74,163	15	15	26,568	7	7	(47,595)	-64.2	
교육연구시설	124	128	379,943	88	100	194,232	(36)	(28)	(185,711)	-48.9	
업무시설	44	44	182,845	38	39	184,793	(6)	(5)	1,948	1.1	
숙박시설	45	48	26,536	41	43	30,197	(4)	(5)	3,661	13.8	
공장	271	637	269,332	377	454	297,980	106	(183)	28,648	10.6	
기타	548	614	836,688	523	639	730,218	(25)	25	(106,470)	-12.7	
합계	3,013	3,628	4,347,787	3,502	3,959	6,430,067	489	331	2,082,280	47.9	(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4월 누계)



연면적 (총 15,261,658m)



건수 (총 10,473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618	626	1,994,605	437	438	4,273,055	(181)	(188)	2,278,450	114.2	
부산	104	425	122,688	215	283	236,075	111	(142)	113,387	92.4	
대구	117	117	75,312	171	171	101,787	54	54	26,475	35.2	
인천	152	152	322,059	144	144	146,468	(8)	(8)	(175,591)	-54.5	
광주	125	159	46,886	75	86	30,186	(50)	(73)	(16,700)	-35.6	
대전	84	84	70,008	133	133	56,096	49	49	(13,912)	-19.9	
울산	33	33	13,455	145	145	56,817	112	112	43,362	322.3	
경기	537	618	641,497	741	960	907,196	204	342	265,699	41.4	
강원	219	251	202,427	185	193	68,610	(34)	(58)	(133,817)	-66.1	
충북	220	260	235,667	215	241	70,010	(5)	(19)	(165,657)	-70.3	
충남	220	191	126,105	188	188	90,961	(32)	(3)	(35,144)	-27.9	
전북	78	78	41,555	73	76	29,467	(5)	(2)	(12,088)	-29.1	
전남	102	129	124,741	170	179	69,060	68	50	(55,681)	-44.6	
경북	158	179	99,836	216	248	98,970	58	69	(866)	-0.9	
경남	170	246	186,453	288	341	152,454	118	95	(33,999)	-18.2	
제주	76	80	44,493	106	133	42,855	30	53	(1,638)	-3.7	
합계	3,013	3,628	4,347,787	3,502	3,959	6,430,067	489	331	2,082,280	47.9	(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4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706	2,734	12,267,142	1,193	1,197	8,524,714	(1,513)	(1,537)	(3,742,428)	-30.5	
부산	800	1,542	1,360,491	419	594	418,943	(381)	(948)	(941,548)	-69.2	
대구	325	325	273,013	452	452	329,597	127	127	56,584	20.7	
인천	613	621	832,783	352	371	889,434	(261)	(250)	56,651	6.8	
광주	419	526	310,339	431	506	275,352	12	(20)	(34,987)	-11.3	
대전	411	411	428,896	299	299	141,211	(112)	(112)	(287,685)	-67.1	
울산	187	191	127,730	351	355	172,643	164	164	44,913	35.2	
경기	3,806	4,336	2,969,762	2,295	2,836	2,095,788	(1,511)	(1,500)	(873,974)	-29.4	
강원	827	935	563,034	564	601	216,391	(263)	(334)	(346,643)	-61.6	
충북	784	962	926,710	693	781	259,554	(91)	(181)	(667,156)	-72.0	
충남	681	594	414,855	587	587	288,990	(94)	(7)	(125,865)	-30.3	
전북	301	301	278,003	354	361	186,288	53	60	(91,715)	-33.0	
전남	419	467	270,142	605	625	256,588	186	158	(13,554)	-5.0	
경북	765	863	473,860	695	821	561,788	(70)	(42)	(87,928)	18.6	
경남	1,001	1,255	930,759	879	1,020	547,413	(122)	(235)	(383,346)	-41.2	
제주	243	274	102,829	304	345	96,964	61	71	(5,865)	-5.7	
합계	14,288	16,337	22,530,348	10,473	11,751	15,261,658	(3,815)	(4,586)	(7,268,690)	-32.3	( )=미아너스

## EBS직업의세계 - 「건축사」편 비디오테입 제작 보급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 담아

우리협회 청년건축사위원회(위원장 최영집)에서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건축사」라는 전문직의 세계를 이해시켜 주기 위하여 EBS와 함께 「직업의 세계- 건축사」편을 기획, 제작하였다. 지난 5월 15, 16일 양일간에 약40분 동안 방영된 바 있어 「건축사」가 건축문화의 주역임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건축의 중요성과 건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비디오테입 구입을 원하는 분은 청년건축사위원회(홍무 윤재현, 02-579-4876)로 연락하면 된다. 가격은 우송료포함 1만 5천원.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동창회

6월 19일 수원캠퍼스

제목: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용부교수 정년퇴임 및 출판기념 및 기념행사  
일시: 1999년 6월 19일(토) 오후 4시  
장소: 성균관대학 자연과학캠퍼스(수원) 학생회관  
주관: 성균관대학 건축공학과 총동창회  
문의: 홍보위원 김광만(0342-781-1462)/윤요현(02-3429-6352)

## “통일의 문 광장” 계획 설계 현상공모

### ● 취지 및 내용

1) 취지: '99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강원지역추진위원회에서는 “통일의 문 광장” 건립 계획 설계를 현상 공모합니다.

### 2) 내용

가. 명칭: 통일의 문 광장(통일의 문, 만남의 광장, 기념관 등)

나. 위치: ① 강원도의 휴전선 부근에 남북 교류를 위한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장소

②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③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개발이 가능한 장소

④ 기념비적인 통일의 문과 광장 건축물이 원거리에서도 잘 조망될 수 있는 평활한 장소를 작가 임의로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함

다. 대지 및 건축규모: 임의

※자세한 내용은 공모 지침서 참조(공모내용 설명서 배부)

###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음

### ● 공모절차

1) 응모 신청서교부: 직접 내교 또는 강원대학교 공대 건축·조경학부 건축학전공 홈페이지 자료실 망식 이용, 홈페이지 <http://www.kangwon.ac.kr/~arch/wowboard/board.cgi>

2) 응모 등록: '99년 6월 16일 ~ 6월 18일(17:00)

- 직접 내교 또는 등기우편 접수(당일 소인까지 유효)

※등록확인은 홈페이지 자료실의 게시물을 이용

3) 공모내용 설명 일시 - 장소: '99년 6월 29일 13:00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계단강의실 (공1호관)

4) 응모작품 접수: '99년 10월 13일~15일(금) 각일 17:00까지 (응모 등록자에 한함)

5) 심사 및 당선자 발표: '99년 11월중 개별통지

### 6) 시상

상 별	작 품 수	시 상 내 용	비 고
당선작	1	2,000만원 및 상패	
우수작	2	300만원 및 상패	
가 작	5	50만원 및 상패	

### 7) 응모작품 처리

응모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소유권은 '99건축문화의 해 강원지역추진위원회에 있음

### ● 문의처 / tel: (0361)250-6212, 6213

강원도 춘천시 호차 2동 1920-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조경학부)

「99건축문화의 해 강원지역추진위원회」

1999년 6월 7일

'99건축문화의 해 강원지역추진위원장

## 직원모집

### 예일공방건축

- 중대형 건축물 계획 능력소지자
- 경력7년이상 팀장급 직원 특채(건축사 자격증소지자 우대)
- 1차- 자필이력서, 2차- 면접
- 팩스 및 우편접수 가능
-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72-92호 은주빌딩 3층
- 전화 02-439-7779 팩스02-439-5556

지난호(9905) "전사리뷰2-달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한 문의는 주최한 월간 이상건축(02-649-5383)으로.

## 건축소장자료를 수집합니다.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조직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고대, 근대, 현대 건축과 관련된 건축소장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 수집자료 종류

- 건축물관련자료 - 사진(공사, 배경), 모형, 도면(스케치, 원도, 청사진) 등
- 건축가관련자료 - 사진, 이력, 노트(메모), 각종기록, 책자, 소장품, 기타자료
- 기타자료 - 건축공구, 도구, 신문, 엽서, 주화, 메달, 잡지, 운서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자료

### ■ 보상

소장한 자료를 알려주시면 조직위원회의 평가절차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문의

Tel 762-8090~1, Fax 762-8093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17(예총회관501)

1999. 5.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